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2008년 9월 27일 인쇄

2008년 10월 6일 발행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발행인 | 권영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외교센터 6층)

전화 | (02)3463-6500

팩스 | (02)3463-2555

<http://www.korean.net>

제작 | 소통(02-895-3080)

비매품

본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본 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나 전제를 금합니다.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러운 한민족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한민족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 재단은 날로 늘어나는 동포들이 거주국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국내외 한민족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은 교육, 문화, 경제, 교류를 위한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Tel : 82-2-3463-6500 <http://www.korean.net>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재외동포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의 마당이며,

한민족 공동체의 꿈을 마음껏 펼칠 문학의 한마당입니다.

발간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시작과 끝맺음을 돕으로써 지난번보다 나은 결실을 추구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가합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매년 좀 더 나은 문학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 세계 7백만 재외동포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삶의 진중함을 담아낸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10회째 내 놓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재외동포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땀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예창작 활동으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재외동포들의 일상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모국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국내의 동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논픽션 분야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를 간접

적으로 체험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동포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의 창’에는 비록 다른 언어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이지만 모국에 대한 사랑과 향수가 배어 있습니다. 작품 한 편 한 편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은 그만큼 이국에서의 삶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 그 고난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글 속에 투영되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어떤 문학서보다 의미 있고 값진 작품집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을 통하여 타국에서 경험한 우리 동포들의 다양한 삶에 녹아 있는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내외동포 간의 문학세계와 민족정서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뜻 깊은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좋은 글로 응모해 주신 재외동포 문학인 여러분과 무더운 여름 내내 공정한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를 거듭하며 관심과 성원이 증대되고 있는 ‘재외동포 문학상’이 동포사회에서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 작지만 뜻 깊은 역할을 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좋은 글들이 입상권에서 제외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내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응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는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의 창’이 깊어가는 가을, 내외동포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권 영 건



차례

- 재 외 동 포 문 학 의 창

발간사 | 7

심사평 | 13



대상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 | 김해영 | 중국 · 17

우수상

한에 얹힌 노래 | 김인덕 | 중국 · 75

뼈꼭새 울지 않는 마을 | 주경노 | 미국 · 149



가작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 | 강효삼 | 중국 · 227

민들레 인생 | 박룡일 | 중국 · 281

영원한 이방인 | 박순평 | 독일 · 357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 박춘섭 | 중국 · 463

호주 이민의 삶 | 양상수 | 호주 · 533

수상소감 | 585

심사평

국내에서 국내로의 이주를 해도 낯선 고장에 당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힘든 법인데 국내를 떠나 해외로의 이주를 ‘감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눈물겹다는 상투적인 감상보다는 마치 삶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한쪽 양상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고단한 이주의 노정에서도 문득문득 선물처럼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과 그 순간들이 주는 감성들이 있기에, 또 외형적 고단함을 견디고 극복해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해외동포수기 공모에 보내온 이야기들을 읽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그 ‘이주인생’의 고단함에 ‘진저리’를 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꼈을 ‘제 나고 자란 땅을 떠난 사람’의 애수 같은 것이 손에 잡힐 듯 가슴을 아련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련한 감상이란 어쩌면 해외동포 수기 심사를 하면서 맛볼 수 있는 각별한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수기라는 특성상, 특별히 문학적 완성도를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인생에 대한 지나친 연민, 자기 과시적 면모가 엿보이는 글들은 내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심사기준을 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얼마나 진솔한가, 혹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따위가 그나마 심사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참여가 고무적이었습니다. 수기라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자기 회고적일 수밖에 없지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역동성은 수기가 단순히 자기 회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밝혀주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호주 이민의 삶’과 ‘영원한 이방인’은 가장 익숙하지만 또 가장 진솔할 수 있는 해외동포 수기 공모의 한 전형이라 할 만 합니다. 중동건설 현장으로 간 수많은 건설일꾼들의 역사, 파독광부의 역사가 그 속에는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와 ‘민들레 인생’은 재 중동포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한에 얹힌 노래’ 또한 한 동포 소리꾼의 삶의 궤적일 뿐 아니라 한국국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해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뽕꾸새 울지 않는 마을’은 ‘자기 하는 일’의 세밀한 묘사가 압권이라 할만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이름으로’와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은 중국에 사는 동포 젊은이들의 일상을 적은 글입니다. 특히,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은 단 5일간의 체험을 통해 중국에 사는 동포들의 삶과 역사를 그토록 비범하게, 그토록 애정 어리게 고찰하는 젊은 시선이 예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을 대상작으로 선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오정희, 최인석, 공선옥〉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대상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

김해영 | 중국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

대상 | 김해영

중국 조선족 사회는 타국에서 사는 일개 소수 민족사회인 만큼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뭐 그렇거니 하고 살아왔고 거기에 대해 별달리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대학입시 채점은 나로 하여금 중국 조선족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였다.

한 장 한 장의 입시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느낀 민족의 이주와 정착과 그 속에서 살면서 겪은 기쁨과 슬픔, 쓰고 단맛을 체험하는 우리 민족,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민족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중히 여기는 민족의 전통을 지켜온 우리 민족, 이주 사회의 타민족과 경쟁하면서도 민족의 얼과 넋을 고수하여 온 우리 민족, 이 월경의 민족은 중국 이주민 사회에서 진정 힘겹게 버텨왔다. 백여 년의 타향살이에 타향이 아니라 고향이 되어버린, 세대가 바뀌어도 여러 세대가 바뀌었을 터 그런데도 뭐가 그리 서러운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지고 민족의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부쩍 커지는 조선족 사회의 문제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조선족 사회의 현실들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후배들의 정성과 땀과 희망의 열매가 담겨진 이 한 장 한 장의 시험 답안지를 보면서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 우리 민족에 대한 나만의 견해와 느낌을 적으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5일간의 체점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색다르고 쓰고 단 긴 여행을 하게했다.

그럼 이제부터 5일간의 체험을 독자들께 소개해 드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 자신의 보고 듣고 느낀 소감들을 쓰도록 하겠다.

첫날 묘한 느낌

2007년 6월 나는 석사졸업 논문심사를 마치고 한 달만 있으면 졸업 예정인 대학원생이었다. 이제는 석사논문도 다 통과되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지라 나는 외국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퇴근하려던 참인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밀도 끝도 없이 나더러 장춘에 있는 동북사범대학에 대학입시 체점을 가라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나는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 선생님은 전부터 안면이 있는 분이였다. 논문 심사 통과하던 날 축하 파티에서 얼굴을 뵈 적이 있었다. 주의사항을 듣고 학교를 나오는데 지인 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내가 채점을 가게 된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자기도 여러 번 채점을 다녀왔었는데 채점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민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면서 중국에서는 민족의 대결이 심하기에 잘하는 애일수록 점수를 잘 고려해서 한껏 주어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었다. 난 시간이 없었기에 일단 간단한 인사 뒤에 곧장 나와서 짐정리를 하고 기차역으로 가서 같이 가는 일행을 만나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는 내 몸은 이미 땀별창이 되어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그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의 4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볼 겨를이 있었다. 학원에서 학교로 부랴부랴, 학교에서 집으로 부랴부랴, 짐정리 부랴부랴, 대충 식사하고 기차역으로 부랴부랴 참 뒤꽂무니에 붙이 난 것 같이 뛰어다녔다. 채점? 참 생각지도 못한 회사인 것 같았다. 별로 큰 벼슬을 하러 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가서 5일 동안 갇혀서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면서 얼굴과 마음이 좀 굳어졌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다. 왜 민족을 생각하고 또 왜 답안을 잘 쓴 애들을 각별히 신경 쓰라고 했지? 그래 혹시 조선족 애들이 타민족 애들에게 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걸지도 몰라. 요즘은 한족 애들이 공부 아니 시험공부를 너무 잘 해서 조선족 애들이 어지간히 해서는 개네들을 이기기 어렵긴 하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공부하는 애들을, 조선족도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 때문에 똑같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에서만 보아도 한족 애들한테 한풀 꺾이는 셈이다. 그런데 조선족

애들한테는 이런 조선족이 채점을 한다는 특권이 있다. 아무튼 난 이런 저런 묘한 기분에 잡혀 있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지라 이내 골아 떨어졌고 기차는 온 밤을 달려 새벽에 서서히 장춘 지역에 들어섰다.

6월의 아침 공기는 그래도 청신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냉수처럼 시원하였다. 새벽 5시에 깨어나 세수를 하고 나니까 내가 몸이 장춘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마치 내가 시험 보러 온 것 같이 마음이 설레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지난번 갔다 온 사람들한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막을 듣기라도 했으면 어떻다는 것을 알 텐데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 막막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채점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대학 채점 인원의 비밀 보장이 잘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다.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아니면 천당으로 가는지 채점을 가는지 막 헷갈릴 지경이다.

내가 이런 저런 잡생각을 하는데 열차는 장춘 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내려서 동북사범대학교를 달리는 전용 버스에 몸을 실었다. 지금껏 처음 동북사범대학교에 가는데 캠퍼스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웠다. 전국 각지의 대학교 교사들을 여기서 양성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부럽고 또 존경스러워졌다. 우리가 묵어야 할 곳은 유학생 회관이었다. 의외로 일인 일실이었고 너무 좋았다. 난 들어가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감금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도 조용히 내 곁에 있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

팀장님이 오후에 채점에 대해 회의를 하니까 한 시에 회의실에서 모

이라는 것이다. 그 뒤로 난 온 오전을 잠생각으로 보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난 조선족 애들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대학입시 채점을 위해 왔다. 나는 곧 5천여 명의 조선족 애들의 시험지를 맞이할 것이다. 참 그 순간의 심정과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뭐랄까 뿌듯함, 민족적 긍지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분은 참으로 이렇다 말할 수 없이 묘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히 내가 대학입학 시험 볼 때가 생각났다.

나는 연변 여덟 현 중에서도 조선족이 제일 적고 또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을 뿐더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인 돈화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연변 여덟 현 중 다른 도시에는 조선족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돈화에서 만큼은 조선족의 적음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그나마 애들이 많아 초등은 한 학년에 5~6학급, 중학교는 3~4학급으로 되어 있지만 고등부는 문과와 이과 두 학급뿐이며 그것도 돈화시의 애들과 기타 7개 도시에서 모여온 애들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 학급에 35명 좌·우 두 학급을 합쳐서 도합 70명이 고작이다. 사실 학생 내원도 다 애들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연변1중이나 용정2중과 같은 연변에서 유명한 중점고등학교에 지망했는데 못 붙었거나 아니면 진학 시험은 봤는데 아무데도 못 붙었거나 하는 애들이 주로 오는 것이다. 나도 용정2중에 몇 점 차이로 아쉽게 못 붙어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규모도 작고 애들도 적고 또한 교사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쳤다. 사실 돈화는 연변에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도시라서 교사들을 남겨 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비교적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 비록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으로 정성을 들여 우리를 가르쳤고 대학입시 전까지도 지극 정성으로 가르쳤다.

나는 문과 반을 다녔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특히나 민족애가 강하신 분이다. 그때 우리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권 마다 한 단원의 조선 문학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고전문학, 시 등등이 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을 대충 적어본다면 “탈출기”, “허생전”, “양반전” 등과 같은 문학 소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진달래꽃” 등과 같은 시도 있었다. 번마다 조선어문 수업시간이 되면 민족적 긍지에 젖어 감개무량해 하시는 선생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나의 내면세계가 민족적 긍지로 풍부해지게 된 것도 역시나 그분, 예순이 되시는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컸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아이들에게 심혈을 쏟으며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대학입시의 전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선생님은 우리더러 내일이 곧 대학입시를 보게 되는 날인데 내일 만큼은 시험장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시험지를 꼭 빈틈없이 채우고 모르면 베껴서라도 쓰라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응시할 것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엄격하시고 평소에 조금도 흐트러짐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선생님 이신데 대학입시를 앞두고 커닝까지 권하시면서 입시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였을까? 그때 우리는 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 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전 돈화시 5백 명의 문과 수험생 중에서 유일한 조선족 학교인 우리 학교 35명의 수험생이 거의

앞자리를 차지하자 선생님의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때 5백 명 중에서 39등을 했던 것이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단지 선생님께서 우리더러 대학에 많이 붙으라고 또 한 전 시의 순위에서 앞자리에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민족의식이 그렇게 강하셨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5백 명 중에서 다만 35명의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나머지 450명의 타민족 애들과의 경쟁에서 나아가 전국 수만의 입시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도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을 사랑하는 담임선생님의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또 한 번 되뇌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나 엄정하시고 정직하시고 또한 빈틈이 없으셨는데 자기 자식과도 같은 민족의 학생들이 타민족과 대결한다고 하니까 내면속의 소박한 그 소망까지 표출하시는 선생님, 아마도 조선어문 선생님이라서 더욱 그러셨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이 간도 땅에서 조선어문이라는 교과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정오가 되었다. 나는 얼른 준비하고 멤버들과 같이 식사하고 회의 장소에 갔다. 회의 장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연변에서 간 우리 채점 팀은 수학 팀, 문과종합 팀, 조선어문 팀으로 조성되었는데 각 팀의 조성 인원 또한 다양하였다. 나는 전공이 역사

니까 문과종합 팀이었고 우리 팀은 연변대학에서 총 9명, 그 중 정치학과 3명, 지리학과 3명, 역사학과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변1중에서 2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연변에서 간 우리 문과종합 팀은 도합 11명이었다. 그런데 채점은 단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사범대학 채점위원회에서 선발한 장춘 각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채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연변에서 간 팀원과 장춘의 팀원이 각각 1명씩 파트너가 되어 연변 팀원이 팀장이 되어 다시 팀을 묶고 같은 문제를 채점하는 것이다. 그 외 수학 팀과 조선어문 팀의 상황은 나는 잘 모른다. 왜냐하면 누가 말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서로 부탁 같은 것을 거래할까봐 거의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있고 또 나 자신도 거기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각 팀이 다 와 있었고 또한 이번 채점을 담당한 총 책임자도 와 계셨다. 총 위원회에서 이번 채점에 대한 결의 및 공정한 채점을 선서한 뒤에 각 채점 팀은 따로따로 장소를 정해 각기 회의를 했다.

우리 팀을 책임진 동북사범대학교 채점위원회 위원께서는 우리한테 채점 모범답안지를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범 답안지는 중국어로 되어 있었다. 문과종합 시험은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로 나뉘어졌는데 객관식 문제는 이미 컴퓨터로 채점이 다 되어 있어 우리는 주관식 문제만 채점을 하면 된다. 주관식 문제의 시험 답안지들은 이미 15개 부분으로 나뉘어 컴퓨터에 스캔되어 저장되어 있고 이제 우리 연변의 11명과 장춘의 11명이 둘씩

파트너가 되어 11팀으로 묶은 뒤 각 소조가 맡을 부분을 택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채점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선 각기 파트너를 찾았다. 나는 동북사범대학 대학원생과 파트너가 되었고 우리는 모범답안지를 보면서 채점 원칙과 요점들을 정하기 시작했다. 비록 총체적인 채점 원칙과 규정은 있지만 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채점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만의 채점 원칙과 요점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받은 모범 답안지는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나름대로의 채점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어야 채점할 때도 애로가 없다. 회의 장소에서 거의 다 정돈이 된 뒤 우리는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채점 장소로 이동했다. 오후에는 시험 채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점장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날마다 출입증을 지참하고 입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채점장은 도서관의 전자 도서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거기는 이미 다른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봉쇄되어 있었다. 채점장은 컴퓨터 몇백 대가 들어 있는 아주 대형의 전자 도서실이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최소 사흘을 컴퓨터 앞에서 채점을 해야 했다. 채점의 과정을 말로는 거의 들었지만 아직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도 신기하고 마음은 참으로 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싱숭생숭하였다.

우리는 각자의 파트너와 옆자리로 컴퓨터 앞에 앉았고 컴퓨터를 켜고 채점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비밀 번호 입력창이 떴다. 그리고 아까 받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학생들의 시험지가 떴다. 시험지는 보기 좋게 확대되어 우리가 채점할 부분만 스캔이 되어 있었고 그 옆

에는 점수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문제의 점수를 쳐 넣고 Enter 건반을 치면 다음 시험지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미 채점한 시험지는 다시 보거나 점수를 고칠 수 없다. 그리고 파트너와 똑같은 부수의 시험지를 매기지만 각 컴퓨터에 저장된 시험지를 모두 뒤섞어 놓아서 두 사람이 채점할 때 뜨는 시험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채점을 할 때 채점 요령을 잘 장악해서 극력 매치를 얻어야만 채점이 원만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점수를 입력하는 공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미 입력된 점수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점수를 줘도 된다.

나와 파트너가 맡은 부분은 역사자료 분석문제의 1.2.3 작은 문제였는데 총 14점이다. 1번 4점이고 2번과 3번이 각각 5점이다. 모범 답안지는 중국어고 애들은 조선어로 답안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모범 답안을 분석하고 채점에 필요한 중심 단어들을 뽑아내야 했다. 그런데 중국어 한 단어가 조선어로 번역을 하면 아주 많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그와 뜻이 비슷한 말을 써도 정확하다고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채점의 난이도가 확 높아졌다. 우리는 일단 모범 답안지에 있는 중심 단어들을 체크해 놓고 그대로 채점을 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험으로 약 20~30부를 채점해 보았더니 모범 답안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요령을 모색하였다. 관건은 우리 손의 답안지는 중국말이고 원본 시험문제지 역시 중국말이며 애들은 조선어로 된 시험문제를 보면서 조선말로 답안을 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럴 때는 중국어로 된 모범 답안지대로 애들 점수를 다 깎아 버리면 애들은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시험으로 채점을 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이러한 전산화 채점도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동 채점을 한다면 한 문치의 시험 답안지를 두루 살펴보고 다시 모범 답안과 대조하면서 채점자의 요령을 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 자신이 현재 채점하는 애의 시험지만 볼 수 있기에 한 100부를 채점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뒤에 서서히 감을 잡기 시작하면 앞에 100부속의 애들은 자연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채점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또한 애들은 조선어로 된 시험문제를 보면서 쓴 답안에는 그 번역본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번역한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가다가 중심 단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자료 분석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식 채점이 아니고 아직은 시험 단계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한가로이 해결책을 찾았다. 나와 파트너는 우선 모범 답안지를 분석하면서 중심 단어를 잘 체크하고 조선어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문 시험 문제 중의 자료를 검토하여 모범 답안의 정확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학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시험지만 놓고 모범 답안대로 막 점수를 매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의 앞날에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의 어깨도 무거웠다. 자칫하다가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 대학갈 애들이 대학 못가고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50부를 시험으로 채점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 감은 잡혔으나 두 사람의 매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한 사람당 50부를 매겼다고

해도 그것은 어쩌면 100명 아이의 시험지를 매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두 컴퓨터에 저장된 시험지의 부수는 똑같지만 순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되어 우리는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었다. 그냥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채점에서 진일보 매치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오후가 다 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다. 시험 단계의 채점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한 책임을 저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감에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였다. 아무튼 참 기분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묘하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 전날 집에서 떠나서 장춘에 도착하여 이 시간까지 불과 하루이지만 난 마치 일주일 열흘이 지난 듯 길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지루해서 길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24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느낌들이 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여 오는 감각인 것 같다.

지금 나는 이미 1년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아무렴 그때 그때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시험 채점을 하는 그날 오후까지도 나의 채점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애들의 운명이 나의 손에 잡혀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다만 내가 우리 조선족 애들의 시험지를 매기고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마음 또한 내가 대학입시라도 본 것처럼 긴장되어 있어 초보 채점자임을 숨김없이 나타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 아이들은 그나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지를 자기 민족의 선배님들께 맡기니까 말이다. 이러

한 때는 민족애와 민족적 자존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다. 아무튼 채점행의 첫날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위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 저녁에는 같이 동행한 선생님들과 장춘의 채점 인원들과의 만찬이 있었고 그 뒤 숙소에 돌아가 아무 생각 없이 푹아 떨어졌다.

이튿날 어려운 채점

타지라서 그런지 아침에 생각 밖에 일찍 깨어났다. 혼자 독실이어서 좋다는 생각도 했고 아직은 내가 채점하러 왔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다. 갑자기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의 부탁이 떠올랐다. 무엇을 암시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에서는 민족의 대결이 심하다. 그게 과연 뭐였을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간 멤버가 이따가 아침 먹기 전에 팀장님실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뭘 말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난 그냥 내가 하던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중국의 일개 소수 민족으로서 타민족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성공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 민족이 합쳐야 한다. 그 선생님도 나에게 이런 것을 내비치려고 한 말씀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잠시 내가 아는 중국의 시험 제도와 채점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보니 각 지역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학입시는 34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

별시에서 대체적으로 통일 시험을 본다. 일부 시범 시험제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특수 경우일 때도 있지만 거의 통일로 된 시험을 보게 되어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입시 제도는 대개 그 대략이며 주로는 동북의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한한 것이다.

시험은 해마다 6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 보게 되어 있고(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000년까지만 해도 조선족은 시험기간이 사흘이었다.) 시험과목은 이과와 문과를 나누어 이과는 수학, 어문, 영어와 화학, 물리, 생물을 합친 종합 시험을 보고, 문과는 수학, 어문, 영어와 역사, 정치, 지리를 합친 종합 시험을 본다. 여기서 수학은 이과와 문과의 시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어를 영어 대신에 일본어나 러시아어를 시험보기도 한다. 총 점수는 750점인데 수학, 어문, 영어가 각각 150점씩이고 종합이 300점이다. 언어가 있고 학교가 있는 각 소수 민족은 한문으로 된 수학, 종합 두 과목은 번역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으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만 해도 어문은 한문과 그 민족 어문으로 두 과목 시험을 본 뒤 그것을 각기 50%씩 봐서 성적으로 했었다. 즉 조선족과 같이 언어가 있고 학교가 있는 소수민족은 어문을 두 과목 봐야 하며 조선족은 한어문과 조선어문을 봐야 했다. 그런데 2002년께부터는 한어를 회시처럼 졸업 시험으로 대체하여 먼저 보고 정식 대학입시 때는 다만 조선어문 시험만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애들도 부담을 적지 않게 덜었고 성적 또한 예전보다 좀 더 향상된 감이 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지원은 각 성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경우를 본다면 길림성에서는 시험 전에 지원을 먼저 하고

흑룡강성에서는 시험을 본 뒤 표준 답안과 대조해 본 자신의 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지금 중국은 한창 교육개혁을 진행하는 때인지라 이 역시 해마다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몇해 째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하면서 최선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매년 4월이면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지남이라는 대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시지원 도우미 책을 출간한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모두 들어있고 각 대학의 근년 상황과 모집 정원, 그 전해 점수표, 그리고 중점대학교와 일반대학교 등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참고할 모든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학교 지원은 한국처럼 여러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고 또 동시에 여러 학교의 합격 또한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동시에 여러 학교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단지 계단식으로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1단계는 주로 각 성의 초생 사무실에서 제일 먼저 심사하는 학교들인데 이를테면 군사학교라든가 사범류 학교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정한 특수한 학교 - 서부개발지역의 학교 혹은 편벽한 지역의 학교들이 포함되어 그 중 세 개 내지 네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제2단계에서는 중점대학교이고 제3단계에서는 보통대학교이며 제4단계는 전문대학 혹은 사립대학들인데 모두 세 곳을 지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각 단계의 학교 역시 동등한 것이 아니고 계단식이다. 이것이 종으로의 순서라면 횡으로도 역시 계단식이다. 그러니까 각 학교를 선택한 뒤 그 학교의 전공 선택 역시 계단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마땅히 각 단계별로 학교와 전공을 쓰되 자기가 제일가고 싶고 또한 실력에 비취 갈수 있는 학교

와 전공부터 차례대로 써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지원 서류가 여러 학교에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서류가 각 학교에 들어갔다 성적이 되면 남고 안 되면 다시 아래 학교로 넘어가고 하다가 성적이 되는 학교에 합격이 되면 다른 학교에 못가고 그 학교에 갈 수 밖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한 학교에 의해서 입학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처럼 각 학교마다 모집요강과 서류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성(省) 초생사무실로부터 통일로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각 학교의 서류와 모집요강 및 점수표는 모두 성 초생판공실로 제출하고 초생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지원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고 각 학교에 다시 배부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지원한다고 해도 각 성의 점수선은 다르다. 그것은 각 성의 대학입시 참가수와 각 대학교들에서 각 성에서 요구하는 학생 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채점 방식을 보면 조선족의 경우 주로 동북에 거주하고 있기에 시험을 본 뒤 각 성마다 한 곳에 집중시켜 채점을 한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서 각기 채점을 했었는데 3년 전 흑룡강 한족들이 갑자기 조선족의 채점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부득이 흑룡강 시험지를 길림성에 가져다 매기게 되면서 동북에는 길림성과 요령성 두 채점 장소가 생겨났고 길림성에서는 길림성 외 흑룡강성, 내몽골 자치구 조선족학교들의 채점을 맡았다. 사실 연변은 조선족 집거구이기 때문에 모든 조선족의 시험지를 다 연변대학에 모아 채점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부정행위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우려 때문에 몇 십 명이 되는 우리 채점 인원들은 번번이 이렇

게 먼 길을 걸어야 했고 또 연변에서 채점을 한다면 한족을 비롯한 타민족이 절대적인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장춘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족이 연변에 비해 딱 적은 흑룡강에서도 한족들의 불만이 심해 길림성에 가져다가 매기는데 하물며 연변에서 채점을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알 노릇이다. 아무튼 이 세 성의 시험지를 장춘에 있는 동북사범대학에 모아 채점하는 것이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옆방 멤버와 함께 팀장님 방에 갔다. 거기서 벌써 멤버들이 다 와 계셨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 이틀간 줄곧 농담으로 우리를 웃기던 팀장님답지 않게 아주 정색한 표정으로 엄숙하고 의미심장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근 년래 우리 조선족들의 성적은 너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채점하러 오면 우리 조선족이 한족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우리는 조선족 수험생들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친절히 부르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또한 선생님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채점할 때 잘 쓴 아이들에게는 점수를 아끼지 말고 주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조선족이 우리의 최강적인 한족과의 대결에서 대학에 더 많이 붙고 길림성 최고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점수를 팍팍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율을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험이 없는 나는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았다. 팀장님의 그 뜻을 알 것 같았다.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관건적 시각에는 뭉치는 것이 민족이 아닌가 싶었다. 전란과 굶주림을 피해 도망하다시

피 해서 이주해 온 조선족이, 중국에서 일개 소수민족으로 어려운 100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조선족이 또 그렇지 아니한가 싶다. 팀장님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캔이 되어 있는 시험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부모님들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 채점을 하는 줄로 알고 부탁을 한 모양이다.

그런데 멤버들의 말을 들어보니 참 특징적인 것이 부탁을 받은 애들의 평소 성적이 다 뛰어날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왜 구태여 이런 부탁을 해야 했을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다민족 국가에서만 표출되는 민족의 자격지심인 것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좋고 혹은 아무학교든 붙으면 된다는 태도인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그들의 적수는 다름 아닌 타민족인 것이다. 이때는 본인이 이러한 부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와 학부모 심지어는 해당 지역에서 더욱 신경을 쓰고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아릇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말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밥을 먹고 정식으로 채점하러 갔다.

채점은 생각보다 꽤 어려웠다. 시범으로 채점할 때는 여유 있게 하니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식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또 5천부를 다 같이 매기면서 거의 같은 시간에 끝나야 하므로 혼자 너무 치질 수도 없거니와 파트너와도 호흡을 맞추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 있는 눈과 두뇌와 손이 매치가 되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봐서 중심단어를 척척 찾아내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암산하여 쳐 넣어야 한다. 처음에는 한 장의 시험지를 매기는데 대략 3~5분 정도 걸렸는데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부지런히 해도 다른 이에 비해 뒤처지는 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척에서 건반 두드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다. 오전 고작 6백 부를 매겼는데 참으로 기계가 따로 없었다.

지금 독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 상상하면서 시범을 해봅시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른 손을 키보드의 오른쪽 숫자판에 놓고 시선은 모니터에 박고 식지와 중지로 점수를 쳐 넣고 Enter를 치면 또 다른 시험답안지에 생각 같아서는 아주 쉬운 것 같아서 “치~”하시는 독자들도 많을 거다. 처음 10분은 신기하고 신선한 멋에 퐁퐁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한 옆자리의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내가 쳐지거나 않을까 걱정도 하면서 오전, 오후를 그렇게 앉아있어 보면 빌려온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 든다. 엉덩이며 다리며 손이며 눈이며 마치 멈춘 것 같고 기계와 로봇이 따로 없다.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난 천부를 매겼어”, “난 천오백 부”하고 하나 둘씩 외칠 때면 괜히 괄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빨리 해야지 하는 조바심에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내가 아마도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이런 때만큼 손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드문 것 같다. 급하면 급해할 수록 더 한 것 같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매기는 과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다 보니 대충 막 했다가는 자칫하면 모든 시험지를 다시 매기는 수가 있어 막 할 수도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천오백 부 매겼을 쯤에 팀장선생님이 찾아와 오차가 천삼백 부가 나왔다는 것

이다. 참 너무 허무했다. “참! 그 많은 걸 언제 다시 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나마 이번 오차시험지 천삼백 부는 팀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였고 우리 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답안 기준을 잘 맞춰서 오차시험지가 적게 나오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오차 시험지는 두 채점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사람이 다시 점수를 주기만 하면 되므로 괜찮은데 오차가 너무 많으면 채점 질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나와 나의 파트너는 다시 한 번 답안을 검토하고 채점 표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서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토론하면서 좀 속도가 늦더라도 오차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을 다시 정하고 또 앞의 천오백 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았는지 두 사람은 점차 매치를 이루었고 나머지 이천여 부의 시험지에서는 오차가 아주 적었다.

아무튼 그날은 어렵게 하루를 마쳤고 성적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감이라면 채점만큼 따분한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 때 여러 선생님들은 시험지에 대해 얘기했다. 사실 정작 채점을 하고 나니까 민족이라는 두 글자가 선택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차마 점수를 퍽퍽 깎아 치우지 못하겠다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의 공감이다.

온 하루 피곤하게 지낸 몸이라 샤워하면서 물이 막 뿜어 나오자 난 갑자기 처음으로 내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조선족은 한민족의 줄기가 그 옛날 눈물 젖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뿌리 내리고 척박한 땅에 땀동이를 쏟아 기름 넘치게 한 보람 차고도 멋진 민족이다. 쪽지게에 쪽 바가지만 가지고 왔

지만 버젓이 민족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부럽잖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희로애락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한 민족이 자기 민족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타국에서 일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언어와 교육과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100년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은가? 그 옛날 자기들 손으로 친히 척박한 땅을 개척한 탓일까?

여러 학부모들의 부탁, 참 너무 뭐라고 나무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민족의 대결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나는 샤워를 끝내고 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말이다. 뭔가가 자꾸 머릿속에서 뇌리를 치는 느낌이 들었다.

사흘날 뜻밖의 일

아침 일찍이 채점을 시작했다. 오늘 중으로 길림성의 3천 6백부를 완성해야 하는데 아직 태반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생각 같아서는 야근이라도 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빨리 끝내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화장실 한번 가지 않고 열심히 매졌다. 한창 맥이 떨어져 생각 없이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읽는 소리에 우리는 폭소가 터졌다. 참 한창 따분하던 채점장이 갑자기 활기가 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잠시 쉽터가 되었다. 그런데 한참 있더니 그 선생님께서 또 읽으시는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수고스럽게 채점을 하시는 선생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좀 살살 깎아 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아주 즐겁게 에피소드로 즐기면서 넘어가셨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따라서 웃었지만 웃고 난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렴 어느 나라의 시험 채점장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적은 우리 민족의 대학입시생들이 입시의 중요한 입장에서 이렇게 스스로없이 대해도 된단 말인가 하는 패심한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단일 민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정상적인 일들이 민족의 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채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이어 몇 장씩 중국어로 된 답안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난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즉시 옆자리 선생님께 중국어로 쓴 것도 점수를 주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하면서 대학입시 때는 중국어로 쓴 답안지를 자주 본다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난 여간 놀라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매겨온 시험지들은 연변의 시험지였을 것이다. 연변에서는 중국어로 답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연변 시험지가 끝나자 길림성의 기타 지구 시험지들이 나오면서 중국어로 된 답안지들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런 시험지를 본 순간 나는 많이 당황했다. 그런데 시험지를 번질수록 나는 아연실색해지고 말았다. 거의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로 답안을 썼고 어떤 애들은 중국어와 조선어를 마구 섞어서 썼으며

중국어가 한글자도 안 들어간 시험지가 거의 없었다. 몇 년간 채점 경험이 있는 다른 선생님께 물어 봤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젠 오히려 익숙해 졌다면서 이제 몇 번 더 채점 경험이 생기면 별 느낌이 없어질 거라고 날 위안해 주셨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한자는 틀린 글자가 적지 않았고 조선어는 맞춤법과 단어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문장은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였다. 암담하고 참담하기로 전쟁터를 연상하게 하였으며 거기에 글자체가 좀만 난잡하면 진정 폭격 맞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 이러한 답안지들은 나의 채점 길에서의 “썰터”가 되었다. 도저히 어떻게 점수를 줘야 할지 막막하였기에 생각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손 놓고 멍하니 앉아 있어보기도 하고 한심한 웃음을 짓기도 하면서 좀처럼 다음 장에 넘어가기가 힘들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두 언어 실력, 참으로 애들이 불쌍하다.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중국말로 답안을 적으면 채점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진학률을 경쟁하고 더 많은 조선족 애들이 대학에 가게끔 선생님들은 최대한으로 점수를 주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1점이라도 더 주고 싶은 현실 앞에서 이런 중국말로 된 시험지를 맞대고 나니 한심하고 맥이 빠져 머라고 할 말이 없어진다. 길 가는 아무런 한족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시험지에 마음대로 점수를 줬다가 발견되는 날에는 머리가 날아난다. 너무나도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중국어는 한국어나 조선어처럼 뜻풀이를 해서 쓰기가 어려워서 단어가 틀리거나 글자가 좀 틀려도 내용이 확 바뀌기 십상이기에 점수를 1점이라도 주고 싶어도 주

기 어렵거나 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반면 조선어로 쓰면 뜻만 대개 나와도 점수 주기가 훨씬 편하고 설사 1~2점 더 줬더라도 표준 답안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 우려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가끔씩 아는 애는 잘 써서 1점이라도 더 주고 싶구나 하는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때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원망스럽다. 평소에 중국말로 된 참고 서적을 본다고 치자, 시험 전에 애들한테 이런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려두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걸 뭐 선생님이 알려두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들 모두가 하나같이 선생님의 말씀을 잊은 건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최소한 내가 채점한 부분에서 양심적으로 만점을 줄만한 애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난 나대로 애들의 점수를 푼푼히 주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중국어와 조선어가 뒤죽박죽, 들쭉날쭉한 이런 광경을 두고 어찌할 뻔죽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버스를 놓쳐 앞서가는 버스의 뒤통무니를 쳐다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정보다 더 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솟구쳤다. 마치 내가 시험을 본 학생인양 느닷없이 심장이 쿵쿵 뛰었다. 휴 ~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도 마음만큼 피곤했다. 한족이 대다수이고 극소수가 조선족인 장춘지구와 통화지구에서 이 정도라도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언어는 간신이 유지되었지만 학교가 없어서 못 다니는 다른 곳 조선족보다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또 한편으로 이런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원망스럽고 안타깝기도 했다. 학교가 없어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못 배웠다고 치자. 이걸 학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건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어와 문화의 이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 옛날 우리 민족이 갓 이주했을 때는 학교도 없고 교사도 변변치 않았지만 조선어와 민족의 문화만큼을 잘 가르쳐 지금의 조선족 교육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내가 엄청 충격 받은 표정을 짓자 옆의 선생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처음이라서 이해도 안가고 충격도 받을 법 한데 좀 지나면 그게 예사로운 일로 여겨지면서 그런가 할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채점에 맥이 빠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도 별로 쉬지 못하고 우리는 이내 또 컴퓨터 앞에 달라 붙었다. 오늘 중으로 길림성의 채점을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컴퓨터만 봐도 눈앞이 아물아물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손과 눈은 조건 반사로 점수란에 점수만 적어 넣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꼬박 이틀을 달려 이제 3천 6백장이 넘는 길림성의 시험지 채점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로봇도 이런 로봇이 없었다. 사상과 생각이 없는 로봇이라면 힘들지도 지겹지도 않지 그런데 이진 편편한 사람이 로봇 노릇을 하려니까 진정 미칠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빨리 빨리 하면서 이제 남은 300개미만의 시험지를 다 매기려고 바둥거리고 있었다. 사람은 아마도 무슨 일을 하던 거의 마무리하고 끝날 무렵에 제일 힘겹고 아득바득 하는 것 같다. 체력이 바닥이 날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산 정상에 다다를 무렵에 갑자기 우리 조장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스톱하시면서 저녁에 행사가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고 거처로 돌아가 정리하고 정문 앞에 모이라는 것이다. 궁금해서 몇 번 오신 선생님께 여쭙 보았더니 가보면 알거라면서 모르쇠를 놓는 것이었다. 분명히 알고 계시

는 눈치였는데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이다. 너무 피곤한지라 나는 그리 중요한 장소가 아니면 안 가고 숙소에서 휴식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니 갈 수 밖에 없어 준비하고 정문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중년 남성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택시에 우리를 얹혀 어디론가 갔다.

가고 보니 “평양관”이라고 불리는 북한 식당이었다.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이었고 들어가 보니 북한의 분위기가 다분하였다. 이때에서야 나는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았다. 팀장님한테 이미 내일부터는 흑룡강성 시험지를 매길 거라는 얘기를 들은지라 이 분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흑룡강성 조선족 학교 선생님들이었다. 내일부터 흑룡강 시험지를 매길 거라는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고 모여서 왔는데 하얼빈에서 떠나 방금 전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온 이유는 묻지 않아도 뻔할 것이다. 구태여 말한다면 흑룡강 애들의 시험지를 매길 때 좀 적당히 봐달라는 것이다.

원래 흑룡강 시험도 흑룡강의 교육국에서 조선족들을 파견하여 매겼었는데 3년 전부터 흑룡강의 한족들이 갑자기 조선족 아이들의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조선족 애들이 연속 3년 한족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대학 입학률이 한족 애들보다 좋았던 것이었다. 그러자 한족학교들에서는 채점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일어났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흑룡강성 교육국에서는 3년 전부터 시험지를 길림성에 가져다 채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동안 줄곧 한족 애들과의 경쟁에서 이겼으며 한족들은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짝 소리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작년

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올해도 잘 부탁한다는 뜻에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족교육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민족의 교육에서 현존하는 문제들도 제기가 되면서 술상에 앉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었다.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는 참 반갑게도 내가 다니던 모교의 선생님도 계셨다. 모교의 선생님이로 부임한지 2년 되셨는데 참 애들의 입학률 문제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상황을 난생 처음 접하는 나인지라 색다른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다른 어떤 말할 수 없는 강한 느낌이 나를 확 감쌌다. 내 머릿속은 갑자기 착잡해졌다. 민족과 민족의 대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선생님들의 조선족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과연 바람직한 사랑인가? 한족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더욱 많은 애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우리의 선생님들은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현실로 되면서 민족적 긍지감과 자신감을 얻어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아주 예사로운 일이요 민족의 후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난 애들을 위하는 마음보다 변질해가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문화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세상에는 이러저러한 사랑이 많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 형제간의 사랑, 연인들 사이의 사랑,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사랑 등등이다. 대개 사랑이라고 하면 올바른 사랑과 빗나가고 그릇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참으로 옳다고 해야 할지 그르

다고 해야 할지 나로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관의 어느 아늑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방에서 우리 채점 인원 8명과 선생님 7분이 아주 큰 테이블에 빙 둘러 사이사이에 앉아 고급스러운 요리와 술로 아주 조심스럽고 또 친절하게 접대하는 그 광경을. 마치 우리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된 것 같았다. 잔이 비어 있으면 공손하게 따라주고 요리를 집어 주랴. 참 나는 오금이 저려서 앉자 있기가 너무 불편했다. 거기에 온갖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다 하니까 진짜 부담 백배였다. 문득 이러한 광경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 마치 내가 언제 똑같은 경험을 해본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기습해 왔다. 아! 맞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선생님께 부탁할 때, 대학생들이 교수님께 자신을 부탁할 때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다만 지금과 그때의 나의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다. 참 묘했다. 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이러한 것은 독자들께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는 것이 그 무슨 묘사보다 좋을 듯싶다. 그렇다.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자신들 학교에 대한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애뜻한 정과 사랑이 배어 있을 거라고 독자 여러분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이라는 두 글자다. 민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천리를 마다하고 밤을 도와 여기까지 와서 자신들의 그 옛날 제자들한테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 학생들을 부탁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도 사실 구태여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민족을 도와 한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이 사회에서 더욱 빛내 보려는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나 북한과 같은 우리 한민족의 나라에서 혹은 일본과 같은 단일 민족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몰랐을까 타국의 국민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이처럼 아끼고 민족교육을 이처럼 중시하는 민족은 우리 조선족을 제외하고 또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역시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100년이라는 찬란한 교육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중국 사회에서 동화되지 않고 우리 민족으로서 조선족으로서 지켜올 수 있었던 데로부터 계기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 애들에게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다. 물론 당면한 과제 - 대학입시라는 관에서는 애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 전체 민족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욕망과 진정 힘써보고 노력해보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아닐까? 사람의 입은 바늘로도 꿰맬 수 없다. 사람의 기억 또한 잠글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곧 우리 이 많은 채점 인원들을 통해 모든 조선인 사회에 알려질 것이다. 글썽 어느 사회나 한국이든 일본이든 물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단순 대학입시인 것이 아니라 타민족과의 대결을 의미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의미하며 우리 민족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애들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종내 다잡지 못하였다. 지금 나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별 걸 가지고 다 그런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난 기숙사에 와서도 나의 의미심장한 얼굴은 펴 줄을 몰랐고 두뇌는 줄곧 뭔가를 생각하며 잠처럼 잠을 이

를 수가 없었다.

1860년대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중국이라는 타국에서 자기들의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배우는 것이 곧 힘”이라면서 교육을 생계 버금으로 중히 여겨온 중국 조선족의 교육사는 100년을 자랑할 만큼 역사가 유구하다. 그동안 빛나는 교육사는 수많은 인재를 길러 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잘 해냈다. 배움에 남다른 깨우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주초기부터 자식교육에 힘 다하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늘날의 중국 조선족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 혜택으로 조선족으로서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자랐다.

중국 조선족 학교를 보면 주로 조선족이 집거 또는 잠거해 있는 동북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 학교가 제일 많고 또 조선족의 문화와 전통이 제일 잘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흑룡강성과 요령성인데 문득 고등학교 때 조선어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한인들의 만주 이주는 한반도를 뒤집어 엮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주와 가까운 함경북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가까운 곳을 차지했고 점차 한반도 남단으로 가면서 이주한 사람들은 중국 동북의 내지로 점점 깊이 들어가 정착을 했다고 하셨다. 그것은 지금 동북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의 한반도에서의 옛 고향과 말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듯 일리가 있는 말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흑룡강 하얼빈 부근인데 우리 마을 주민들의 한반

도에서의 고향은 거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로서 지금의 한국이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5살 무렵인 1940년쯤에 일가족을 따라 중국에 건너왔다고 하였고 외할머니는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조상들의 고향은 강원도라고 하셨다.

내가 태어난 흑룡강은 조선족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그 전통과 교육을 잘 계승해 나갔었다. 흑룡강은 인구에 비해 지역이 넓어 한 개 시의 면적이 상당히 컸으며 초등학교는 애들이 아직 어리기에 학생이 비교적 적어도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기만 하면 한 개 학교씩 있었는데 중학교는 각종 인소의 제약을 받아 한 시에 하나씩 있을뿐더러 중·고등학교 통합이었다.

나도 초등학교는 규모가 아주 작은 산간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전교생이 40명 좌우였고 교실이 7칸짜리 학교청사에 교원이 교장까지 도합 9명인 벽촌 학교이다. 교과서는 다 연길에 있는 동북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로 했는데 반드시 그전 학기말에 주문을 해야 그 다음 학기가 되어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허다한 때가 학기가 시작할지 이속해서야 교과서를 받곤 하였다. 교과서 말고 참고서나 과외독서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나마 마을에서 연변에 친척이 있는 우리 집 때문에 아버지가 연변에 다녀온다고만 하면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과외서적을 부탁하곤 해서 나중에 내가 3학년 무렵에는 학교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생겼는데 듣기 좋게 말하면 도서관이지 사실은 책이 고작 100여 권에 불과한 서재였다. 이것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유지해 온 학교라 교사님들은 아주 열심히 가르쳤고 간혹 드문 인재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민족의 글과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하여 이어나간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의 규모가 어떠하든 제일 빛나는 자랑거리이다. 그때 우리는 한어문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다 조선어로 배웠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랬었다. 그 시기에는 시험을 볼 때 혹시 한자라도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 쳤기 때문에 시험지에 한자로 적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는 20리 밖에 있는 진에 가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쯤 가야 하는 시에 있는 유일한 조선족 중학교에 다녀야 했으며 기숙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가 너무 멀다 보니 학비 내기도 어려워 겨우 초등학교까지 다니던 애들은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엄청나다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까운 한족학교에 들어가는 애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면 마을의 후배들 눈에는 진짜 큰 벼슬과도 같았으며 그 애들이 올 때마다 뒤를 졸졸 따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부러워서 물음이 끝이 없는 애들도 많았다. 나도 그때는 내 바로 위의 선배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러 가는 기차에서 마음이 얼마나 설렘던지 참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벅차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친 뒤 나는 연변으로 전학을 왔다. 연변은 참으로 조선족 집거 구였다. 뭐든 조선족을 위주로 하였고 조선족학교도 훨씬 많았다. 조선족 마을도 2~3리에 하나씩 있고 진까지의 거리도 불과 5리(2,500미터)좌우였다. 진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중학교와 분리되어 있으며 한 도시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었다. 학생 수 또한 아주 많았다. 진정 조선족의 공동체에 온 감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체에서는 중국어가 막 외국어로 되다시피 하였다.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라든가 과외서적은 참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기로운지 몰랐다. 그렇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줄은 참 몰랐었다. 그래서 공부를 참으로 행복하고 맛깔스럽게 할 정도라고 표현을 해도 될 듯 했다.

이렇게 나는 조선족이 집거하는 연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민족의 최고학부인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외계와 단절한 상태로 오로지 연변에서만 살았다. 그러는 과정에 나는 내가 전에 공부하던 흑룡강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조선족 교육에 전혀 몰랐으며 언제 관심 가질 기회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채점은 나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변 이외의 다른 지방의 조선족교육을 접촉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참으로 그 느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아무튼 그 덕분에 나는 무사히 우리 민족의 학교를 졸업해 지금 우리 민족의 글로써 무언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나의 지금 우러나는 이런 민족애도 아마 그때부터 뿌리 내린 것 같다. 내가 대학 졸업 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왜 연길을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주 견정하게 내 아들을 조선족 학교

에 보내기 위해 떠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사흘날은 의외의 일도 많았고 충격 또한 적지 않았다. 연변 애들 시험지를 매길 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연변을 제외한 기타 지구의 시험지를 보는 순간 난 참으로 많이 놀랐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길림성의 장춘지구와 통화지구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흑룡강은 완전히 입을 딱 벌리게 만들었다. 지금도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스캔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답안지들이 주마등마냥 두뇌를 스쳐지나간다.

휴 ~ 조선민족의 교육, 중국 조선족, 민족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난 그냥 잠이 들었다.

나흘날 어이없음, 그리고 한숨

오전 일찍 사흘날 흑룡강 선생님들을 만나느라 채 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또한 오차시험지부분도 마저 끝낸 뒤 우리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흑룡강 채점 코너에 들어갔다. 흑룡강 시험지는 길림 시험지와 따로 저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흑룡강 시험지를 보는 순간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답안지를 번질 때마다 푹푹 거리며 한숨이 뒤를 이었고 채점은 점점 어려워졌다. 전날 매겼던 장춘, 통화지구 애들의 시험지에는 비록 3분의 2의 시험지에서 중국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나마 적지 않은 부분이 조선어였고 완전히 중국어로 답안을 쓴 애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흑룡강 애들의 시험지를 매기면서 난 도무지 내가 지금 우리 민족 아이들의 시

험지를 매기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다만 간간히 보이는 조선어 때문에 그나마 조선족 애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뿐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중국어로 쓰면 점수는 어떻게 준단 말인가? 표준답안이 중국어인데 원칙대로 한다면 그 중국어의 중심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만장같이 쓴다고 해도 점수를 거의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선어로 쓴다면 다르다. 어느 정도 말이 통하게 쓰면 점수를 주는 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 참 우왕좌왕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멍하니 컴퓨터만 바라보고 한참 있었다. 그렇다고 혼자 점수를 주었다가는 자칫하면 모든 시험지들이 다 오차로 되어 다시 매기는 수가 있다. 할 수 없이 나는 파트너와 다시 상의하여 중심단어를 체크했고 또한 애들의 시험지를 한 30부 매긴 뒤 그 애들이 자주 쓰는 말로 다시 채점 표준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흑룡강 채점은 표준답안지를 모범으로 했다고보다는 그에 근접하는 애들의 답안모음으로 채점을 했다.

시험지를 보면 볼수록 도대체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어에 집착을 하는가하는 의문이 솟구쳐 난 뛰쳐나와 흑룡강에 살고 있고 이번에 대학입시를 본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물었다.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소리, 흑룡강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어문을 제외한 기타 과목은 다 중국어로 강의했고 교과서도 이제는 중국어로 된 교과서에 때로는 교사마저도 한족이라고 하면서 참고서적은 물론이고 시험장에서 그나마 명색이 조선족학교니까 시험지를 두벌로 주더라는 것이다. 하나는 번역본 하나는 원본, 심지어 어떤 애들은 조선어로 된 번역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조선족 학교를 12년씩 다니고 조선어로 된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니? 참 난 할 말을 잃었다. 도무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나는 왜 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내가 다니던 모교도 있건만 거기에 대해 10년을 한 번도 관심 가져 본적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참 나 자신도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뒤이어 나의 자책을 덮어쓰며 떠오르는 생각, 도대체 이러한 추세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민족이 동화의 길을 가고 있던 말인가?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참 “동화”, 이 무서운 단어가 우리 민족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고 그렇게 방심해 있었을까?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겠지. 다만 내가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민족애가 강하다고 떠들면서 살아왔겠지.

휴 ~ 동생과 전화를 끊고 난 점심 먹을 생각마저도 없었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나는 지금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한족과 결혼한다거나 한족학교에 간다거나 심지어는 일본이나 한국에 시집간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고 의아하고 또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른다. 이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온 나의 민족애 덕분일 거고 조선인들의 한국행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에 남겨진 상처와 후유증 때문에 생겨난 선입견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의 만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개 소수민족으로서 전 중국을 몇백 년 동안 통치했었다는 찬란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의 중국 통치는 오히려 만족의 한화를 촉진하고 초래하였으며 점차 민족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청나라의 어느 황제가 예견했으랴? 지금 만족은 90% 이상이 동화되어 그 언어와 문자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으며 혹간 누가 알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민족문화 발굴의 중요한 인재로 등용되어 한평생을 직업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고 “넌 다른 애들처럼 남방에 취직하러 안 가니?”하고 물은 적이 있다. 나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나는 별 큰 고민 없이 포기했고 연길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연길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 썩 이전부터도 난 내 자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선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방에는 조선족학교가 없다. 애가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애가 앞으로 다녀야 할 학교를 사사로이 결정한 것은 어찌 보면 애한테는 불공평할지 모르지만 난 세상 엄마들의 본능으로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으로부터 그러한 결정을 해버렸다. 이러한 것은 내가 민족애가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난 내 자신을 비롯한 내 주변의 조선족들이 한족학교에 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조선족은 무조건 조선족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러한 느낌과 관념이 내 주위를 떠나지 않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한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띌면 그것을 만류해보려고 나름대로 그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부질없는 일까지 한 적이 있고 또 “자식을 조선학교에 보내야 한다.”와 “그래도 중국에서는 한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거기 곁들여 나는 조선족들이 한족들과 결혼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봉건적이다 보수적이다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집 애가 나중에 한족이 되고 더 나중에 그 집에서는 우리 집의 혈통에는 조선족이 있었구나 하는 일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고도 많다. 참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니 난 참으로 완벽한 민족주의자인 것 같다.

오후에도 내내 그 중국어로 된 시험지와 씨름을 하고 또 생각도 하면서 끝내 천오백 부의 흑룡강 시험지를 다 매겼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몽골자치구 조선족 학교의 40부, 수동으로 매겨야 하는 시험지이다. 수동이다보니 파트너 두 사람 중 한명만 채점하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한참동안 시간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내몽골 조선족 애들은 그래도 다 조선어로 답안을 쓴 것이다.

사흘을 힘겹게 달려 끝내 채점이 마무리 되었다. 참 처음 올 때 마음이랑, 채점 시작할 때 마음이랑, 채점 중도에 생긴 일들이랑, 채점 마감의 마음이랑 왜 이렇게 다른지 끝나고 나니까 “휴 ~”하고 시름이 놓이긴 하지만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한쪽 구석이 개운치가 못했다. 처음으로 민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또 처음으로 채점을 하고 또 처음으로 민족에 대한 부탁도 받아보고 참 이번 채점은 처음 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나의 생활과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그날은 역시

나 별로 잠을 자지 못한 하루가 되었다.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장춘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저녁 9시 열차로 예약을 한 터라 하루 종일 자유의 시간이 있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장춘시내도 한번 구경하고 쇼핑도 한다면 다들 나갔는데 나 홀로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숙소에 남아 있었다. 요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개운치 못한 심정 때문에 까딱 움직이기 싫었던 것이다. 난 그냥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면서 쉼하니 있었다.

내가 옛날 살던 흑룡강의 마을에는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러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14~15세에 이주하셨다. 어릴 때는 가끔씩 그분들께서 이주 이야기를 옛이야기삼아 들었다. 심지어는 이주 뒤 지금의 마을에 정착하기까지 40여 차례의 이사를 해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예사로운 일이라고 한다. 하긴 우리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친할아버지께서도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사를 10번쯤 했다고 하니, 그때는 이미 해방이 된지가 이십하건만 이주민들은 여기저기 적성이 맞지 않아 자기의 안온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이사를 다녔던 것이다.

이주 초기의 교육은 그야말로 간고하였다. 해방 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라고 해도 조선족이 집거해 있는 연변은 그나마 많은 사람

들이 민족교육에 몸을 바쳐 교육 자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한글로 된 책들을 많이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뭐 “한글”이요, “지리”요, “역사”요 하는 것들은 해방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해방 후에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지어 민족의 얼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상, 연변의 재정실정과 흑룡강의 재정실정에 따라 이러한 책들의 대량 인쇄는 참으로 힘든 일이고 또한 주문을 받아야만 출판이 가능한 상태라 흑룡강은 항상 교과서가 모자랐고 참고서적은 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위에서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기를 얘기하면서 말한바 있다. 이처럼 우리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교과서 난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중국 조선족의 교육에는 교과서부족, 참고서부족이라는 두 가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할 때까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러저러한 방법이 제기 되면서 그럭저럭 맥을 유지해 나갔는데 나라의 재정상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그냥 유지할 수는 없는 터라 학교의 통폐합 현상이 잦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다니던 학교도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

교과서의 부족이 중요한 문제라면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교사다. 학교의 성패는 교사에 달려있고 학교의 질은 최종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학교의 유지는 교원에 달려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며 교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학교가 점차 쇠락되거나 전환되거나 아니면 통폐합이 되어 버린다. 중국에서 이러한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이며 조선족이 50% 차지하고 있다는 연변의 소재지-연길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조선족 인구가 꽤 적은

흑룡강과 같은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다가 조선족사회에 사람이 마르고 있다. 제2차 민족이동이 시작 된듯하다. 1860년대부터 한반도의 인민들이 부단히 중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한인 사회를 꾸려갔던 것이 역사적인 1차 이주였다면 현대에서는 중국 조선인 사회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북한사회에서 중국 조선인 사회 내지는 한국 사회로 이주하는 조선민족의 제2차 이주시기가 시작한지 이룩한 것 같다. 이것이 현재 조선족 사회의 주요 이동 맥락이고 그 외에도 여러 곳으로 이동 및 이주가 되고 있다.

조선족의 현재의 이주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로 한국으로의 이주이다. 이는 장기적인 이주 다시 말하면 영주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중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출국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기미를 보이는 이러한 이주는 맨 처음 보따리장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무렵 한국과 중국의 국가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자 중국 조선말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국의 가족들이 의뢰한 친척 찾기 프로그램을 내왔고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을 찾으려고 의뢰를 시작하면서 각 조선족 마을들에서 하나 둘씩 한국의 형제요, 부모요, 찾았다고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청장들이 눈송이처럼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은 초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형제나 자식들이었고 이미 이주한 지가 이룩한지라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였다. 이 분들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기간으로 한국에 가 있곤 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리운 가족을 찾아보는 게

우선이면서 보따리에 한국에 가서 팔 물건들을 챙겨 이틀이면 각종 약재 등을 가져다 팔아서 여비도 하고 조금 벌기도 하였다. 이것이 초기의 한국보따리장사 형태였던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한 두 번씩 다녀오고 나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 둘씩 초청이 되었고 이들은 단순 보따리 장사에 만족하지 않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높은 한국사회에 남아 돈을 벌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90년 무렵에 우리 반 전체 학생 6명중에 2명의 부모님이 선후로 한국에 나갔고 또 2년쯤 뒤부터는 또 2명의 부모님이 한국에 나가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기억으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3년 동안 중국돈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돈으로 당시에 중국에서 한국 평으로 약 30평 되는 아파트를 10채를 산다고 하였다. 물론 요즘은 어렵도 없지만 말이다. 여하튼 그 시기 한국은 진정 우리 중국 조선족의 금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친척이 없는 조선족들은 그저 안타까워서 죄 없는 무릎만 치면서 한탄할 뿐이다.

이러한 조선족의 한국 갈망에 비추어 많은 브로커들이 출범했다. 브로커들은 친척이 없어도 한국을 갈 수 있다고 홍보했고 이런 홍보는 한국행에 목말라있던 조선족들의 구세주가 된 듯 인기를 모았으며 수많은 조선족들이 브로커에게 모든 재산에 빚을 내서 한국 수속을 의뢰했다. 역시나 돈에 눈이 어두운 브로커들이라 초창기에는 그나마 합법적으로 한국 수속을 대행해 주면서 돈을 벌었지만 거기에 재미를 붙이자 법을 고려할 새가 없었다. 가짜 초청장, 가짜 결혼 등 사기행위가 연달아 나왔고 사기와 불법 수속들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그 브

로커를 찾으려고 산지사방 뛰어다니는 일들을 자주 본다.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열빠진 사람,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욕보기도 한다. 왜 그렇게 다들 한국에 못나가서 안달이냐고 말이다. 그렇게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한국에 가지 않으면 못살 정도였을까?

시간이 얼마 지나자 이런 브로커들도 믿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그러자 국제결혼이 출국의 좋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서 처음으로 딸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아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었다. 왜냐 딸이 있는 집에서 딸을 시집보냄으로써 부모가 따라 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속비가 거의 안 들었으니까 그야말로 썩 먹고 알 먹기가 아닌가? 딸을 시집보내는 한국행 방법은 딸들이야 가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일단 시집을 가게 되면 부모가 초청을 받게 되었고 딸이 국적을 얻는 대로 직계친척은 초청이 되어서 딸 하나 시집보내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살고 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행 방법은 브로커들에게 또 한 번의 거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한국 시집이 성행하면서 가짜이혼, 가짜결혼, 위장결혼 등과 같은 단어들이 새로 생겨났고 전봇대마다, 게시판마다, 신문마다 ‘혼인소개’ 또는 ‘국제결혼’ 이라는 홍보 문이 참 많이 나와 있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처녀들이 한국 시집을 가는가 하면 아줌마들도 서슴없이 가짜 이혼을 하고 위장결혼으로 한국행을 택한다.

그 옛날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부터 간도로 이주하여 왔을 때 한반도에서는 “북간도행가”가 아주 유행이었었다.

“1. 마을 앞 논밭에 신작로 나더니 칼 찬 나리 마슬(마을)에 새다 갑
나고 통통 고개 십리고개 자동차 넘더니 김 서방 이 서방 북간도 가네.

2. 앞거리 골목에 양철통 달리니 담배는 마음대로 심을 수 없고 이
골목 저 골목 물지게 나더니 최 서방 박 서방 북간도 가네(후렴) 에헤
야 데헤이야 우리의 마슬 말썽도 많네.” 이렇게 당시 이주하는 조선인
들을 표현하였는데 지금 연변을 보면 “이뿐이 고뿐이 한국 시집가네,
아저씨 아줌마 한국 돈벌이 나가네. 에헤야 데헤야 말썽 많던 우리 마
을 언제면 또다시 말썽 생길라나.” 라고 텅텅 비어 있는 마을이 오히려
말썽이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생길 지경으로 적막하다. 친척방문에
취업비자에 한국은 진짜 못 갔다 온 집이면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하
는 식으로 한국행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내쳐 불고 있다. 또한 총각들
은 처녀들의 한국 시집 바람으로 너도나도 홀아비 신세 되어 시집가는
처녀 뒷모습만 침 흘리며 바라보고 이주 사회에서 근근 득식 100년을
견지해 빛나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대가 끊기고 마을들이 하나 둘씩
없어진다.

한국행이 이렇게 걸어왔다면 조선족의 러시아행과 일본행 또한 만
만치 않다. 일본은 중국과 수교 된지 펍 오래되어서 한국행이 뜨기 전
에도 아마 조선족들이 일본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일반 조선인들이 일본에 돈을 벌려고 가기 시작한 것은 한
국행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이다. 시작은 일찍 했지만 초
창기 조선족들은 그래도 한국행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국
은 언어와 생활습관이 적절하고 또 수속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
웠으며 수속비용이 적게 들었다. 하지만 월급이 한국의 거의 3배에 달

하는 일본행을 누가 마다하랴. 참 이런 것을 보면 중국 조선족들은 재간둥이들이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다들 잘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서서히 한국보다 일본이 더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한국에서 3년씩 벌어서 귀국한 사람들도 이제는 일본 수속을 밟아 일본행을 택한다. 그런가 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조선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든 안 가는 데라곤 없다.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발달한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리비아, 베트남, 태국 등 비교적 낙후한 지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출국은 조선족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은 또 가까운 러시아를 제집 나들듯 들락거린다. 연변에서는 러시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소련 장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번 사람도 많지만 망해서 빈털터리 되어 집에 오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하루살이 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많다고 한다. 남편 친구가 소련 장사로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거기도 수입은 짹짹한 듯싶다. 하지만 ‘소련 장사’의 내막에는 불법행위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조선족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돈 벌러 가는 가하면 1990년대 중기 이후로는 중국의 내지, 이를 테면 심천, 상해, 광주, 북경, 청도, 위해, 대련 등지로 돈을 벌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부류였다. 첫째, 출국 수속을 했는데 가지 못한 사람 혹은 출국 기회가 없어 들어가는 사람, 둘째, 학력이 낮은 사람들, 예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다. 연변은 작고 취업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더 많은 취업기

회를 바라고 대도시 진출을 택하는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중한 수교로 하여 대량의 한국 기업 중국 진출로 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란한 조선족 인재들이 급격히 수요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도시 진출은 그들의 가족도 함께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대도시라고 해서 취업자리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척척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보수가 높은 만큼 일 강도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내 친구 몇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도, 상해, 심천 등지에 들어가서 한국회사나 일본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다행히 그들은 고역 노동자는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일을 봤다. 하지만 그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에 달했으며 날마다 거의 밤 12시가 되어서야 퇴근을 했다. 내가 졸업논문을 쓰느라 늦은 밤에 온라인 해 있으면 몇몇의 그 시간에도 근무하는 애들이 줄곧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직 퇴근을 안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이어지는 야근이지만 야근 때문에 나오는 추가보수는 전혀 없다. 그뿐이 아니다. 주말은 쉬어야 하지만 주말시간마저도 빼앗긴다고 한다.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니?’하고 물었더니 ‘먹고 살아야지’하면서 웃는 것이었다.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쌍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도시 진출은 조선족의 이미지를 한껏 흐려놓아 조선족에 대한 평판이 아주 떨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연변조선족에 대한 평판은 최악이었다. 한국 문이 열려서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꾸리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중국인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통역들이 급

히 수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나면서 두 가지 언어에 능란한 조건을 가진 조선족은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무작정 채용이 되었고 중국에서 한류가 더 한층 부각되면서 이러한 일자리가 부쩍 늘어나자 조선족들은 이미 취직하고 있지만 마음을 안착하지 못하고 보수나 대우가 더 우월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알아본다. 그러다가 일단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을 옮겨버리는 경향이 늘었다. 그러면서 조선족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연변사람이면 더욱 싫어해 면접할 때 신분증을 보는데 연변사람이면 아예 접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연변사람들에 대한 거부반응은 중국의 내지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중국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표현되었다.

물론 내지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잘 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보수가 높아 가족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대도시에 집도 사고 차도 사 놓고 잘 산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극소수에 속한다.

하지만 저학력 계층에 이어 고학력 계층의 진출은 연변으로 하여금 인재가 메마르게 하였다. 대학 졸업생들도 너도나도 대도시 진출을 원했고 연변에 남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들 역시 보수가 높고 대우가 좋은 대도시를 동경하였다. 고향의 교사와 같은 직업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들에서는 새로운 교사를 받아 들여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고 또 교사라면 후대 양성의 차원에서 최고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조선족사회의 경우 교사직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진정 원하는 사람은 그 요구조건에 부합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씩 가다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들은 다만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잠시 교직에 머물러 있다가 일단 기회만 생기면 아무리 좋은 대우라도 마다하고 떠나버린다. 참 우리의 교직이 그렇게 매력이 없었던가 싶다. 연변사회도 이런데 조선족이 적은 흑룡강이나 요령성은 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교사부족은 우리 민족의 후대를 양성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듯싶다.

이렇게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오로지 돈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돈에 집착을 심하게 보였다. 대학을 졸업해도 돈을 못 벌면 ‘공부를 해서 뭐 하나 돈 잘 벌면 되지’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번은 고향에 갔다가 오는 길에 오랫동안 못 봤던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지에 들어가 돈을 벌었고 난 그때 대학생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못내 어색해 했다. 난 내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아주 당당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 말 못 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비록 공부는 못 했지만 집에 엄청 보탬이 되어서 내 앞에서 오히려 아주 당당하였다. 이 말 저 말 하던 중 내가 공부하는 게 피곤하다고 했더니 그 애가 하는 소리가 ‘공부한 게 후회되지?’ 하고 뒤통수를 치는 한마디를 던지는 바람에 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난 그냥 침묵으로 넘겨버렸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그 애는 한국으로 시집을 갔고 한국에서 또 다른 그 애를 만났었다는 동창이 나에게 전해 준 데 의하면 그 애의 한국 남

편은 장애인였고 그 애는 그냥 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 사람이든 고려를 하지 않고 시집을 갔었는데 며칠 살고 보니 마음에 내키지 않아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 그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타락에 빠진 듯 애가 좀 이상해 졌다고 하는 것이다. 담배 피우고 자기보다 20살도 더 많은 남자들을 그것도 유부남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다. 나는 또 한 번 마음이 쓰렸다. 왜 그런 길을 택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지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 앞에서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도도하던 애가 아니었던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혹시라도 그 애를 만나면 ‘공부 안 한 게 후회되지?’하고 지난 날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되갚아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휴~ 내가 무슨 수로 그 애들을 설득하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은 조선족사회에서 이제 너무 자주 듣고 보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아직도 듣고 보고 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다. 그날도 난 버스를 타고 강의하러 가는데 앞에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한분이 요염하게 화장을 하고 옷 또한 화려하게 차려입고 한창 전화를 받고 있었다. 처음엔 난 그냥 멋 내기 좋아하는 아줌마인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대충 들은 그녀의 전화내용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렇게 싸운 다더냐?”, “그래 어찌겠니. 이때까지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으라고 네가 잘 알려라. 이제 국적만 나오면 이혼하면 되잖니?”, “안 그래도 전번에 니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눈이 펄래서 찾아 왔더라며”, “그래도 어찌겠니? 여기서 물러나면 국적도 못 가지고 그저

산 게 되잖니?”, “그래, 그래 네가 잘 알아서 타일러라.”

엄마인가 보다. 딸을 한국인지 어딘지로 시집보낸 모양이다. 나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옆모습을 흘겨보고 있었다. 참 세상에 이런 엄마도 다 있다니? 시집 간 딸이 부부싸움이 심해서 폭력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참으라고 달래는 엄마, 국적이 나올 때까지 참으라고 달래는 엄마,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염한 화장 하고 화려한 옷 입고 딸 팔아 잘 한다.’ 갑자기 난 구역질이 났다.

이러한 일들은 진정 조선족사회에서는 많고도 많다.

그런데 조선족사회의 빠져나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들어오는 이가 또 있다. 바로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사람들이다.

북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은 38선의 높은 장벽 때문에 직접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거개가 중국을 통해서 먼저 중국에 가서 머물다가 기회를 봐서 한국으로 넘어간다. 갑자기 교수님의 시가 떠오른다. “그들이 국경을 넘었을 때 - 중국 국경과 지척인 함경도 무산군에서/ 국경수비대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국경을 넘나드는 중개인들은/ 조선 돼지장사라는 인신매매를 한단데/ 오늘밤도 그들 손에 이끌려/ 수명의 여자가 정치 없이 강을 건넌다./ 중국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지만/ 굶주린 그들의 몸값은 우리 돈 50만원 정도/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직접 넘기면/ 그보다 두 배는 받는단데...”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참으로 처참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팔려서 오는 북한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몰래 도망을 쳐서 오는 북한인 또한 수도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사실 50만원이라는 돈은 북한에서는 꽤 큰돈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이나 한국인들

은 이런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으로 시집가는 중국 조선족 처녀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가는 것인가? 천만에. 그들 역시 한국 신랑이 돈을 1천만 푼 안 내밀고는 데려갈 수 없지. 한국 총각들에게 물어봐라. 중국에 있는 여자 쪽 부모님께 적지 않은 돈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때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내려는 부모들을 우리는 딸을 팔아먹는다고 하니까 지 했고 한국에서도 신부쇼핑이라는 말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내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가르치는 반의 90%가 한국에 시집가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처녀 혹은 이혼한 아줌마들이었으며 이제 중국에서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들도 한국으로 시집을 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중 한 여자애는 이제 22살 꽃다운 나이이다. 한창 대학에서 배움을 만끽해야 할 나이에 엄마의 손에 끌려 한국에 시집가려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였으며 국제 혼인소개소를 통해 한국의 45세의 남자를 만났고 얼마 전에 비자까지 받아 좋아하는 것을 목격한 나는 뭐라고 할 말을 잊었다. 그래서 내가 던진 한마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냐?”는 물음에 그 애는 무표정으로 덤덤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소원이 이루어 졌는데 그러게 무슨 대수냐 하는 생각인 듯싶다.

아무튼 이러한 이주의 결과는 과연 좋은 점이 얼마고 나쁜 점이 얼마일까? 웬지 나는 나쁜 점만 떠오른다. 우선 조선인 사회에 주는 악성 영향을 보자. 처녀들의 국제결혼으로 총각들은 짝을 짓지 못하고 늙어

가서 현재 연변을 비롯한 조선인 사회의 농촌에는 노인과 노총각이 전 부다. 심지어 친구에게서 들은 우스갯말을 전하면 한 총각은 전후로 세 여자와 연애를 했었는데 모두다 총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시집가 이 총각은 나중에 출국인원양성전문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다음으로 이혼율의 상승이다. 농촌의 아줌마들이 처음에야 돈을 벌 어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가짜이혼을 하고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도장을 찍어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은 구두에서 아무리 가짜 이혼이라고 해도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영영 이혼이 되어버려 아줌마는 남편 이고 새끼고 저버리고 소식을 끊고 자취를 감추기가 일쑤이다. 설사 돈을 벌고 돌아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부부는 오랜 시기 같이 있지 않았고 또한 의식의 차이가 완전히 변하여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 이혼하는 것이 아주 예사롭다. 그래서 연변의 이혼율은 아마 중국에서도 랭킹순위에 오르지 않으면 서러워할 지경일 것이다.

제일 불쌍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아이들이다. 학교에 가 보라. 부모가 없거나 한국, 일본 등 외국에 가 있거나 이혼했거나 온전한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그 수치를 조사하기조차 두렵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렵다. 요즘 다음 홈페이지에서 뜨는 사진 한 장에 나는 참 속상했다. 교실이고 50명쯤의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거의 다 손을 들고 있다. 부모가 한국에 간 아이들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옆에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 옆에 있는 것은 오로지 감정도, 느

깁도, 체온도 없는 돈 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애들이 수없이 많고 심지어는 애를 봐 줄 사람이 없어 선생님 덕이나 전문교육기관에 전탁해 두고 가는 부모님도 적지 않아 요즘은 이런 전탁원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모은다고 하였다. 내가 보기엔 이런 시설은 듣기 좋게 말하면 전탁원이지 사실은 고아원과 별 다를 바 없는 듯하다.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가슴 아프게 “고아”가 된 셈이다. 태어난 지 한 두 달 되는 갓난쟁이 젖먹이를 떼어놓고 간 이가 있는가 하면 당장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식을 두고도 서슴없이 떠나는 냉혹한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돌아오는 독한 부모도 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애들을 귀여워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할까? 돈이? 천만에….

돌아오는 기차에서도 나는 줄곧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해 생각을 왜 이제야 하게 되었을까 하는 자책감도 그 뒤를 이었다. 솔직히 위에서는 내가 민족애니 하면서 자신이 민족주의자라고 했지만 사실 이때까지 나는 민족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일부러 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연변대학만은 피하려고 애를 썼고 학부선택도 조문학과만은 피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과에 입학해서도 한국사를 하면서도 우리 민족사는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참 얼굴이 뜨거워 난다.

후기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애기가 엄마에게 젖 달라는 소리, 땀가를 해 났다는 성공에 젖은 소리, 산의 정상에 올라 정복의 행운을 만끽하면서 울려 퍼지는 소리 많고도 많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자기 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를 배우고 싶어 몸부림치는 구학의 소리를. 이번 채점기간은 나에게 우리 민족의 소리를 듣게 하였고 5일간의 체험은 나에게 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긴 여운을 남겨 지금도 쉬이 진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채점을 다녀오고 난 뒤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 시집간 예쁜이 고뿐이도 아니요, 돈 벌러 가서 돌아오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도 아니다. 가엾고 불쌍하게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된 우리 아이들이다. 깨끗한 옷 입고 돈 마음대로 쓰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사랑 못 받는 것보다 헛웃입고 돈 없더라도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애들일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음은 피눈물이 흐르도록 아프고 눈가는 벌써 젖어든다. 우리 아이들의 요구는 높지 않다. 그냥 배우고 싶은 거 맘껏 배우고 냉랭한 돈보다 따뜻한 선생님의 손길, 부모님의 손길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조선어를 모르는 타민족의 애들로 되고 있다. 위기를 느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나는 중국의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조선족만큼은 땡땡거리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민족의 교육을 잘 계승해 왔다고 생각했었

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들마저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교육의 위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위기가 닥쳐오는 듯하다. 민족과 같이 동화된 다른 민족을 불쌍하다고 하지 말라. 우선 우리 민족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하다.

나는 문학을 모른다.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조선어 대신 중국어로 하는 강의, 교사의 부족, 조선족사회의 민족문화의 연속성문제 등등 참으로 현재 조선족 사회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100년을 꿰뚫어 지켜온 녀이 아닌가? 시험지마다에서 굴러 나오는 중국어들을 보면서, 중국어로 강의할 학교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 우리 조선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중국에서 다름 아닌 조선족으로서 그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민족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우수상

한에 얹힌 노래

김인덕 | 중국

한에 얹힌 노래

우수상 | 김인덕

운명의 회오리

신옥화는 1919년 한국 전라북도 전주시 구이면 흑석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친 신학봉과 모친 이 씨의 사이에서 형제 5남매 중 둘째, 맏딸로 태어났다.

옥화가 아홉 살 먹던 1927년의 여름이었다. 깊은 밤, 엄마가 옥화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봄에 세상을 떠난 후로 어머니의 색깔 난 무명치맛자락은 눈물에 마를 새가 없었다. 송곳 꽃을 땅도 없이 찌지게 가난한 살림에 엄마 혼자서 등골이 휘도록 고생했지만 온 집 식구는 목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다. 올망졸망 다섯 자식을 둔 엄마, 엄마의 근심은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나락이었다. 엄마가 하염없이 울자 옥화도 서럽게 따라 울었다. 한참 울던 엄마가 옥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다가 매정하게도 옥화의 손을 탁 뿌리치시더니 젖먹이를 들쳐 업

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옥화가 엄마를 부르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꿈이었다. 가위에 눌러 잠을 깬 옥화였지만 방금 겪은 일인 듯 너무나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다. 낮에도 엄마가 옥화를 앞에 두고 혼잣말로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라는 낯두리를 하시면서 슬피 우셨다. 옥화는 더듬더듬 엄마가 잠자리를 편 가마 목으로 기어갔다. 엄마가 있어야 할 가마 목은 텅 비어있었고 온돌은 싸늘히 식어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솟구멍으로부터 일더니 찬 기운이 온몸을 썩 감돌았다. 옥화는 허둥지둥 맨발바람으로 집 문을 나섰다.

밖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옥화는 엄마가 측간에 있을 듯싶어 마당 앞 측간을 향해 “엄마 ~”하고 크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옥화는 마을길에 나섰다. 옥화가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하자 마을 개들이 일제히 쾅쾅 짖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비로 마을길은 몹시 질척거렸다. 정신없이 마을길을 헤매던 옥화는 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때 옥화는 미처 몰랐다. 그렇게 혼자 집을 나선 걸음이 동생들과 영영 이별하고 기약 없는 80년이라는 긴 타향살이의 첫걸음이 될 줄을... 짓궂은 운명의 진흙탕이 일생동안 자신을 괴롭힐 줄은 더더구나 몰랐다.

옥화는 가까운 집의 대문부터 두드리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를 못 봤어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보지 못했다. 좀 있으면 돌아올 거다. 찾아다니느라 고생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기다려라.”

“엄마가 젓먹이 동생만 업고 갔어요.”

“근심 말거라. 네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새벽닭이 자처울 때까지 눈이 헐도록 엄마를 찾아 동네를 헤맸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옥화는 엄마를 찾아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점심이 지나자 뱃가죽이 등에 붙은 데다 기진맥진하여 더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옥화는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는 해 나른해진 몸을 이끌고 평퍼짐한 큰 바위에 앉았다가 소르르 잠이 들었다.

이때 지나가던 나무꾼이 옥화를 깨웠다.

“옥화야, 옥화야”

“네?”

“너, 왜 여기서 자니?”

“우리 엄마를 못 봤어요? 전 엄마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아침에 봤다. 이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큰 다리가 있는데 네 엄마가 그 밑에서 아기한테 젓을 먹이고 있더라.”

엄마를 봤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옥화는 오금에 불이 날 지경으로 한달음에 다리 밑까지 달려갔으나 엄마가 있을 리 만무했다.

옥화는 다리 주위를 뱅뱅 돌며 목 터지게 엄마를 불렀다. 날이 어둡기 시작하면서 번개와 우레가 연방 갈마들며 뿔아쳤다. 옥화는 엄마 잃은 설움에다 무서움까지 더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옥화는 선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피터지게 소리쳤다.

“엄마, 엄마.”

이때 길 가던 할아버지가 옥화를 발견했다.

“거기서 우는 아이는 누구냐?”

“할아버지, 전 엄마를 찾아요.”

“네 엄마가 너를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날도 어두웠는데 여기서 울지 말고 어서 날 따라 가자. 네 이름이 머니?”

“예뻐(애명)입니다.

옥화가 할아버지를 따라 간 곳은 당장 꺼질듯한 야트막한 움집이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생활이 몹시 구차스러웠다. 이튿날 이른 아침, 할아버지는 옥화의 손목을 잡고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와 옥화는 사흘간 부근 마을을 찾아 헤맸지만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허참 이상하지, 아이를 잃어버리고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별 수 없구나. 내가 너를 부잣집 마나님 집에 보내주마!”

“할아버지, 며칠만 더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나도 너를 곁에 두고 네 엄마를 찾아주고 싶지만 내 목숨마저 연명할 수 없는 처지란다.”

할아버지는 옥화를 마을의 부잣집에 데리고 갔다. 할아버지는 부잣집 담 밖에서 넘성거리더니 마나님을 불렀다.

“마나님.”

“누구세요?” 몸집이 좋은 중년마나님이 대뜰에 나타났다.

“마나님, 엄마를 잃은 여자아이입니다. 마나님께서 키워줬으면 해서 데려왔습니다.”

“애가 생긴 것도 멀쩡하고 영특해 보이는군요! 내가 이 아일 키우겠

으니 두고 가시오.”

마나님 집에는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무남독녀 외동딸이 있었다. 옥화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돼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겨릅대처럼 야위어갔다. 마나님은 외동딸과 옥화를 데리고 무당한테 길흉을 점치러 갔다.

“웬지 우리 애가 한 달 전부터 앓기 시작하는데 의원을 보이고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요.”

무당이 섬뜩한 눈길로 옥화를 쳐다보며 마나님에게 물었다.

“마나님이 데리고 온 저 아이는 뉘 집 아이입니까?”

“길을 잃은 아이인데 제가 기르고 있지요.”

무당의 얼굴에 삼시에 으스스한 찬 기운이 돌았다.

“저 요상한 아일 당장 내보내세요. 저 아이가 마나님 집에 액운을 불러왔습니다. 저 아일 버리지 않으면 따님의 병은 차도가 없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옥화는 밤이 깊었지만 궁싯거리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낮에 있었던 무당의 말이 내내 맘에 걸렸다. 마당에서 마나님이 어머를 부르더니 어슴푸레 이런 말이 들린다.

“어머, 내일 새벽 일찍이 밥을 넉넉히 보자기에 싸가지고 옥화를 저 자거리에 버리고 오게나.”

“네, 마나님.”

“돌아올 때 옥화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잘 조치하께.”

저자거리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어머는 옥화를 저자거리 뒷골목에 데리고 갔다. “옥화야, 네가 불쌍하지만 별수 없구나. 이젠 아침에 준

비한 밥이다. 난 그럼 간다. 나도 부지런히 걸어야 해질 무렵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 불쌍한 것아!”

옥화가 어미를 따라가려고 악을 बारबार 켜지만 어머는 옥화를 와락 밀쳐버리고 어느새 바람처럼 사라졌다. 옥화가 왈각 울음을 터뜨리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중구난방 떠들기 시작했다.

“어미도 모질지! 밥보자기 하나 달랑 맡기고는 딸을 떼버리고 오금에 부리나케 사라지더군!”

“쫓, 쫓 ~,말세야! 범도 제 새끼를 안 버린디는데...”

이때 중년의 아주머니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다.

“아가야, 여기서 울지 말고 어서 나를 따라 가자!”

저자거리에 사는 무당이였다. 무당이 옥화의 손목을 잡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 되는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무당에게 물었다.

“그 애는 누구요?”

“저자 거리에서 주어진 아이입니다.”

“어허, 집에 딸년만 셋인데 그것도 모자라 또 여자 아이 데려온단 말이요? 당장 갖다 버려!”

“그럼 임자를 찾는 동안 심부름이나 시킵시다.”

“보름 안에 내보내도록 하오!”

한동안 옥화는 무당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떡도 받아 오고 닭도 받아 오는 심부름을 하면서 근심걱정 없이 지냈다. 옥화가 무당 집에 온 지 15일이 되자 무당 남편의 독촉은 성화같았다. 맘씨 고운 무당은 옥화를 버리지 않고 사돈집에 보내주었다.

사돈집에는 15살 먹은 여자가 있었는데 밤을 유난히 무서워하였

다. 사돈집 아주머니는 성질이 몹시 양갈졌다. 옥화가 사돈집에 온 첫날 저녁, 사돈집 아주머니는 옥화에게 가당치도 않은 불호령을 내렸다.

“넌 언니 곁에서 자지 말고 언니가 자는 걸 지켜라! 언니가 자더라도 네가 졸면 혼날 줄 알아라!”

언니 곁에서 자정까지 뜯눈으로 앉아있던 옥화는 눈까풀이 천근무게 같아 노루잠에 들고 말았다. 깊은 잠에 들었나 싶었던 언니가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엄마, 엄마 ~, 도깨비가 날 잡으러 왔어요.”

“순옥아, 정신 차려! 네가 또 도깨비 꿈을 꾸었구나! 어이쿠 이 식은 땀을…”

“엄마, 난 무서워요! 엄마, 자지 말고 내 곁에 있어요!”

사돈 아주머니가 잠에 취해 눈도 뜨지 못하는 옥화의 먹살을 땡땡하게 죄어 켜 쉼 귀뺨을 후려쳤다.

“이 년! 내가 뭐라고 했니? 아홉 살 먹은 년이 이다지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밥만 처먹고 자기만 할 테냐?”

옥화는 작은 몸을 웅송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청승맞은 한밤중에 웬 통곡이냐! 울음을 뚝 그치지 못할까?”

옥화는 매 맞기를 밥 먹듯 했고 사돈집은 밤마다 초상난 집처럼 울음이 그칠 새 없었다. 옥화를 불쌍하게 여긴 옆집들에서 무당을 찾아가 옥화가 매일 얻어맞는다고 고해버렸다.

어느 날, 무당이 사돈집에 쏜살같이 들이닥쳤다. 무당은 사돈 아주머니 면전에 샷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돈집이라고 믿고 애를 보냈더니 이 고약한 것들이 허구한 날 애

를 장작 패듯 두드려 패는 거냐? 옥화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가자!”

무당이 나타나자 옥화는 굿 구경 간 엄마를 기다리듯 반갑게 무당에게 훌쩍 업혀 무당집에 돌아왔다.

무당집에는 낫모를 청년이 있었다. 무당은 고리짝에서 미리 준비해둔 말쑥한 무명치마저고리 한 벌을 꺼내 옥화에게 갈아입히면서 말했다.

“옥화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네 우로 언니 셋이 있지 않느냐. 너는 저 삼촌을 따라가거라! 삼촌 집에는 애가 없으니 널 잘 대해줄 거다!”

옥화는 생면부지의 청년을 따라 무당집을 나섰다. 청년은 옥화를 자전거 짐받이에 앉히고는 말 한마디 없이 폐달만 힘차게 밟았다. 한 시간쯤 달려 어느 한 시가지에 도착하자 청년은 자전거를 세우고 작은 가게에 들어가 사탕 몇 알을 사서 옥화 손에 쥐어주고는 계속 길을 재촉했다. 저녁 무렵에 옥화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마을이었는데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할머니는 헌숨을 가득 모아다가 숨을 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 집에서도 옥화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숨집 할머니는 어린 옥화를 종처럼 부려먹었다. 옥화는 낮이면 물도 길고 방과 마루를 닦았고 밤이면 할머니를 도와 헌숨을 타야만 했다. 날이 어두우면 등잔 불을 켜고 숨을 타는데 밤늦도록 일하면 콧구멍이 새까맣졌다. 밤이 깊어 피곤하여 깜빡 졸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곰방대가 날아왔다.

겨울이 되자 할머니는 옥화더러 강에 나가 빨래를 해오라고 하였다. 아홉 살 난 애가 빨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랴! 옥화는 언 손을 호호 불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한 대야의 빨래를 끝마쳤다.

옥화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의 옥사발이 쏟아졌다.

“이년,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야 오느냐?”

할머니는 대야에서 빨래를 주어들고 이리저리 들춰보더니 곰방대로 옥화의 새빨간게 언 손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년, 이게 뭐냐, 빨래한 꼬락서니가… 예전 같으면 시집갈 년이 여태 빨래마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단 말이지!”

마비된 손은 얼어서 아픈지 맞아서 아픈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분이 안 삭았는지 계속 악담을 퍼부었다.

“이년, 오늘 저녁은 못 먹을 줄 알아라! 자기 전에 저기에 모아 놓은 헌숨을 몽땅 타야 한다.”

이듬해 봄, 나무 심는 철이 돌아오자 할머니는 옥화더러 산에 가 나무 묘목을 파오라고 하였다. 할머니의 트집은 여간 만한 것이 아니었다. 나무묘목을 잘못 파왔다고 트집을 잡았고 심은 나무가 햇빛에 말라죽어도 트집을 잡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옥화더러 오전에 묘목을 떠다 심으라고 달달 북 더니 오후에는 산에 가 쭉을 뜯어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온 오전 고역에 시달린 옥화는 삭신이 물러나는 듯 걸리고 쭈서났지만 할머니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다. 지친 몸을 끌고 뒷산에 올라 쭉을 캐던 옥화는 할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옥화는 쭉을 캐던 칼을 땅에 푹 꽂아놓고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옥화는 신작로를 하나 건너 산길을 따라 정처 없이 길을 재촉했다.

영마루 몇 개를 지나니 어느덧 해거름이 되어 해는 서산으로 설핏 기울고 어슬어슬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 가 막연하기만 하고

무섭기까지 했다. 허위허위 산마루에 올라 산 밑을 내려다보니 대나무 숲이 보였다. 옥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인가가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었던지라 옥화는 대나무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나무 숲을 헤치고 한참 가는데 죽순을 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느닷없이 나타난 옥화를 보고 기절초풍하여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으며 “귀신이다.”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때를 같이하여 숲속에서 긴 담배대통을 문 노친이 나타났다.

“애야, 뭘 보고 그리 놀랬느냐?”

“저기 숲 속에 귀신인지 사람인지 애가 있어요.”

옥화를 쳐다보던 노친도 무서운지 옥화한테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애야, 넌 귀신이나 사람이나? 사람이면 이리 나오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쳤다.

때는 4월초라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심해 옥화가 양팔을 끼고 숲 속에 서있는데 노친이 다시 한 번 호통을 쳤다.

“네가 사람이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나오너라!”

옥화가 두 팔을 높이 들고 노친 앞에 다가서자 노친이 물었다.

“아이고, 멀쩡한 계집애로구나. 넌 뉘 집 애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옥화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노친은 혀를 끌끌 차면서 옥화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 노친은 이참봉 댁이었고 그 젊은 여인은 며느리였다. 이참봉 댁은 옥화가 사월에 왔다고 이름을 사월이라 지어주었다. 옥화는 이참봉 댁에서 그 집 막내아들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밥상을 날라다

주고 세숫물을 떠주고 발을 씻어 주는 등 자질구레한 일만 하면 되었다. 일도 힘들지 않았고 욕도 먹지 않고 매도 맞지 않으니 꿈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에게 또 봉변이 닥쳤다. 옥화가 뛰쳐나왔던 숨 집 할머니네 집 만딸이 소문을 듣고 옥화를 찾으러 왔다. 만딸은 면장 댁이었다. 옥화도 면장 댁을 몇 번 보아서 면식이 있는 터라 면발치에서 면장 댁을 발견하고는 대통 맞은 병아리처럼 멍해 있다가 재빨리 부뚜막에 숨어들었다.

이참봉 댁이 면장 댁을 반갑게 맞아드렸다. 수인사를 마친 면장 댁은 이참봉 댁더러 옥화를 내놓으라고 분부하였다. 부엌에 숨었던 옥화는 움썅달썅도 못하고 면장 댁 앞에 나섰다.

면장 댁은 의외로 옥화를 살갑게 대했다.

“옥화야, 무서워 마라. 우리 엄마가 하도 때리니까 불쌍한 네가 도망쳤겠지.”

“그 걸 알면서 불쌍한 것을 데려가려고 합니까?”

이참봉 댁이 불멘소리를 하자 면장 댁이 함께 온 40대 초반의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먼 친척집 조카인데 애가 없습니다. 옥화를 저 조카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양딸 삼아 잘 기를 겁니다.”

“엄마 나 ‘소리’ 할래!”

옥화는 또 한 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성이 박 씨인 가난한 집에

양딸로 들어갔다. 11살 어린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의 양딸이라 진일 마른일 가릴 새가 없었다. 혼자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땀고 농사일도 거들었다. 한번은 나무를 하다가 크게 다쳐서 다리가 뚱뚱하게 부어올랐고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옥화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도 수군거렸다.

옥화가 13살 나던 설날, 13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조선의 명창들이 공연하러 왔다. 어렵사리 찾아온 공연이라 온 마을이 들썩거렸다. 공연시간이 다가오자 옥화도 양어머니의 치마끈을 잡고 구경하러 가겠다고 졸랐다. 양어머니는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공연이라면서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그럴수록 호기심이 동한 옥화는 발밤발밤 엄마 뒤를 따라 공연장소인 면장 댁에 갔다.

옥화는 캄캄한 바자 뒤에 숨어서 공연장을 내다보았다. 공연은 돗자리 두 장만한 마루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명창들인 이동백, 김정이, 박추월 등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노라니 공연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다. 옥화가 자꾸 자반뒤집기를 하자 옆에 누워있던 양어머니가 물었다.

“옥화야, 왜 온밤 자지 않고 궁싯거리느냐?”

“엄마, 오늘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요?”

“그 사람들 조선의 명창들이란다.”

“명창이 뭐요?”

“소리 잘하는 것이 명창이지!”

“엄마! 나도 명창해야겠소.”

“아이고 이년, 그건 쌍놈들이나 하는 거다. 다신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엄마, 나도 쌍놈이 될 거요.”

“이년이 미쳤나? 입을 찢어놓기 전에 허튼소리 말고 빨리 자거나 해라!”

“엄마, 난 기어이 소리를 해야겠소.”

“이년아, 소리는 기생들이나 하는 거다.”

“그럼 난 기생이 돼야겠소!

“에이! 쌍년 같으니라고, 쫓겨나는 며느리처럼 말대답질은 꼬박꼬박 잘한다. 다시 그런 말 하면 종아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목을 끌어맨대도 소리를 배워야하겠소.”

“이년아! 소리를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 개 칠 몽둥이마저 없는 우리 집 사정에 무엇으로 월사금은 장만한단 말이냐!”

앞집에 사는 초동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갈 때마마다 “경기도아리랑”을 불렀다. 이전에는 그냥 무심하게 들었는데 명창들의 소리를 들은 후부터 초동의 노래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천초목은 젊어나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옥화는 “경기도아리랑”에 완전히 미쳐버렸다. 부뚜막에서도 “경기도아리랑”, 물을 길으면서도 “경기도아리랑”, 절구질을 하면서도 “경기도아리랑”이었다. 옥화가 하도 “경기도아리랑”을 불러대니 동네 할머니들은 옥화에게 “아리랑계집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얼마 후, 마을에 거지가 왔다. 그 거지는 마을의 집집마다 돌면서 “장타령”을 부르며 먹을 것을 구걸했다. 옥화는 그 거지가 동네 13호를 다 돌 때까지 쫓아다니며 “장타령”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

열시구시구 들어간다 절시구 들어간다

한 대문만 빠져도 계집자식이 다 굶는다

품배품배 잘한다

이 네 못하면 내 하고 내 못하면 네 하고 열시구시구 잘한다

예! 우리 부모 나를 낳아서 천자 한권을 못 가르쳐도

튀전 열장을 내렸네

일자 한 장을 들고 봐 일월이 송송해 송송

이자 한 장을 들고 봐 이주중분 백노주 백고 훨훨 날아든다

석삼자 들고봐 삼실령 도실령 먹고 쓰고서

남을영 범울령고로 날아들림

녁자나 들고 봐 시시행차 바쁜길 중하참 하기가 늦어간다

오자 한 장 들고 봐 6관대하 송진이 8선녀 대리고 희롱한다

열시구시구 잘한다

일곱 철자 들고 봐 7년 해한 가물제 만인간이 걱정돼
얼시구시구 잘한다...

또 얼마 후에는 마을에 엇장수가 나타났다. 엇장수는 큰 가위를 절
거덕거리면서 “엇 사시오, 엇 사시오.” 하고 고함을 치다가 “엇장수타
령”을 불렀다.

엇 사시오 엇 사시오 엇들 사
허랑 망타리 파는 엇이오
이리 가도 막 팔고 저리 가도 막 팔고
헨 삼베 걸레나 머리카락이나
수꾸라 몽댕이 부러진 것이나
담배 꼬다리 부러진 것이나
요강 깨진 것이나 막 받습니다...

모내기철이 되었다. 옥화가 부엌에서 불을 때고 있는데 집과 멀지
않은 논에서 장구, 팽과리, 북장구 소리가 울리더니 건드러진 “농부가”
가 들려왔다. 30여 명 되는 일꾼들이 부잣집 모내기를 시작하면서 흥
겨운 풍물놀이를 펼치고 있었다. 옥화는 불을 때다 말고 맨발바람으로
부지깽이를 든 채로 논으로 달려 나갔다.

에- 여- 여해 여루어 상사디요
높은 데를 갈면 밭이 되고 낮은 데를 갈면 논이 되어

그 논배미에 모를 내여 장님이 펼 펼 영화로구나

여- 여-여해 여루어 상사디요

배랭이 꼭지에 장하를 쫓고서 마구라기 춤이나 추어보세

에- 여- 여호루와 방아지어 상사대여...

풍물놀이가 끝나자 옥화는 신이 나서 부지깽이로 손바닥을 치며 방금 배운 “농부가”를 흥얼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웬일인지 양어머니가 문가에서 늦가을 배춧잎처럼 푸르텡텡해서 서있었다. 옥화가 집에 들어서려는데 양어머니가 독수리 병아리 덮치듯 벼락같이 옥화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챘다.

옥화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왜 이래!”

“이년, 이 발칙한 년아, 네년이 이 초가집을 다 태워먹겠다. 이년이 아무래도 큰 일 칠 년이다.”

옥화가 풍물놀이를 보는 사이 아궁이의 불이 튀어나와 하마터면 집 에 불이 달릴 뻔했던 것이다.

양어머니가 게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니 옥화를 부엌바닥에 내팽개쳤다.

“엄마, 난 죽어도 좋으니 소리를 배워야겠소.”

“미쳤어, 미친년!”

옥화의 나이가 어느덧 열세 살이 되었다. 양어머니는 노래에 미친 옥화를 일찍 시집이나 보낼 타산으로 옷감을 끊어와 바느질을 배워주려고 하였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잣밥에만 맘이 있는 옥화는 양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감을 돼지 염통 비끄러매듯 기워서 어

깨에 걸치고는 밖에 나섰다.

옥화는 온 동네 아이들을 불러 밤나무 잎을 주어다 몇 발이나 되게 이어서는 몸에 두르고 머리에 쓰고 땅에다 줄줄 끌고 다니면서 “풍물 놀이”를 벌였다.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들이 이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찼다.

“그 집 옥화가 온 동네 애들을 다 망치게 생겼소! 계집년이 동네 사내애들까지 몽땅 휘몰아가지고 송사리 꿩뚫 하니 동네가 소란스러워 어디 살겠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배우라는 바느질은 안 배우고 허구한 날 소리만 해대니. 매일 부뚜막을 두드리며 ‘장타령’을 부르고 절굿공이를 찼으면서 ‘옛장수타령’을 부른다오.”

“옥화가 노래는 잘 불러요.”

“애비, 어미 없이 자란 불쌍한 애인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죽어 원귀가 되어 못살게 굴면 어찌겠소.”

“동네 애들을 다 망치기전에 어디든지 보내세요.”

천덕꾸러기가 ‘춘향’으로

옥화가 미쳐날 정도로 소리를 하고 싶어 하니 양부모도 드디어 손을 들고 말았다. 양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천에 있는 숙부 집에 옥화를 보내 방법을 대보기로 했다.

숙부내외는 인천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살림살이가 신통치

않았다. 반년이 지나도록 숙부네 부부는 옥화에게 소리를 배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집안일만 시키고 있었다.

어느 하루아침, 옥화는 부엌에서 불을 때다가 숙모에게 불멘소리를 하였다.

“숙모, 난 소리를 익혀 명창이 되려고 숙모 집에 왔지 불이나 때고 빨래나 하려고 온건 아니오, 나에게 소리를 배워줄 선생을 찾아주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옥화는 귀가 솔깃해났다.

“무슨 방법이요?”

“너를 소리꾼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헌데 그게 결국 너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숙모, 난 소리꾼만 된다면 열 번 팔려도 괜찮소. 얼른 그런 사람을 찾아주오.”

그러던 어느 하루, 50세 좌우의 중년여자가 인천직업소개소를 거쳐 숙부 집을 찾아왔다. 중년여자는 옥화를 보자마자 맘에 들어 했다.

“계약서를 씁시다. 내가 이 애를 권번에 보내 3년간 소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애가 권번을 나온 후 3년 동안 번 돈은 모두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옥화는 그 중년여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 중년여자는 김재경이라는 유명한 목수의 본댁이었다. 김재경은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목수 일을 맡아하었는데 첩만 여럿이었다. 본댁이 낳은 아이가 다섯이고 첩들이 낳은 아이가 여덟이었다.

김재경의 본댁이 옥화에게 말하기를 이듬해 3월에야 권번에서 학생

을 모집하기에 그동안 애들이나 잘 돌보라고 분부하였다. 옥화는 이 집에 온 후로 엉덩이가 썩어날 지경이었다. 이 아이 저 아이 업어서 달래주는 것이 여간만 고역이 아니었다.

1933년 3월, 옥화가 열네 살 되던 해, 옥화는 김재경의 본택이 해준 새 옷을 차려입고 본택을 따라 인천인항권번에 입학하러 갔다. 권번에 입학하러 온 아이는 모두 36명이었는데 시험관선생은 전광태라는 유명한 서도소리 명창이었다.

옥화의 차례가 되어 전광태 선생이 물었다.

“너 무슨 소리를 할 줄 아니?”

14살 소녀로 숙성한 옥화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대답도 못하고 머리만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있었다.

“소리를 할 줄 모르면 내가 불러줄 테니 받아서 불러 보아라.”

“저 건너 큰 개가 킁킁 짓는다.’ 자, 따라 불러!”

옥화는 속으로 킁킁 웃으며 사람이 어찌 개소리를 내겠는가 생각했다. 잠자코 있는 옥화를 보고 전광태 선생이 물었다.

“왜 안 따라 불러? 네가 멍어리냐?”

조급해난 본택도 옥화에게 쓴 소리 한마디 하였다.

“네가 ‘소리’를 배우겠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다니더니 왜 겨울 개구리처럼 입을 봉하고 있니?”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제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시오.”

선생님이 축객 령을 내리자 옥화는 겁이 덜컥 났다.

“난 소리 할 줄 알아요!”

“엥? 병어리는 아니었구나! 그럼 어디 한번 불러 보아라.”

옥화는 목청을 가다듬고 ‘경기도아리랑’을 불렀다. 노래를 듣던 선생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응 괜찮게 부르는구나! 얼굴만 고운가 했더니 노래도 예쁘게 잘 부르는구나!”

선생의 칭찬에 용기를 얻은 옥화는 이어서 ‘농부가’를 불렀다.

전광태 선생은 흡족한 표정을 짓더니 제자로 받아주었다.

“이 애를 내일 오전 10시에 권번에 보내시오. 입학금 7원, 월사금 한 달에 2원, ‘비중’표 권연 한 달에 두 갑 보내야 합니다.

옥화가 권번에 입학하여 처음 배운 것은 시조였다. 옥화는 일 년 동안 25수의 시조를 배웠다. 시조는 한 수가 아홉 행으로 마디수가 적지만 매 음절에 붙는 음의 길이가 길어 한 수의 시조를 읊는 데는 4분가량 걸렸다. 선생은 권번에서 학생들에게 주로 서울소리를 중심으로 시조로부터 여창, 남창, 별곡, 긴 잡가, 휘모리 잡가 등 서도소리를 배워주었다.

옥화는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다. 권번에서 돌아와서는 아이보기, 집거두기, 밥 짓기 등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다. 하여 옥화는 작은댁의 환심을 사 작은댁으로부터 남도소리까지 배웠다. 김재경의 작은댁은 경상도 전주기생출신인데 남도소리를 배웠었다.

옥화는 하루도 거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름이면 인천만곡공원에 올라 소리를 연습했고 겨울이면 눈 위에 앉아서 연습을 했다.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좋았다. 연락선이 들락거리는 인천만곡공원에 올라 창망한 바다를 향하여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파도에 맞춰

메아리로 들려올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듬해 봄철, 옥화는 같은 권번에 다니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만곡 공원에 올라가 소리를 연습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순사가 나왔다.

“야! 이년들아 이리 와! 누가 여기서 소리치라고 했어?!”

“선생님이 바다에 나가서 소리를 치면 소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순사는 애들의 이름과 주소를 낱낱이 적더니 오전 열시까지 부모를 데리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본맥을 모시고 경찰서에 갔더니 순사는 엉뚱한 수사를 하였다.

“무얼 하러 만곡공원에 갔느냐?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옥화가 사실대로 말하니 순사는 책상을 쿵 치면서 “바른대로 말해! 웬 놈하고 약속했어?” 하고 협박을 들이댔다. 옥화와 친구들이 겁이 나서 겨울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하며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자 곁에서 사무를 보던 일본 경찰들이 시끄럽다는 듯 자기네들끼리 무엇인가 쑥덕거리더니 한 순사가 나서 말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기는 왜 우는 거야! 어서 집에 돌아가.”

옥화가 인천인향권번에서 공부한지 2년째 되던 해, 권번에 창극 ‘춘향전’의 춘향 역을 할 배우를 물색하러 5명의 소리꾼이 찾아왔다. 그들은 서울 권번, 개성권번 등 전국의 크고 작은 권번을 살살이 훑으면서 인천까지 왔다고 하였다. 그들은 인물이 예쁘고 판소리를 할 줄 아는 처녀를 찾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권번의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옥화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너 이름이 뭐고 성은 무어냐?”

“제 이름은 대여섯 개 되고 성은 없습니다.”

모두들 옥화의 대답에 어안이 빙빙했다. 사실 옥화는 자기의 성씨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고 새 집에 옮겨갈 때마다 새 이름을 가지곤 하였다. 집을 떠나기 전의 애명은 예쁜이였고 권번에 다닐 때의 이름은 복순이었으며 권번을 나온 후부터는 송죽이라 불렀다. 옥화가 자기의 성이며 어릴 때의 이름을 알기는 썩 후의 일이다.

춘향 역을 찾으러 온 소리꾼이 전광태 선생에게 말했다.

“저 엘 가르쳐서 춘향 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옥화는 지금까지 서도소리만 배웠습니다. 창극을 하려면 판소리를 알아야 하는데 저 아이가 될까요?”

“그럼 목소리나 들어봅시다. 이제 석 달 후면 ‘춘향전’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데 시간도 급박합니다.”

“그럼 한번 시켜보세요.”

한 소리꾼이 장구채를 잡더니 옥화를 향해 “내가 한마디 부르면 네가 따라 부르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춘향전”의 ‘이별가’, ‘사랑가’, ‘옥중가’, ‘이별가’, ‘쑥대머리’ 등 대목중의 ‘쑥대머리’ 한 대목을 넘겼다. 이 소리대목은 옥화가 작은때에게서 배워서 아주 숙달한 것이었다.

옥화가 서도소리 풍격까지 살리면서 목청을 뽑자 소리꾼들은 무릎을 탁 쳤다.

“조선팔도를 다 다니면서 찾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춘향 역을 찾았구나.”

그날부터 옥화는 오전에는 전광태 선생에게서 서도소리를 배우고 오후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어렵고 가장 다채롭다는 창극 ‘춘향가’를 배웠다. 석 달 후, 옥화는 창극 ‘춘향전’에서 춘

향 역을 담당하여 서울 등지를 다니면서 16차의 공연을 하였다.

1936년 17살 나던 해, 옥화는 인천인항권변을 출중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결혼

평소에도 옥화에게 중매를 서는 매파들이 문지방에 불이 날 지경으로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본댁은 모두 밀막아버렸다.

“애가 졸업한 후에 다시 봅시다. 졸업 후에 시집을 가겠으면 시집을 가든지 계약대로 나한테 돈을 벌여주든지 옥화한테 맡길 타산입니다.”

하루는 포목가게를 운영하는 청년이 청혼을 해왔는데 자가용까지 갖춘 대단한 재력가였다. 본댁이 옥화를 불러놓고 말했다.

“매일 들어오는 청혼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오늘 네가 청혼하는 청년을 만나서 네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맘에 없으면 싫다고 딱 잡아떼라.”

처음 자가용에 척 앉으니 옥화는 겁이 덜컥 나면서 이빨까지 덜덜덜 쪼았다. 포목가게에 도착하니 보이가 나와서 옥화를 2층으로 안내하였다. 키가 훗칠한 청년이 옥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옥화가 자리에 앉기 바쁘게 말을 건넸다.

“권변도 졸업했으니 나한테 시집오는 게 어떻소?”

“.....”

“노래를 팔아 돈 버느라 하지 말구 나한테 시집와서 편안히 사는 게

좋을 건데….”

“노래를 팔아 돈 버는 게 왜 나빠요?”

“평생 기생이란 딱지를 달고 다닐 텐데…”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은데 전 싫어요. 내가 회초리에 종아리를 맞으면서 노래를 배우건 제가 조선의 최고명창으로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시집가긴 싫어요! 그리고 전 병신이 아닌 이상 저 혼자 얼마든지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옥화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는 서도소리, 남도소리는 물론 장단을 치고 가야금병창까지 할 수 있으니 회갑집이나 결혼 집에 다니면 한 달에 200냥은 벌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여 옥화는 회사를 치르는 몇몇 집에 가보았더니 돈을 좀 번다는 여자들은 모두 남자들과 함께 술이나 마시면서 남자들의 노리개로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옥화는 자기도 인천에 있다가는 그 여자들처럼 타락할 것만 같았다. 벌써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옥화가 권변을 졸업한 줄을 알고 집적거리면서 귀찮게 굴고 있었다.

옥화는 청진, 함흥이나 원산 쪽에 가면 기녀들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들었던 터라 인천직업소개소에 들러 그쪽에도 기생직업을 알선했달라고 부탁드렸다. 며칠 후 청진에서 옥화를 데려가겠다는 연락이 왔다.

옥화가 집에 돌아와 청진에 갈 의향을 본댁에게 내비치었더니 본댁은 붉으락푸르락 하였다.

“나쁜 년! 수년 동안이나 공부시켰는데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을 떠난단 말이냐!”

옥화는 본댁 앞에 꿇어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다.

성이 좀 가라앉은 본택은 “이미 옆질러 놓은 물이니 할 수 없구나. 청진에서 사람이 온 다음에 다시 보자.”라고 하였다.

며칠 후 옥화를 데리러 청진에서 포주가 왔다. 포주는 본택에게 500냥을 드리고 옥화에게는 50냥을 주면서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였다.

본택은 옥화가 인천을 떠나는 날 몹시 아쉬워하면서 10리 길이나 배웅해주었다.

“넌 삼수갑산에 갈지라도 잘 살 거다.”

“네.”

“내가 근심되는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그냥 처녀귀신으로 늙을 수는 없는 게고 어느 때든 시집갈 게 아니냐?”

“네.”

“그러니 너 내 말 명심해라. 재산가하고 아편쟁이하고 칼을 찬 사람(경찰)에게 시집가서는 절대 안 된다. 석탄을 캐는 노동자면 어떠냐. 소금에 조밥을 먹더라도 너를 잘 생각해 주는 사람한테 시집가야 한다.”

옥화가 청진에 도착하여 기방에 출입하려 하니 기생허가증을 내야 한다고 했다. 기생허가증이 없으면 일본군의 위안부로 넘겨진다고 했다.

기생허가증을 내려면 호적등본, 승낙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태어난 곳도 성도 모르는데 호적등본을 어디에 가 찾겠는가.

꼼꼼히 생각해보니 성은 어렵פות이 생각났다. 옥화가 5살 때 오빠가 나무꼬챙이로 중국어로 땅에다가 신(申)자를 써놓고 “이건 우리 성이야.” 하던 오빠의 말이 떠올랐다. 옥화가 포주에게 달려가 땅에 申자를 써놓고 독음을 물었더니 신이라고 답해주었다.

호적등본으로 골머리를 앓던 옥화는 양부모에게 편지를 띄웠다. 며칠 후, 뜻밖에 양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다.

“옥화야, 네 친고모가 며칠 전에 너를 찾아왔다. 네 친고모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70여리 상거한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시간을 타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고모를 찾아 호적등본을 올리도록 해라.”

옥화는 친고모를 만나서야 오빠와 동생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옥화가 집을 떠난 후 오빠와 남동생, 여동생은 모두 엄마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빠는 밥을 빌어먹다가 굶어죽었고 남동생은 바깥에서 얼어 죽었고 여동생은 남이 먹다 버린 썩은 고기를 주워 먹은 후 죽었다고 하였다. 엄마와 막내 남동생의 소식은 그때까지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 옥화는 가족의 소식을 들으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창천을 향해 엄마를 원망했고 하느님을 원망했다. 돈을 벌어서 엄마가 데려간 막내 동생만은 꼭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기방의 출근시간은 오후 4시부터였다. 한 손님을 상대로 2시간을 서비스하는데 2시간이 넘을 때는 4시간으로 결제하고 5시간을 넘으면 10시간으로 결제하였다. 돈은 포주가 받았는데 달마다 비례에 따라 돈을 지불해주었다.

당시 청진에는 조선의 이름난 명창 지만수 선생이 살고 계셨다. 지만수 선생은 가야금 연주가이자 남도소리 명창이었다. 옥화는 오전마다 지만수 선생에게서 가야금과 남도소리를 배웠다.

옥화는 지만수 선생에게서 ‘흥부가’를 배우면서 많이도 울었다.

흥부가 끊어앓아

나가란 말 듣더니만
아이구,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 하시니
이 엄동설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하오
갈 곳이나 알려주오.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홍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오며
아이구 여보 미누라
형님이 나가시라니
어느 분부라고 안 가리까.
자식들을 챙겨보소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라 오너라
이사 짐을 챙겨 지고...

옥화는 이 대목을 부를 때마다 어김없이 울었다. 그럴 때마다 지만
수 선생은 옥화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위로해주었다.

“옥화야, 너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 안 배워줄란다. 후, 네가 어린 나
이에 고생을 밥 먹듯 했으니 제 설움에 우는게로구나!”

옥화는 기생집에서 1년 반 일하고 나니 기생생활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버는 돈 대부분을 포주가 뜯어먹다 나니 남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다. 나이도 어느덧 19세 노처녀가 되었다. 시집이나 가서 지긋지긋한 기생생활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어느 날, 옥화가 광동에 갔다가 삼안동에 있는 숙소로 걸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청년기사가 화물차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옥화한테 물었다.

“어디로 가는 아가씨니까?”

“삼안동으로 갑니다.”

“길도 멀고 날도 저물었는데 혼자 가지 말고 올라타시오.”

“싫어요. 얼마든지 걸어갈 만해요.”

“무서워 말아요. 목적지까지 곱다라니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근심 말고 앉으세요.”

청년기사는 송혜민이라는 총각이었다. 총각은 인물이 번듯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당시 청년들은 머리를 뽁뽁 깎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는데 기사청년만은 멋스런 하이칼라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옥화는 송혜민 청년에게 호감을 가졌다. 게다가 청년은 본택이 제시한 신랑을 고르는 3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총각이었다.

1938년 6월 20일, 옥화는 운명적으로 만났던 기사총각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옥화의 나이가 열아홉이었다.

이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되어 화물기사로 일하던 남편에게 입대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고중을 졸업한 조선청년이라면 지체장애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본군의 의무병으로 입대해야 했다. 입대를 회피하느라 자신의 발뒤꿈치를 칼로 깎아 장애자로 되는 청년도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옥화에게 아무 때든 데리러 온다는 약속 한 마디만 남겨두고 사촌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야반도주했다.

이듬해 6월, 남편과 함께 도주했던 사촌동생이 남몰래 옥화를 데리러 왔다. 옥화가 남편의 사촌동생을 따라 도착한 곳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였다.

신옥화는 목단강에서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누렸다. 쇠고기 1킬로그램에 15전 하던 세월에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남편의 월급 38원이었으니 남부러울 게 없었다. 남편 또한 신옥화를 몹시 아껴주었다. 유감이려면 결혼 첫 해 임신했다가 다시는 임신되지 않은 것뿐이었다.

1939년 음력설을 앞두고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고모로부터 동생과 어머니를 찾았다는 편지가 왔다. 동생이 보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 하였다. 당장 동생을 보러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인천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목단강에 모셔다 함께 살고 있던 터라 음력설을 앞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옥화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어느 날, 남편이 옥화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여보, 당신이 요즘 어디에 봐둔 사람이나 있는 게 아니요. 왜 내가 집에 돌아와도 인기척도 내지 않소? 내가 맘에 없는 거요?”

“여보세요, 당신이 맘에 안 들었다면 당신과 결혼했겠나요?”

“그런데 왜 얼굴이 마냥 어두운거요?”

“사실 얼마 전에 고모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동생을 찾았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구먼. 다녀오면 될 거 아니오.”

“지금 당장 설인데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길을 떠나요?”

“근심 말고 다녀오도록 하오. 내일 내가 여비는 푼푼히 마련하겠소.”

옥화는 헤어져 11년 만에 고모 집에서 엄마와 동생과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다. 헤어질 때만 해도 별별 기어 다니던 막내 동생은 어느덧 11살 소년으로 성장했고 엄마는 재가하여 아이 셋을 낳고 살고 있었다.

엄마를 대면하자 옥화의 두 볼에서 눈물이 줄 끊어진 구슬처럼 흘러 내렸다. 오빠와 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엄마가 이가 갈리도록 미웠건만 정작 마주하고 보니 허탈감에 빠져 아무 것도 따지고 싶지 않았다. 자식을 마주하고서고 주눅이 들어 기를 펴지 못하는 낯선 여인이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엄만 나 같은 딸을 낳은 적이 있소? 있다면 내게 무슨 표적이 있소?”

어머니는 머리를 수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잔등에 팔알만한 사마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구나.”

“엄만, 우리를 버리고 가시더니 잘 살고 있소?”

“그럭저럭 남의 땅을 붙이면서 호구하고 있다.”

옥화는 그날 밤 막내 동생을 껴안고 잤다. 옥화는 막내 동생만은 평생 잘 지켜 주리라 작심했다.

옥화는 며칠 동안 고모 집에 머물면서 11살이 되도록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동생을 나이 세 살 줄여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엄마에게 땅도 사드리고 아버지의 묘소에도 다녀왔다.

이혼

1945년 8월, 옥화는 목단강에서 광복을 맞았다. 36년간 일제치하의 망국자로 고향을 떠나 북만주에서 갓은 고생을 겪어왔던 동포들은 광복을 맞아 경축대회, 문맹퇴치, 부녀해방 등 대중성적인 활동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옥화는 문예활동에서 누구보다 노래나 춤을 잘 배워 모두들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옥화는 남 먼저 배워낸 “부녀가”를 목단강 시내의 조선족부녀들에게 보급하였다.

여보시오, 아가씨
부녀운동에 힘써서
봉건문화를 뒤집자
양걸이 운동이 평호우아 평호우아
남녀평등이 참 좋다

얼마 후 목단강문 공단이 설립되었다. 문공단 단장은 김태희 선생이

었다. 김태희 선생은 일본 동경대학 법학계를 다니면서 법학을 전공하는 한편 동경여자 사범학교에서 성악도 전공하신 분이였다.

당시 연변에 있는 김례삼 선생이 “탈선된 해방”이란 연극을 썼는데 목단강문공단에서는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배우를 구할 수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백성들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놓고 ‘쌍놈이다’, ‘날라리다’, ‘판따라다’라고 하면서 깔보았다. 김태희 단장은 옥화에게 여성배우들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임무를 주었다.

근 한 달간의 연습을 거쳐 연극 “탈선된 해방”을 무대에 올렸는데 반향이 좋았다.

1948년, 옥화는 결혼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맞았다. 결혼 첫 해 임신했지만 4개월 만에 자연유산한 후로 십 년이 넘도록 회임이 되지 않았다. 남편이 3대독자여서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한 탓으로 혼인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옥화는 한동안 목단강문 공단에 다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단강에 눌러앉을 기분이 아니어서 조선 평양으로 갈 결심을 내렸다. 평양행을 목적으로 심양으로 향발하는 기차에 오른 옥화의 기분은 씁쓸하였다.

옥화는 불공평한 하느님이 알미워 울었고 못난 자신이 한스러워 울었고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울었다.

일 년 전, 옥화는 초중을 마친 동생을 곁에서 더 잘 돌보려고 목단강에 데려왔다. 얼마 후 동생이 자진하여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한지 반년도 안 되어 한 줌의 채로 돌아왔던 것이다.

옥화는 자신은 지지리도 궁상스러운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

했다.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잠시 영화도 누려봤지만 그것은 환영
같은 것으로 연무처럼 기억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것이란
재가 된 가슴뿐이었다. 진물이 흐르는 아픈 상처만 안고 떠나가는 목
단강,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었다.

산도 설고 물도 선데
고향생각이 저절로 난다
닐닐닐 닐리리야

날 버리고 가시는 날
륜선에 앉아도 발병난다
닐닐닐 닐리리야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버리고 나는 간다
닐닐닐 닐리리야

옥화는 심양에 들렀다가 목단강 시절 가깝게 지내던 성이 임 씨인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언니는 옥화가 평양에 간다는 말을
듣고 극구 심양에 남으라고 만류했다.

“심양엔 목단강에서 살던 조선족들도 많아. 평양에 가선 무얼 하려
고?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여 옥화는 심양에 눌러 살기로 하고 심양 역 앞에 냉면집을 꾸렸
다. 냉면집은 장사가 신통치 않아 10개 월 만에 돈 천원을 밀어 넣고

그만들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임 씨 언니가 옥화를 찾아와 “8.15해방경축공연”에 참가해 달라는 심양시조선족문화관의 요청편지를 전하였다. 옥화는 심경이 복잡한지라 그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과장으로 사임하는 임씨의 남편이 친히 찾아와서 입이 닳도록 설복하는 바람에 연극 “사막의 어머니”에 출연하여 어머니 역을 맡기로 합의를 보았다.

1951년 8월 14일 저녁과 15일 저녁에 당시 심양시조선족문화관이 있는 원서탑기독교회 2층 강당에서 연극 “사막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무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 지도자는 옥화의 손을 굳게 잡으며 어머니 역을 출중히 감당했다면서 선전효과를 고려하여 관중을 너무 울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재혼

1951년은 조선전쟁이 한창인 비상 시기였지만 심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신체건강을 위해 전 차원의 사해(四害)제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옥화도 시정부의 호소에 따라 파리를 잡는 활동을 끝내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옥화의 앞을 막아섰다.

낯선 사람은 옥화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드리듯 말했다.

“아주머니, 전기인두를 사십시오.”

옥화는 참 이상한 양반이라 생각하면서 퇴박을 주었다.

“집에 인두 세 개나 있어요!”

후에 안 일이지만 그 낮선 사람은 성이 박씨이고 서울출신으로 심양시 소가툰에 사는 홀아비였다. 박씨는 옥화가 잘 아는 바느질집 어머니의 소개로 옥화의 거동을 유심히 살펴오던 차 ‘인두연극’을 꾸뻐던 것이다. 박씨는 파리를 열심히 잡는 옥화의 거동 한 가지를 놓고서도 옥화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날인 음력 8월 17일 아침, 바느질집 어머니가 옥화를 찾아와 오전에 자기 집에 오라고 일렀다. 옥화가 아침을 치르고 집 안팎을 말끔히 정돈한 다음 바느질집에 찾아가니 어제 보았던 중년 남자가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옥화가 “집에 손님이 계셨군요!” 하며 쑥스러워 물러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눌러 앉히면서 박씨를 소개했다.

“저분은 박씨인데 서울에 있을 적 영감과 한 정미소 울안에서 함께 살았던 터라 잘 아는 사이이다. 네 정황은 내가 이미 박씨한테 잘 소개했다. 지금부터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요해하도록 해라.”

주인집 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자리를 떴다.

박씨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저는 박용웅이라 합니다. 제 나이는 40이고요, 몇 달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뜨고 저는 지금 소가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문제 없습니다.”

“네! 전 신옥화라 합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실 전 이 집 아주머니의 주선으로 옥화 씨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전 재혼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 결함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결함이라니요?”

“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19살에 시집가서 첫해에 아기를 유산한 후 권식남이를 못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저에겐 그런 분이 더 합당하지요. 저에겐 이미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조선글도 모릅니까?”

“조선글은 알아요.”

“여자는 조선글만 알면 됩니다.”

“나는 소리나 하던 출신이라 명성이 나쁩니다.”

“그건 낡은 사회의 관습이구요. 지금은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도 떠받들면서 얼마나 대접하고 있습니까!”

옥화는 이혼을 겪은 후, 후반생에 아담한 초가집 한 채 얻어 뜰에 채소를 심어놓고 닭이나 오리를 기르면서 조용히 살아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무던한 박씨를 마주하고 나니 옥화는 그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다.

옥화가 박 씨에게 재혼할 것을 허락하자 박 씨는 주인어머니를 불러 돈 2원을 드리면서 점심차비를 부탁하였다. 식사 후 박 씨는 벗짚을 판돈으로 옥화에게 옷감 두 벌을 끊어주었다.

결혼식은 음력 10월 7일로 정하고 친척, 친구들을 청하기로 하였다. 결혼식 날,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들 진심으로 두 분의 재혼을 축하해주었다. 준비했던 술이 거덜이 나자 옥화는 복녀를 시켜 술을 더 사오게 하였다. 그런데 술심부름을 갔던 복녀가 사오라는 술은 안사고 밖에서 옥화를 불렀다.

“언니 저 박 씨란 사람이 아주 나쁜 대포쟁이래요. 듣건대 저 작자가 언니의 돈을 빨아 먹으려고 결혼했다고요.”

“뭐라고?”

“배씨가 말하는데 저 박 씨는 털어 먼지 밖에 없는 한량이라요.”

복녀의 말을 들은 옥화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람.’

술상이 파하고 손님들이 문을 나서기 바쁘게 옥화는 박 씨 곁에 바짝 다가앉아 박 씨를 쏘아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나쁜 사람, 건달뱅이, 거짓말쟁이, 대포쟁이… 대포쟁이면 대포나 잘 쏘아 미국 놈이나 잡지! 연약한 여자한테 뭘 털어 먹을 라우?!”

연주포를 쏘아대는 옥화의 말에 박 씨는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되물었다.

“여보시오, 무슨 말이요? 누구한테 헛소문을 들었소?!”

“당신의 친구 배씨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박 씨가 버럭 소리를 지었다.

“뭐야!”

열이 상투밑까지 치민 박 씨는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에이끼! 이놈자식 모가질 쑥 빼놓아야지!”

박 씨는 신발마저 제대로 신지 않고 부엌문을 차고 뛰쳐나갔다.

박 씨는 이튿날 새벽에야 나타났다.

“그놈 모가지 쑥 빼고 왔소?”

박 씨는 허죽이 웃더니 간밤에 배씨네 집에 갔다 온 경과를 이야기 하였다. 사연인즉 배씨는 남의 입을 통하여 옥화가 인물 잘난 미인이고 명창임을 알고 평범한 농군인 박 씨가 10살 어린 옥화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가깝게 보내던 박 씨가 또 한 번 홀아비로 될까봐 근심하던 차 일부러 복녀에게 박씨의 흉을 보았던 것이다.

옥화는 박씨에 대한 믿음이 가자 평소 아껴먹고 아껴 쓰면서 모은 돈 5천천 원을 모두 박씨한테 내놓았다. 옥화가 거금을 내놓자 박 씨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씨는 옥화가 내놓은 돈을 밑천으로 소형공장을 꾸리고 밭을 샀다. 옥화네 부부는 다른 농호들에서 3별감을 땀 때 6별감을 매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한 무의 논에서 600킬로그램의 수확고를 올렸다. 썸평이 피이고 근심걱정 없는 나날이 계속 되자 옥화는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했다.

신성한 사명

옥화가 심양에 이주한 시기로부터 중국은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지구에 자치구를 세웠다. 1952년 9월 3일,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민족자치를 실시한 지역의 하나로, 연변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창립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창립됨에 따라 연변에서는 연변가무단 등 조선족문예단체를 건립함으로써 중국조선족의 문화예술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1954년, 동북 3성 문예경연이 심양에서 열렸다. 세상과 담을 쌓고 농사만 짓고 있던 신옥화는 그런 행사가 있는 줄 감감 몰랐다. 연변가무단에서도 심양에서 펼쳐진 동북3성 문예경연에 참가하였다. 경연이 끝나자 연변가무단에서는 사람을 여러 패로 나누어 심양시에 거주하는 민간예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은 초창기에 있는 조선족의 문화예술 발전의 수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변가무단의 김성민 선생은 심양시 조선족 문화관에 들렀다가 서도소리와 남도소리에 능한 신옥화 선생이 심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단서를 얻었다. 하지만 신옥화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만용툰에 사는지 소가툰에 사는지 누구도 몰랐다.

김성민 선생은 먼저 조선족 집거구인 소가툰을 찾았다. 당시 중국의 농촌에서는 사적재산이었던 토지, 가축, 농기구 등을 집체에 들여놓고 집단농사를 짓는 농촌생산협작사가 발랄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김성민 선생은 먼저 소가툰 농촌생산협작사 사무실에 들러 호적등기표를 훑어 보았으나 신옥화란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가툰 농촌생산협작사의 명부에도 신옥화의 이름은 없었다. 호주가 아닌 이상 가정주부가 호적등기표에 오를리 만무했고 아직 농촌생산협작사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합작사의 명부에도 옥화의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합작사의 총무주임이 김성민 선생에게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소가툰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돈 꾸러 갔다가 박 씨 집구석에서 가야금을 보았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가 혹시 선생님이 찾는 그 신옥화란 여성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민 선생이 총무주임의 안내를 받아 박 씨 집에 도착하니 박 씨 내외는 마침 집에 있었다. 김성민 선생이 먼저 신옥화를 알아보았다. 당시 목단강에서 소학교교원을 하고 있던 김성민 선생은 여러 가지 문예활동에서 활약을 보이던 신옥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린 김옥화 선생이 평양에 건너간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 오셨습니까?”

“전 지금 연변가무단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민간예인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심양시 민간예인들을 모두 만나볼 수 없습니까?”

“물론 만나볼 수 있지요.

“그럼 내일 민간예인들을 모두 모시고 우리가 묵고 있는 서탑중학교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 옥화가 심양에 거주하고 있는 7명의 민간예인을 모시고 서탑중학교에 찾아가니 연변가무단 김태희 단장이 옥화네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태희 단장은 바로 목단강 시절, 목단강가무단 단장으로 지내던 그분이었다. 신옥화를 비롯한 7명의 민간예인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무용과 전통 민요를 표현하였다. 신옥화는 “제비가”를 불렀다.

만첩산중 늙은 범이
 살찐 암개를 물어다놓고
 에 이리궁글 놀린다.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에 달이 솟네
 만리장천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려 나간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우에라 저제비야
 너 어디로 행하느냐
 백운을 박차고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
 우여라 내 집으로 오너라.

민간예인들의 표현을 보면서 한껏 박수를 치던 김태희 단장이 말했다.

“조선전통민요를 선생님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분이 중국에는 아주 드롭니다. 저는 선생님이 목단강에 계실 때 연극 《광명》과 《옥사》 등에서 여주인공역을 맡아하니깐 연기에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도 소리와 서도소리에 모두 능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뭘 말입니까?”

“모든 대우를 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변가무단에 와 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남편이 고집불통인데다 저도 남편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무데도 안 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뒷근심도 덜어드리지요. 그분이 농사를 짓겠다면 농사를 짓게 하고 직장을 요구한다면 직장을 구해드리지요.”

“부질없는 일입니다. 아예 입 밖에 말씀을 꺼내지 마시오. 남편은 당나귀 열 마리가 끈다 해도 꿈쩍 안 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의 생각은요?”

“초야에 묻혀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아무때든 연락을 주십시오.”

신옥화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연변가무단의 의사를 여쭙었더니 생각던 대로 남편은 펄떡 뛰면서 가시 돌친 말을 내뱉었다.

“멀? 바람맞은 미친놈들!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지! 안 돼! 난 평생 소가툼을 한발작도 안 떠날 거야!”

연변가무단에서는 계속하여 옥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또 직접 사람을 보내 신옥화를 청하였다.

1954년 여름, 논감을 다 매고 농촌합작사의 간부들이 신옥화네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편배달부가 연변가무단에서 보낸 편지를 배달하였다.

합작사 사장이 우편배달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 겉봉을 훑어보다가 말했다.

“연변가무단에서 이 집 아주머니께 편지가 왔구먼. 이 집 아주머니가 예술에 장끼가 있는 모양이구먼.”

“연변가무단에서 사흘이 멀다하게 편지만도 20여 통 보내고 사람을

보낸 차수만도 일곱 번입니다.”

“성이가 대단하군요.”

불같은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신옥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속심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을 다 매고 짬도 있으니 한 번 연변에 가서 나의 정황도 솔직히 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지요. 성의를 너무 무시하면 그들이 날 건방지다고 욕할 것이 아닙니까?”

박 씨가 신옥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볼 멘 소리를 하였다.

“배울 게 있으면 소가툼에 와서 배우면 될 걸 가지고 왜 남의 가정 부녀를 오라 가라 하면서 그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동무, 아주머니를 보내주시오. 당에서 요구하고 인민이 요구한 다면 선뜻 나서야지요. 왜 아주머니의 뒷다리를 잡아당깁니까?”

고집불통인 박 씨였건만 이미 그 해 봄에 농촌생산협작사에 가입한 터라 협작사 사장의 권유를 마다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일주일 말미를 줄 테니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오오.”

“기차를 타는 데만 이틀 걸리는데 일주일 내에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적어도 2주일은 걸려야 합니다.”

신옥화가 연길역에 도착하자 키가 훗칠하고 이마가 넓죽하고 코가 덩실한 김태희 단장이 친히 기차역에서 신옥화를 영접하였다.

“기차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시겠는데 사흘간 폭 쉬시오.”

“두 주일 말미 말고 왔는데 사흘간 쉬고 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나 맡겨주십시오.”

소탈한 성격의 부접 좋은 김태희 단장이 껄껄 웃었다.

“이미 오신 다음에야 우리 맘이 아니겠습니까? 두 주일 내로 꼭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아니고… 허허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연변가무단에는 음악조, 성악조, 무용조, 연극조가 있습니다. 우리 가무단에는 지금 배우들을 지도할 수 있는 4개 부문의 전문가가 모두 결핍합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 기예를 두루 갖추었으니 골고루 돌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인천에 계실 때 창극 《춘향전》에서 춘향 역을 맡아했던데요?”

“네, 그랬지요.”

“이번에 우리 가무단 연극조에서는 조선고전명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창극 춘향의 역을 맡거나 배우를 골라 옛 풍속과 동작, 표현 등을 지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춘향 역을 맡기는 일정 때문에 곤란하구요. 제가 춘향 역을 선정해 연습시키지요.”

“우리는 선생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예술 사업을 취 세우는 일인데 저도 한몫 해야지요.”

이튿날부터 신옥화는 배우들에게 예술기예를 전수하는 일에 살손을 불리고 팽이처럼 돌아쳤다. 음악조의 배우들에겐 장구 치는 것과 가야금을 타는 기예를 가르치고 무용조의 배우들에겐 민속무용을 지도하였고 성악조에 가서는 민요를 가르치고 연극조에 가서는 연극 《춘향전》을 지도했다. 하루 10시간씩 팽이처럼 돌아치며 지도하다가 숙소에 돌

아오면 삭신이 물러나는 듯 했다.

당시 중국조선족예술계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삼아 민족예술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초대 주장인 주덕해 동지는 “소방대가 불을 끄는 속도로 민족민간예술을 발굴 정리하라.”고 연변문예계에 지시하면서 전 연변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지프를 문예사업 일군들에게 내주어 민간예술을 수집, 정리하게 하였다.

김태희 단장은 초창기에 있는 중국 조선족의 예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예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선경지명이 있는 선각자였고 훌륭한 지도자였다. 어느 날, 김태희 단장은 민간예인들인 신옥화, 조종주 등 전국의 10여 명 민간예인들을 연변가무단 연습실에 모셨다. 김태희 단장은 전체 단원회의를 소집하고 민간예인들에게서 우리의 전통예술을 잘 학습할 것을 호소하였다.

민간예인들 앞에는 장구, 통소, 북, 칼 등 각종 악기와 무용도구 외 특별히 술상이 갖추어져있었다. 장내는 물 뿌린 듯 조용하였고 10명의 민간예인들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김단장이 사업일군더러 민간예인들에게 술을 따라드리도록 하였다. 장내는 마치 어느 노인 회관 노인들의 술추렴을 방불케 했다.

술판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민간예인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흥겨운 오락판을 벌리기 시작했다. 장내는 건드러진 민요와 들끓는 춤사위로 열의에 휩싸였다. 룡정에서 오신 북잡이 노인의 북춤, 하택의 선생의 상모춤, 박노인의 “칼춤” 그 외 기타 민간예인들의 “손춤”, “부채춤”, “북춤”, “농악무”, “장구춤”, “장구가락”, 희극적인 “북가락”, “수건춤”,

“살풀이”, “탈춤”이 연이어 표현되었다. 단원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가락과 전통놀이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어 저도 모르게 “야!” 하고 감탄을 연발했다.

한 달 후, 연변가무단에서는 신옥화가 지도해 준 종목을 묶어 “민간의 밤” 시연회와 연극 《춘향전》 시연회를 연길에서 가졌는데 이 두 개 공연은 조선족 사회를 들썩하게 하였다.

연변가무단에서는 “민간의 밤” 시연회의 종목을 갖고 연변각지를 돌며 공연하였다. 공연대가 가는 곳마다 명절분위기로 넘쳤다. 농민들은 바쁜 농사일도 마다하고 마을 밖에까지 나와 공연대를 친인처럼 반겨 주었다. 농민들은 궁핍한 살림에도 찰떡을 치고 닭을 잡아 진수성찬을 차렸다. 공연시간이 다가올 무렵이면 명절에나 입던 새 옷들을 장롱에서 꺼내 입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성대한 문예공연을 구경하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갓은 고생을 겪어왔던 중국의 조선족 이민 1세대들은 흥겨운 우리 민요가락이 울리자 너도나도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춤이었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노래였던가. 동포들은 공연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살이의 온갖 설움을 한껏 달랬으니 그날은 최대의 명절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힘을 얻은 배우들은 연이은 공연에도 지칠 줄 모르고 조선족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신옥화는 용정시 백금에서 공연을 마친 이튿날, 공연대와 함께 달구지에 공연도구와 이불 짐을 짊어 박아 싣고 해발 800미터 되는 평두산 꼭대기의 조선족마을을 찾아갔다. 이 마을에는 모두 여덟 호의 조선족

들이 살고 있었다.

평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고 쑥밭은 키를 넘었고 구렁이같이 큰 뱀들이 출몰하였다. 갈 길은 멀었는데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은 공연도구가 비에 젖을세라 너도나도 옷을 벗어 공연도구를 덮었다. 이때 돌이 안 지난 아기를 집에 두고 온 아기엄마가 길가에 주저앉았다. 애기에게 배불리 먹여야 할 젖이 붙어나 쪼그리고 앉아 젖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엄마의 볼에서는 눈물과 빗물이 한데 범벅이 되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극 《춘향전》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연극 《춘향전》은 먼저 연길에서 공연되었다. 연길주변의 도시와 농촌들에서 관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공연장소인 연길시 노동자 문화궁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운신하기 어려운 부모를 달구지에 모시고 온 젊은이들도 부지기수였다. 공연이 끝나 밖에서 기다리던 노인들은 배우들이 나타나면 배우들의 두 손을 꼭 맞잡고 감격에 젖어 말했다.

“이 늙은 것이 《춘향전》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겠소. 정말 신통하더구먼. 감사하오.”

연극 《춘향전》을 흑룡강성 목단강 문화궁 극장에서 공연할 때였다. 목단강 문화궁 극장은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극장인데 마이크나 음향설비가 없었다. 조그만 소음이라도 연극대사 전달에 영향을 주기에 극장 측에서는 무릇 1미터 이하 어린이들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공연이 있는 날, 목단강 신안진에서 온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검표원이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를 막아 나섰다.

“아기를 업고 극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세상에 울지 않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검표원은 아주머니가 생떼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아주머니를 한편으로 밀쳐놓았다.

아주머니가 울먹거리면서 애걸했다.

“아기가 울까봐 방금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사다 먹었습니다.”

마침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극장경리는 조선족관객들의 열의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어 조선족 관중들이면 누구나 다 입장하게 하시오!”

연변가무단에서는 연극 《춘향전》을 300차 공연하였고 이듬해에는 연극 “심청전”을 무대에 올려 500차를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100만 명가량 되는 중국조선족을 두고 두 편의 연극을 도합 800차 공연했으니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김태희 단장은 옛것을 발굴하여 오늘에 복무시킴에 있어서 매우 대담하였다. 한 번은 굿을 하는 무당을 청하여 굿놀이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민족민가무용을 배우는 것을 구실로 우경노선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태희 단장은 낡은 것이 없으면 새것이 있을 수 없고 낡은 것을 똑똑히 알아야 새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유연비어에도 끄떡없었다. 물론 그것은

훗날의 화근으로 되기도 하였다.

대학 강단으로

전통을 바탕으로 창작된 연변가무단의 문예종목들은 중국 조선족의 박수갈채는 물론 전국순회공연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956년, 수도 북경에서 있는 “전국음악무용주” 기간 연변가무단에서는 신옥화 등 민간예인들이 가르친 “농악무”, “부채춤”, “물동이춤” 등 무용종목과 대합창 “장백의 노래”를 북경무대에 올려 장안의 화제를 몰고 왔다. 연변가무단의 매개 종목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배우들은 무대중앙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연변가무단의 배우들은 모주석의 접견을 받는 희대의 영광까지 누렸다. 그때의 종목들은 중국 국가문화부의 추천을 거쳐 당시 소련 모스크바에서 있는 “쏘련 제6차 청년련환절”에 참가하여 3개 종목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여 또 한번 조선족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어서 연변가무단에서는 대합창 “장백의 노래”를 중심으로 신옥화가 가르쳤던 서도소리, 남녀표현창 “날개타령” 등 종목들을 준비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시작하였다.

공연은 중국 대도시에서 조선족가무의 열풍을 일으켰는데 극장마다 초만원을 이루었고 신문, 방송보도매체들에서는 연변가무단의 공연수준을 극찬하였다. 이때로부터 조선족은 춤과 노래를 즐기는 민족으로,

연변은 “가무의 고향”이란 미칭을 얻었다. 신옥화는 “전국음악무용주”와 전국순회공연에서 표현1등상과 명창이라는 영예를 안고 금의환향하였다.

신옥화가 돌아오자 남편은 반색하면서도 “수도무대에서 장끼도 보이고 전국을 돌면서 실컷 구경했으니 이제 집에서 조용히 농사나 지으며 재밌게 삽시다.”라고 그루를 박았다.

며칠 뒤, 연변가무단에서는 신옥화에게 몇백 원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그동안 신옥화가 연변가무단을 위해 일해 준 대가였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30원이 되니마나한 금액이었으니 보내온 돈은 거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신옥화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월급도 푼푼히 주는데 연변으로 이사합시다.”

헌데 남편의 고집은 드팀없었다.

“망할 놈 자식들, 돈에 환장한 줄 아나.”

육사발을 퍼붓던 남편은 다짜고짜로 보내온 돈을 연변가무단에 돌려보냈다.

1957년에 김태희 단장한테서 편지가 왔다.

“연변에서는 주덕해주장의 지시로 우리 민족의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변예술학교를 창립하였습니다. 제가 연변예술학교 초대교장을 맡았는데 전인미답의 사업이라 조바심만 칠뿐 촌보난행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선발은 물론 학생모집도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양악기와, 현대 성악을 가르칠 교원들은 연변가무단에서 12명을 선발하였지만 민가를 가르칠 교원은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신옥화

선생님이 민가를 가르칠 적임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예술의 기반을 닦는 성스러운 사업에 투신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더니 노발대발하였다.

“허허, 이놈들 고안 놈들, 말을 타니 경마를 잡히고 싶다더니, 기어 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드는구나.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남편이 한사코 반대하니 옥화로서도 별수 없었다. 신옥화는 집안 사정으로 연변에 갈 수 없다고 회답편지를 띄웠다.

일주일 후, 김태희 선생이 직접 소가툰에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 인정사정이 남편에게는 바늘귀만큼도 뚫리지 않았다. 벽창호 같은 남편은 이전에 하던 말만 고스란히 되풀이하였다. 며칠 후, 김태희 단장은 별 소득 없이 연길에 돌아가고 몇 차례 더 사람을 보내왔다. 하지만 모두가 문전퇴박을 맞고 말았다.

별수 없었는지 김태희 단장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내 학생모집만 맡아달라고 신옥화에게 요청하였다.

부탁이 간곡한 만큼 신옥화도 뿌리칠 수 없었다. 신옥화는 남편을 붙잡고 통사정했다.

“연변예술학교에서 학생모집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허락해주세요. 학생모집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딱딱하기는 삼 년 묵은 박달나무 같던 남편이 마지못해 신옥화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신옥화는 학교 측의 요구대로 한 달 동안 요녕성, 길림성을 돌면서 학생모집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목단강에 들렀다.

옥화는 자신을 대신할 교원을 찾지 못하면 개학 후에 학교 측에서 또 애를 먹일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옥화는 목단강역에 내리자 바람으로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집거 구를 찾아갔다. 마침 엿을 파는 엿장수할아버지가 큰 가위를 절거덕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곳에 소리를 할 줄 아는 분이 없어요?”

“있긴 있지. 박정렬이라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남도소리, 판소리, 장잡가 등 못하는 소리가 없지. 그런데 그 사람은 술을 마셔야 소리를 하지.”

“네, 그럼 제가 식당에 한 상 차리지요. 그분을 모셔올 수 없습니까?”

“물론 될 수 있지요.”

저녁때가 되자 할아버지가 한 사나이를 데리고 식당에 나타났다. 식당에 들어서는 어수선한 옷차림의 사나이는 가난한 양반 향청에 들어오듯 몹시 기죽어 있었다. 궁핍한 생활에 찌든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박정렬 씨는 얼마 전 아들을 잃었다고 했다. 어린 아들이 홍진을 앓았는데 짜지게 가난한 홀아비살림에 의원을 보일 돈이 어디 있으랴! 홍진 하는 아이에게 개가죽을 씌우면 좋다고 하기에 개가죽을 얻어다 씌웠는데 아이가 그만 질식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술상이 무르익자 박정렬 씨가 소리를 뽑았다. 보기 드문 명창이었다.

신옥화는 박정렬 씨가 자기를 대신할 적임자로 생각했다.

“제가 선생님께 ‘밥통’을 찾아주지요.”

소뿔은 단김에 빠라고 이튿날 옥화는 김태희 단장에게 편지를 띄워 소리꾼 박정렬 씨를 소개하였다. 무겁게 지지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

고 한시름을 놓은 신옥화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가툰에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학교가 개학을 맞으면서 김태희 교장으로부터 구구절절한 독촉편지를 보내왔다.

“너무 막막해서 편지를 띄웁니다. 개학이 당금이고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데 전통음악을 가르칠 교원이 모자랍니다. 박정렬 선생이 오신다고는 하지만 한두 명의 교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단 한두 달만이라도 우리가 교원을 더 물색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주시시오. 명색이 우리 민족의 예술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전통음악과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 교장의 청원이 절실하고 사개가 맞는데다 자신이 직접 뽑은 학생들을 한두 달 동안만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 옥화는 단동에 계시는 시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은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의 말을 잘 들었다.

시형은 먼 길을 달려 심양시 소가툰에 와 동생을 뒹아세웠다.

“여자라고 평생 가마뜨베(가마뚜껑) 기사가 되라는 법이 있더냐. 당이 수요하고 인민이 수요하면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상봉

신옥화가 예술학교에 나타자자 김태희 교장을 비롯한 기진도, 박재

범, 최금선 등 교원들은 뜻밖이라는 듯 신옥화를 반색하였다. 박정렬 선생도 이미 도착하였었다.

전통음악을 가르칠 교원은 신옥화, 박정렬, 김룡옥 3명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전에 배운 소리의 가사들을 모두 정리하게 하였다. 어렸을 때 이를 악물고 조선글을 배운 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옥화는 창극 “춘향전”을 비롯한 200여수의 판소리나 민요를 적은 노트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옥화가 인천인항권번에서 남도소리를 배우던 시절, 어느 날 옥화가 권번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네 집 아주머님들이 모여 앉아 빨래에 풀을 먹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옥화는 곱살하게 생겨 연애편지께나 꽤 올 건데 옥화가 글을 모르니까 남에게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회답편지도 못쓰겠지?! 참 불쌍해!”

옥화는 업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인집에 소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그 애에게서 먼저 자모부터 익히리라 맘먹었다. 옥화는 젓먹이 아기를 등에 업고 글 읽는 아이 뒤에 꿇어 앉아 어깨너머로 넘겨다보면서 조선글을 익혔다. 연필이나 종이가 없어도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글을 쓰면서 열심히 글을 배웠다. 몇 달 동안 배우니 신문도 읽을 수 있었다.

예술학교에서 교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옥화는 매일 교안도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는데 세절까지 빠뜨리지 않고 아주 소상하게 적었다. 어느 날, 국가교육부에서 감사단이 내려왔다. 그런데 전교적으로 누구 하나 지나간 교육행사를 적어놓은 사람이 없었다. 옥화의

꼼꼼함을 잘 아는 학교 교도주임이 찾아와서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서는 옥화의 일기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회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자료들은 문화대혁명시기 홍위병들에게 몽땅 빼앗겨 찢터미로 되고 말았다.

1958년, 연변예술학교에서는 조선국립고전예술극장의 가야금연주가 지만수, 민족성악전문가 방옥란을 초청하여 교원과 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동안 옥화는 스승 지만수 선생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냈었다.

지만수 선생은 옥화를 만나자 무등 반가워하였다.

“네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생각도 못했다. 세월이 유수라더니 옥화도 이제 중년이 됐구나. 노래를 배우면서 하염없이 울던 네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옥화는 감구지회가 새로웠다.

“선생님과 헤어진 지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적도 서로 다르니까 안부도 못 전하고…”

옥화는 그렇듯 따르고 존경하던 스승을 만나니 목이 껍 막혀 뒷말을 잇지 못했다. 쓰고 뚫었던 인생살이를 한꺼번에 다 털어놓고 선생님에게 매달려 한껏 울고 싶었다.

선생님은 옥화의 심사를 알아차렸는지 말머리를 김태희 교장에게 돌렸다.

“나 같은 전문가를 청할게 뭐요? 서도, 남도창을 모두 전공한 사람은 조선의 임소양과 중국의 신옥화 둘뿐입니다.”

시간은 살같이 지나 며칠 후면 조선전문가들이 교수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옥화가 지만수 선생을 따라갈까 저어하는 눈치였다. 옥화는 김태희 교장을 찾아가 자기의 속셈을 털어놓았다.

“저는 지만수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선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지만수 선생이 귀국하기 전에 옥화를 한 달 동안 지속되는 전국교수참관단에 보냈다. 지만수 선생은 옥화가 북경으로 떠나기 전 날, 옥화에게 자신의 얼굴사진 한 장과 만년필 한 대를 선물하면서 이별을 몹시 아쉬워하였다.

그 후 신옥화는 천방백계로 귀국한 지만수 선생의 소식을 탐문했지만 선생의 소식은 묘연하기만 했다. 몇 년 뒤에 들은 소식이지만 지만수 선생은 귀국한 후 얼마 안 되어 위병으로 주을온천에서 휴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기근

1960년, 중국에서는 “반공반독”이라는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마다 학생들을 공장이나 농촌에 내보냈다. 공부하는 날보다 일을 하는 날이 더 많았다.

신옥화도 학생들을 따라 연변의 산간마을을 돌면서 일도 하고 문예 공연에도 참가하였다. 그때 옥화는 연변의 크고 작은 기업은 물론 작은 시골마을을 포함해 안 다녀본 곳이 없었다.

옥화는 “반공반독” 하는 기간 일숨씨가 깔끔하고 음식숨씨가 뛰어나 60여명 사생들의 화식을 혼자서 맡아했다. 어느 날, 옥화는 50킬로그램 되는 쌀자루를 혼자 다루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남아 60세가 되기 전에 벌써 곱사등이가 되고 말았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사회주의 중국은 전대미문의 ‘대약진’운동과 3년 대해가 겹치면서 대공황을 맞았다. 중국정부는 비현실적인 극좌적 노선을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3년 내에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공업산품 산량면에서 10년 내에 영국을 초과하고 15년대에 미국을 능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약진 중에서 높은 지표, 맹목적인 지휘, 허위회보, 허풍 치기, 공산품이 성행하면서 국민경제질서가 혼란해지고 국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었다.

이 시기 중국의 농촌들에서는 ‘집체식당’이란 것이 새로 생겨났다. 가정을 단위로 식사하던 재래의 식사법을 타파하고 온 마을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집체로 식사하게 만든 것이 소위 ‘집체식당’이다. 농촌부녀들을 가무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 농업생산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집체식당’을 꾸린 취지라고 하였지만 실은 대부분의 농산물을 국가에서 가져간 탓으로 농촌에서의 바른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공여지책이라 할 수 있었다.

옥화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소가툰에서도 ‘집체식당’을 꾸렸다고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다.

“처음에는 그래도 쌀알이 좀 섞인 입쌀 죽을 주더니만 식량사정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얼굴이 비치는 멸건 죽이 아니면 시래기죽을 공급하고 있소.

두 아들은 못 먹어 누렇게 부황이 나고 겨릅대처럼 말라가고 있소.
허기진 큰 애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천정에 매달아 놓은 메주를 내려
먹으려다가 넘어져서 이마까지 겼소.

애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돌피를 잘라서 돌피 쌀을 얻고 가을걷이를
끝낸 눈에 나가 벼이삭도 줍고 쥐구멍을 뒤져 쥐가 저장한 곡식들을
건어 들이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소. 보릿고개가 따로 없어
벌써부터 봄 기근이 근심되는데 아마도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할 것 같소.”

옥화는 남편의 편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장 모든 것을 뿌
리치고 남편과 자식이 있는 소가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도시의 식량사정도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옥화도 때마다 옥수수가
루나 수수쌀로 죽을 쑤어 끼니를 에웠다. 옥화는 하루 한 끼니를 거르
면서 양식을 절약하여 남편에게 양표를 보내리라 작심했다.

당시 중국은 도시에서 양식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사람당 매달 20근
좌우의 양표를 제공하였다. 돈이 있더라도 양표가 없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배급제였다. 천을 사는데 부표,
고기를 사는 데는 고기표가 있어야 했다. 모든 생필품이 결핍한 시대
였다.

어느 하루, 김태희 교장이 옥화를 사무실에 불렀다.

“옥화동무, 요즘 옥화동무의 신색이 말이 아니구먼. 동무는 우리 학
교의 기동인데 몸을 잘 돌보도록 하오.”

김태희 교장은 그들이 짙은 안색으로 옥화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담

겨있는 큰 종이봉투를 꺼내 옥화에게 넘겨주면서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였다. 옥화가 집에 돌아와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닭 한 마리가 봉투에 담겨있었다. 일 년 넘도록 구경도 하지 못했던 닭고기였다. 김태희 교장도 딸린 식구가 많아 아주 어렵게 지내고 있는 줄 옥화도 알고 있었다. 그런 교장이 그토록 귀한 닭 한 마리를 주다니... 옥화는 크나큰 선물에 목이 꺾 막혔다.

옥화는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교수 사업을 간지게 해나갔다. 학교 측에서는 그런 옥화에게 많은 영예를 안겨주었다. 옥화는 연변조선족자치주정치협상회의 위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로 추대되었고 해마다 부녀모범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옥화더러 남편과 상의하고 온 가족이 연길에 이사할 것을 건의하였다. 신옥화도 멀리 떨어져 고생하는 가족이 근심되어 소가툼에 돌아와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내렸다.

“내가 집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는데 이제 우리 모두 연길로 이사합시다. 당신이 이사를 거절하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별수 없지 움직여야지.”

1960년 3월, 옥화는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연길에 이사하였다.

1962년에 연변에서는 연길시 신창극단을 세웠다. 창극단의 멤버로는 신옥화, 김진, 고자성, 정준갑, 박정열, 김문자 등이었다. 창극단은 창극 “춘향전”을 정리하고 그 일부분을 공연하였는데 신옥화가 춘향 역을 담당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창극단에서는 또 신창극 “붉은 자매”를 창작하였는데 신옥화는 이 창극의 음악창작과 소리연창지도를 책임지고 공연을 출중히 완수했다. 2년간 창극단에서 사업하던 신옥화

는 다시 연변예술학교로 조동되었다.

추방

1966년 5월, 중국에서는 “자산계급사령부”를 포격하고 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권파들의 권력을 탈취하는 소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목적은 “자산계급독재를 무산계급독재로 바꾸는 것”이었고 주역인 홍위병 반란파들은 “일체를 의심하고 일체를 타도하며 전면 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들었다.

홍위병 반란파들은 무고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검은 무리”, “외국 특무”, “잡귀신” “반역자”, “반혁명분자”, “지하국민당” 등 모자를 씌우고 투쟁하였다.

할빈군사공정학원 반란파 연변주재 연락소 대표 모원신은 연변대학 “8.27혁명 반란단”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초대주장 주덕해에 반란을 일으켜 투쟁할 것을 종용하였다. 반란파들은 주덕해 동지에게 “매국역적”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웠다.

1963년에 진행된 두만강국경선 재확정에 삼가자향의 강북대대가 조선에 귀속되었다. 두만강의 물곶이 옮겨지면서 원래 강남에 위치했던 강북대대가 강북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북은 경지면적이 400헥타르, 270여 세대가 살고 있었다. 중국의 밭과 조선의 밭이 연결되어 있어서 농사철이면 두 나라 농군들이 점심을 나눠먹던 재미나는 곳이었다. 강북이 귀속될 때 주민들에 대해서는 두 나라 국적을 임의로 택하게 하

었는데 결과 10호 남짓이 조선국적을 택하고 모두가 중국 땅으로 이주하였다.

일개 지구급 책임자가 국경선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였지만 탄 심보를 품은 자들은 주덕해 동지에게 독을 바른 ‘화살’을 겨눴던 것이다. 그 작자들은 80만 조선족동포들의 ‘아버지’로 높이 추대되고 있는 주덕해 동지를 꺼꾸러뜨리자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큼직한 죄목을 씌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시기에 연길에서는 주덕해를 옹호하는 청일색 조선족여성들로 이루어진 ‘코신부대’가 자발적으로 쫓기하였다. 그들 모두가 정의감에 불탔고 영악스러웠다. 그들은 “주덕해 동지는 좋은 간부다!”라고 외치면서 거리에 뛰어나와 대변론에 가담하였다. 주덕해 초대주장을 몹시 존경하던 신옥화도 ‘코신부대’에 뛰어들어 주덕해 동지를 보호하는 ‘전선’에 한 몸을 던졌다. 몇 년 후 주덕해 동지는 연변이 아닌 다른 성에 가서 노동개조를 받다가 불행히 세상을 떴다.

1967년 새해가 시작되자 문화대혁명은 더욱 고조되면서 초목도 벌벌 떠는 정국이 형성되었다. 반란과 무리들은 신문사, 방송국은 물론 공안국 등 정부기관을 점령하고 군중독재를 실시하였다. 또 세력끼리 패권 다툼에 혈안이 되어 투쟁은 폭력으로 전변되어 술한 인명이 목숨을 잃기 시작하였다.

1967년 8월에는 홍색파와 연사파 간의 아비규환의 총싸움이 연변의 개산툰에서 벌어졌다. 이 싸움에는 보충까지 동원되었는데 39명이 죽고 200명이 상하는 참극으로 이어져 흐린 두만강이 새빨갳게 물들기도 했다.

연변의 문예계에도 특대회오리바람이 불어쳤다. 반란파들은 언질을 잡아 많은 문예계인사들에게 각종 “감투”를 씌워 배척하고 농촌으로 추방하거나 높다란 고깔모자를 씌우고 조리돌림을 시키고 물매를 가했다.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반란파 조직에서는 옥화가 성분을 속였다고 트집을 잡았다. 성분은 한 사람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유일한 척도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성분제도가 확립되었다. 땅을 소유하고 머슴을 두었다면 지주로 판정받았고 땅이 없으나 생활이 유족한 가정이라면 부농으로 판정받았으며 땅이 없어 남의 소작농으로 살았다면 빈농으로 판정받았다. 옥화는 목단강 시절 토지개혁 때 도시빈민으로 성분을 확정 받고 토지도 탔는데 성분을 속였다고 하니 원통하였다.

어느 날, 반란파들을 40여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옥화를 불러다 심사를 시작하였다.

“선생 성분이 무엇입니까?”

“성시빈민입니다.”

“누가 선생의 성분을 고쳤습니까?”

“성분을 고치다니요? 성분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겁니까?”

“바른대로 말하십시오. 선생의 영감이 고쳤습니까? 아니면 가무단 김태희 교장이 고쳤습니까?”

“난 성분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목단강에 가서 토지개혁 때 내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오. 저는 토지개혁 때 성시빈민으로 판정받았는데 성시빈민은 빈농과 성분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남편은 화물기사로 월급을 타 먹고 살았는데 머 부자인가요?”

옥화가 반란파에게 큰 목소리로 대들자 그 두목은 얼굴을 붉으락푸르락하면서 반말을 들이댔다.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 심사하는 것이지 선생더러 성을 내라고 했소, 태도가 좋지 않소.”

얼마 안 되어 반란파들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옥화는 전통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봉건잡귀신”이란 모자를 썼다. 학생들은 옥화를 만나면 “봉건잡귀신이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다. 반란파들은 옥화를 학교에서 비판하던 데로부터 거리에 끌고 나가 투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죄인’들이 거리의 여기저기서 투쟁 받고 있었다. 거리마다 광장마다 ‘잡귀신을 타도하자’, ‘지주, 부농을 타조하자’, ‘당권파를 타도하자’, ‘외국특무를 타도하자’는 등 구호 소리로 전체도시가 악마구리 끓듯 했다.

각종 모자를 쓴 ‘계급의 적’들이 옥화와 함께 일렬로 서서 군중들의 투쟁을 받고 있었다. 옥화의 옆에는 키가 작달막한 부농이 서있었다. 그 부농은 성분이 나쁜데다 ‘반혁명분자’라는 큼직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부농이 ‘반혁명분자’라는 모자를 쓴 사연도 천방야담이다. 부농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자신의 성분을 개탄하던 그는 개과천신하려고 세 아들의 이름을 차례로 “애국”, “애민”, “애당”이라 지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화근으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투쟁에 혈안이 된 홍위병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새롭게 조합한 결과 천기를 발견했다. 세 아들 이름의 첫 글자를 따다가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합쳐보니 “애국민당”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당을 사랑한다면 목이 잘릴 대역죄에 해당한다. 반란파들은 밤낮을 이어 부농을 심문하였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감춰둔 총을 내놓으라고 부농을 조저댔다. 없는 총을 어떻게 내놓으랴! 반란파들은 파쇼적인 흑형을 들이댔다. 부농은 환청이 들었는지 국민당이 철거하면서 남겨둔 총을 집 뒷마당 복숭아나무 밑에 묻어두었다고 자백했다. 상투가 국수버섯 솟듯 의기양양한 반란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복숭아나무 밑을 하나절 파헤쳤지만 총이 나올 리 만무하였다. 성이 꼭뒤편까지 치민 반란파들은 또다시 물매를 들이댔다. 부농은 꺾박에 못 이겨 번마다 총을 감춘 자리를 바꿔 말했는데 앞뒤마당을 살살이 파헤치도록 총은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심문해도 별 소득이 없자 포악무도한 반란파들은 “반혁명분자”라고 글을 쓴 널판자패쪽을 가느다란 쇠줄로 부농의 목에 걸고 매일같이 조리돌림을 하였다. 목덜미를 수그린 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리를 개처럼 끌려 다니면서 애들의 돌팔매에 얻어맞는 부농의 얼굴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실신해 쓰러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반란파들은 부농에게 마른 ‘비행기’도 태웠다. 걸상 몇 개를 쌓아놓고 맨 꼭대기에 부농을 세우고 때때로 걸상을 콧 찻는데 부농은 그때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만신창이 되었다. 부농은 끝내 폭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결하고 말았다.

다행이 옥화는 성분이 좋고 착오를 범한 적이 없었으며 대인관계가 좋고 정직하게 살아온 덕에 그저 “봉건 잡귀신”이라는 모자만 쓰고 몇 번 조리돌림을 당하고 투쟁을 받았을 뿐 육체적 박해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김태희 단장의 정황은 달랐다. 당시 연변예술학교 교장으로 부터 연변가무단 단장으로 전근한 김태희 단장은 당권파로 몰리우고 있었다.

중국 조선족의 문예 사업에 모든 심혈을 깡그리 바친 중국 조선족의 문화예술계의 지도자이자 선각자인 김태희 단장은 갖은 모욕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다.

반란파들은 무용 “양모는 처녀”의 복장을 높이 걸어놓고 김태희 단장이 투명하게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이는 ‘수정주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수정주의노선의 집행자’라는 모자를 씌우고 투쟁했다. 그야말로 가짜와 진짜, 흑과 백이 전도되고 모해와 음모, 폭력이 난무하고 폭도들이 득세하는 세월이었다.

김태희 단장은 반란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씌운 ‘죄목’들을 하나하나 부정하였다. 김태희 단장은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얼마 안 되어 김태희 단장은 반란파들의 등살에 못 이겨 48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는 “회억대비밥”을 먹는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소위 “회억대비밥”이란 해방되기 이전, 낡은 사회에서 칩뿌리, 둥굴레뿌리, 느릅나무껍질, 소나무껍질 등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빈농들의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압박 받고 착취당하던 낡은 사회를 회상하고 오늘의 달콤한 행복을 되새기게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다.

“회억대비밥”의 메뉴는 개떡이었다. 쌀을 찼는 과정에 초벌 겨를 벗겨낸 다음 얻어지는 보드라운 겨를 입쌀가루와 섞어 찌내는 것이 개떡

이다.

“회억대비밥”을 먹는 대회는 예술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80여명 되는 교직원이 다 모이자 사람 당 두 개의 개떡이 차려졌다. 개떡은 꽤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옥화는 개떡을 받아 쥐고 반란파들이 우스운 짓 거리를 한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개떡을 먹어보지 못한 옥화로서는 모든 떡은 맛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식품이 바른 세월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떡으로 회억대비를 한다고? 이걸 먹어야 계급투쟁각오가 높아진다고? 소 웃다가 꾸러미 터질 일이지...’

옥화는 한 입 크게 뜯 떼 물었다. 옥화가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히죽히죽 웃는 교원들도 있었다. 모두가 연세가 지긋한 노 교원들이었다.

떡을 입에 물고 씹어보니 생각보다 부슬부슬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데다 목구멍이 걸끄러워 삼키기가 어려웠다. 버리자니 남의 눈치가 보이고 삼키자니 모래 삼키기보다 어려웠다.

반란파 두목이 연단에서 개떡을 빨리 먹을 것을 재촉했다.

“여러분, 어서 빨리 개떡을 먹읍시다. 개떡을 먹으면서 생각합시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셨습니까? 모주석이 주셨습니다. 공산당이 주었습니다. 개떡을 안 먹으면 계급투쟁각오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계급투쟁각오를 늦추면 자본주의가 복벽되어 빈하중농이 다시 압박, 착취당하는 구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못 먹을 것이 개떡인 것 같았다. 개떡 한 개도 채 못 먹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간 개떡이 위와 뱃에 붙어 몸이 불편했다. 옥화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머지 개떡을 던져버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반란파들에게 발각될 줄이야!

“옥화동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산계급감정을 개떡처럼 버려도 됩니까? 당장 주워들어 먹으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모주석 저작 학습반에 참가하여 사상개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버린 개떡까지 먹고 나니 위와 창자가 팍 막히는 것 같더니 진땀이 저절로 났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틀이 지나도록 뒤를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옥화는 병원에 가서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는 수밖에 없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세월이었다.

모주석 저작 학습반이 끝나자 반란파들은 옥화를 돈화시의 궁벽한 벽지인 쌍두대대에 추방하였다. 성분 사건이 있을 때도 반란파들이 옥화를 농촌으로 추방했지만 그때에는 월급도 타지 않고 뻘쳐 요행 위기를 모면했었다. 이번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도 없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여러 해 동안 학생을 모집하지도 않았거니와 몇 명의 교원만 학교에 남기고 몽땅 농촌에 추방하였기 때문이었다.

옥화가 하향한 마을은 46호로 이루어진 가난한 조선족마을이었다. 마을은 버섯처럼 돋은 게딱지만한 초가들뿐이었다. 당장 쓰러질 듯 위태한 농가도 몇 호 있었다.

마을에서는 옥화를 마을의 허씨네 윗방에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허씨는 아들 넷을 두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영 말이 아니었다. 윗방에 들어서니 때가 반질반질하고 너털너털한 이불이 농작 위에 얹혀 있고 구들에 편 돗자리마저 여기저기 구멍이 펴 뚫려 걸을 때마다 먼지가 폴썩폴썩 일었다. 가정기물이라야 찌그러진 찬장에 얹어놓은 이 빠진

사발 몇 개뿐이었다.

집에는 벼룩, 이, 빈대, 쥐며느리가 득실거렸다. 허씨네 부부는 저녁마다 애들의 옷을 벗겨 등잔불 밑에서 이나 벼룩을 잡고 나서 애들의 머리에 다닥다닥 낀 서캐와 굴실굴실 기어 다니는 이를 잡아주었다. 서캐와 이가 너무 많을 때면 농약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곳 농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 농촌에서는 노동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방침에 따라 일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공수제를 실시하였다. 청장년들이 높은 공수를 땀고 부녀나 노약자들은 공수를 적게 땀다. 연말에 공수에 따라 수입을 분배하였는데 국가에 농업세를 현물로 납부하고 수매임무를 완성하고 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현금과 쌀은 얼마 되지 않았다.

쌍두마을은 웬지 바칠 것을 다 바치고 나면 농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았다. 해마다 공수를 많이 땀 사람이 빚이 더 많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온 일 년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했건만 먹을알이 없는 제사에 절만 한 격이 되었으니 농민들의 노동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랴!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 이곳 농민들은 기를 펴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인심은 순박했다. 옥화가 “잡귀신”이라 해서 깔보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예술학교 선생님이라 떠받들면서 힘든 일, 궂은일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그곳 사람들은 나이 50을 넘기면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렀는데 옥화는 마을어른들로부터는 선생님이라 불렀고 조무래기들로부터는 할머니라 불렀다.

그해 음력설, 마을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차려놓고 설을 쇠면서 옥화더러 민요를 부르라고 지청구를 냈다. “잡귀신”으로 낙인찍힌 신옥화는 극구 사절했지만 농민들은 민요 한가락을 들으면 원이 없겠다고 청을 들었다. 옥화가 마지못해 “농부가” 등 민요 몇 수 불렀더니 명절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마침 마을 학교에 음악교원이 없었기에 마을사람들은 옥화를 음악교원으로 추대하였다. 학교에 다니는 애들의 옷차림은 말이 아니었다. 한겨울인데도 다닥다닥 기운 훌바지에다가 짚신을 신고 다니는 애들이 적지 않았다.

하루는 옥화가 학교에 등교하는데 한 아이가 김이 오르는 소똥에 발을 파묻고 서있는 것이 보였다. 맨발에 등교하던 가난한 집 애가 발이 너무 시려 소똥에다가 발을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저려난 옥화는 그 자리로 아이를 상점에 업고 가 발에 맞는 고무신을 사주었다.

옥화는 비록 추방을 당했지만 국가에서 월급만은 발급하였으므로 받은 월급가운데서 돈을 떼어내어 어려운 이웃들을 방조하였다. 이듬해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옥화에게 번듯한 초가집 한 채를 지어주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1974년, 옥화는 55세 되던 해에 “잡귀신”이라는 모자를 벗고 4년 동안 정들었던 돈화 쌍두대대를 떠나 다시 연길로 돌아왔다. 그때 조직에서는 옥화에게 연길에 남든지 소가툰에 돌아가든지 맘대로 선택하라

고 하였다.

1976년, 도시생활에 신물이 났던 옥화는 다사다난했던 연길에서의 생활을 접고 소가툼으로 돌아왔다. 헌데 이상한 것은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조직으로부터 퇴직금을 비롯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1993년 1월 7일, 연변예술집성관공실과 연변예술학원 예술연구소에서는 공동으로 “신옥화여사 예술생애60돌기념 가창모임”을 개최하였다. 신옥화는 모임에서 청아한 목청으로 장장 네 시간이나 창극 “춘향전”을 1막부터 6막까지 대사를 외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열음에 박밀 듯 거침없이 완창 하여 모임참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신옥화는 평생 동안 150여 수의 잡가와 판소리, 시조들을 채록함으로써 복귀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겨주었다. 2000년에는 심양에서 “신옥화 음악회”를 가졌으며 CCTV에도 여러 번 출연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2007년, 90고령을 앞둔 신옥화는 제자들인 강신자, 전화자 등과 함께 연변TV음력설악회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여 또다시 세인의 경탄을 자아냈다.

신옥화가 양성한 제자들도 옥화의 뒤를 이어 예술학교에 정진하면서 수많은 후대들을 양성하였다. 그들이 양성한 중국의 4대 테너중의 한 사람인 김영철, 중국의 유명한 민요가수 변영화 등은 중국조선족의 자랑이다.

신옥화는 중국 조선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명창으로, 비록 자신의 꿈은 이루었지만 그에게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신옥화는 20년째 심양시 소가툼의 25제곱미터가 되나마나한 낡은 단칸방에서 살면서 200원이라는 정부보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

다. 흔하디흔한 냉장고마저 없는 궁핍한 살림, 자물쇠마저 말을 듣지 않아 외출할 때마다 애를 먹으면서도 원망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

신옥화야말로 한 알의 작은 풀씨마냥 짓궂은 운명의 회오리바람에 날려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린 중국조선족의 축도가 아니겠는가? 중국조선족은 쪽박 차고 남부여대하고 ‘월강곡’을 부르며 두만강을 건널 제, 전통문화라는 한 톨의 씨앗만은 소중히 간직하였다. 산 설고 물 선 이 땅에 뿌리내리기까지 우리의 전통문화는 생활의 버팀목이 되었고 삭막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다.

중국조선족은 고향을 그리면서도 새로운 삶의 터전에 모든 애정을 깡그리 쏟으면서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을 일구었다. 몇십 년의 분투를 거쳐 중국조선족은 자신의 대학, 방송, 신문, 출판 등 문화기관들을 골고루 갖춘,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옥화는 어릴 적 그냥 배우고 싶어 배웠던 소리가 중국조선족의 한을 달래주고 힘을 실어 주고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데 한 몫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옥화는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아무런 원망이 없는 지도 모른다.

예술에 대한 신옥화의 집착은 식을 줄 모르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90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양시는 물론, 연변, 단둥, 무순 등지를 넘나들면서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기예를 뽐내고 있는 신옥화야말로 짜장 중국조선족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꽤지나 칭칭나네

시내강변엔 돌도 많고
이내 가슴에 수심도 많다
꽤지나 칭칭나네
어화 청춘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꽤지나 칭칭나네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꽤지나 칭칭나네
오늘 백발 더욱 설다
꽤지나 칭칭나네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우수상

뼈국새 울지 않는 마을

주경노 | 미국

뼈꼭새 울지 않는 마을

우수상 | 주경노

삼만 칠천 오백 육십 두 마리, 방금 도착한 노란 병아리.

21일 동안 부화공장에서 부화기가 움직이는 대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내다가 어제 저녁에 부화되었을 병아리들이다. 어미 품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알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예방주사 한 대만을 맞고 세상에 나온 가엾은 것들, 주사를 주면서 컴퓨터가 카운트 했으니 차트에 기록된 숫자는 틀림없을 거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구멍이 마름모 간격으로 뽁뽁한 하얀 플라스틱 상자에 백 마리씩 들어 있으니 삼백 칠십 여섯 상자에 갇혀 우리 농장까지 실려 온 이 병아리들과 함께 나는 앞으로 한 달 이상 서로가 태어난 의무를 확인해 가며 살아야 한다. 이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다가 허기진 사람들의 양식으로 산화하는 일생을 살게 되겠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태어남은 선택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일 뿐, 먹이사슬로써의 이유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전에도 자주 병아리를 신고 온 적이 있는 낮익은 백인 트럭 운전수

헤리스(Harris)가 차를 닭장 문 쪽으로 후진하며 주차시키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나를 바라보고 반갑다는 표정과 제스처를 여러 번 보냈다. 그는 주차를 마치자 트럭 문을 열고 내리면서 덩치가 훨씬 작은 조수에게 서두르라며 박스로 된 트럭 뒷문으로 향했다. 헤리스가 트럭 뒷문을 양 옆으로 열어 제치자 갑자기 병아리들의 삐악~삐악~ 우는 소리가 합창으로 터져 나왔다.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합성일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달래려는 울음일까? 이들의 합창과 함께 화씨 90도(섭씨 32도)를 유지한 트럭 내부에서 더운 공기도 같이 흘러나왔다. 병아리 숫자와 배달하는 운전수만 달랐지 새 병아리가 도착하는 첫 날의 풍경은 매번 이렇게 시작된다.

세월이 나이가 들어가며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탓인지 닭농장을 사서 이곳으로 이사와 반복해온 지난 칠 년의 일상이 군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막 마친 시간처럼 길게도 느껴지다가 순간 짧게도 느껴졌다. 나에게 농사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흠어머니를 도우며 한국의 전형적인 영세농가가 논과 밭에서 일구는 작물인 벼, 밀, 보리, 고구마, 호박, 고추, 콩 등을 경작해본 것이 고작이었다. 그 때는 어쩌나 일하기가 싫던지 학교가 일찍 파했는데도 학교 주변이나 극장가를 맴돌며 시간을 보냈었다. 철없던 그 시절 행동이 나이가 들며 어머니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그 때 어머니가 내가 공부하다 늦게 온 것으로 여기리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는 생각이 든다. 유복자로 태어난 내가 그냥 건강하게 지내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라 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로 여기셨을 어머니다.

애비 없이 자라 문제가 있다는 소리만 안 들려도 어머니는 자신의 몫은 한 것이라 스스로 위로했을 것이다.

우리 집은 돼지를 기른 적은 있어도 닭을 키운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마당이고 부엌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닭들의 횡포를 싫어했다. 나 역시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싫어 이웃집 닭들만 보면 소리를 지르며 쫓아 버리곤 했었다. 그래도 가끔 이웃집 닭들이 월담을 하기도 하고 개구멍으로 들어와 어지러 놓기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행이라고나 할까 때로는 우리 벧짚 쌓아 놓은 곳에 닭이 알을 낳고 가기도 해 그 알들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닭이 알을 낳고 나면 꼬꼬댁^ 꼬꼬댁^ 울곤 했는데, 닭이 울기라도 하면 막 낳은 따뜻한 알을 가져다가 아무도 몰래 한 쪽에 구멍을 내고 반대편에 공기구멍을 내어 빨아 먹는 맛이라니….

닭에 대한 어린 시절 추억이라면 이게 전부인 나에게 닭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가온 것이다.

트럭 안에는 백 마리씩 들어 있는 병아리 상자가 열 상자씩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철재 기둥사이로 정렬되어 있다. 두 사람은 숙달된 행동으로 바퀴가 달린 밀것에 열 상자를 가뿐하게 올려놓고 트럭에 걸쳐 놓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병아리들을 닭장 안으로 옮기려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열려진 닭장 문 때문에 이미 맞추어 놓은 화씨 90도의 실내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어 가능한 빨리 문을 닫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무의식에 가까운 직업적 행동이다.

다음 작업은 병아리 상자를 하나씩 들어 바닥에 병아리를 풀어 놓는 일이다. 처음 농장을 사서 병아리를 받던 날 가장 놀라웠던 순간이 바

로 이 때였다. 그날도 오늘 온 헤리스가 병아리를 가지고 왔었다. 그는 백 마리들이 상자를 들더니 거침없이 병아리를 우뚝 선 자세로 바닥에 훌쩍 던지는 것이었다. 너무 놀란 나는 그의 행동을 제지하며 살살 다루어 줄 것을 부탁했었다. 헤리스는 빙그레 웃으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울도록 엉덩이를 쳐 주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병아리들은 이렇게 한 번 놀라고 나야 더 잘 자라게 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칠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헤리스처럼 병아리를 바닥에 내동댕이치지 못한다. 헤리스와 같이 온 조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에콰도르에서 온 사람이다. 등치가 작아서인지 열심을 다해 일을 하지만 힘에 부쳐 보였다. 땀을 뚝뚝 떨어뜨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은 이민자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는 듯했다.

첫날은 병아리들이 나를 엄마인줄 알고 따라 다닌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발에 밟혀 죽는 경우도 매번 있는 일이다. 소리에 민감해서 손뼉을 치거나 무엇이든 두드려 소리를 내면 소리 나는 곳으로 마냥 모여든다. 가로 70피트(22미터), 세로 360피트(110미터) 크기의 사육장 안에서 36일에서 40일을 자라다가 이들은 나를 떠난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먹이라인이 세 줄이고, 먹이라인 양 옆으로 물 공급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닭장은 절반을 막아 두 개의 대형 슬라이드 문으로 막아져 있는데 먹이라인은 닭장 앞에서 뒤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물 공급라인은 절반으로 단절되어 분리 설치되어 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닭장을 절반 막은 상태에서 병아리를 기른다. 요즘처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는 절반을 막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더 기르는 것이 유리하다.

닭 배설물에는 암모니아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에서 집 단적으로 닭을 기르는 환경에서는 이 암모니아가 닭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닭을 실내에서 기르는 데는 온도조절과 환기가 사육의 핵심이다. 환기장치가 온도조절과 암모니아를 실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직경 1.2미터 크기의 환풍기가 8개, 직경 90센티 크기의 조금 작은 환풍기가 2개 설치되어있다. 먹이와 물은 자동으로 공급되지만 환기를 통한 온도조절은 수동으로 맞추어 놓은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는 것이다. 요즘의 새로운 시설은 컴퓨터화되어 온도까지도 자동으로 조절된다.

닭장 문을 가능한 빨리 닫기 위해 헤리스의 일을 도와 조심스럽게 병아리를 바닥에 풀어 놓으면서도 웬지 자꾸 헤리스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가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 소심한 행동으로 비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란 병아리들 사이에 검정색 병아리가 몇 마리 눈에 띄었다. 헤리스가 그 중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이번 병아리도 잘 키울 것 같다고 농담을 했다. 언제부터인지 검정색 병아리가 섞여 들어오면 병아리가 잘 큰다는 말이 미신처럼 닭 사육농부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듣는 초보 사육자에게는 검정 병아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일을 막아 주기에 충분한 풍문이다.

고향에서는 며느리가 닭 날개를 먹으면 집을 나간다는가, 목살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는가 하는 풍문들을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지키는 이웃들도 있었다. 목에 있는 살은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먹게 하려는 말이고, 날개는 맛이 있어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겨진 말이라고 흘려버리는 이웃도 있었지만 말이다. 검정 병아리가 들어오면 닭이 잘 자란다는 풍문도 사실이 아님을 몇 차례 출하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 검정색 닭은 다른 닭에 비해 털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아 닭 공장에서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로 검정색 병아리의 운명은 180도 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보기가 무섭게 없애버린다. 헤리스가 들어 보여준 병아리도 그가 가고나면 죽일 수밖에 없다. 닭 사육에서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상품 가치가 있는 닭들만 할 수 있으면 적게 먹이고 살을 짧은 시간에 많이 찌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닭장 문을 닫고 병아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온도 조절장치를 점검했다. 첫 날은 직경 90센티 환풍기 하나가 매 십분 마다 15초 동안 내부공기를 외부로 빼낼 수 있도록 조절해야한다. 병아리들이 물을 먹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물 공급라인도 병아리 키에 맞추어 조절했다. 지금도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한 번도 물을 먹어보지 않은 병아리가 물 공급라인에 붙어있는 작은 물 꼭지를 어떻게 알고 도착하자마자 쪼아대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작년에 방문한 군 후배들이 병아리 숫자에 놀라며 나를 ‘병아리 군단장’이라고 불러준 일이 생각났다.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한 나로서는 군단장이라는 별명이 싫지 않았다. 이번에 들어 온 병아리 숫자도 군단 병력수준은 거뜰히 된다.

새 병아리를 받기위해 준비하느라 어제 확인하지 못한 우편물을 점검하려고 우체통으로 향했다. 농장 입구 등글게 만든 화단에 세운 ‘주씨 농장’ 글씨 밑에 ‘Joo’s Chicken Farm’이라고 씌워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이 농장을 사고 난 후 어머니에게 농장 이름을 ‘주씨 농장’이라 부르기로 했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참으로 기뻐했었다. 농장이 얼마나 넓으냐고 묻기에 삼만 평정도 라고 했지만, 얼마나 넓은지 짐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넓다고 설명했더니 그렇게 넓으냐고 맞장구 쳐주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가진 것 버리지 않고 더 늘리어 가면 기쁜 분이다. 어머니는 우리가 이민을 결심했을 때 서운해 하면서도 내가 군 유학 시절과 대사관 근무시절에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넓은 땅에 가서 한 번 살아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은행용자가 대부분인 이 농장을 사서 ‘주씨 농장’이라 간판을 붙였다는 말에 막내가 미국에 가서 학교 운동장만한 땅을 사서 닭을 키운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는 어머니의 얼굴과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이곳 농장을 방문하여 둘러보며 기뻐하던 어머니 모습이 농장 곳곳에 지워지지 않고 그려져 있다.

도로 양쪽으로 각종 나무들과 들풀, 들꽃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비포장도로 길을 5분은 걸어야 우체통에 도착한다. 우체부는 큰 길가에 있는 가정용 편지함까지만 우편물을 배달하기 때문이다. 우리 우체통 옆으로 세 개의 이웃집 우체통이 집 주소지 번호를 이름표로 붙이고 나란히 서 있다. 5082 숫자가 새겨진 우체통을 열었다.

지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시대라 편지함을 열면 서도 옛날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특별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와 선전물만 잔뜩 들어 있는 날이 대부분이니 말이다. 그래도 오늘은 누나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창작과 비평’, ‘현대시학’ 잡지와 다른 우편물들이 우체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당분간

읽을거리가 생긴 것이 즐거웠다. 나에게서는 빨리 읽으면 며칠이면 읽을 수도 있는 잡지를 아끼면서 오랫동안 조금씩 읽는 것을 즐기는 버릇이 언제부터인지 생겼다. 아마도 한국 서적을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에 살면서 든 버릇이 아닌가 싶다.

편지함 앞에서 우편물을 뒤적이는데 자주색 사각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케니스(Kenneth)와 메리 호킨스(Mary Hawkins)씨 가정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호킨스라는 성씨(姓氏)는 익숙했지만 이름이 익숙지 않아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7월 31일 저녁 7시에 에딘버그(Edinburg) 마을회관에서 스티브(Steve)와 신디(Cindy)의 결혼 25주년을 맞아 은혼식 파티를 하게 되었으니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었다. 초청장은 집에서 손녀딸과 같이 메리가 직접 만든 것 같았다. A4 용지를 사등분으로 접고 앞장에는 스티브와 신디의 결혼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는 ‘25년을 기리며(25 years to Remember)’라는 글귀가 필기체로 복사되어 있었다. 초청장 절반을 열자 좌측에는 6월 26일까지 참석여부를 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모르는 이름도 있었는데 아마도 손녀딸과 같이 행사를 준비하는 친척들 같았다. 우측에는 초록색 두 줄의 박스 안에 이런 글이 굵은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스티브와 신디 호킨스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 밤은 음악과 추억,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에딘버그 마을회관으로 6시45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밝힌 만찬도 있을 것입니다. 은혼식 행사는 신디와 스티브는 모르게 준비하는 중이오니 두 사람에게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온 가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스티브와 신디는 내가 살고 있는 농장의 전 주인이다. 그의 어머니 메리를 만난 것은 이 농장으로 이사하기 얼마 전 동네 구멍가게에서였다. 피부가 고운 시골 할머니가 혹시 ‘미스터 주’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내가 자기 아들 닭 농장을 사게 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나를 알아보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마을에는 동양인이 나 뿐이어서 내가 스티브 농장을 산 것으로 짐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나를 친절하고 반갑게 대하면서 자기 아들 스티브와 며느리 신디에 대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 주었다.

아들 스티브와 신디는 고등학교에서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시골이라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동네 결혼이 많은 편이라고 말하며 가벼운 웃음까지 지었다. 5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큰 아들을 잃은 스티브가 술과 마약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낼 때, 며느리 신디가 자기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스티브 마음을 잡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애절한 심정을 토해냈다. 지금은 며느리가 어려움을 견뎌내고 아들과 잘 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처음 만나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는 메리의 모습이 어색하지도 않았고, 마치 고향에 갔을 때 친구 어머니를 만나 혼자된 친구 부인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듯 정겹기까지 했다.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시골이라는 자연환경은 사람들을 순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 보였다. 메리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하게 됐다.

처음 부동산 중개인과 농장을 방문한 날은 4월 중순이었다. 이웃이 먼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가려 이웃집이 보이지 않고, 23에이커(약 29,000평)의 사각형 모양의 땅은 나무 기둥에 철 그물망으로 된 울타리가 확실한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집 앞으로는 초지와 경계를 연하여 20년쯤 자란 소나무가 6줄 심어져 있었고, 큰 길에서 비포장으로 이어진 농장까지의 길은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시골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더욱 마음을 끌었던 것은 농장과 닭장 주변으로 무궁화가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농장을 방문하는 한국 손님들이 내가 일부러 무궁화를 심은 것으로 대부분 생각한다. 거실에 걸려있는 무궁화 그림과 응접실 벽에 걸려있는 군 시절 후배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우리나라 지도모형에 무궁화 꽃만으로 수를 놓은 액자를 보고는 손님들이 나를 애국심이 강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몇 번은 이런 조화가 우연이라고 변명을 하다가, 그 일도 매번 번거롭고 차라리 애국심을 지닌 이민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은 한국의 어느 마을보다도 무궁화가 많이 심겨져 있다. 한국 국화인 무궁화와 전혀 다르지 않지만 간혹 개량종 접꽃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나 할까? 외갓집 마을에는 울타리용으로도 관상용으로도 무궁화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진땀물이 앞에 많이 붙어 있어 보기 흥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라는 무궁화 앞에서는 진땀물도 볼 수 없다. 자라기도 잘하고 해마다 씨가 떨어져 자연번식력도 강하다. 스티브는 새로 이사 간 집에 자연 번식된 작은 무궁화를 우리 농장에서 가져다 옮겨심기도 했다.

무궁화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들로 다양한 것 같다. 그러나 무궁화의 이름을 추적해 보면 중동지방이 원산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무궁화의 학명은 시리아커스(Syriacus)인데, 이는 시리아가 원산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속명 히비스커스(Hibiscus) 역시 이집트의 히비스신처럼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석한다. 영어 이름은 샤론의 장미(Rose of Sharon)인데,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샤론 평야에 피는 장미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 국화를 우리 마을에서도 농장에서도 볼 수 있어 때로는 내가 한국에 사는 것은 아닌지 착각을 일으키게까지 만든다.

미국으로 이민 온지 10년 만에 다시 시골로 이사와 닭 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이사의 차원을 넘어 또다시 이민 온 것 같은 기분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접근해야했다. 자의든 타의든 이곳 시골 이웃 사람들은 나를 ‘미스터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 보다는 동양인, 더 가까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인종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대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 자신도 스티브보다는 미국인 스티브로 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표현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주로 어느 민족이나 자기 신분 또는 정체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이민 국가를 이룬 미국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말이다. 그렇다. 미국 사회는 다양한 아이덴티티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회다. 한국인의 모습으로 미국에 산다는 현실감이 시골에 이주하여 살면서 더 절실한 것은 주위에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모습이 원래의 내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 잡지(Progressive Farmer magazine's Southeast)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농촌(Best Places to Live in Rural America) 100개 군(County)”을 선정 발표했는데 내가 사는 세난도아(Shenandoah) 군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 발달한 대중음악인 칸츄리 음악(country music) 가수 존 덴버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우리 마을은 동부에 두 곳뿐인 국립공원 중의 하나인 세난도아 국립공원이 지척이다.

뉴욕 타임지 베스트셀러에 오른 라이트(Jason F. Wright)의 《수요일의 편지들(The Wednesday Letters)》은 내가 사는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진 출판기념 사인회에서 지방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곳은 천국의 천사들이 내려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적이 있다.

세난도아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비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않지만 산 정상을 따라 건설된 ‘스카이라인(Skyline)’ 도로는 높은 산이 없는 동부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한 곳이고, 곰과 노루가 서식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있다. 국립공원 아래 계곡에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류레이(Luray) 자연 동굴이 있는데 한 시간 동굴 안내 관광을 마치면 제법 큼지막한 동판을 발견하게 된다. 그 동판에는 이 지역에서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전사자 다섯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동굴을 방문하고 안내할 때마다 우리나라 현대사가 이곳과도 연관 되어 있

다는 사실과 그들의 죽음 앞에 마음이 숙연해 진다. 때로는 이 지역 가게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 중에는 1950년대의 한국을 기억하고 참전 경험을 들려주거나 한국 근무 당시의 우리나라 모습을 회상하며 근무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도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에 다녀 온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인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 디시 서쪽으로 포토맥 강을 경계로 하여 위치한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다. 남한 면적보다도 큰 땅에 인구는 8백만 정도 살고 있다.(버지니아 주 면적; 110,862 입방 킬로미터. 남한면적; 99,221입방 킬로미터) 특히 우리 농장이 위치한 서북부 버지니아 지역은 미 남·북 전쟁 전적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남·북 전쟁의 승패가 이 지역 전투에서 판가름 났다. 우리 농장에서도 농사일을 하다가 남·북 전쟁에 쓰였던 녹슨 실탄을 발견하기도 한다.

미국이 세계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첫째는 자원이 풍부한 자연과 넓은 땅이다. 둘째는 짧은 역사에서 이들이 이룬 민주주의 정치제도이고, 셋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한다. 버지니아 주는 미국이 지닌 이 대표적인 점을 모두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농장에서 와싱턴 디시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로 미국 개념으로는 가깝다고 말 할 수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와 인접한 농장 주변은 그리 높지 않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마치 한국의 강원도나 지리산 주변을 보는 듯한 정취를 풍긴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도 한국 중부지방과 비슷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 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세 인물에 대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내가 사는 마을 지역을 소개하는 팜프렛에 이런 글귀가 눈길을 끈다.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쳤고, 아브라함 링컨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우드로 윌슨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나 보다. 미국 할머니 메리의 모습에서도 검게 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되더니 초청장을 받은 후로 어머니의 여러 모습이 더 자주 떠올랐다. 고향 집은 저녁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하루의 피로를 수다로 풀곤 했었다. 삼십 초반에 혼자 된 어머니와 나만 사는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밤마실 오기에 편안한 장소였다. 어머니는 비교적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지만 웃음소리만은 컸고 분위기를 압도했다. 때로는 철에 따라 하지감자, 고구마 등을 대접하기도 했고 아주머니들이 집에 오면서 밭에서 딴 과일들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느 여름 저녁, 마루에 친 모기장속에서 잠을 청하며 하늘에 알알이 박힌 별을 세고 있는데 어머니가 뽀뽀새가 왜 뽀뽀^ 뽀뽀^ 우는지 아느냐고 아주머니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모처럼 어머니가 질문을 하자 누구도 그 이유를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니의 다음 말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어머니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듯 평상시보다 느리게 감정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는구먼. 찢어

지게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김없이 설날은 찾아왔고, 명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며느리는 자신의 주린 배는 물로 채우는 한이 있어도 시어머니에게 만든 떡국 한 사발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먹을 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설날 아침, 시어머니를 봉양할 떡국 한 사발을 정성스럽게 소반에 차려놓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는데 며느리는 그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어.”

어머니는 숨을 잠시 멈추고 침을 삼키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무도 없는 사이에 썩을 놈의 개가 와서 떡국 한 그릇을 푹딱 먹어치우곤 줄행랑을 쳐 버린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떡국을 며느리가 먹었다고 오해를 했지. 시어머니는 꽤 씹힌 마음에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곳간 앞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 며느리를 몇 대 때렸는데, 아! 그만 며느리가 죽어 가는 것이었어. 며느리는 의식을 잃어 가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그저 ‘떡국, 떡국, 개, 개,’ 가늘게 외치며 죽었다는군. 며느리는 죽은 후에 그것이 한이 되어 원한 맺힌 울음을 슬피 토해내는 떡국새가 되었는데…, 이 ‘떡국’, ‘떡국’ 우는 새가 곧 뽕새의 조상이라더군.”

새는 ‘떡국’ 떡국’하고 우는데 사람들은 ‘뽕’ 뽕’으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 혼자 실없이 웃곤 했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의 뽕새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며 자랐고 나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준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뽕새 전설을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잘못된 것이라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말투였다. 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지만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사신 것 같다. 그래서인지 어머

나는 항상 며느리들에게 합리적이고 다정했다. 아들이 며느리의 흠이라도 잡고 혼내주라고 주문을 하면 아들 편보다는 며느리 편을 들어주곤 했다.

한번은 내가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너무 모든 일에 간섭을 해서 힘들다고 투덜댔다. 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내가 저 애를 잘 안다. 어릴 때부터 워낙 고집도 세고 누나가 재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다. 원래 고집이 세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다. 고집부릴 때뿐이니 네가 잘 참아라.” 아내는 어머니 말에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어머니 앞이라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라 받아들였다.

시어머니와 손녀딸이 준비한다는 은혼식 파티 초청장을 받은 후부터 어머니의 뼈꼭새 전설 얘기를 듣던 그 시절이 더 그리워지곤 했다. 가난 때문에 파괴된 인간관계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관계도 그럴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도 돈 때문에 벌어진 경우를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으로 이민 온 교포들 중에도 가난이 원인이 된 경우가 상당수인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요즘은 자녀교육 때문인 경우, 유학이나 해외근무로 일하다가 여러 이유로 이곳에 정착하는 경우,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경우 등 다양하다. 내 경우는 처음 두 경우가 복합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난 때문이라기보다 두 아이들이 나의 유학과 해외근무 시절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받다보니 한국 교육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와 아내의 의지와 결심 없이는 이민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웬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기보다 어른들의 문제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닭 사육에 가장 힘든 일은 닭을 출하한 다음 새 병아리를 받기 위해 해야만 하는 준비과정이다. 조저(George)식품회사가 주는 통상적인 준비기간은 1주일에서 2주일 이다. 내가 위탁사육을 하는 조저 회사는 미국 10대 식품회사 중에 하나다. 아틀란타 조지아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 여러 주에 지점을 두고 있다. 우리 농장은 버지니아 지점에 속하고 버지니아 지점에는 200여 닭 사육 농장이 속해 있다.

닭을 출하하게 되면 텅 빈 닭장에서는 암모니아 냄새만 가득 풍긴다. 배설물 수거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환기용 문을 닫고 2,3일 두면 바닥이 바짝 마르게 된다. 마른 배설물이 아니면 청소작업이 배나 힘이 들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여유만 있으면 바닥에 쌓여 있는 배설물을 건조시킨 후 작업에 임한다. 배설물이 작업하기 적당하게 건조되면 먼저 트랙터 뒤에 부착된 낱을 이용하여 배설물을 긁어모은 다음 닭장 앞과 뒷문 근처에 배설물을 쌓아놓는다. 냄새가 심해서 군 방독면과 비슷한 마스크를 쓰고 이틀은 해야 하는 작업량이다. 통상 하루에 작업을 마치려 하지 않고 냄새 때문에 3, 4일 나누어 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음으로는 트랙터 앞에 부착된 삽으로 배설물을 덤프트럭에 싣는 일이다. 배설물은 스티브 작은아버지 농장에서 매번 450불(45만 원)에 구입해 간다. 자그마치 8톤 덤프트럭으로 7대 분량이나 된다. 이 양은 팔지 못하면 농장자체에서 소모할 수 없는 양이다.

이 배설물은 약 6개월은 묵혔다가 옥수수 밭이나 초지에 뿌려 거름으로 사용하게 된다. 암모니아 성분이 너무 강해 바로 닭 배설물을 작물에 주면 작물이 금방 말라 죽게 된다. 와싱턴 근교에 사는 교포 중에는 매년 우리 농장을 방문하여 닭 배설물을 가져가는 분도 상당수다. 이들은 묵은 배설물을 가져다가 집 뜰에서 재배하는 고추, 깻잎, 상추 등의 채소 거름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바닥에 톱밥을 약 5내지 6센티 정도 깔아준다. 톱밥을 까는 일은 1952년도에 생산된 포드 트랙터와 트랙터에 달린 스프레이더(spreeder)의 도움을 받는다. 50년이 넘은 장비가 말쑥없이 작동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톱밥을 까는 데는 먼지와 의 싸움이다. 환풍기를 다 돌려보지만 톱밥이 바닥에 뿌려지면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도 톱밥을 다 깔고 나면 닭장 내부는 암모니아 냄새 대신 톱밥냄새로 가득해 진다. 마지막으로 벽과 천장에 낀 먼지와 거미줄을 송풍기로 불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작업 역시 먼지와 의 전쟁이요, 3시간은 해야 하는 중노동이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쳐서 인지 이 작업을 할 때마다 힘들다는 생각이 매번 든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천장으로 올려놓은 먹이 공급라인과 물 공급라인을 내린다. 먹이라인에는 원형으로 된 먹이통이 매 30센티 간격으로 있는데, 이 먹이통 사이사이에 군대 식판 같은 플라스틱 접시를 깔고 병아리용 먹이를 부어 병아리가 처음 며칠간 편안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먹이 판은 5일 후면 걷어낸다. 간단하게 적어 본 이 준비과정은 사실 냄새와 먼지로 범벅되어 아무리 빨리해도 나홀은 해야 할 중노동이다. 나를 시골에서 닭 농장이나 하며 전원생

활을 즐긴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꼭 한 번 체험하게 하고 싶은 과정이다.

어떤 방문자는 닭장에서 풍기는 냄새에 코를 막고 접근도 하려 않지만 나는 이 냄새로 살아간다. 나로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돈 냄새요, 아이들의 학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닭을 기르며 냄새를 맡다보니 모든 것이 고맙고 새롭다.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냄새가 있다면 바로 닭 배설물 냄새다. 군 생활에서 화약 냄새를 즐기며 근무했듯이 지금은 암모니아 냄새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농장을 방문하는 교포들 중에 이웃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한다. 시골이 도시에 비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민 와 정착해 살아가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선입견은 누구에게나 조금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종차별 문제는 인종 간에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이웃에 대한 관계나 사회를 향한 관계로 이해되고 적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을은 전에 살던 와싱턴 디시 인접 도시에 비해 훨씬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한국에서처럼 이웃과 잦은 교류를 가지며 서로 방문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배타적이지는 않다. 교류가 적은 것은 문화적인 문제일 뿐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처음 이사해서는 우리 농장으로 이웃들을 초청해 불고기 파티를 열었다. 거의가 한국 음식을 처음 대해서인지 먼저 접시에 조금씩 담아 맛을 본 후에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2번, 3번 가져다 먹는 것을 보았다. 불고기, 갈비, 잡채 그리고 만두가 인기가 있었다. 김치는 좋아

하면서도 너무 맵다고들 했다.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서로 가까워지는 지름길은 없어 보였다. 이웃 중에 한 집은 독립기념일이 되면 밴드까지 불러다가 야외파티를 열기도 하고 밤이 되면 불꽃놀이를 한다. 불꽃놀이 규모가 커서 왜 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웃에 초대를 받는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절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은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넓은 땅은 방치되어 있는 듯 보이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좀처럼 볼 수 없어 나 자신도 전에 가졌던 질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살다보니 시골은 도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에 있는 학교도, 병원도, 법원 등도 다 있다. 인구가 작아서 규모가 작을 뿐이다. 단 도시에 없는 특별한 직업들도 있다.

우리 앞집은 성(姓)이 왕(King)씨다. 성씨에 맞지 않게 왕씨는 말발굽을 수선하는 일과 말을 대리 사육하거나 자기 말을 길러 새끼를 팔아 생활한다. 여러 혈통의 말이 20여 마리 앞집 뜰에서 풀을 뜯는다. 왕씨 부인은 최근에 간병사 자격을 취득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본다. 주말을 이용해서는 어린 아이들 생일파티나 행사에 말을 가지고 가서 태워주는 등의 행사지원으로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우리 농장에 서도 말을 가지고와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두 마리 말을 한나절 대여하는데 150불(15만 원)을 요구한다. 왕씨는 이웃이라고 돈을 안 받겠다고 극구 사양하는 것을 100불(10만 원)에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토요일 오후 서로 한가한 시간에 말을 타고 우리 농장 주위

를 맴돌기도 한다. 말 사육은 비용도 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가능한 일인데 말을 키우지 않고도 즐길 수 있으니 이웃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왕씨와 가까워지는 데는 염소가 한 몫을 했다. 나는 농장의 초지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에는 어미 소를 세 마리 사서 길러보았지만 노력에 비해 소득이 신통치 않을뿐더러 소를 많이 키우나 적게 키우나 필요한 장비의 투자가 커서 결국 염소를 초지 관리 목적으로 기르고 있다. 그런데 하루는 왕씨가 기르는 개가 우리 농장에 와서 새끼염소를 두 마리나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왕씨는 나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며 염소 값을 변상하고자 했다. 나는 내가 자랄 때 우리나라 이웃에서 통상하듯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런 것이니 서로 조심하자고 하며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나는 특별한 생각 없이 한 처신이었는데, 왕씨는 이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이웃에 좋은 소문을 내주어 초기 농장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양보와 배려 혹은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처신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는 관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테리(Terry)는 같은 회사에서 닭을 받아 위탁사육 하는 이웃이다. 이웃이라고는 하지만 2키로는 떨어져 있다. 그래도 같은 업종에서 일하다보니 정착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경험이 많은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땅이 100에이커(약 12만평)에 계사도 두 동으로 우리 농장의 배 규모이다. 육질이 좋다는 까만 고기소(Black Angus)를 200마리 정도 기른다. 소 보유에 비해 초지가 부족하여 정부 땅이나 이웃 농가의 노는 땅을 대여 받아 농사를 하고 있다. 테리에게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농사를 거의 혼자 관리한다는 것이다. 잔디를 깎거나 소에게 건초를 주는 일을 노모가 돕는 것은 봤어도 사람을 쓰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물론 트랙터를 중심으로 한 대형 농사장비의 도움을 받지만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노동이다. 어느 곳에서나 근면하고 성실한 이웃이 있다는 것은 도전과 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아직도 혼자인 그가 조만간 결혼이나 했으면 싶다.

데비(Debbie)는 색다른 직업을 가진 이웃이다. 개 중에 그레이하운드(greyhound)와 같은 외형이지만 이보다 약간 작은 개(whippet)만을 전문적으로 기르며 순종만을 번식시키고 훈련시켜 각종 개 전시회(dog show)에 순회하며 참가한다. 이 개 중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개가 있는데 이 수개를 일본 애호가 9만 불(9,000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10만 불(1억 원)을 요구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데비한테 직접 들었다. 이 개 새끼 한 마리는 5천불을 호가한다고 한다.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문화가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된 미국에서 개에 대한 정서를 이들과 같이하지 못하면 이민생활 자체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잘 아는 금언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도시에 살면서는 개를 키울 기회가 없었으나 시골로 이사 오면서 개를 기르고 싶어졌다. 시골은 개를 기르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에서는 애완용 개를 실내에서 기르는 것에 반해 시골에서는 야외에 잘 지어진 개장에서 사냥개 종류를 많이 기른다는 것이다. 이 개들은 밤에 야생동물이 집에 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주인에게 충직한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한다.

내가 농장에 이사 와 개를 기르자 테비를 비롯한 이웃이 나의 개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하는 듯 했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키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나는 개를 사람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싫어도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내가 기르는 개 중에 양을 치는데 도움을 주는 ‘나리’라고 부르는 개(Shetland Sheepdog)가 있는데 이 개가 이웃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혼자 시장을 나가면 눈인사나 의례적인 동작으로 인사를 나누는 미국인들이 개와 같이 외출을 하면 가까이 와서 개 이름이 뭐냐, 몇 살이나 되었느냐, 개가 너무 귀엽다는 등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의 통로를 더 준다. ‘나리’와 같이 외출하지 않았을 때는 내 안부보다 개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들도 있어 질투가 나기도 한다. 어느 곳에 살든 사는 곳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응하여 살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와싱턴 디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나이 많은 이웃 어른 중에는 아직도 와싱턴 디시를 가보지 않은 분도 있고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더 많다는 사실이 신기 할 정도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생활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 않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행동하는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거나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면 와싱턴 디시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만 받고 여러 직업에 종사하며 시골에 정착해 산다.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미군에 입대하는 등 직장을 따라 이주하는 학생 그리고 시골에 정착해 가정을 이루며 사는 학생으로 구별된다. 그 중에서도 시골에 정착하여 살거나 직장을 잡아 집을 떠나는 젊은이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은혼식 초청장을 받은 후로 살아오며 경험하고 들었던 시집살이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머리를 스친다. 최근 들어서는 아내가 다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며 며느리를 얻게 되면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만큼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푸념 반, 걱정 반인 말을 가끔 한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고향 이웃집에 살았던 누나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가난했던 누나는 전주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되었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중매결혼을 했던 누나는 좋은 소문과 가난을 벗어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하는 것 같았고 남자가 만나자마자 첫 눈에 반해서 결혼하자 서둘렀다고 수줍어하며 말하기도 했다. 특별히 남자를 사귄 기회가 없었던 누나는 남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누나 엄마는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기를 즐겼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 누나가 친정을 다녀간 후부터는 자랑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나가 시집을 나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누나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모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하루는 글을 몰랐던 누나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와서 나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누나에게서 온 편지 내용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참아보려 했는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기가 생기기 전에 떠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이미 숨겨둔 부인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하고 모처럼 들어와도 술을 먹고 들어와 행패를 부려요. 저는 집안일에 시누이 아기까지 돌보며 살아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셔요. 작은 일에도 며느리가 잘 못 들어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들 하셔요. 저는 앞으로 이 집의 하녀처럼 살아가야 할 앞날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가까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사시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지요. 아버님과 동생들에게는 어머니가 잘 말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끝으로 어머니한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동생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에게 제게 한 것처럼 해 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닭 사육에서 가장 힘든 일이 준비과정이라면,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죽은 닭을 수거하는 일과 상품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닭을 죽여 없애야 하는 일이다. 처음에는 산 병아리를 죽이지 못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야 수거했지만 지금은 병아리 때 잘 자랄 것 같지 않은 닭은 서슴없이 없앨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닭 사육은 위탁사육체계이므로 회사가 병아리부터 먹이까지 다 공급해 주고 사육농가는 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잘 기르면 소득이 더 오르는 것이다. 잘 기른다는 의미는 닭이 먹이는 적게 먹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 무게가 더 나가게 하면 된다는 뜻이다. 결국 회사에서 주는 돈

은 파운드당 몇 센트(cent)로 계산하여 닭 전체무게에 대한 금액을 농가에 지불한다. 닭 농장은 사육의 책임을 회사는 마케팅과 병 관리를 책임지며 협력 사육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업경영체제는 농장주는 마케팅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불경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다. 마케팅 역시 전문 경영인에 의해 해외 수출물량까지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비교적 여름철이 성수기인데 이 시기는 대형 냉동창고에 비수기에 확보한 닭까지 판매한다. 우리 회사는 해외로는 러시아가 가장 큰 고객이고, 내수로는 캔터기 프라이드치킨, 버거킹, 맥도널드 등에 납품한다.

젊은 닭이 낳은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와 늙은 닭에서 낳은 알에서 부화된 병아리의 성장속도나 폐사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농장주마다 젊고 건강한 닭이 낳은 알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매번 받아 기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회사에서는 차트까지 만들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농장에서 회사를 상대해 불공정한 대우로 소송을 걸어 사실로 밝혀지면 엄청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들어 온 닭은 비교적 젊은 닭에서 부화된 병아리 같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젊은 닭이 난 알에서 부화된 병아리는 늙은 닭에 가까운 닭에서 난 알에서 부화된 병아리에 비해 작고 처음 3일 정도의 활동이 둔하며 잠이 많은 편이다. 처음 사육을 할 때는 첫 날부터 활동적인 닭이 잘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처음 3일간 죽은 병아리가 264마리에 죽인 병아리는 367마리였다. 다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숫자다. 차라리 첫 주에 많이 죽고 나중에

적게 죽어야 나에게서는 좋은 일이다. 첫 주에 온도는 섭씨 27도에서 30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환풍기의 자동조절 장치도 여름과 겨울이 차이는 있지만 매 10분마다 15초에서 1분정도로 맞추어 놓고 환기를 시킨다. 여름에는 통상 일주일, 겨울에는 십일 동안 닭장을 절반 막아서 기르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열어서 기르게 된다. 이 기간까지가 비교적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다. 이 시기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군에서 경계초소 순찰하듯 닭장을 순찰 하며 회사 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사육 환경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 발행한 닭 사육지침서에는 닭 복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2년 전 동물학대 반대 활동을 하는 한 운동가(activist)가 이웃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닭 출하과정에서 닭을 발로 차고 케이지에 마구잡이로 던지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간단한 것 같았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그 회사는 맥도널드에 납품하던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시위에 굴복한 것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동물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살되는 동물의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어찌됐든 회사는 마케팅과 관계되는 이 주장들을 무시할 수 없어 결국 닭 사육에 있어 지켜야 할 복무지침서까지 마련한 것이다.

복무지침서를 요약해보면 닭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닭을 함부로 취급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2회 이상 닭장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죽은 닭은 매일 수거하여 냉동고에 저장했다

가 처리지침에 따라 닭 배설물에 묻어 썩힌 다음 다른 배설물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닭은 열이 많은 조류여서인지 죽은 후 부패속도가 빠르다. 거기에 배설물 더미에 묻어두면 얼마 되지 않아 부패해 버린다.

닭의 건강관리 지침에는 모든 병아리는 부화 이틀 전 알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데 이 주사를 기계로 주면서 우리 농장에 오게 될 병아리가 몇 마리나 되는 지 확정된다. 그래서 때로는 농장에 도착한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부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건강관리 점검과 확인을 위해 회사는 차트를 주어 기록 관리하게 하는데 매일 죽은 닭의 숫자, 죽인 숫자, 최저온도, 최고온도와 물 소비량을 기록해야 한다. 이 차트는 매주 방문하는 서비스맨(service man)에 의해 점검되고 감독을 받는다. 서비스맨은 갑자기 죽는 닭이 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발견하면 회사의 전문 수의사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한다. 회사와 사육농가 사이에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서비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4주가 되면 닭의 무게를 측정하여 출하시기를 결정하는 일과 혈액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내는 일이다. 이 혈액 검사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출하가 확정된다. 농장 출입은 회사 서비스맨과 농장주인 외에는 철저히 통제되는데, 만약 기계고장 등으로 외부인이 닭장 안을 출입할 때는 적당한 소독 절차를 거쳐 1회용 옷을 착용하고 작업하게 되며, 작업이 끝나면 그 옷은 해당 농장에서 벗어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장들 사이의 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없애야 할 닭을 안락사 시키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목을 비틀어

죽이는 방법이 그래도 짧은 고통을 겪고 죽게 하는 방법이다. 목을 졸라 숨을 못 쉬도록 하는 방법, 다른 질소나 탄산가스로 질식사 시키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첫 닭을 받아 키울 때 우리 농장을 담당한 서비스맨은 비키(Vickie)라는 여자직원이었다. 그녀는 버지니아공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18년째 회사에 근무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내가 닭을 어떻게 죽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고 물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이는 방법을 서슴없이 시범 보이며 나에게 실습시키기도 했었다.

농장에 이사 온 그 해 11월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그녀의 가족과 부모를 집으로 초대할 적이 있다.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보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기대를 하게 했고 특히 6살, 9살의 두 남매에게는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이 두 꼬마는 학교에 가 우리 집 방문에 대한 글과 그림을 그려 제출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을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점과 저분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했고 이들의 글과 그림은 학교에 전시되기도 했다.

4월의 버지니아 주는 고향의 봄처럼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하기에 분주하다. 하룻밤 자고나면 나뭇잎 색깔이 진해지고 또 하룻밤이 지나면 새들이 새끼를 부화해 놓는다. 겨울에 태어난 염소새끼들이 벌써 사내흉내를 내며 암염소의 뒤를 쫓는다. 개나리꽃이 피고 나면 철쭉꽃이 핀다. 고향에서처럼 진달래꽃은 볼 수 없지만 철쭉꽃을 보는 것으로 마음이 느긋해진다.

특히 우리 마을의 4월의 꽃은 고향에서 어른들이 ‘밥풀떼기나무’라고 부르던 나무가 아닌가 싶다. 나뭇가지에 분홍색 꽃이 마치 밥풀이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핀 후에 꽃이 지면서 잎이 나는 나무다. 꽃이 피어

있을 때가 아니면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다년생 나무, 이 나무의 원래 이름은 ‘박태기나무(redbud)’다. 꽃모양이 밥알모양과 비슷하다하여 ‘박태기’라 부르게 되었는데, 일부지방에서는 ‘밥티나무’라 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밥풀떼기나무’라 불렀다.

같은 꽃인데도 모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무다. 북한에서는 꽃봉오리가 구슬 같다하여 ‘구슬꽃나무’라하고 그리스에서는 칼집 같이 생긴 꼬투리가 있다고 해서 ‘칼집나무’라고도 부른다. 또한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이 나무에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여 ‘유다나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이 나무가 농장에도 길 가에도 곳곳에 피어 4월의 주인인양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나무 꽃을 보고 있노라면, ‘며느리밥풀꽃’이 떠오른다. 꽃말이 ‘시기, 질투’로 알려진 단년초 식물.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분홍색 꽃 중앙에 하얀 밥풀모양의 꽃술이 두 개 달려 있는 꽃. 이 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전설적인 꽃이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시아버지 제삿날은 어김없이 궁색한 살림살이를 찾아오고야 말았다. 시아버지 제삿날, 무럭무럭 김이 나는 밥을 그릇에 담던 며느리는 무심결에 부엌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발견한다. 쌀밥이라고는 구경해본지 오래된 며느리로서는 부엌바닥에 떨어져 있는 밥알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주워 먹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오물오물 밥알을 씹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시어머니, 며느리를 그냥 둘 리가 없다. 제상에 올릴 시아버지의 밥을 먼저 먹었다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말았던 것이다.

일은 제사가 끝난 후 벌어졌다. 억울하고 분해 가슴을 쥐어짜든 며느리는 ‘지지리도 박복한 년의 팔자, 누명을 쓰고도 말 한 마디 못하는 병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구차한 삶을 이어야 하는가?’ 하면서 극도의 비판 상태에서 그만 목을 매고 만다. 허를 길게 빼고 죽어 있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오해를 한탄하고 반성했다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그 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흘러 며느리 무덤에 이상하게 생긴 꽃이 피었다. 꽃부리에 밥알 두 개가 붙은 꽃이었다.”

이 꽃을 우리는 ‘며느리밥풀꽃’이라고 부른다. 과거 우리 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을 전하는 참으로 애절하고 슬픈 이야기이다.

문화와 전통은 지엽적이고 제한적이면서도 이를 거부하며 살기란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은 시어머니 세대라기보다 며느리 세대가 된 것 같은 이 시대에 교포 중에 아직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음을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분으로부터 전해들을 때는 묘한 감정이 든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도 며느리를 비판하는 시어머니나,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며느리를 간혹 대한다. 그런가하면 내 주위에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에 미국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셔 한국 전통으로 이를 이해하고 며느리와 우리 전통을 칭송하는 미국인도 알고 있다. 치매에 걸린 한국 장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미국 사위도 가끔 장모와 같이 농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전통과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간됨이나 성격이 먼저라는 점을 느끼게 하는 체험들이다.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나 전통도 이민 온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60년대 이민 온 어른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의 60년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70년대, 80년대, 그 이후 이민 온 시기에 따라 그 시대의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대할 수 있다. 그래도 한국을 가끔 방문할 기회가 있는 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미국 사회와 비교하며 적응하고 살고 있지만, 한국의 발전과 변화를 모르는 교포일수록 양쪽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온 그 시절을 간직하고 고수하려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한국 비디오가 교포사회에 보급되어 한국사회와 교포사회 간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격차가 많이 회복된 듯 보이지만 영상 매체로 보고 듣는 것과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교포사회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는 이민시기와 한국 방문횟수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일주일이면 병아리는 통상 폐사율도 적어지고 먹이를 잘 먹는다. 물도 첫날 30갈론 정도 먹던 것이 여름에는 500갈론 이상 마셔댄다. 출하시기가 되면 하루에 3,500갈론을 마시니 이때는 그리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다. 소등을 통해 잠을 재우는 시간도 첫 날은 불을 24시간 켜주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1시간을 완전 소등하여 병아리들이 잘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7일까지는 3시간을 재우고, 8일째부터는 6시간으로 늘려 30일까지 유지시킨다. 출하 일주일 전부터는 다시 3시간만을 재워 먹이 먹는 시간을 다시 늘려준다. 이러한 소등지침은 회사에서 대학교 축산과에 연구를 의뢰하여 실험한 근거에 의해 회사의 방침으로 확정하여 사육농가는 이대로 실행해야 한다. 실내조명의 밝기도

회사에서 책정해 주는데, 농장을 막 구입한 사육시기에는 환하게 실내 전등을 다 밝힌 환경에서 사육을 하게 했지만 약 2년 전부터는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사육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연구결과 비교적 어두운 환경에서 닭들은 운동량이 적어져 살이 더 잘 찌고 육질이 질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한국의 토종닭은 육질이 질겨 조리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실내에서 집단적으로 단 기간에 키우는 이 곳 닭은 육질이 연하고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 육질이 좋다는 것은 질기지 않아야 되고 맛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비교적 닭다리를 좋아하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가슴살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한국 닭에 비해 가슴살이 더 잘 찌는 품종을 기르는 것 같다.

사료는 처음 일주일 정도 먹이는 병아리용 사료, 다음 이 주간 먹이는 안정기 사료, 마지막으로 출하 때까지 먹이는 성장기 사료로 구분하여 먹인다. 먹이는 옥수수를 주로 한 배합사료이다. 성장기의 사료에는 성장호르몬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도 과거에는 40일 안에 출하하지 못했다. 이렇게 출하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닭의 품종 개량과 사료개발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요사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오가닉(organic) 식품을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화학비료나 인공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구의 증가는 친환경 농축산 농업 기술만으로는 지구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 전 타임지에서 1930년대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는 2000년대에 지구는 식량난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생명공학연구와 발전으로 빛나갔다고 보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식량증산을 위한 혁신적 생산성 향상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기사이다.

옥수수가 이제는 식량만은 아니다. 옥수수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탄올(ethanol)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 자동차 연료의 18프로를 에탄올 가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옥수수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어 올랐다. 옥수수 값 상승이 동물 사료 값의 인상으로 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 획기적인 생명공학 연구와 발전이 없는 한 지구는 식량난으로 망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는 우려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서도 다시 확산되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기아로 고통 받은 세계 인구는 8억6200만 명이고 그 중 대부분인 8억 3000만 명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식량위기의 주된 원인을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또한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반대여론 때문에 종자개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水)자원이 갈수록 모자라 곡물수확이 나빠진데다, 급등하는 유가 등으로 농업생산 비용까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가의 식량소비와 유류소비는 식량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가의 급등으로 사람이 먹어야 할 옥수수 등에 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비싸지는 식량을 놓고 인간과 자동차가 경쟁하는 모순적 상황의 문제”에 인류는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류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핵무기보다도 화학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식량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언젠가 농장을 방문한 한국에서 온 손님이 인터넷에서 미국에서는 인공사료를 닭에게 먹여 발이 다섯인 닭을 키운다는 글을 읽었다고 하며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닭장 내부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런 닭을 키운 적도 없고 본적도 없다. 소문은 믿어도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인공사료가 인체에 해가 없도록 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한 쌀을 먹고 살 수만은 없는 일이며 인공사료를 먹지 않은 닭을 먹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초지에 서만 자란 소고기를 먹고 살 수 없는 인구라면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획기적인 생산증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은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면서도 과학을 의지하며 살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농사기술을 비판하면서도 농사기술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노라고 헐신하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와 과학적 인식과의 소통이나 문화와 문화 간의 소통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미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학교 등에서의 잦은 총기사고로 총기소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국민이 자기

보호와 사냥수단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는 총기사고가 있을 때마다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시골에 살면서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광활한 대지를 개척하면서 생명의 보존 수단으로써 총기는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을 것이고 때로는 먹이를 사냥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호수단으로써 또는 생존수단으로써 총기 소유는 시간이 흐르며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 보급된 총기만도 5살 이상 인구가 총 한정씩을 소유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한다. 문화적인 개념으로 미국인들은 총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이제는 이 문화를 바꾸어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화가 지닌 속성이 아닌가 싶다.

미국에서는 매년 총기로 죽는 사람이 3만 명 선인데 비해 이라크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은 년 천 명 선이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전쟁 사상자를 더 문제시 한다. 국내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다 죽는 사상자 숫자 역시 전사자 못지않지만 그래도 전사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나 과학적인 사실은 문화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 우리 의식구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는 테리가 우리 농장 앞뜰의 풀을 베어 건초를 만들다가 뉴스를 들었던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사건은 단순한 사고 같은데 왜 촛불집회로 번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당시 우리 마을에 사는 한 한국전 참전 용사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유엔묘지에 묻힌 미군 전사자 무덤에 꽃 한 송이라도 바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는 노인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에게 나는

같은 답변을 했었다. 촛불집회는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추도모임이었지만, 그 후의 집회는 이 사건을 취급하고 대하는 미군 당국의 태도에서 그동안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의 그 많은 희생과 좋은 뜻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저질렀던 부정적인 측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최근 이어지는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우려도 이런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일부 기사들이 한국에서는 광우병보다 조류독감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은 문화적인 소통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부패와 발효는 화학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 그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똑같은 발효식품인 김치는 우리의 음식이고 치즈는 서양의 음식이지 않는가? 이민생활이란 곧 문화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며 그리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닐까?

열흘이 지난 닭들이 그동안 햇빛 한번 보지 못한 환경에서도 주먹만 하게 자랐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들어 보기도하고 싸움닭들도 아닌 것이 서로 싸우는 시늉을 하기도 하며 지낸다. 불의 밝히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둡침침한 상태로 두다가 3-4시간 간격으로 모든 전등을 켜준다. 갑자기 불이 켜지면 앉아 있던 닭들까지 전부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좁은 공간 사이를 뛰며 운동을 하기도 하고 먹이와 물을 먹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한 30분을 활동하게 하고 다시 조명을 줄인다. 이제 닭들은 먹을 만큼 먹었으니 조용히 앉아 쉴기도하고 오수를 즐기며 살이 찌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는 폐사율도 떨어지고 장비에 고장만 없

으면 닭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삼십 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새 건물에 비해 고장이 잦은 편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장비가 삼십 년을 견디며 작동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칠년 동안 환풍기 모터는 절반 정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닭장에는 1마력 내지 2마력 전기모터가 14개 작동을 한다. 모터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은 이상 없이 작동한다. 가장 크게 투자한 장비는 튜브용 도시가스 히터를 천장에 부착한 것이다. 옛날 장비에 비해 열효율이 더 좋아졌고 연료비도 10프로는 절약되고 있다. 투자비는 들었지만 몇 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잔 고장도 많은데 먹이 공급 라인이나 물 공급 라인이 끊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이가 막히는 경우,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다. 갑작스런 정전을 대비해서는 비상용 제너레이터가 예비되어 있다.

아침 커피를 마시며 산책 나온 야생토끼와 새들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 시간이 좋다. 사람 속에 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저들은 내가 나가면 도망치겠지. 그러나 나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보호본능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새가 다가가도 도망치고 염소가 다가가도 도망치니 말이다. 시골에 살면서 가장 즐기는 이 아침시간, 이 시간은 자연 속에 나를 발견해서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자만 한국에서 통상 전화가 오거나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구순이 넘은 어머니와 장모님의 건강한 전화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 없다.

형이 전화를 받고 평상시대로 안부를 묻더니 어머니 걱정을 한다. 어머니가 조류독감에 대한 뉴스를 듣고 동생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미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해 보지만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음성이다. 무슨 새가 감기에 걸려 우리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인지….

2006년 4월에는 회사에서 매 3개월마다 발행하는 <조지(GEORGE)> 잡지에 조류독감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기사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찍은 사진으로, 사람과 닭들이 집 마당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진과 현대식으로 신축된 미국의 사육장 사진을 대비시킨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기사 내용은 조류독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루었다.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은 조류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조류독감은 야생조류들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전염되는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야생조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시킨다. 사실 조류독감은 새로운 병이 아니다. 18세기 초에 이미 가금류에서 발병한 것으로 믿어진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현재 우리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세 종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H5N1 바이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들이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 바이러스들을 미국 질병통제소(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 도처의 관

계기관, 연구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악의 경우라도 아직까지는 인체에 해를 주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미 전 대륙으로 확산 전파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 농무성은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와 식품회사들 그리고 사육농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들의 이러한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러모로 달리 대처하고 있다. 대부분 아시아나 중동 국가에서는 조류와 다른 동물을 야지에 방목하여 기르고 있다. 사람들도 이 조류나 동물들과 가까이 생활한다. 중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자 아이는 애완용 닭과 같이 잠을 자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 조류독감이 무엇입니까?

답변 : 주로 철새들이 지닌 H5N1 계열의 조류 인플루엔자(유행성 감기)를 말한다. 비록 철새들만의 바이러스로 알려졌지만,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에서 나오는 진물이나 배설물을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해외에서는 보고된 적이 있다.

질문 : 왜 이 바이러스가 어느 특정 국가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가?

답변 : 가장 큰 문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조류와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과 이 조류가 채래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래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조류독감이 더 신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문 : 회사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달리 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가?

답변 : 미국 회사는 닭 사육을 야생조류와 접촉할 수 없는 사육장 안에
서만 기르고 있다. 회사원들과 사육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특별
히 조류독감 예방을 위 해 교육과 예방책을 취하고 있다.

질문 : 만약 우리 회사가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
치가 취해지는가?

답변 : 조류독감 감염이 의심되면 즉각 해당 농장은 격리하고, 조류의
혈액을 채취 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
으로 나오면 해당 농장의 닭은 전부 회사의 전문 요원들에 의해
안락사하여 해당 농장에서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게 된다.
해당 농장은 방역요원에 의해 철저히 격리, 방역과 정을 거쳐
일정기간이 지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육할 수 있도록
한 다.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H5N1 계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
우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문 : 조류독감으로 손해를 보는 농가의 보상은 가능한가?

답변 : 미 농무성은 피해농가가 생길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
을 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해농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
우는 없다.

질문 : 닭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답변 : 조류독감이 닭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져 식품회사는 조류독감 이 자주 발생하는 개발도상 국가들
과는 사육방법과 절차, 환경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육하는 닭의 건강관리는 병아리 때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사육되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은 해당농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도축공장에도 올 수 없다.

질문 : 닭을 먹은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될 수 있는가?

답변 :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섭씨 74도(화씨 165도)에서 다 죽는다. 그러므로 고열에 끓이거나 튀겨 먹는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질문 : 닭으로부터 H5N1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가?

답변 : 사람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려면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나 진액물질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 국립건강관리소의 안토니(Anthony Fauci) 박사는 H5N1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려면 일단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되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기는 쉽지만, 위험에 처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질문 : 그렇다면 정부가 이 문제를 왜 그리 크게 취급하는가?

답변 :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국제기구, 그리고 조류독감 발생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철저한 예방 없이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0억 마리의 닭이 폐기되었다. 질문 : 만약 미국에서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답변 :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의 닭 사육은 야생 조류와 철저히 격리되어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닭 사육 농가가 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식품회사가 병 관리와 확산 방지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질문 :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유행병으로 변질 수 있는가?

답변 :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이 보고 된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경우는 현재 없으며 과학적인 증거도 희박하다고 알고 있다.

질문 :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 일반적인 감기 예방 사항과 크게 차이가 없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상시더운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다. 음식은 적당한 방법으로 끓인 물로 조리 해야 안전하다.

2년 전 이곳에서도 조류독감이 번진 적이 있었다. 다행히 우리 농장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특히 일부 칠면조 농장과 닭 사육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H5N1 계열의 바이러스가 아니어서 다행이었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회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꼭 한국 군대에서 간첩이 침투했을 때 취하는 비상 조치 같은 일들이 취해졌다. 먼저는 지역에 연방정부, 주정부, 식품회사, 지역 경찰까지 동원된 야전 방역지휘소가 설치되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총 지휘한다. 독감 감염 농가는 외부 출입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관련 요원들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출입하게 된다. 조류독감

에 감염된 농가의 닭들은 즉각 폐사 처분하여 농장 내에서 매몰하고 철저한 소독 절차가 이루어진다.

피해 농가에게는 회사에서 최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평상시 보상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불된다. 은행 융자가 있는 농장은 자동으로 다음 사육이 시작될 때까지 상환이 연기된다. 문제는 다음 사육 때까지 농가 수입이 없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정부의 저리 융자와 보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신기한 점은 이런 조치들이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닭 사육 회사 그리고 융자회사 관계자들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가진 조류독감 예방 시나리오는 조류독감이 러시아를 경유 알라스카를 통해 이동하는 철새들에 의해 감염되어 서북부 도시 시애틀이 최초 발병되고 서 남부로 독감이 확산되면서 중부지역을 거쳐 동부로 번지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경로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알라스카에 정부 공무원을 상주시켜 야생조류의 배설물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매년 수 천 마리의 조류를 샘플로 생포, 혈액을 검사하여 조류독감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니 미국의 대표적 자연재해 인 허리케인, 홍수, 회오리바람, 폭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는 확률보다도 조류독감의 피해를 볼 확률이 적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다.

또 한 가지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재까지는 조류독감이 닭의 나이가 40일 이하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0일 이상 키워서 출하하는 닭이나,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 알을 낳아 주는 닭 그리고 터키 농장에서만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이다. 왜 그런지는 아직 밝

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로부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육하기에 충분한 통계이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사료가 개발되면서 출하시기가 40일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하시기의 닭 한 마리당 무게가 3.8파운드(1.7kg)가 목표인데, 37일 기준으로 평균하면 거의 4파운드(1.8kg) 무게가 나간다. 닭의 무게가 곧 소득과 직결 되어 있으면서도 사육 농가가 닭 무게를 다는데 직접 입회하지는 않는다. 닭 도살장에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무게를 상호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몇 차례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 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연락을 하며 착오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 직업이 세상에는 없어 보인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며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나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업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는 농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맥도널드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닭고기 샌드위치를 시켜 먹을 때는 혹시 내가 키운 닭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처음에 농장을 사서 이사하던 때 두렵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초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사했던 기억이 어제같이 생생하다. 닭장을 보수하려고 목재를 파는 도매상에 가서 그 곳에서 파는 나무는 다 곧은

줄 알고 남들이 틀어졌다고 한 쪽으로 쏘아 둔 나무를 사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해 다시 바꾸어 온 일, 사다리를 안전하게 세우지 않고 오르다 떨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할 순간을 가까스로 모면한 일, 독이 있는 나무나 식물을 구별하지 못해 풀독으로 고생한 일 등….

이보다도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 곳 법이나 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려하지 않고 그저 들은 이야기를 믿다가 당한 일이다. 삼만 평 정도의 땅을 처음 사니 나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한 기분이 들었다. 이웃이 멀지 않지만 나무들에 가리거나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내 땅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은연중에 그런 선입견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사냥용 총도 생일 선물로 받았다. 군 시절 유독 화약 냄새를 즐겼던 나는 총을 가진 기분이 남달랐다. 이웃 사람들도 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다. 우리 동네의 가을은 사냥이야기를 빼 놓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니 말이다. 낮에는 내 땅에서 얼마든지 총을 쏘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냥철이라도 야간에는 사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총을 쏠 수도 없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주간에 표적지를 놓고 사격하는 것을 한참 즐기기도 했다. 그런데 ‘내 땅에서는 내 맘대로’라는 사고는 고쳐야 할 생각임을 일깨워 준 사건이 발생했다.

농장으로 이사 온 그 해, 이곳은 무척 가물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올 때는 적게 내리고 더위는 극성을 부리니 밭작물들이 다 타 들어가는 형편이었다. 집 옆에 있는 텃밭이 너무 지저분하여 다른 쓰레기와 함께 소각을 시작했다. 가물었던 탓에 불꽃은 치솟고 밭에 있던 잡풀까지도 태우고 있었다. 갑자기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니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던가 아니면 시골집에 응급환자가 생긴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꺼져가는 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며 우리 농장으로 몰려들었다. 소방차 여섯 대, 구급차 한 대가 집 앞으로 와서 급히 서더니 소방요원들이 내려와 텃밭으로 달려왔다. 다행히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어서 물을 뿌리거나 소화 작업을 위해 호스를 당기는 등의 소란은 없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사태를 파악하려는 나에게 지휘자로 보이는 키 크고 건장한 백인이 소방 모자를 벗으며 다가왔다. 왜 불을 피웠느냐는 질문에 텃밭이 지저분해서 쓰레기와 같이 소각한 것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지금 외부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을 몰랐느냐고 물었다. 몰랐다고 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주지사의 특별한 해제조치가 없는 한 외부에서 불을 놓는(open fire) 일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갑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겸손하게 몰라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사과 했다. 소방관은 얇은 웃음을 지으며 사정은 알지만 법을 어겼으니 티켓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방관들은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어찌할 수 없고 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사정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티켓을 받아 쥐며 출두 날짜를 확인하는데 3개월 후에 일정이 잡혔다. 소방관들이 소방훈련 한 번 잘했다는 농담들을 하며 돌아가면서 돈 좀 깨질 것 같다는 말을 흘렸다. 한 소방관이 소방차가 여섯 대에 구급차까지 출동했으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법정 출두 일을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소방차 한 대에 1,000불(백만 원)을 쳐도 7,000불(칠백만 원)을 물어야 할 형편이었

다. 갑자기 사람이 아파서 구급차를 부르면 통상 1,000불 이상의 경비가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도 걱정을 했고 두 아들도 비싼 공부하게 됐다고 거들었다.

교회 갈 때나 입는 정장에 점잖은 넥타이까지 매고 법정에 출두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판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부터 의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시골이어서인지 위반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와 같은 죄목(?)으로 출두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다. 한 사람은 남미 계통의 사람으로 통역을 대동하고 출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건축 현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붙여온 사람이었다. 불행히도 내가 먼저 심문을 받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심문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인데 말이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말하려는데 판사가 불을 피운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야지에서 불을 피울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농장으로 이사 온지 겨우 3개월이 안 된 시기여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했다. 판사는 그래도 벌금은 내야 된다고 답답하게 말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판사가 옆 사무실에 벌금을 내고 가라고 했다. 판사 밑에 앉아 있는 서기가 주는 쪽지를 받아 법정을 나오면서 덤덤한 기분으로 쪽지를 바라보았다. 벌금 25불, 법정 비용 45불, 합계 70불(7만원). 자동차 주차 위반 시 받는 벌금형과 같았다. 벌금액에 그동안 마음 졸였던 일로 긴장이 풀리고 한편으로는 속웃음을 참지 못하며 법정을 나와 기쁜 마음으로 벌금을 냈다. 그 후로는 내 땅에서 불을 피우더라도 꼭 소방서에 연락하여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불을 피운다.

문화적 차이나 법규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이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교훈을 갖는 귀한 경험이었다. 한국 소식보다도 이곳 소식에 더욱 민감하도록 만든 계기가 된 해프닝이었다. 지금도 나는 판사가 봐준 것인지, 그런 정도의 형량(?)으로 충분했던 것인지 모르고 있다. 지금은 매사에 조심성이 생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고 있음이 다행일 뿐이다.

2주가 지나면서 닭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매일 닭장을 들어갈 때마다 느끼게 된다. 계절적으로는 봄과 가을이 닭을 사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겨울은 연료비도 문제고 폭설이라도 내리면 평상시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일도 시간과 노력이 배 이상 드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 일부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닭을 사육하여 폭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듣기도 하는데 이곳은 튼튼한 목조 계사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폭설로 인한 피해는 드물다. 여름에는 닭이 원래 열이 많은 조류인데다 더위까지 겹치면 폐사율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대형 환풍기를 열 개씩 돌려도 외부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면 감당하기가 버겁다. 천장에 있는 스프링 쿨러(spring cooler) 장치를 가동하여 열을 식혀주려고 하지만 폐사율을 줄이는 데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비에 고장이 생기면 간단한 것은 직접 고치기도 하지만 전기일이나 전문적인 일은 기술자를 불러 고쳐야 한다. 특히 전기가 나가 환풍기를 돌리지 못한다든가 물 공급이 끊기게 되면 집단 폐사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물, 환기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보회사로 경고신호가 자동으로 가게 되고, 경보회사는 먼저

는 내 핸드폰에 연락하고 내가 연결이 안 되면 비상연락망에 순서대로
적힌 이웃 농장주나 회사에 연결되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우리
농장 비상연락망에는 스티브와 테리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고장으로 기억되는 사고는 환풍기가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40개의 자동 개폐식 창문을 연결해 주는 철선이 끊어지
는 바람에 4,000여 마리가 출하 전날 집단 폐사한 적이 있다. 환풍기
벨트를 혼자 바꾸려다가 손을 다쳐 고생한 일도 있고, 물 공급 파이프
가 터져 닭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수렁이 된 적도 있다. 문제는 닭
배설물에 물이 닿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더 심해지고 닭 들이 수렁에서
나오지 못해 죽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톱밥을 가져다 깔아
주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잦은 고장은 자동으로 외부
먹이탱크에서 들어오는 먹이가 탱크 외부의 온도와 내부에 쌓인 사료
로 인한 온도 차이 등으로 먹이 라인에 습기가 발생하여 막히는 경우
다. 이러한 자잘한 고장 때문에 평상시에도 비상대기 상태로 농장에
상주해야 한다.

삼 주일 쯤은 화씨 80도(섭씨 27도)를 맞추고 환기 장치의 환기시간
을 더 늘려 주어야한다. 닭이 자라면 물 공급라인을 키에 맞추어 올려
주고 먹이라인도 올려준다. 이쯤에서 매일 죽은 닭이 20마리 내외, 죽
인 닭이 10여 마리 내외이면 정상에 가깝다. 회사에서는 평균 폐사율
을 3~5프로 잡는다. 이 시기가 되면 비교적 성장이 느린 닭과 빠가 여
물지 않아서 인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닭, 기형으로 자라는 닭들이 쉽
게 눈에 띄어 구별하기 쉬운 시기다. 같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닭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보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오되는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농장 수입은 시장에 영향을 직접 받기보다는 닭을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회사는 사육자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 잘 자라고 죽는 닭이 적으면 상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적은 돈이지만 물어내야 한다. 형평성을 위해 일주일 동안 거의 같은 나이로 키우는 통상 스물다섯 농가끼리 경쟁을 하게 된다. 먹이 소모 대 무게, 폐사율 등을 고려한 평가치로 평균을 내어 평균치에 있는 농가는 보상도 손해도 없다. 만약 1등을 하게 되면 1,000불(백만 원) 내외의 추가 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뿐 아니라 사기문제가 있기도 하다. 지난 7년 동안 비교적 사육을 잘해서 회사에서 ‘우수농가(Top Grower)’로 인정받고 있으니 다행이다.

2006년 봄에는 회사 사보를 담당하는 기자가 전화를 해 나와 농장에 대해 취재한 기사를 사보에 싣고 싶다고 했다. 개나리가 피고 민들레가 도처에 핀 오후 기자가 회사 서비스맨을 대동하고 농장을 방문했다. 기자는 닭 사육하기 전에 종사한 직업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한국 군에서 20년 근무한 것, 중령으로 예편한 것, 미 해군대학원에서 무기 공학을 전공한 것, 대사관 군수무관으로 일한 것들에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언젠가 서비스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색다른 경력자가 농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던 모양이다. 서비스맨이 워싱턴 문인들과 주미대사관 홍보실에서 시화전을 한 일도 있다는 말을 했던지 그 때 도록이 있으면 한 권 달라고까지 했다.

2006년 봄호 사보에 ‘주씨 농장’ 간판 옆에서 찍은 내 사진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팔방미인(A Man of Many Talents)’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분한 기사와 사진이 실렸고, 시화전 도록에 있는 〈농장에 산다〉는 자작시 한 편이 실려 있었다. 영어 번역은 큰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했던 시였다.

농장에 산다(On the Farm)

농장에는 별들이 가까이 내려온다
황혼에 사슴이 고개 넘어와 놀기도 하고
기침 소리에 졸던 산비둘기 놀라곤 한다
소, 염소, 양, 개들이 놀다가 다투기도 하고
밤이 되면 별을 새며 잠이 든다
그리운 사연들은 아침이슬로 내리고
어느 날 꿈은 열매 맺어 익어간다
이제, 너와 더불어 사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가벼워지는 일이다
흐르는 땀방울을 사랑하는 일이다
물론,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햇빛과 달빛 사이에서 기도할 것이다

기사가 나온 후로 농장을 방문하는 회사원과 트럭 운전자들이 기사를 읽었다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다. 농자금 용자를 신청하는데 나에 대해 물기에 이 기사를 한부 복사해 주었더니 절차가 순조롭기도 했다. 어쨌든 이 기사와 시화전 도록은 이 마을 정착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작용하여 싫지 않았고, 글을 쓰는 사람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느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성장기 사료를 먹는 닭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다. 유지해야 할 온도가 화씨 73도(섭씨 23도)인데 이 온도를 출하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겨울은 연료비가 문제인데, 2년 전부터는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일부 연료비가 회사로부터 지원되어 다행이다. 닭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열대지방에서의 집단사육이 불가능하고 러시아와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 타산이 맞지 않는다. 결국 이런 지역에서는 가정마다 몇 마리씩 기르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매번 새로운 병아리를 받아 기르면서도 똑같은 걱정을 반복하는 것은 성격 탓인가 싶기도 하다. 걱정을 해서 안 되는 일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잘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매번 반복되는 걱정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5주가 지나면 닭을 보내야 한다. 성장이 빠른 경우에는 35일 만에 출하한 경우도 있고 늦게는 40일 만에 출하한 경우도 있다. 닭을 출하기 12시간 전에는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이미 공급된 먹이를 다 먹여 치우도록 해야 하는데 2시간 정도면 먹이통에 남은 먹이를 깨끗이 먹어 치운다. 먹이가 없어지면 먹이 라인을 천장까지 끌어 올린다. 물 공급

은 출하 1시간 전쯤 차단하고 물 공급라인 역시 천장으로 끌어 올린다. 천장으로 내려진 모든 라인을 끌어 올리고 나면 바닥에는 삼만 오천 마리정도 닭이 몇 시간 후의 자기 운명을 예측하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있다. 바닥은 거의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다 큰 닭으로 뻥뻥하다. 한 달 넘게 정들며 키운 닭들을 출하하는 날은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마음이 교차한다.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도살장으로 보내는 마음은 매번 개운치가 않다.

닭 출하 준비가 끝나면 회사에서 주로 남미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15명 내외의 출하 담당 팀이 지게차와 필요한 대형 장비를 앞세우고 농장으로 온다. 실내등을 완전 소등하면 닭들은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출하 팀 요원들은 양손으로 닭을 잡아 이십 마리 정도 들어가는 케이지가 중첩되어 있는 대형 케이지에 닭을 넣는다. 숙달된 요원은 한손에 5마리에서 8마리까지도 잡아 케이지에 집어넣는다. 케이지에 닭이 가득차면 지게차로 이 케이지를 옮겨 대형 트레일러트럭에 적재하여 도살장으로 실어 나른다. 이런 과정이 4시간 정도 진행되고 나면 텅 빈 사육장에서는 암모니아 냄새만 가득하다. 이제 다음 병아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일 년에 6번 출하하니 7년 동안 42번을 출하한 셈이다.

요즈음은 닭 사육 농장이 투자이민 대상이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까지 가서 투자이민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도 듣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이민으로 이 지역에 이민 온 교포는 없다. 이 지역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닭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을 쓰면 소득이 안 맞고 혼자 사육하기에는 벅찰 때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영주권

을 취득하면 농장을 팔고 떠나려는 이민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칠년 전 이 지역에 닭 사육을 위해 이사 온 동양인은 내가 처음이었다. 요즈음 교포들이 관심을 가지는 메릴랜드 지역도 그 때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다. 내가 처음 농장을 구매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여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자 지점장 화이트(White)씨 그리고 부책임자인 데이빗(David)이 동양계로는 버지니아 지점 관할에서 처음인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하고 우려 섞인 표정들을 짓기도 했다. 이들의 우려는 2, 3년이 지나면서 해소되고 걱정대신 가벼운 칭찬을 듣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소개하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탁사육 계약을 허가하겠다는 말까지 하기도 하고 우리 농장에 계사를 하나 더 지어서 사육할 의사는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현재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 망설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닭 농장에 대한 관심이 교포사회에 늘면서 농장을 찾아 상담하는 교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3년 전에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국립병리연구소(NIH)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홍콩계 중국인이 내 소개로 닭 농장을 구입했다. 그 다음 해는 캐나다에서 오신 교포가 나보다 배나 큰 농장을 역시 내 소개와 도움을 바탕으로 농장을 구입하여 지난번에는 일등을 했다고 기뻐하며 식사를 사기도 했다. 작년에는 대사관 근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내는 친구가 나보다 2.5배나 되는 농장을 나의 도움으로 구매하여 경영하고 있다. 이제는 이 지역도 우리들끼리 모일 기회가 되면 양계협회를 만들자는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농장을 구입해서 경영해 보고 싶다는 교포의 농장 방문은 사실 이보다 훨씬 많다. 그들 중에는 마음만 먹고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고는 싶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는 경우, 부부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안타까운 경우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구입할 농장의 위치나 여건이 좋아서 나도 적극 구입을 권유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사육 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닭 사육에 관련된 전문용어들이 많아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데, 화이트가 통역을 중단시키고 직접 이야기하고자 했다. 당황한 교포는 평상시보다도 더 긴장해서 인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겼다. 회사에서는 사육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나의 중재자인 전 사육자와 공동으로 몇 개월을 사육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자는 의견도 농장주인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다른 지역은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이곳에서의 닭 사육은 불편 없는 영어구사 능력이 필수적이다.

시골로 이사한 후에 처음으로 초대받아 가는 파티였다. 아내는 작년만 해도 맞았던 드레스가 작아서 입을 수 없다고 계속 혼잣말을 하며 옷장 앞에 서성댔다. 당신은 무엇을 입어도 예쁘니 걱정 말라고 말해보지만 아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아내는 초청장을 받은 날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집에서 은혼식이 있는 에딘버그 마을회관까지는 20분쯤 가야했다.

한 여름이라 아직 해가 산을 넘으려면 한 시간 반은 족히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도로 주변에 보리수나무가 작지만 빨간 열매를 가지마다 줄줄이 맺어 놓고 의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당당함 모습처럼 곳곳에 서 있었다. 6월부터 피기 시작했던 야생 달맞이꽃도 피고 지고를 반복 하면서 잡초들 위해 우뚝 서 노란 꽃을 드러내고 달을 맛을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나는 달맞이꽃을 볼 때마다 〈달맞이 꽃〉 노랫말에 젖어 든다.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쓸쓸히 미소를 띠는 그 이름 달맞이 꽃 아~ 아~아~ 아~ 서산에 달님도 기울어 새파란 달 빛 아래 고개 숙인 네 모습 애처롭구나.” 가곡 〈가고 파〉와 더불어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불러보는 노래다.

스티브와 신디의 은혼식을 가는데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다시 들었다. 나는 우리 은혼식을 잘못 계산하여 아내에게 두고두고 미안한 일을 저지르고 만 적이 있다. 다시 그 때 일이 기억이 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미안하다는 내 말에 아내는 뭐가 미안하냐고 되물었다.

“우리 은혼식을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건너뛰어 결혼 26주년에 겨우 생색을 냈지 않아, 큰 아들이 그러면 나 속도위반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제 나이도 모른다고 나무랐던 일이 생각나는군.” 아내는 파티에 가는 분위기여서인지 “당신 산수 실력을 믿었던 내 잘못도 있지요”라며 가볍게 받아 넘겨주었다.

들꽃들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대화를 듣는 듯 느껴졌다. 짝을 찾는 새들의 노래 소리가 오늘따라 신선하게 들렸다. 마을회관은 소방서 바로 뒤편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입구에서 스티브 아버지와 어머니 메리 그리고 손녀딸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메리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와 불을 비비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초대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고 농담을 던졌다. 키가 큰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포옹하며 불을 대는 인사를 하기 위해 고개를 많이 숙여야만 했다. 그 모습이 마치 큰 절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 웃음이 났다.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와 있었고 서로가 나누는 말소리로 파티장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님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다. 신디 딸이 맨 앞에 있는 테이블에 가면 엄마, 아빠 결혼사진과 웨딩드레스도 진열해 놓았으니 구경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테이블은 작은 촛불과 장미꽃, 들에서 꺾은 들꽃들로 시골스러운 분위기와 파티분위기를 한층 더 돋워 주고 있었다.

은혼식은 잘 준비되어 있었다. 신디와 스티브의 어릴 때 사진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 후의 모든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앨범도 전시 되어있고,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오층 케이크도 있었다. 벽 한쪽에서는 결혼식 때 찍었던 비디오가 계속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4인조 밴드가 컨트리 음악을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다. 특히 스티브와 신디는 컨트리 음악을 좋아해 네스빌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에 다녀오곤 했다.

스티브 작은 아버지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우리 농장의 닭 배설물을 사가는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해 보았지만 은혼식에 처음 참석해본 인상은 감동적이었다. 스티브 작은 아버지에게 미국에서는 은혼식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가족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처럼 시어머니와 손주들이

같이 준비하여 마을잔치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신디와 스티브가 도착했다는 안내가 있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중앙 통로를 향했다. 신디와 스티브는 가족들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알고 사위될 토니를 따라 나섰다가 이곳으로 안내되었다. 모두들 전기 불을 끄고 촛불만 테이블에서 타오르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출입문이 열리기만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신디와 스티브가 들어오자 모두들 서프라이즈(surprise)라고 함성을 터뜨렸다. 신디와 스티브는 너무 감격스러워 하며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이 웨딩 마취에 맞추어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들어 왔다. 25년 전도 저 두 사람은 저렇게 결혼식장에 입장하며 하객들로부터 지금처럼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사회는 시어머니 메리가 보았다. 먼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특별히 결혼식 주례를 했던 목사님이 멀리 조지아주에 사는데 오늘 참석했다고 소개 했다. 박수가 터졌다. 결혼식에 반주를 했던 반주자가 소개되고 축가를 불렀던 사람도 소개 되었다. 결혼식 때 반주한 반주자가 오늘도 반주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축가는 그 때 축가를 불렀던 분이 다시 축가를 불러줄 것이라고 한다. 중앙에 오층으로 된 커다란 케이크는 결혼식 때 케이크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라고 소개했다. 결혼식 때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던 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딸이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메모와 레스피, 그리고 결혼식 때 찍은 케이크 사진을 보고 그대로 재현했다고 했다. 처음 겪는 감동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소개가 끝나자 찬송가를 부르고 메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기도에 이어 신디가 인사말을 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25년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니 어제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감회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시어머니께 특별히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스티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내가 다 했다고 덜렁 자리에 앉으며 식사를 피는 바람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 메리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었다.

“며느리 신디가 우리 아들 스티브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특히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방황할 때, 아들 곁에서 잘 참아 주고 사랑으로 감싸 준일은 평생 잊지 못 할 것이다. 세월이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25년 후에 금혼식에서도 같이 웃어주기를 바란다.”

분위기가 숙연해 지자 밴드가 음악을 연주했고 스티브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자고 사태를 수습했다.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다시 파티 분위기로 돌아왔다. 화면에는 신디와 스티브가 17년이나 살았던 우리 농장의 옛날 모습들이 반복하여 지나치고 있었다. 음악이 느린 댄스 음악으로 바뀌자 서로서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젊은 부부도 있고, 신디 부부도 보이고, 메리와 남편도 같이 춤을 춘다. 음악이 바뀌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춤을 추기도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사돈끼리, 할아버지와 손녀와….

우연히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 중에 예비역 미 공군 대령 출신이 있었다. 그는 내가 대사관 무관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자 군대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 생활을 한 남자들의 수다 중에 가장 큰 애깃거리는 이곳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뜻밖에도 대통령 전용기(Air

Force 1) 조종사를 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카터와 레이건 대통령을 모셨다고 했다. 또 군대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내가 더 그에 대해 궁금해졌다. 가까이 모셔보니 두 대통령이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다정스런 미소를 지으며 카터 대통령은 도덕선생 같은 인상을 지닌 분으로 도덕정치를 국내외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고, 반면에 레이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일을 맡기고 대통령직을 즐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반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면 정치판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보다 힘겨루기를 하며 자신을 나타내려는 각축장인 듯 느껴졌다. 국가이익이 우선인 국제정치, 그 이름 아래 수많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정당화하는 것이 국제정치나 국내정치가 아닌가 싶었다.

어릴 때 어른들이 땅을 파고 끝까지 가면 미국이 나온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지구 반대편에 살기에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119를 눌러 구조를 요청하는데, 이 사람들은 911을 누른다. 전화번호를 알려면 우리는 114를 눌러야 하는데, 여기서는 411을 눌러야 한다. 애기 난 산모가 찬물로 목욕하면 우리는 큰일 날줄 알지만, 이 사람들은 애기 낳고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한다. 대패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당기며 나무가 잘리게 설계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의 대패나 톱은 밀면서 일을 하게 되어있다. 오라는 손짓도 우리는 손바닥이 땅을 향하지만, 이들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며 신호를 한다. 돈을 셀 때도 우리는 안쪽으로 ‘내 것, 내 것’ 하며 세지만, 미국 사람은 상대방 쪽으로 ‘네 것, 네 것’하며 센다고 농

답 섞인 말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실수로 번역되는 단어 mistake도 미국인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를 잘 드러내는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실수는 우리 손에서 무엇인가 놓치거나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반면, 영어의 뜻은 무엇을 잘못 가지거나 선택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다. 이런 차이점을 느끼다 보면 우리와 미국 사람들과는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문화의 한 단면인 듯하다.

그래도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우리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전통관례인데 비해, 미국은 큰 딸 이웃에 부모님이 사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나 이 곳 역시도 도시에서는 이런 관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시골인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이다. 나이 드신 부모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딸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신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 집은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친정어머니 집은 5분 거리도 안 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미국 문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가신 부모를 모시는 방법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명당이라 말하는 장소는 부모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자녀가 잘되기 위한 장소, 곧 내가 잘되기 위한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마을이나 교회 옆 공동묘지에 부모를 모신다. 하루에도 몇 차례 부모 묘소를 지나쳐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날 때마다 가 볼 수 있는 지척에 돌아가신 부모가 계신 것이다. 멀리서 아버지 산소를 자주 찾을 수 없

는 나로서는 이 점도 부럽게 느껴진다.

문화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미국 문화를 청바지문화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청바지는 입고 활동하기에는 편한데 아무 곳이나 입고 갈수 없는 것이 문제다. 특히 나에게 미국문화는 청바지 같은 것이다. 평상시에는 입고 일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공식적인 장소나 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장소에는 입고 갈 수 없는 옷인 것이다. 신디와 스티브의 은혼식을 지켜보며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느끼면서 파티에 빠져 들다가도 홀로된 이방인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금 분위기에 빠져들지 못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며 눈치를 살폈다. 아내도 먼저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해 주었다. 춤을 추다가 잠시 쉬며 음료수를 마시는 신디에게 갔다. 우리는 일이 있어 먼저 조용히 갈 테니 그리 알라고 했다. 은혼식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금혼식 때도 꼭 다시 초청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자, 살아 있기만 하라고 스티브가 응수했다. 아내는 준비한 작은 선물을 신디에게 전해 주며 인상적인 파티였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아내와 나는 말없이 한참을 상념에 잠겼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같이 하고 있었다. 깜깜한 밤이어서인지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며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은하수들은 서로서로 모여들어 어두움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어두움이 밤을 장악하고 있지만 별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듯 했다. 어두움에서만 그들은 별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불쑥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시집 온

뒤로 뻐꾹새 우는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오.”, “이곳에 이사 와서는 들었어?”, “아니오.”

뻐꾹새 울음소리가 산에서 들려오는 고향이 그리우면서도 뻐꾹새 전설을 모르는 이곳도 싫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닭 스케줄을 알려주는 등 회사와 사육 농가와 연락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내 목소리인 것을 알아차렸는지 대뜸 축하한다는 말부터 했다. 어리둥절하여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듣고 있는 나에게 2008년 1/4분기 최우수 농가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2주 후에 버지니아 지점장인 화이트씨와 서비스맨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 날 사진도 찍어 사보에 게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약속한 날씨는 아내도 출근하지 않고 지점장을 같이 맞이했다. 마침 전 주인 스티브가 자기 덤프트럭을 가지고와 닭 배설물을 작은아버지 농장으로 나르는 날이었다. 서비스맨이 먼저 와 우리와 같이 화이트씨를 기다렸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30분쯤 늦게 도착했다. 그는 스티브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우리 회사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하자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이트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사료 값이 급상승하고 디젤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 장비들로 인해 회사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른 대체 에너지도 많은데 왜 하필 옥수수를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털어 놓기도 했다.

스티브가 자기는 17년 동안 농장을 경영하면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상을 내가 받는다고 축하 반 부러움 반이 섞인 표정과 말투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다. 고마운 친구다. 처음 닭을 받아 기를 때 문제만 생기면 낮이고 밤이고 그를 불러내 도움을 청했었다. 스티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도움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때로는 농장을 팔고 싶으면 자기한테 되팔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친구다.

어느 정도 분위가 잡히자 서비스맨이 상패를 차에서 가지고 왔다. ‘주씨 농장’이라 쓰인 간판 옆에서 조출한 시상식이 거행됐다. 화이트씨로부터 받은 상패를 보았다. 상패 맨 위에는 회사이름이 선명한 로고가 새겨져있다. 그 아래에는 Joo’s Chicken Farm이라 새기고, 그 아래로는 두 줄로 1/4분기 우수농가(Broiler Grower of the 1st Quarter)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줄은 ‘2008’이라 조금 작은 글씨로 새겨져있었다. 아내에게는 화이트씨로부터 상금이 전해졌다. 그동안 같이 수고했는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라도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체 200여 농가 중에 현재 9등으로 상위 5% 안의 우수 농가에 처했다고 격려하며 이대로 열심히 하여 금년 최 우수농가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까지 했다. 애완용 개 ‘나리’까지 합세한 기념 촬영도 했다. 그날 찍은 사진은 사보에 게재되어 그 후 배포되었다. 칠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생활에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군 시절 받았던 표창장 말고는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다.

닭 농장을 하며 지낸 지난 칠 년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나마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다. 하나는 육체적 노동의 성과로 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노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

룬 것은 소나무 통나무집을 짓고 온돌방을 놓은 것이다. 정신적인 노동으로 이룬 것은 월남전 참전군인들 일부가 겪고 있는 고엽제피해 후 유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장편소설 〈우리들의 교향곡〉(리북)을 금년 3월에 한국에서 출판한 일이다.

우리 농장은 삼십여 년 전에 닭 농장으로 개발되었다. 내가 세 번째 주인이다. 처음 농장을 개발하면서 첫 주인이 닭장 주위와 농장 앞 울타리를 연하여 소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다. 삼십 년 생 소나무들이 농장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제법 방풍 효과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줄 밑에 자라는 소나무는 더 이상 위로 자라지 못하게 전기 회사에서 절지를 매년해서 보기가 흉하고 닭장 주위의 소나무는 강한 바람과 폭풍에 넘어지거나 하면 닭장에 피해를 입힐 위험요소가 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혼자 힘으로 1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잘라야 했다. 비틀어진 나무도 있었지만 나무가 곧고 냄새도 좋아 그냥 땀감으로 사용해 버리거나 한쪽에 쌓아두며 썩히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른 소나무를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곧은 소나무를 길게 잘라 그늘에 쌓았다. 처음에는 생나무 상태에서 껍질을 낫과 여러 장비로 벗겨보려 시도했지만 송진도 나오고 깨끗하게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 연락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다각도로 구했지만 의견이 분분했고 비현실적인 제안이 많았다. 할 수 없이 한 십 개월을 방치해 두다가 어느 정도 나무가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도했다. 다행히 껍질이 쉽게 제거되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껍질과 나무 사이에 벌레들이 서식하며 작은 구멍들을 파놓은 것이다. 그래도 보기에 따라

운치 있게 보이기도 했다.

나무는 두꺼운 나무부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양 끝으로 ‘ㄷ’자 모양의 홈을 파 사각으로 쌓았다. 창문 두 개에 출입문 하나를 만들고 지붕을 했다.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 방과 가로 4.5미터 세로 4미터 부엌이 완성된 것이다. 소나무 100여 그루를 잘라 트랙터와 톱을 이용하여 혼자 통나무집을 완성하는 과정을 지켜 본 이웃과 친구들이 혀를 차며 ‘8대 불가사의’에 포함해야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온돌을 놓기 위해서 한국의 친척과 후배들을 동원 한국 전통 온돌구조와 설계도면을 받았다. 호남지방에서의 온돌은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황토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일자로 연결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비해 영남지방의 온돌은 온돌 밑에 돌만을 고여 더운 공기가 아궁이에서 모든 방향으로 통과하여 굴뚝으로 연기를 뿜어내게 되어있는 것이 달랐다. 온돌방에 불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가 바닥보다 좀 낮아야 하고 굴뚝 쪽으로 가면서 바닥과 방바닥 사이가 점점 좁아져 ‘회골’에 이르러서는 15~20센티 간격만 유지시켜야 한다. ‘회골’이란 굴뚝 쪽에 설치해야 하는 깊은 골을 말하는데 이 ‘회골’ 지면은 아궁이 바닥보다 낮게 설치해야 연기가 굴뚝으로 잘 빠져 나간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온돌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다양한 조사 후에 결국 두꺼운 조경용 돌을 사서 온돌을 놓았다. 아궁이도 만들었고, 형이 농장을 방문할 때 한국에서 가지고 온 대형 솥을 걸었다. 손님이 많을 때는 이 아궁이를 이용하여 염소탕을 끓여 손님을 대접하곤 한다. 고생은 되지만 아내의 한국 토속적 요리 솜씨는 자랑할 만하다.

월남전 고엽제피해에 대한 장편소설의 출판은 워싱턴지역 문인들에

게 도전을 주는 일이었다. <알라딘>서점 카페에서 가진 출판기념회 및 사인회를 이 지역교포 신문과 방송에서 상세히 다루어 줬고 이 행사의 수익금 만 불이 시골 교포교회의 교회보수비용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보다도 이 책을 쓰기위해 미국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각종 청문회 자료를 수집하여 작게는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외된 고통을 알리고, 더 크게는 현대전에 사용하는 무기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가 인류 생존에 얼마나 큰 위협요소인지를 경고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 일부를 소개하고 싶다.

주월 미군 사령관은 “나무가 곧 우리의 적이다(Trees are our enemy.)”라고 선언했습니다. 최신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해상과 공중을 완전 장악하고 베트콩을 압박했지만 지상전만은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베트남 정글과 지형을 이용한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형의 유리함이 어떠한 신형 무기보다 베트남전에서는 위력을 떨쳤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지형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수없는 작전회의를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제초제를 정글에 살포하여 나뭇잎을 말라죽게 하고 숲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이옥신이 주성분인 제초제를 작전 지역에 살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공군은 이 작전을 ‘목장의 손(Operation Ranch Hand)’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제초제에 노출된 사람들의 후유증을 염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글을 제거하고 미군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 작전 시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C-123 수송기를 개조해서 1,000 갤론 탱크를 탑재하여 두

명의 병사가 이 탱크 옆에 앉아 제초제를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작전은 마치 미 농장에서 소형 비행기가 제초제를 농장에 살포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기후 조건이 허락되는 한 매일 수송기가 펜텀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150피트의 저공비행을 통해 뿌려졌습니다. 1,000갈론의 제초제가 살포되는 데는 단지 3~4분 동안에 완료되었습니다. 1,000여 평의 정글과 개활지에 3갈론 정도의 제초제가 살포된 것입니다. 살포 작전이 있기 전 미 지상군과 아군에게는 그 지역에서의 작전과 출입을 통제하도록 사전에 통보되었습니다. 특히 제초제가 살포된 후 이를 동안은 절대 살포지역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하달되었습니다. 제초제가 들어 있는 통 색깔 때문에 많은 경우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 살포작전은 일부 육군 헬리콥터 부대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공군 수송기로 살포하기 어려운 국부적인 작전지역의 살포에 헬리콥터 부대가 사용된 것입니다. 제초제가 가장 많이 살포된 시기는 1967년에서 1969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필요에 따라 작전지역에 계속 살포되었습니다.

1978년 봄, 미국 투데이(Today) 쇼에 출연한 스물여덟 살의 월남전 참전용사 바울(Paul Reutershan)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월남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I died in Vietnam, but I didn't even know it.)” 그는 월남전에서 헬리콥터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보급물자 수송의 책임을 지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초제가 구름처럼 뿌려진 창공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14일 아깝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부검한 결과 대장, 간 그리고 여러 장기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암세포가 월남전에 살포된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어 발병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기 몇 달 전에 제초제 살포로 죽거나 피해를 본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실상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지원과 치료를 위해 〈국제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협회(Agent Orange Victims International)〉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초제 피해에 대한 전우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혼신을 다하다 죽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미미한 시작이었고 살아서는 큰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절친했던 친구에 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프랭크(Frank McCarthy)는 자기 친구 바울의 죽음이 제초제로 인한 암이 원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했던 그는 친구가 창립한 기구를 맡아 친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이전트 오렌지를 제조한 도우 화학회사(Dow Chemical Company)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언론에 제초제 피해로 고통 받는 참전 용사들의 실상을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가 잦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78년 10월 11일 미 하원에서 재향군인협회 관계자와 전문가를 불러 참전용사들의 제초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에 질세라 다음해 4월 10일에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고 각종 지원책을 논의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1995년까지 30여 차례 가까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상과 치료가 계속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초제 후

유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병사들의 자녀들에게서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우스 케롤라이나 의과대학 장애자 치료센터에서 월남전 참전용사 자녀들의 장애상태를 연구한 브라이언(Bryan C. Smith) 연구책임자입니다. 오늘 본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 앞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의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월남전에 참전하여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장병들의 자녀가 장애자로 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유전적인 영향이 계속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은 우리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장애자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용사 자녀들이 다양한 출생 장애와 성장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전 용사 중 30%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의 장애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 어린이 중 55%의 아이들은 한 아이 당 아홉 가지 이상의 장애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애 현상은 학습 장애와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36.1% 아이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24.1% 아이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3%가 면역결핍으로, 17.8%가 출생 장애로, 10.9%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출생 장애에 비해 다른 장애는 그래도 낫다고 쉽게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고통을 당하는 환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어린이들은 하루도 그들의 고통에서 자유로 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부모가 직접적인 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지만 전혀 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부모 아래서 장애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주목할 사실 하나는 월남전 참전 전에 출생한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참전 후에 출생한 자녀들은 모두가 출생 장애와 다양한 장애 현상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월남전에서 제초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작전을 실행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참전용사들이 던지는 질문, 곧 제초제에 노출된 장병들의 자녀가 앞으로 계속 유전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참전용사 가족들은 자기들의 베트남전 참전이 후손에게 건강상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간에서는 이들의 장애 현상이 과연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의학적인 증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고 조사된 모든 통계들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건강과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필립(Philip Jones Griffiths)이라고 합니다. 혹시 월남전 제초제 피해 상태가 의심스러운 분이 있으면 호지명 시에 있는 투두(Tu Du)병원의 비밀 장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을 비밀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 무덤은 베트남 병원 곳곳에 있습니다. 단지 투두병원 무덤이 가장 클 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무덤을 방문하고 저는 내가 본 광경을 꼭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의 살포 피해는 군인들이나 참전국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전쟁을 치른 월남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생 장애로 죽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리관에 방부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곧바로 죽기도 했고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어서 증거를 말해 주는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살아서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은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는 사진집으로 출판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피해가 참전 당사자에게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다, 나는 이 사실을 정리된 자료로 알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픽션과 난 픽션(non fiction)을 섞은

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세난도아 지역에 새로 창립된 한인회장이 농장을 방문했다. 지난 칠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 온 여러 일들을 소문을 통하여 그는 익히 알고 방문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이들이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와 교포 2세들의 한국어 교육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인회장이 교재를 한국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확보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기로 했다.

조국이 여러 모습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인 영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10년 전만 해도 교포 청소년들을 한국문화에 관심이 없었다고 느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미국 팝 음악보다 국내 가수들의 노래를 더 듣는 것을 쉽게 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살기 보다는 자기들 역사 속에서 재해석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한국문화가 이곳에서도 재해석되어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시기가 된 듯하다. 교포 사회도 많이 안정을 찾아 지금은 정착과 성장의 시기이며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의 수가 이민 1세대의 숫자에 육박해 가는 과도기적 시기인 것 같다.

미주한국일보는 창간 39주년을 기념하여 교포들의 의식구조를 설문한 내용을 최근에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포들은 이민 생활에 대부분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성공(32.0%)”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28.0%)”이 근소한 차로 뒤를 이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과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교포사회

의 가치관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건강(20.7%)”이었고 “인간관계(11.3%)”를 가치로 여기는 교포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치관은 우리 교포들만의 가치관이라기보다 한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디서가 아닌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리라.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가작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 | 강효삼 | 중국

민들레 인생 | 박룡일 | 중국

영원한 이방인 | 박순평 | 독일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 박춘섭 | 중국

호주 이민의 삶 | 양상수 | 호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

- 어느 한 조선족 농촌 삶의 외로운 정착

가작 | 강효삼

머리글

조선족이 모국을 떠나 중국의 광활한 대륙 동북 땅에 정착한지도 어언간 한 세기를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전례 없던 세기의 변화 속에 조선족들의 주요 삶의 정착지였던 농촌은 격변기의 진통 속에서 부대끼고 있는데 이 속에는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으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운도 있고 불행도 있다.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느 한 현장을 찾아서 그 진솔함을 알리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부르짖음과 빛깔 좋은 맹세는 없어도 민족의 얼과 녀를 일상의 삶에 접목하여 거친 세월의 비바람에도 빛바래지 않게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녀과 얼을 꿈틀거리며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행구어 내어 하얀 빨래처럼 소중이 간직하고 사는 평범하나 평범하

지 않는 어느 한 삶의 현장을 내 나름 조명하고 싶어 못한 필을 들었다.

‘조선족 촌’ 그 이름을 다시 찾기까지

빈 수선 철길과 어깨 나란히 흰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큰 길을 쫓아 산들도 줄줄이 물결쳐 간 북쪽 어느 한 산비탈에 오붓이 자리 잡고 들어앉아 있는 한 자그마한 마을을 보게 된다. 마을의 세면은 모두가 병풍을 친 듯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 트인 곳에 넓은 벌이 펼쳐져 있는데 벌을 끼고 한 줄기 강물이 유유히 서쪽으로 흘러간다. 산이 있고 벌이 있고 강이 있는 이 마을이 바로 60여 년 개척과 정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 ‘달과 별 동네’이다.

이 마을은 일찍 20세기 40년대 초, 발 빠르게 이곳에 와 자리를 정한 한 조선족 이민자에 의해 개척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은 불과 몇 세대 밖에 되지 않았으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30여 세대의 동네로 커졌고 그 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많은 이민자들에 의해 오늘의 마을 기틀이 잡혀지고 범위가 커져 지금은 백여 가구의 우리 동포가 오붓이 이마 맞대고 사는, 북방치고는 꽤나 살기 좋은 동네로 불리고 있는 조선족마을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은 산 좋고 물 좋고 벌 좋은 이곳을 어찌 알고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 좋은 터전을 우리겨레의 이름으로 가지게 되었는지? 그 개척자의 선견지명에 감탄된다.

그러나 원시의 벌을 개간하여 논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그들은 원시도구인 삼과 쇠스랑 따위로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그 우악진 버들뿌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대신 그 곳에 이네들 삶의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그 세월은 논물에 들어서 일을 해도 물장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시대이다. 그러니 이른 봄 찬물에 맨발바람으로 들어서야 하는 벼농사일은 그 얼마나 두렵고 고되었을까? 한족들이 이 너른 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조건이 좋은 곳만 골라서도 논농사를 짓지 못하고 구태여 소출이 낮은 조나 옥수수를 심어먹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찬물에 들어서 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북방의 봄은 봄이라 하지만 남방과는 다르기에 봄이 되여도 아직 논물이 빠가 저런데 절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벼농사 일하기에 빠 에이는 찬물에 무작정 뛰어들어 보뚝을 막고 맨발바람으로 씨를 넣는다. 그러다 정 발이 시리면 한참씩 나와 동동거리며 오리발처럼 빨갛게 언 발을 녹였다가 다시 들어선다. 그래도 남성들은 술이라도 한 모금하여 몸을 덥히지만 여인들은? 그래서 우리 민족여인들은 한족 여인들에 비해 풍습, 관절염과 기타 냉병이 더 심한 것이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아득바득 일하는 줄을 모르고 어떤 한족들은 ‘꼬리들은 고춧가루를 잘 먹어서 죽히 캥똥(추위를 이긴다는 뜻)을 잘 한다’ 고 했다 한다.

이렇게 원주민인 한족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간고한 벼농사로 그 네들에게도 이밥을 맛보게 한데서 그들은 이 별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고 점차 이들의 가치와 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족들의 언어와 습관을 배우며 한 이웃에서 그네들과 공존 할 수 있는 기초를 닦

게 되었던 것이다.

산과 물 그리고 벌이 다 갖추어 진 터전이기에 산비탈엔 오봇이 집터를 정하고 앞벌을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해 때고 산나물도 캐며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그야말로 <이밥 먹고 장작 패고 고기 먹고 사는 어미지향(魚米地響)>으로 이 마을을 키울 수 있었다 하여 농사가 위주이던 세월에는 린근 사람들로부터 아주 각광받는 고장이어서 오히려 벌방의 처녀들이 이곳으로 시집오지 못해 안달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가 잘 되고 산골 인심이 좋은데다 촌민들의 문화생활을 관심하여 춘지도부에서는 마을의 경제사정이 조금 여유로워지자 공공건물 중에도 문화실부터 먼저 앉혔으니 온 나라가 가난의 때를 아직 벗지 못한 70년대에 마을에 커다란 벽돌집구락부가 있다는 것은 웬만한 조선족마을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영화며 예술종목을 더 감상 할 수 있었다. 어느 한 해는 현 문화관의 지도를 받으며 이 마을에서 전문 예술단을 무어 현의 무대에 나가서도 인기를 끈 적도 있었는데 이 모두가 경제가 따라가고 인심이 좋은 데서 얻어진 성과다. 그래서 같은 민족은 물론<달과 별 조선족 동네>(月星)라면 인근 한족들도 다 알고 매우 부러워하는 마을이었다.

허나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해도 세상의 변화를 피해서 세외도원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열려진 세상에 사는 중국 조선족마을들의 상황인가보다. 90년대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국바람은 이 오봇하던 산골마을에도 회오리바람을 몰아왔다. 친척을 찾아서 혹은 로무로 연수로 게다가 누군가는 밀입국까지 서두르게 되니 온 마을치고

한국에 식솔들이 가 있지 않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을을 떠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고국으로 가는 것은 물론 고국에서 돌아왔지만 시골에서 더는 살지 않고 청도, 위해, 대련 등 연해도시로 이사 간 사람들과 정 먼 곳으로 갈수 없는 사람은 현성에라도 자리를 옮겨 누구의 말처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고향마을을 떠나고 보니 마을에 빈집들이 여기저기 가득 널려있게 되었는가 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별판 또한 한적해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종당에 자기 선택에 쫓아 자기인생을 살기 마련이다. 아무리 산골마을이 가난하고 호젓하다하여 버리고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오이를 거꾸로 먹어도 제 맛이라고 남들이야 어찌하든 자기인생 자기 나름대로 오히려 남들이 버리는 곳일수록 더 이곳을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마을의 소문 없는 과수군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그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가운데하나다. 오랫동안 이 산골 마을에서 교육 사업을 하였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를 “김 선생!”, “김 선생!”하고 부른다.

기실 그에게도 도시로 나가 살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서 누구의 말처럼 하냥 ‘머저리’ 같이 시골에만 붙박혀 있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녹을 타먹는 노교원으로서 한때 작으나 시골학교 교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서의 얼마든지 도시에 나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기어이 편벽한 마을을 뜨지 않고 일상을 부담 없이 즐겁고 여유 있게 사는 이유는 향토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 때문이다. 하여 그는 남들이야 어찌하든 자신은 이 마

을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살 각오이다. 하여 소문 없이 산골에 묻혀 사는 그의 형상은 마치 그의 집 앞 마당에 뿌리를 내린 한 그루 늙은 느티나무나 다를 바 없다고 할까.

그만큼 그는 이 산골을 사랑하고 이 고장에 집념한다. 그렇다고 여기는 그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고 더구나 사람마다 추억이 깊다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곳도 아니다. 그는 60년대 고증을 나와 타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교육사업의 수요로 이 고장을 선택한 사람이다. 하고 많은 곳 중에 산골인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모친께서 이곳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상품양을 잡수시며 늘 먹을 걱정에 시달려온 그의 모친께서 어느 한번 또래들을 따라 이곳에 산나물을 캐러 왔다가 보고 <참 좋은 동네>라고 하며 이런 곳에 와서 살았으면 하기에 부모의 선택에 쫓아 조건이 좋다는 곳들을 마다하고 산골학교 교원으로 전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살아보고는 여기가 좋아 떠날 수 없는 여기가 다름 아닌 그의 <제2의 고향>으로 된 것이다.

그때부터 장장 30여 년을 줄곧 이 산골에 묻혀 이곳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사업하고 생활하다보니 이제 그는 산골사람들을 닮아 소박하고 부지런한 것은 말할 것 없고 그에게서는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풋풋한 나물 냄새며 땀 냄새가 폭 베인 삶의 모습이 어디라없이 풍기는 <촌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의 일이자 자기 일이 되어버린 그는 교육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정년퇴직한 후에도 마을 일에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서 ‘제2의 사업이랄까?’, ‘제 2의 인생이랄까?’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때 대대적인 출국바람으로 촌에 회계하나 담당할 젊은이가 없어

안타까워할 때 촌 회계를 맡기도 하였는데 촌 회계를 맡아 하는 기간 그는 교원의 깨끗한 양심으로 촌의 경제를 차질 없이 관리하였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촌의 재무를 관리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한 가지 일을 지내보아서 안다.

몇 해 전이었다. 이곳의 경관이 좋은데다 그가 촌의 회계로 있다 하여 나는 이곳에 와서 비교적 범위가 큰 문학창작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전 성 여러 곳에서 모여온 문학 애호가들이었다. 모임에 쓰는 경비는 물론 주최자인 내가 담당하였다.

모임이 끝날 무렵이었다. 그와 나는 초중 동창생인데다 다 같이 문학친구여서 나는 그더러 “당신이 촌의 회계이면 촌의 어른이자 살림꾼과 같으니 촌의 돈을 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내 면목을 보아서라도 모임이 끝나는 날 촌의 이름으로 식사 한때를 대접했으면 한다.”는 의향을 내 비치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촌의 경제가 넉넉하지 못한 사정도 있겠지만 회계라하여 권리를 톡 대고 촌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자기 이름을 내는데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찌다 찾아온 동창의 의사마저 거역하는 그를 보고 너무 찜찜하고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머지 그를 고깝게 보았던 것이다. 기실 회계면 촌의 경제를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으니 촌에 온 손님들에게 촌을 대표하여 식사 한 끼 대접했다하여 설사 각박한 곳이라 해도 (더구나 동창생) 어느 누가 잘못됐다고 결코 들 사람은 없는 것이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의 끈고 바른 원칙성은 이 일에서만 아니었

다. 한번은 촌의 장부에 만원 돈이 비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상급인 촌장이 도용한 것이었다. 촌장은 회계인 그더러 차이가 나는 이 돈을 장부를 고쳐 말썽이 없게 지워버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위낙 회계는 촌장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이 돈은 용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대바른 그는 촌에서 규정한 재정원칙을 위반할 수 없었다. 상급인 촌장이 아무리 요구해도 촌민들이 애써 번 돈을 직권을 남용하여 점하려는 촌장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능하게 촌장은 이 돈을 상급지도자들을 초대하는데 쓴 모양인지 상급지도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려 여러 차례 그에게 귀띔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그가 견결히 동의하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촌장은 촌의 경제 관리규칙에 쫓아 자신이 도용하여 쓴 만원 돈을 내여 장부를 맞추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그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신망을 높여주어 후에 회계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후 마을에서 촌장을 맡을 적당한 사람이 없어 할 때 그를 촌장 직에 올리려고 물망에 올린 적이 있다. 누군가는 직접 그를 찾아와 이번 기회에 나서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책임을 지기보다 마을의 장래를 생각하여 장원한 견지에서 젊은 간부를 양성해야 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대신 젊은 사람을 올려 세웠다.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이다.

촌 책임자가 결정되는 날 모임에서 그는 명확히 태도표시를 하였다. “내가 뒤에서 능력껏 받들어 줄 테니 마음 놓고 대담하게 해보십시오.” 말하면 한테로 실천하는 그는 비록 나라의 록을 타먹는 교원이지만 농

민과 한 덩어리가 되어 지금까지 촌장 아닌 ‘촌장’으로 촌 지도부를 성심껏 받들고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다.

지금 허다한 중국 조선족 농촌마을들은 전에 생계의 주업이던 농사를 짓지 않고 촌민들이 마을을 떠나 출국했거나 연해도시로 진출하면서 마을에 사람들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보편적인 상황으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항상 마음속 깊이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조선족 촌의 운명이다.(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차 이 땅에서 조선족 마을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인간이 없음으로 하여 우리 마을도 죽히 조선족마을로 계속 존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민족의 존재에 연관된 일이라면, 마을을 살리고 잘 되게 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이를 자신의 응당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간직하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다.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아마도 첫 손꼽을 ‘공’은 ‘조선족’이란 마을의 이름을 되찾은 사실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다. 조선족 촌이 번연히 존재하는데도 촌민들 누구도 모르게 마을이름 앞에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조선족’라는 이름 석 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어느 날 촌의 회계가 향에 회의를 갔는데 현에서 나와 각 촌 회계들을 점검하는 책임자가 그더러 <당신은 어느 촌의 회계인가?> 묻기에 어느 촌의 회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이 촌은 없어졌는데 왜 왔는가?> 하며 돌아가라고 하기에 쫓겨 나다시피 마을에 돌아와 촌 간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부터 간부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도자기들 촌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분명 조선족들이 사는 ‘조선족’ 마을인데도 ‘조선족’이라는 이 석자

이름을 촌민도 모르게 지워버린 ‘엥터리 같은’ 조치를 세상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가장 좋고 훌륭하다’는 나라의 한 하급조직이 엄숙한 나라의 정책마저 뜯어고치고 저희 멋대로 결정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촌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소식을 들은 촌민들은 그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촌부에 모여들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를 촌간부들에게 따지고 물었다. 하지만 일촌의 지장이라는 사람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사업에 등한했다고 할까? 아니면 등잔 밑이 어두웠다 할까? 너무나 엄청난 현실 앞에서 한동안 자기들 민족의 이름조차 사라진 것도 모르고 살았던 촌민들은 새삼스레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각자 생각들은 달랐다.

촌 이름이 없어진 것은 볼 보듯 뻔한 현실인데도 ‘그럴 수 있을까?’며 아직도 그냥 회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상급에서 결정한 일이니 아무리 떠들고 일어나도 소용없다며 할 수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사람들로…. 보아하니 생각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안이한 것은 아직 촌민들이 장차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장 말단 조직인 ‘촌’이란 이름 앞에 ‘조선족’이라는 세 글자가 사라진 것에 있게 될 그 가슴 아픈 후과에 대하여 미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김 선생은 이런 때 나서서 순박한 이들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여보시오,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제라도 우리가 나서 찾지 않고 고분고분 말 듣는다면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질 줄 아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이 조선족 촌이 아닐 때 마을

주인은 누가 되는 것 입니까?”

비록 이 마을 태생은 아니지만 마을의 연장자들을 통해 그는 누구보다 이 마을의 역사를 잘 안다. 이 마을은 분명 조선족이 개척하고 건설하고 조선족끼리만 모여 사는 순수한 조선족마을인데도 세월의 폭풍에 말려 선후 두 번이나 ‘조선족 촌’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 버렸던 아픈 역사가 있다. 처음은 아마 개척 초기였을 것이다. 행정구역을 억지로 한족 촌에 귀속시키면서 한족 촌의 관할 하에 이름마저도 그 한족 촌으로 대체하였다. 후에 민족자치가 실행되면서 ‘조선족 독립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중기 극 ‘좌’ 적인 농업정책이 집행되어 촌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여 한 개의 향(鄉)을 한 개의 농업집단으로 확대하면서 또 조선족 촌의 이름이 사라졌으나 상급으로부터 시대착오를 시정하면서 이 마을은 다시 조선족 촌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조선족 촌’ 보기에 아주 간단한 이름 같지만 이 이름이 가지는 함량과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름을 잃고 살아본 사람들은 잘 안다. 있을 때의 행운과 없을 때의 불행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조선족 독립촌’이 아님으로써 촌을 운영해나가는 자주권이 조선족 촌민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 역사의 교훈은 이제라도 나서서 우리 촌의 이름은 우리가 찾아야만 마을에 희망이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누가 나서는가?’ 하는데는 또 의견이 같지 않았다. 이 일은 무엇보다 절실한 촌의 일인 만큼 촌의 주요 간부가 나서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한 쥐들의 토론처럼’ 정작 나서야 할 촌의 간부가 자주 얼굴을 보는

직접 상급과 맞서기가 주저되는지 아니면 잘못 나섰다가 후환이 자신에게 돌아 올가봐 걱정되는지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나서는가? 촌민들의 눈길은 자연 김 선생에게 쏠렸다. 하긴 마을에서 누구누구 해야 이 일을 나서 해결할 사람은 김 선생 밖에 없다는 것을 촌민들은 정녕 알고 있었기에 모든 기대와 희망을 김 선생에게 두는 수밖에 없었다.

김 선생은 자신이 맡은 책임이 무거움을 느꼈다.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개척하여 어떻게 불러온 이름인데 이렇게 흥분분하게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그저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촌간부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내가 나설 테니 당신들은 방해는 하지 말고 뒤에서 지지만 해달라!”

하여 촌에서는 그를 선두로 ‘조선족 촌’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나서 줄 3명의 대표를 선출했다.

그날 밤 그는 밤도와 촌의 이름이 잃어진 사실을 상급에 신소하는 재료를 썼고 이튿날 날이 밝는 즉시 이 재료를 가지고 현성으로 쫓아갔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한어에 능숙한 한 동창생을 찾아 그것을 한어로 번역하려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으로 곁에서 거들어주며 번역이 원만히 되자 그는 그것을 다시 타자하여 여러 벌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대표들에게 주어 우선 상급의 해당 부문에 갖다 주게 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직접 민족 사업을 관장하는 현 민족 종교 사무국의 책임자를 찾아가서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사실을 책임자

에게 반영하였다.

헌데 민족 사업을 주관하는 민족종교사무국의 책임자조차 금시조문 이이여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펼쩍 뚫다. 그는 이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자신의 사업 수첩을 펼쳐 보였는데 거기엔 의연히 이 마을이 조선족 촌으로 그의 사업 범위 내에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나라의 위탁을 받고 민족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민족 사무국도 모르게 조선족 촌이 없어졌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민족 사무국은 나라의 지령을 받고 전문민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다. 하기에 민족에 관한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민족 사무국이 먼저 알고 그들을 통해야 한다. 헌데 정부의 권력기구의 하나인 민족 사무국도 모르게 민족정책에 관련되는 중대사가 처리되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엄중한 일인가!

책임자는 이 일을 해당 부서를 통해 이해한 후 촌에 알리겠다고 하여 김 선생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두 대표를 찾아 재료를 현의 다른 관계부문에 갖다 주었는가를 확인한 뒤돌아오는 길에는 또 촌의 직 접 상급인 향정부에 들려 퇴근시간이 다 되었기에 재료를 비서에게 주면서 이 재료를 꼭 제일 책임자에게 시급히 전해 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마을로 돌아왔다. 재료를 읽어보면 촌민들의 의사를 알 수 있기에 구태여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첫 행보를 마치고 마을에 도착하기 바쁘게 촌장이 그를 찾아왔다. 향의 제일 책임자에게 긴급히 전화가 왔는데 이 재료를 누가 가져왔는가? 고 묻기에 고지식한 그가 누가 갔었다고 하자 향장은 그 자리에서 명령조로 “김 선생이 함부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 무슨 죄인이라고 날 외출까지도 못하게 하는가?”

향의 제일 책임자는 촌에서 이런 일을 추동하고 또 이런 일에 발 벗고 나설 사람은 김 선생 밖에 없다고 인정했기에 아예 시초부터 그를 다잡아 꼭 붙들어 놓기만 하면 다른 촌민들은 떠들다 말 것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잘못 추측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찌 알았을까? 상급의 말이라면 팔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고분고분 잘 듣던 촌민들이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에 절실히 관계되는 일에서만은 쉽사리 상급의 말을 듣지 않는 다는 것을….

이는 어느 한 두 사람 촌민의 개인적 이익에 관계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민족 구성원들인 전 촌의 이익과 운명에 달린 문제고 더 엄격히 말한다면 나라에서 제정하고 집행하는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익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들이 주로 상급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다시금 의견을 지출하는 의거는 바로 촌민들의 동의도 없이 ‘조선족 촌’이라는 촌의 이름을 지운 것은 나라에서 제정한 당의 민족정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제정한 구체 법규에 의하면 무릇 소수민족의 촌은 비록 범위가 작아 작은 촌을 큰 촌에 합친다 해도 민족이 다른 촌과 합칠 때는 반드시 촌민의 백분의 백이 다 동의해야지 단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아래에서 이런 일을 하급에서 제멋대로 소홀히 처리할까봐 문건에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음) 엄격한 기준이 명백히 적혀있어 촌민들도 이 기준을 다 알고 있기에 촌의 합병문제가 제기됐을 때 근본 이 일은 삼척동자도 동의하지 않기에 아예

토론에도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촌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향의 제일 책임자는 ‘백분의 백으로 동의했다.’로 사실을 고쳐 이를 상급에 보고하였고 상급에서는 그의 보고만 믿고 이렇게 소홀하게 결정을 내려 촌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다. 하기에 엄격히 말하면 나라에서 제정한 우량한 민족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잃어진 촌의 이름은 꼭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초조하게 답복을 기다렸지만 답복을 주마고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도 현 민족 사무국에서 답복이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민족 사무국을 찾아갔다. 그 날 제일 책임자는 없고 대신 다른 한 민족 간부를 만났는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직접 촌의 이름을 관할하는 민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일을 반영하게 하였다. 민정에서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한족 촌과 합치는 것을 백분의 백으로 동의해 놓고 오늘에 와서 부동의 하는가?’ 하며 소란을 피운다고 이들을 무조직, 무규률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합치는 것을 근본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백분의 백의 동의는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을 까밝히면서 다시 조사하여 촌민들의 요구사항대로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다시 조사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여 그들은 마을에 돌아와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흙소가 강을 건넌 듯’ 답복은 없고 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묘연했다. 그는 다시 몇몇 민족간부들을 찾아가 이 일을 반영하면서 민족의 일이니 민족간부들이 직접 나서 도와 줄 것

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모두들 동정은 하면서도 직접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간부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꿩구어 먹은 소식이고 어떤 간부는 이 일에 나서기를 꺼리어 회피하는 눈치다. 하긴 나라의 록을 타먹는 그네들로써 ‘민족, 민족’ 하다가 상급에 잘못 보일까봐. 두려워 여느 사람과 달리 소수민족 간부로써는 남다른 고충이 있는 것이다.

1957년 나라에서 진행한 정풍 운동 때 민족을 애호하거나 민족의 운명을 관심하여 상급에 정당한 의견을 제기했다가 많은 조선족간부들이 ‘우파’로 몰려 몇십 년 동안 인간 지옥에서 고생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김 선생은 자신도 국가간부이기에 그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민족간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그래도 민족심있는 간부가 있어 조선족 촌의 이름이 없어진 일을 매우 동정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향의 제일 책임자가 이제 곧 타지로 전근되어 가게 될 것인데 중국의 적지 않은 일은 그 일을 처리한 책임자가 전근되어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선임 영도가 한 일을 웬만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풍이 있기에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며 그 책임자가 가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바짝 시간을 다그치라는 것이었다.

그 민족간부의 말에서 계시를 받은 그는 해결 방법을 달리 모색하였다. 단지 간부들의 힘만으로는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데 공연히 시간을 늦추었다가 그 민족간부의 말대로 향의 제1책임자가 불시에 전근이라도 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은 더욱 미궁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구실을 달며 책임

지지 않는 일부 간부들은 밤 낮 ‘연구해보자.’며 일은 해결해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나중에 백성자신이 힘들어서 요구를 철회하게 만든다. 이번 일도 자칫 그렇게 끝 날수 있다.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면 민족 언론 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는 다시 재료를 가지고 조선족 언론지인 신문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이 신문의 오랜 독자인 그는 신문을 통해 언젠가 지방정부에서 소수민족이 부딪친 난제를 질질 끌며 타당하게 처리해주지 않아 기층에서 해결하려고 뛰다 못해 할 수 없어 신문사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신문사가 나서 질질 끌던 난제를 대번에 원만히 해결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났다.

조선족으로 말할 때 조선문 언론지는 가물의 비와 다름없다.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이들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이를 정부에 반영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민족사업중매꾼’ 역할을 지금껏 담당하여 조선족 대중들 속에 위망이 높다. 한편 권력기구는 아니고 그저 언론을 일으키는 언론기관에 지나지 않지만 그 권위와 위력이 권력기구에 못지않아 조선족들은 흔히 신문사를 ‘제 2정부’라고까지 부른다. 그러럼 신문사는 나라의 법과 정책에 의지하여 민족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진력을 다하는 것이다.

신문사에서는 특별히 이 사실에 중시를 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기사를 인차 보내어왔다.

신문사의 기자가 해당부문을 찾았을 때였다. 기자가 일부러 차까지 몰고 와 급히 찾아온 이유를 말하는데도 해당 일꾼은 곧 점심시간이

되어서 접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한다. 이에 기자들이 ‘그렇다면 좋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성민정청의 위탁을 받고 왔는데 당신들이 접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가겠다.’ 하자 그는 오늘은 주말이니 오후에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이 일을 토론한 후 꼭 월요일 오후까지는 답복을 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서야 그 자리를 떴다.

다짐을 받은 기자들은 다시 점심도 먹지 않고 곧바로 향정부를 거쳐 촌으로 와서 한 번 더 문제의 정확성을 이해하였다. 중대 사안이니 만큼 해결에 차질이 없자면 그 무엇보다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사실에 조금도 허위과장이 없었다. 기실 김 선생이 신문사에 써 올린 자료는 존재하는 현실에 비해 그다지 엄중하지 않다. 현실은 이보다 더욱 엄중한 것이다.

사실을 이해하고 기자가 돌아간 후 향에서 한 영도 간부가 촌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 촌민들은 별 때 같이 모여서 향에서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서투른 한어로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주먹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보아하니 상급의 말을 아주 고분고분 잘 듣는 마을 사람들이지만 ‘조선족 마을’ 이름을 회복하는 일에서만은 한 치의 양보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간부는 촌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그대로 향에 가지고 가 보고했다.

이튿날 향의 제일 책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촌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고는 싶으나 이미 결정에 의해 지도까지 고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보아하니 촌민들더러 양보하라는 뜻이다. 마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그말을 듣고 중도에서 그만 둘 것을 제의하면서 김 선생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고 물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대답했다. 국가에서 제정한 정식지도도 아니고 향에서 임시 그린 지도가 무엇이 대단한데 농민들이 그것을 고려하는가? 그래 그것이 당의 민족정책을 관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는 해결해주지 않으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으니 절대 중도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소모한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 고이 마을은 영원히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잃게 된다.

만일 향이나 현에서 질질 끌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보다 높은 상급에 갈 준비도 해야 한다!

지도까지 고쳤다 해도 촌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향에서는 이번에는 촌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작은 촌을 큰 촌에 합치면 간부도 줄어들고 촌민들이 촌에 내는 경비도 절약할 것이 아니냐? 했다. 이에 맞서 한 촌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보수를 받지 않고라도 촌민을 위해 일하겠으니 조선족 촌의 이름을 하루 빨리 돌려 주십시오!’

강물은 골을 쫓아 흐르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촌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민족 언론지의 적극적인 도움과 더우기 소수민족의 자치 권리를 존중하고 보증해주는 나라의 정책과 법규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족 촌’이란 민족의 이름을 되찾는 일은 끝내 성공하여 이름을 잃어버린 지 1년 3개월 만에 마을 촌민들은 상급으로부터의 촌의 이름을 원래의 ‘조선족 촌’으로 회복시킨다는 정식통지를 받아 쥐게 되었다.(당시 이 사실은 신문의 제 1면 톱기사로 실려 이 신문을 보는 겨레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편달이 되었다.)

하다면 왜 상급에서는 한 개 향에 많지도 않고 딱 하나뿐인 조선족

촌에 대하여 돌보지는 못할망정 없애려고 촌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적인 조치로 조선족 촌을 한족 촌에 합병시켰을까? 김 선생은 생각하였다.(이것은 단순한 사업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우리 스스로가 깊이 사고해볼 문제가 있다.)

나라의 밥을 먹고 사는 그들이 ‘마을 촌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타민족과 합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 합쳐서는 안 된다’는 나라의 정책 규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조선족들이 지금 마을을 떠나가는 추세로 보아 멀지 않아 이 마을엔 조선족들이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 일찍 예측한 것은 아닌가.

한편 조선족 촌에 지금 남아있는 촌민들이 많지 않고 지금도 련속부절히 외지로 나감으로 멀지 않아 사람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한 촌을 운영하기가 험치 않는데다 참새는 작아도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처럼 작은 촌에 있어야할 부서는 다루어야 함으로 간부를 줄여 촌민의 부담을 덜려는 쪽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건, ‘조선족 촌’이 아닐 때 한족들과 한 촌이 될 때 부근 한족들이 마음대로 이 촌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것이 주되는 원인이고 목적이다. 주위 한족들로 말하면 이 마을은 항상 그네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노다지와 같은 존재다!

이 마을은 산과 물이 겹한데다 토질이 좋고 수원을 가까이 끼고 있어 농사짓기도 좋거니와 주위가 온통 산이어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마을이 조출하고 안전하며 경관이 좋아 참으로 주위 여러 마을치고도 가장 욕심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는 자기들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족 촌민들의 동의가 없을 때 타민족이

함부로 조선족동네에 들어와 집을 사거나 토지를 경영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지었다. 이것이 규정 아닌 ‘규정’으로 지켜 왔고 마을의 자주권과 생활권을 존중하여 한족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데 이제 민족의 구분 없이 다 같이 한 촌으로 합쳐지면 그들이 자유로이 마음 놓고 들어와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장차 이 마을은 조선족보다 한족들이 더 많아짐으로 하여 말이 조선족 촌이지 실은 한족 촌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민족자치도 한낱 무용지물로 되고 마는데 지금껏 김 선생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가장 근심하고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서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에 그토록 모자람을 쓴 것이다.

그렇다면 이네들뿐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은 왜 중국이라는 대국에 창해일속(滄海一粟)처럼 섞여 살면서도 자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면 자기민족의 이름을 가지려 하는가? 왜 이 땅을 사랑하여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어찌해 또 조선족들끼리 따로 살고 싶어 하는가?

아마도 소수민족이 이래야만이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타민족 속에 포위되어 살면서도 작은 터전이나마 우리끼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그 속에서 같은 언어, 같은 글과 같은 민족의 풍습을 누려야만 민족이 민족다워 지는가 싶다.

‘조선족 촌’ 중국에서 흔히 듣는 이름이지만 익숙한 이 이름에 기대여 이 이름을 받들며 이 이름을 긍지와 자호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한 족속으로 살아왔다. 다민족국가의 한 성원으로 있으면서도 꼭

조선족으로 살고 싶은 그들에게 이 이름은 민족 존재의 표현이요 생명력의 과시인 것이다 이는 또한 장기간 올바른 민족정책교육을 받아 자주성과 책임감이 몸에 배인 결과라고 해야겠다. 나라의 이런 정책의 지지와 담보가 없었다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구태여 자기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살려는 이런 욕구도 배짱도 담력도 없었을지 모른다. 모든 조선족들이 그러하듯이 이 마을사람들도 이 작은 터전에서나마 구애 없이 자기들의 글과 말과 풍습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도 제 민족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아, 민족이여 누구는 지금껏 조선족들이 시아가 좁은 것은 오랜 세월 스스로 자신의 작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갇히어 살면서 대민족속에 섞이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방어 때문이라고 하면서 열린 세상이니만큼 울타리를 터치고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 말에 도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역사를 고찰해볼 때 바로 이런 자각적인 ‘봉쇄’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만일 창해일숙(滄海一粟)이나 다름없는 우리민족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우리끼리’를 고집하지 않고서 누가 제각기 흩어져 살았다면 지금까지 인간으로서는 살아남을지 모르나 민족으로서는 남아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든 나라에서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여 소수민족집거지의 상대적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이유도 바로 숫자가 많지 않은 소수 민족이 대민족 속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편리를 주고 보호를 하기 위한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기에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준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갖고 살면서 자기의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켰고 전통과 풍습을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타당한 실례인지는 모르나 한 번은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한 한족이 들어와 잠시 사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폭죽을 요란하게 태워 마을을 시끄럽게 할 때 조선족들은 그것이 한족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풍속습관으로 알고 말치 않았는데 조선족들이 자기 마을에서 누구의 생일을 쇠게 되어 밤 깊도록 춤추고 놀자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면서 일부러 찾아와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다.

이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다. 때문에 이런 경험으로부터도 같은 민족끼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한가를 체험으로부터 알고 있는 그네들이다. 아직 서로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박약하기에 다문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는 아직도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터전에서 자기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야 그 민족으로 될 수 있음이 절실하다. 촌민들은 비록 땅 파먹는 보통의 농사꾼들이지만 누구보다도 같지 않는 문화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대민족 속에 살면서도 ‘조선족, 조선족’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 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 될’ 위험도 있다. 여기엔 촌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촌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두에 나선 김 선생의 로고가 크다. 그는 잃어진 촌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밤도와 재료를 쓰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서 쉴 새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현성을 앞·뒷집 쫓아다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현에서 꽤나 높다하는 한 민족 간부를 꼭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그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일부러

그가 회의를 끝마치고 나올 때까지 오래 길에서 지켜 서 있다가 기여 만나보고야 말았다고 한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 아들 같은 젊은 간부를 만나보겠다고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린 것은 그 무엇 때문일까? 민족이 무엇이길래? 촌민들이 합심하여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을 때였다. 한족들 속에서 ‘꼬리뽕즈들이 대단하다’고 했다한다. 웬만하면 상급에서 결정하면 결정한대로 복종하고 말 것 인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찾겠다고 촌민이 한 사람처럼 나서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여 기여이 성공한 것을 보면 담략과 패기가 있는 민족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긴 이 마을은 역대로 상급의 말을 아주 잘 들어왔다. 솔선적으로 나라에 양식을 많이 바치고 산아제한, 위생, 문화 등등 마을문명건설도 잘하며 주위의 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함부로 남벌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수사 적은 민족이라는 데서 항상 정직하고 온순하여 상급의 지시를 적극 받들어 공헌은 많이 하면서도 불미한 대우나 억울함에 대해서는 애써 참으며 너그럽게 살아왔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상급 영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해하고 양해하여왔다.

헌데 촌의 이름을 찾는 일에는 이렇게 끈질기고 이약하게 나서서 끝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질 줄이야! 민족이 무엇이기예? 민족은 생명의 뿌리이고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인가.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해도 결코 이 한가지만은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이네들에게서 ‘민족’이란 이름은 귀중한 것임을 소수민족으로 살아보지 않는 대민족은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담략과 패기를 가지고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들을 영도하는 상급에 맞서서(중국에서는 보기도드) 승리한 것은 우선 나라

의 민족정책의 보람인 것이다. 만일 소수민족의 자치 권리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담보해주는 나라의 좋은 정책과 법이 없다면 아무리 되찾자고 해도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라에서 특별히 제정해준 민족자치법이 없다면 근본 ‘조선족 촌’이라는 것이 정녕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기에 더더욱 지키고 빛내야만 할 이름이다,

탓줄은 묻지 않았어도 뼈는 묻고싶어

조선족 촌의 이름을 다시 찾은 후였다.

한 차례의 힘겨운 줄 당기기에서 ‘승리’한 이들은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평소에 그저 습관처럼 ‘조선족 촌’, ‘조선족 촌’ 하지만 그 이름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부르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와서 개척하고 몇십 년 우리가 건설한 마을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똑똑히 과시하는 것은 비단 과거에 책임지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촌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려는 촌민들의 의지의 집념, 역량의 표현으로써 이제 다시 찾은 이 이름은 촌민들로 하여금 조선족 촌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고 자각적으로 이를 이행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실 공히 조선족 촌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주권과 권익을 지

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민족 속에 둘러싸여 있는 한 작은 마을로써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엔 마을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드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바로 마을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우리 이름으로 된 우리의 마을을 우리 스스로가 굳건히 지키며 가꾸려는 그 의지와 행동에서 표현된다. 이에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다.(우리에게는 어떤 부족점이 있기 때문일까?)

왜 상급에서 이 향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수 민족촌인데도 이렇게 없애지 못해서 역사의 고비 때 마다 그 이름을 지우려하는가? 단 한 촌뿐인 소수민족 촌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얽잡아 보여서일까? 설사 상급의 일부 간부들에게 소수 민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그네들의 사업에서도 찾아야 하지만 우선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찾아야하지 않을까?

지금 조선족들이 대량으로 마을을 떠나 국외 나가거나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대신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현상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 설사 버리지는 않는다 해도 전처럼 부지런히 고향의 삶에 열중하지 않는다. 농촌에 남아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한족들이 부지런히 일할 때 빈들빈들 노는 것은 이제 조선족 농민들의 보편적인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살지 않아 텅텅 비어있는 집들은 보기에도 공상스러운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얼마 되지 않고 그 중에도 젊은 사람들을 거의 보기 힘들니 생기가 넘치던 당당한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조선족 촌은 김빠진 공처럼 생기와 활력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조선족 마을에 와 보면 첫인상부터가 쓸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을 관심하는 많은 지성인들 속에 조선족 농촌의 ‘해체론’과 ‘위기론’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적지 않은 한족들이 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얼마가지 않아 조선족 마을은 하나하나 해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족들은 멀지 않아 조선족들의 삶의 터전이 그 옛날처럼 자기들 손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을 떠나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만이라도 일심협력하여 조선족 촌을 조선족 촌답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각오나 결심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조선족 촌민들의 정신상태가 아닌가싶다. 자나 깨나 출국하여 돈 벌이만 생각하면서(잘 살고자 하는 일이니 그것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꿈이 옥수수 따듯 얻을 때는 어렵게 얻어놓고 버릴 때는 너무 쉽게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촌의 이름을 잃었던 교훈을 상급이나 상관에만 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 마을을 우리 마을답게 가꾸고 지키어 ‘나쁜 일을 도리어 좋은 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조선족 촌’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은 후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촌민공약을 내왔다. 한 마을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도록 고무하기 위해 토지를 임대할 때 무조건 본 마을사람에게 임대해준다. 그러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헌신하는 의미로 임대료는 타지의 한족에게 주는 것 보다 낮게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농사를 많이 짓기를 원하는 촌민에게 토지를 집중해서 임대하여 우리 마을에도 농사짓는 ‘경영지주’가 나오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토지가 외지의 한족들손에 들어가지 않아 우리 땅 우리가 가꾸고 지키는 것이 된다.

‘공약’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토지를 한 마을사람에게 임대하여줌으로써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늘어나는 이득도 많아 몇 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총 농호의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사짓는 호가 다른 곳 보다 훨씬 많았다. 예를 들어 이웃 ‘동방’이라는 촌 같은 데는 전 촌 300세대 중에 유감스럽게도 농사를 짓는 조선족 농호가 단 두호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이곳은 100가구 중에 아직 20여 가구가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중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 호가 바로 우리의 김선생 가족인데 이는 그 자신이 마을을 살리는 방도를 촌민위원회에 제기하여 ‘민약(民約)’을 내오고 또 자신이 앞장서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여야만 잘 산다고 인정하고 죽으나 사나 출국꿈을 꾸면서 자신들의 의무나 다름없는 농사를 포기하여 토지가 남아도는 마을의 형세를 감안한 그는 늦각이로 한 번 ‘지주’가 돼 볼 꿈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진출하는’ 세기적 변화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제 장차 농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진출하는 새로운 추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토지를 버리지 않고 우리 농촌 우리가 살리려면 마을의 토지를 맡아 몇 사람이 혹은 조건이 허락한다면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경영인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여러 신문과 잡지의 정보를 보고 그가 사고하고 깨달은 ‘마을 지키기’ 모책이다. 그것을 실천해보려고 첫 밭자국을 뚫은 것이다. 하여 마을사람들의 토지를 많이 임대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해까지 그가 경작한 토지는 무려 17헥타르나 되었다. 이 집 저 집 사방 널려있는 토지를 맡다보니 그가 맡은 자투리 같은 땅 뚫기가 무려 20여 곳이

남아 되었다. 이렇게 토지가 사방으로 분산되어 다루기가 매우 불편했지만 촌의 공약을 앞장서 실천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지주’가 되어 마을을 살려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의 열악함을 탓하지 않고 아들과 아내와 함께 농사일에 근신하였다.

워낙 그는 출신이 교원인데다 어릴 때 교실에서 불발탄으로 인정된 작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터지면서 손가락 몇 개가 떨어져 나갔기에 농사일하기가 매우 불편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젊은이들도 하지 않고 노는 농사일을 만년에 맡아 부지런히 하면서 철따라 계절따라 농사일에 바쁘다보니 언제 한번 시원히 놀러 다닐 새도 없었다. 어쩌다 동창생들이 현성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를 불러도 농사가 한창 바쁠 때면 갈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이 마을의 농사돈은 그가 다 번다는 소문도 돌았다. 하긴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맡아 지은 농사 수입이 쌀값이 높을 때는 한국에 가서 빼 빠지게 버는 돈만 못지않아 웃음집이 흔들거릴 때도 있었다.

그가 농사에서 수입을 올리는 비결은 부지런한 것도 있겠지만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늦깎이’ 농사꾼이지만 열심히 농업기술을 장악하기위해 신문잡지를 열심히 뒤지다가 누가 새로운 영농기술을 창안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불사하고 찾아가 경험을 배워왔다.

한번은 연수 동명의 최모모란 농민이 부식토를 쓰지 않고 농촌에서 흔하게 버리는 벼 껍질로 벳모를 키워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 기술을 알아왔다.

이렇게 근신하게 노력한 결과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셈으로 한국에

가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수입을 올린 그는 농사일을 더더욱 확대하여 허락되면 장차 온 마을의 토지를 다 임대하여 농장을 꾸리고 ‘농장주’가 되어 볼 타산으로 농사에서 번 돈을 대량으로 투자하여 모내는 기계며 수확기 등 확대 재생산에 쓸 값비싼 농기구부터 마련하였다. 마을의 조선족들이 점차 일하지 않는 족속이 되어 바쁜 농사철마다 노동력을 한족들 속에서 구해야 하는 데는 그들도 점점 췌가 나서 해마다 모내기 가을걷이 등 관건적인 농사일에 달라는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노동력을 적게 쓰는 기계화 작업을 시도한 것이었다. 모두 다 출국하여 뭇치돈만을 노리는 세월에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농사일로 치부하고 마을을 살린다는 것도 쉽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퇴색하기 마련이다. 마을을 지키고 꾸는 일도 마찬가지다. ‘마을을 살리는 일이 내 알바 무어랴?’ 고 강 건너 볼 보듯 하는 일부 사람들께서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촌민 ‘공약’을 어기는 것이었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한족 농사꾼들이 조선족들의 토지자원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족은 대량 출국으로 토지는 남아돌고 사람은 줄어드는 대신 한족들은 사람은 많고 토지자원은 부족하여 늦게나마 잘살아보려고 부지런히 설치는 그네들에게 조선족 촌의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그들이 남 앞서 치부할 수 있는 좋은 도경이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조선족들의 토지를 맡아 농사지으려 하였다. 이에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대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하여 촌의 장원한 이익을 무시하고 촌민위원회 몰래 한족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다. 문에 이런 ‘이단’ 적인 처

사는 때로 촌에 화근을 불러와 농사를 많이 맡아 마을을 살려보려던 김 선생은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

지난해 여름이었다.

어느 하루 논물을 보러 나갔던 그는 조선족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짓는 한 한족이 물도랑을 마구 파서 물을 대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다. 장원하게 타산하고 농사일을 하는 마을사람들과 한 해 한 해 ‘임시 먹기는 곳감이 좋다’는 식으로 와서 그때그때 일 하는 타지의 농군과 다르기에 이렇게 도랑을 마구 파제끼면 마을 농사에는 큰 지장이 되는 것이다. 헌데 누가 알았을까! 그 한족은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그의 먹살을 잡고 한 매 후려치지 않는가!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한 일인데다 힘깨나 쓰는 젊은 놈이라 노인인 그는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헌데 무례한 그는 자기 부친 같은 그를 몇십 미터나 끌고 가면서 욕을 보이었다. 하지만 억대우 같은 놈이라 힘을 당할 수 없어 그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 한족이 김 선생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한 것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모든 것이 어쩔 그가 조선족 촌의 이름을 찾으려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도 관련되지 않을까. 그 한족 젊은이가 사는 마을은 조선족 촌과 강 하나 사이 두고 남쪽에 있는 데 옆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 그 소문을 모를 리 없다. 비록 촌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김 선생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들도 조선족 마을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김 선생을 때린 그 한족젊은이가 속해 있는 촌은 지난 번 향에서 억지로 조선족 촌을 그 촌에 귀속시키려던 한족 마을의 촌민이다. 그러니 그도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이다. 김 선

생이 적극적으로 나서 촌민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자기들과의 합촌이 무산 되었다는 것을.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앞뒤 마을이 한 촌이 되어 그네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마음대로 살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원인도 있겠고 더욱이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선생만은 그네들이 조선족 촌구역인 산에 와서 나무 한 대를 허가 없이 찍었다거나 다른 일로 조선족 촌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척하고 말치 않는데 김 선생만은 기어코 넘기지 않고 나서서 말하기 때 문일 수도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하루 그가 불 날이 웬 한족이 와서 마을 앞을 에도는 강역의 모래를 파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는가? 도시에서 집을 짓는데 모래를 실어다 파는 사람이었다. 현대 허가도 없이 이 마을구역 강의 모래를 파서 가득 모아 놓으니 홍수에 강물이 제때에 빠지지 못하게 되면 강역의 토지가 심히 유실되는 데 강역에는 이 마을의 논밭이 줄지어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더욱이는 강위에 놓여있는 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리의 기둥들을 받치고 있는 강심의 모래를 파내니 수심은 깊어지는 대신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지반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다리가 충격을 받아 전에 없이 여기저기 금이 가서 힘들게 자금을 마련하여 놓은 다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외계로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거니와 이 마을 뒤 산에 살고 있는 몇몇 한족 농호들이 다니는데 없어서는 안 되

는 다리이다. 20여 년 전엔 다리가 놓여있지 않아 여름철엔 강을 배로 건너다니어 외계 세상으로 왕래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 다리를 놓는 일을 마을의 첫째가는 대사로 간주하고 촌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도 모자라는 금액은 상급관계부문을 쫓아다니며 마을의 전임 책임자였던 김 촌장께서 술한 고생을 해서야 완성 할 수 있었던 다리이다. 이 다리를 놓느라고 노심초사를 해서인지 이 다리를 놓고 전임 촌장은 병으로 아깝게 사망하였던 것이다. 그 한족이 와서 강 바닥을 멋대로 파는 것을 어찌 김 선생 혼자만 보았겠나만 모두가 팔짱을 끼고 남의 일인 듯 모르는 척 할 때 그만은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기에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강바닥 모래를 파가도 되느냐? 환경관리부문의 허가를 얻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서 제지시키려 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가 틀리는지는 모르나 우리 조선족은 월경민족으로 이 땅에 와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 공이 있는 민족으로 땀땀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묻혀 살면서도 아직 마음 깊이에 ‘주인 된 용기’가 부족한 것 같다. 문화와 풍습이 같지 않는 민족이 이웃해서 살다보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민족 간에 모순과 갈등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모순과 갈등에 봉착했을 때 흔히 나약한 조선족들은 정부나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자신이 땀땀이 나서서 자신들에게 차려진 권익을 수호하는 데는 용기와 담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극히 개별적이지만 일부 한족들 가운데 조선족을 우습게보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중화 인민공화국의 떳떳한 국민이 아닌가! 난제에 부딪혔을 때 나라에서 제정한 법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왜 상기하지 않는지? 그렇다하여 민족 간에 문제가 있을 적마다 날카롭게 맞서 싸워야 비로소 민족성이 강하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사람들은 타민족과의 원칙적인 문제에서조차 대담히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면 서도 같은 민족끼리의 모순이나 갈등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옴니암니 따지고 다투며 곧잘 물고 뜯는 것이 허점이 아닌가 싶어 하는 말이다.

다행히 김 선생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나약성이 없어 보면 보는 대로 민족의 이익에 손실을 주는 행위라면 주저 없이 나서니 밋상을 받을 수밖에 이렇게 모든 일에 민족을 최우선한다고 하여 그를 험애한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흑백을 가리는 그의 좌우명’ 이어서 같은 마을 사람이라 해도 그는 촌민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앞서 말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조용하던 마을 뒤 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왁자하니 떠들면서 흰 눈이 한 벌 덮인 산에서 벌목을 해적이고 있었다. 촌의 핵심인물이기에 그는 촌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을 다 안다. 헌데 나무를 찍어 팔기로 촌민들이 토론한 적이 없는데 누가 함부로 담 크게 이렇게 촌의 나무를 남벌하는 것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급히 찾아가 “어찌된 영문인가?” 사연을 따지고 보니 촌의 부직을 맡은 한 책임자가 전체 촌민들의 동의도 없이 마을의 이 중대사를 혼자 결정하여 한 나무장사군

에게 촌민들이 몇십 년 고이 키운 나무를 녹거리로 팔았던 것이다.

10여 년 키워 38cm나 자란 낙엽송 한 그루에 10원도 걸리지 않게 뚝 값으로 팔았는데 기실 정확히 따지자면 이 낙엽송 한대에 400원이 넘는 값이다. 김 선생은 당장에서 채벌을 정지시키고 이 일을 촌민들 속에 알렸다. 그리하여 촌민들이 한결같은 반대에 의해 겨우 300여 대를 찍고 나서 더 이상 찍지 못했다. 만일 그날 김 선생이 이를 발견하고 촌민에 알려 이 일을 제지시키지 않았던들 이 마을 촌민들이 몇십 년 고이 키운 낙엽송 4만 여 그루가 다 잘려 나가 온통 수목으로 뒤덮여 푸르싱싱하던 마을 동쪽 산은 영락없이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쯤 쓰고나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촌민들의 신임을 이용하여 촌장도 쫓혀 놓고 촌의 일을 좌지우지하며 독단하는 것은 아니냐고. 그가 촌을 위해 자각적으로 일을 많이 찾아 한다하여 그를 올리고 촌 책임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촌장 아닌 ‘촌장’이다. 워낙 전임 촌의 책임자가 물러난 후 마을에서 책임자로 그를 선거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을의 장래를 생각하여 자기보다 나이 젊은 사람에게 촌의 책임을 양보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악대반주마냥 무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은 받들어 주고 그러다 잘못 비껴가는 일은 꼬집기도 하고…. 그렇다고 촌의 영도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촌의 크고 작은 대사에 참여하여 건의를 제기하여 방법을 모색케 하는 ‘참모’ 일 뿐이다.

더욱이 그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촌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하고 있는 즐거운 봉사이기에 그

가 촌의 일에 자주 빠치지만 밭상을 받지 않고 내심 존경을 받는 이유가 사적인 욕심이 적고 대공무사하며 말에 도리가 있고 일 처리가 공정하기 때문이다. 술도 마실 줄 모르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놀음도 놀 줄 모르는 유순한 선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농사일과 촌의 일 내 놓고 남아도는 시간에는 부지런히 독서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그의 집에 가면 해마다 구독해 보는 신문 잡지가 방바닥에 수두룩 널려있는데 웬만해서는 깔끔하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쩌면 수더분하고 솔직한 그의 개성을 말해 주는 듯싶다.

행동은 가장 좋은 모범이다. 사랑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병어리장갑을 끼고 벌벌 떨며 자기 돈을 써가며 촌의 일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감동 앞에서야 누가 그르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애매하게 한족에게 매를 맞았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봉변을 당했다! 이 악성사건이 생긴 후 그가 해보니 이 한족 젊은이가 때려놓은 조선족이 이 마을에 한 둘이 아니었다. 그는 지어 한 조선족 노인의 집에까지 가서 온 집 식솔을 때려죽인다고 공공연히 위협까지 하였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조선족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일반 개인적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소수민족에 대한 기시인 것이다. 더구나 그 젊은이가 김 선생을 때리면서 ‘꼬리뽕즈’이니 ‘일본 놈의 앞잡이였다’ 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용어를 썼다는 것은 더욱 그에게 조선족을 기시하는 민족적 편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음 용한 사람들은 그 보다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매를 맞고도 울분을 속으로 새기며 참고만 있었던 것이다.

정의는 용기를 낳는다. 단순히 자신이 매를 맞았다는 분노에 앞서

소수 민족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업신여기는 무례한 자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 조선족 마을사람들이 마음 놓고 산다고 생각한 김 선생은 이 사건을 덮어두지 않고 사회치안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알리었다. 하지만 사회 치안을 관장하는 파출소에서는 그 한족 젊은이가 평소에 정신병이 있어 그렇다고 두둔하여 사람을 때렸는데도 가만 놓아두는 것이었다. 정의에 견결한 그는 참을 수 없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직접 향의 제 1책임자를 찾아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강경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실을 안 향의 제일 책임자는 대노하여 즉석에서 파출소 소장에게 명령하여 그 한족 젊은이를 체포하게 하였다.

후에 그 젊은이는 김 선생의 치료비를 내게 되었고 벌금도 내게 되었으며 구류소에서 단단히 교양을 받아 매우 노실해 졌다. 하여 한족 들조차 김 선생이 과연 ‘세기는 세다고 했다’ 한다. 알고 보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고 그는 같은 우리 민족도 불사하여 한족 마을에서도 자주 사람을 때려눕히는 말썽을 일으켜 골칫거리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선생도 종당엔 인간이다. 희로애락이 구전한 인간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마을의 일을 관심하다가 때까지 맞는 억울함을 당하자 자존심이 몹시 상한 나머지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을 뜨려고 하였다. 하여 모내기를 다하여 이제 절반농사는 지은 것과 다름없는 논을 중도에서 처리하였으며 장원하게 농사지으려고 마련했던 수확기며 모내는 기계며를 모두 팔아치웠다.

헌데 그가 마을을 떠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 왔다. 오랜 세월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오며 그와 더불어 촌의 여러가지 일들

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근심해오는 지기나 다름없는 한 노인은 김 선생의 손을 꼭 움켜쥐고 ‘선생까지 떠나면 이 마을은 어찌되는가? 당신이 남아서 모르는 것은 일깨워주고 가르쳐줘서 이 마을이 그냥 조 선족 마을이 되도록 해야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는 날까지 약한 힘이나마 우리 다같이 손잡고 이 마을을 지켜보자’ 며 그를 만류했다.

마을의 장래를 근심하는 진정어린 노인의 권고를 들으니 차마 이사를 가겠다고 빠질 수가 없어 깊이 생각해보겠노라고 하고 노인을 돌려 보낸 뒤 김 선생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마을을 떠날 것인가? 떠나 지 말 것인가?’ 갈림길에서 오래도록 사색을 굴렀다. 정작 이사를 가자 니 어쩐지 무엇인가 아쉽고 알찌근했던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녕 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면 인간은 버리겠다고 할 때 오히려 더욱 귀중함을 알 때가 있다. 바로 그에게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한 이 시각이 그러한 것이었다. 오랜 세월 때 묻히며 살아온 고장이기 때문일까. 그는 이 마을에서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며 청춘을 보냈고 이 마을에서 30여 년간 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했고 인간과 인정을 배웠다. 이 마을의 산에 어머니를 모셨으며 이 마을에서 아들 딸 셋을 낳아 키웠다. 이 산골의 공기로 피부를 적셨고 이 산골의 흙으로 배를 불렸으며 이 산골의 인정미로 생활의 훈향을 익혔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말없이 준 고마운 산천, 허물없는 사람들을 떠나가 살기엔 애착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 고향은 아니지만 30여 년을 고향처럼 사랑하며 살던 곳이다. 인생에 30년이 몇 번이나 되는가?!

때로 인간에게는 포기가 아름다울 적이 있다. 바로 이런 때를 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용감히 자신을 포기하였다. 체면이나 어떤 명분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던 자신을 억제하고 다시 이 고장에 마음의 뿌리를 내렸다. 비록 이곳에 텃줄은 묻지 않았어도 뼈는 묻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가 몸 붙이고 30여 년을 살아 온 이 마을은 일찍 40년대 개척이 되었다. 워낙 이 자리를 왜인들이 바라보고 집단 마을은 건설하려 하다가 실패한 후 조선인 오 아무개란 사람이 와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주민들을 모아왔는데 30여 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남아 있는 마을의 옛 사진에 의하면 마을에 세워진 30여 채의 가옥들이 모두 통일 규격으로 지은 듯 가뻗하다고 한다.

그때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리적 환경도 좋거니와 조선족들의 신근한 노동으로 이 마을은 인근 조선족 마을가운데서도 비교적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모두가 공인하는 곳으로 되었다. 특히 벌이 넓은 북방에 조선족들은 입쌀만 욕심 내어 벌판만 보고 산을 보지 않아 이 마을처럼 이렇게 주위에 온통 산을 끼고 넓은 벌에서 조선족들끼리 오붓하게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자연 경관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한 곳도 많지 않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은 물론 멀리 하얼빈 같은 대도시에서도 가끔 산골자연의 냄새를 맡기 위하여 때 묻지 않은 자연의 경치를 흠상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곳을 찾는 조선족 나들이가 많은가 하면 이곳의 공기가 좋아 하얼빈 같은 대도시에서 일부러 이곳에 이사 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 마을에 도시의 조선족들이 해마다 집단적으

로 이곳에 와서 묵으면서 자연을 즐기는 데는 모두가 그의 연줄을 통해 찾아오는 귀객들이다. 그들은 그의 집이 좁으면 다른 집들을 빌려 밤을 지새우면서 그의 집 넓은 텃밭에 심은 배추며 상추며 옥수수며 파 등 무공해 채소를 직접 밭에서 따내어 뜰에 명석을 펴고 먹어보거나 하면 우정산에 올라 철을 맞춰 산나물을 채집하는 생태체험을 하는데 이 마을 산에는 고사리, 고비, 더덕, 취나물, 두릅, 물미나리 등 천연산채와 오미자, 오갈피, 머루, 다래, 추자, 송화가루, 오두 등 수십 가지의 산열매와 야생약초가 주렁져 있고 몇 해 전엔 노루며 오소리, 산토끼, 꿩, 물오리, 매, 부엉이 등 산짐승들이 자유롭게 서식했다. 그리고 강에는 붕어, 잉어는 물론 이 근년에는 보기도 많은데 촌민들이 농사짓는 논물에까지 찾아 든다. 가마에 쌀을 안쳐 놓고 밥이 익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산에 잠깐 올라가서도 한 끼 먹을 산나물을 넉넉하게 뜯어 온다는 마을이다. 집집마다 고사리, 고비로 누구든지 이 마을에 왔다가는 사람들에게 무공해 산나물을 특산으로 선물하는 곳이다.

이곳의 물은 미량 원소 함유량이 월등하여 천연 광천수로 평을 받았다. 하여 도시의 복잡한 삶에 찌들었던 그들은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철 맞춰 각종 산나물과 산열매를 채집하며 이름도모를 산새들의 명랑한 지저귀 소리를 감명 깊게 들으며 여기서 산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면서 목가적인 삶을 향수해본다.

흰한 뜰에 명석을 펴놓고 웃고 떠들며 산간의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시며 시골내가 폭 나는 곡식들을 먹는 재미를 어찌 도시의 비좁은 식탁에서 먹는 것과 비가랴! 더구나 지금은 무공해를 선호하고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향수를 소위 웰빙적인 삶

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런 삶에서만 그친다면 그저 놀이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나들이 마을로 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골마을을 찾아 여행이나 산놀이를 자주 오는 데서 마을 건설의 좋은 계시를 받은 그는 이 마을을 북방에서 이름난 관광지나 자연체험 마을로 만들 수 없겠는가를 고심하면서 소문도 없이 경영인이나 투자자를 찾기 위해 자기 돈을 팔며 얼마나 많은 곳을 가보고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지 모른다.

산골에 살아도 열린 사고로 산골을 세상에 널리 알려 세상을 이 산골에 모셔오기 위하여 그것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임을 명심한 그는 어느 한 해는 자신이 돈을 팔며 이곳 산골마을에서 몇 백리나 멀리 떨어진 장춘에 가서 그곳에서 진행하는 ‘제 9회 조선족 발전 심포지엄 및 제 1회 중한 녹색경제 기술합작교류회의’에 한 보통 촌민의 명의로 참가하여 그 장소에서 ‘돈 벌고 재미나게 오래 살려면 우리 마을로 오시라! 큰돈을 벌어보고 싶은 분은 우리 마을로 오십시오!’ 하면서 투자와 유치를 호소하였다.

누군가 앞으로의 21세기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세기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제고 이런 경치 좋은 산골이 각광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보금자리가 우리 겨레의 손에 있지 않고 남의 것이 되어있다면? 얼마나 아쉽고 또 아까우랴? 그래서 더 이 좋은 환경을 마을의 이름으로 경영하고 겨레의 것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목마른 호소를 해 보는 것이다. 그 후에 있는 ‘촌민들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독단적인 권력행위로 주위의 산들을 어느

한 한족의 손에 팔아넘긴' 불행한 일만 없었던들 그의 노력으로 지금은 누구인가 이 마을에 와서 투자하여 수수한 산골마을이 아름다운 관광 지나 자연생태마을로 탈바꿈 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또 산이 많고 경작지 밭이 많은 이 마을의 특점을 살려 친 환경적인 곡식들을 대량 재배하여 촌민들이 경제적으로 한 몫 보게 하고 자 한국분들이 중국에 와서 실험적으로 꾸리는 농장에 가서 호박이며 고추며 콩 종자 등 우량종자를 가져다 마을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출국에만 열을 올리며 성심으로 가꾸는 사람이 없어 대면적에 낙착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볼 뿐이었으나 어떻게 하든 촌을 살리고 촌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은 물론 인맥 관계를 총동원하여 모지름 쓰는 그의 성심은 눈물겨운 것이다.

그는 안다. 지금도 누구인가는 자꾸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떠나지 않지만 앞으로 누구인가는 또 마을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떠남이 있으면 돌아옴도 있게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포기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 그네들 삶의 보금자리를 잘 보존해놓으면 언젠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 올 터전이 있다.

알 수 없는 세상의 변화, 지금은 돈이 있다고 마을을 떠나 도시에 가서 편안한 삶을 향수하지만 누가 알랴! 있는 밑천 다 붙어먹고 빈 털털이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지. 그때 가서 그네들이 후회하며 돌아온다하여도 몸 붙이고 살 터전이 없다면? 그래서 더 지금은 버리고 비우고 갔다 해도 그것을 버린 것으로 생각지 말고 미래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보존했다 그네들에게 다시 돌려줄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것이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의무 아닌 의무이고 책임일 것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그러면 그네들이 오늘은 하찮다고 버리고 간 집과 땅이 다시금 그네들 삶을 감싸주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싸늘하게 식은 집에 불을 지피고 주인이 없어 뜰에 가득 자란 잡초를 뽑아내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또다시 조건이 성숙했을 때 열려진 세상으로 다시금 재출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 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농촌을 깡그리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맨 처음 이 땅에 와서 밭 딛고 산 곳이 어디인가? 바로 지금의 이 삶의 터전인 농촌이 아니었던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농촌을 아껴야 한다.

지금 중국의 조선족들이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발 빠르게 들어서면서 몇십 년 살아온 농촌이 흔들리고 있다. ‘임시먹기는 곳 값이 달다’는 격으로 출국으로 인하여 차려지는 눈앞의 단축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터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면서 마치 ‘기름병 떨구고 깨알을 줍듯이’ 어렵게 얻은 것을 쉽게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 농촌은 보편적으로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다.

허나 곳마다 그 지방에서 사업하는 간부의 소질에 의하여 마을의 사정이 달라진다. 어떤 곳에서는 간부들이 코앞의 이익만 보고 삶의 원천적인 재부인 땅이며 산을 녹거리로 한족들에게 팔아넘긴다. 이를테면 그 값이 몇백 만원 어치가 되는 촌민들의 재산인 임목지를 불과 몇십 만원에 팔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가하면 마을에 남아있는 공지마저 팔아 촌민들이 집수리를 하자고 흠 한차를 파 쓰자 해도 팔

곳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지어 어떤 곳에서는 산이란 산은 죄다 팔아치워 촌민들이 몇십 년 자기네 산으로 알고 모신 조상의 무덤마저도 옮겨야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토지를 비롯한 마을의 일체자원은 인간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삶의 토대이고 원천이다. 우리는 역사발전 전에 쫓아 발전한 산업사회에 들어선다 하여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척하고 건설한 이 삶의 터전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들여 마련한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기에 우리의 것이자 전민족적 재부로 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이 마을이 걸어갈 길은 중국 조선족 농촌마을과 같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 각일각 무섭게 성장하는 대민족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않는 한 한족들은 언제인가 이곳에 와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조선족 마을이란 이름은 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상들이 몇십 년 피땀으로 건설한 것이 하루아침에 타민족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면 민족의 지반이 사라지고 지반이 사라지면 따라서 민족도 사라지고 만다. 정책이 좋은 이 나라에서 어찌 민족이 스스로 사라지게 한단 말인가?

비록 한족들이 잘살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면서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의 지반을 애써 차지하려고 하나 강제로 빼앗거나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 무슨 기시를 받는다거나 압박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이 자신의 재부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엔 공허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결의보다는 실천이 수요된다. ‘김 선생’이란 한 작은 농촌의 지성인지만 작은 것을 크게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민족의 농촌에서 시급하다. 그는 이 땅에서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운명을

관심하는 그 많은 지성인 중의 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우리 농촌이 보존된다. 허지만 이런 정신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향토와 삶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의 산 향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곧바로 민족의 사랑에 집결된다. 세상에 사랑처럼 뜨겁고 절실한 것은 없다. 하기에 마을에 얼마 남지 않는 겨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조선족 마을답게 가꾸고 지킬 것인가? 늘 사고하며 조용한 실천으로 소리 없는 뜨거움으로 드높은 책임감으로 마을 주민들의 참모역할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곳은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나 기차를 타자해도 몇리 길을 걸어야 나가야 된다. 편벽한 산골이라고 점점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 때로 자신또래 사람들을 불러 트럼프 놀자 해도 사람이 모자라서 놀지 못한다는 곳이다.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한 낮이 되어도 산간에 자리 잡은 마을은 그림처럼 조용한데 들리는 건 새소리, 바람소리, 수목들이 설레는 소리 뿐, 밤이면 별들만 깜빡깜빡 쥐죽은 듯 조용한 마을을 내려다보는 너무 잠잠한 마을이어서 때로는 그 누가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 한적한 마을을 놀래우기라도 했으면 싶게 인간이 그림고 인간의 소리가 그리 위지는 곳이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인간을 찾아서 왁자지껄 떠드는 도시를 목적하고 떠나는데 어찌면 남들 다 서쪽으로 향할 때 그만은 동쪽을 향하는 듯,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일부러 외롭고 고독한 삶을 붙잡고 사는 그는 무언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진부한 인물은 아닌가! 그의 마음엔 ‘농촌’ 만 짝 차있는 것 같다. 사랑이라면 사

랑이고 집념이라면 집념이다.

지금 그는 또 마을의 백년대계인 산을 찾기 위해 간고한 ‘대결’에 나섰다. 잃었던 민족의 이름을 되찾아 분발된 마음으로 고향을 지키려는 촌민들의 열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촌민도 모르게 촌의 이름을 지워 버리듯 상급정부에서는 또 촌민들을 통과하지 않고 마을의 소유지인 산을 외지의 한 한족에게 녹거리로 팔아 몇십 년 동안 보존되어 온 그 네들의 소유가 하루아침에 소실된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한다. 그 때문에 경관이 좋은 이 마을을 농촌 관광지나 조선족민속촌이 아니면 자연 생태마을로 만들어보려는 촌민들의 꿈과 이 꿈을 실천하기위해 애면글면한 그의 로고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가 사는 마을은 국도 옆에 자릴 잡은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산골의 작은 조선족 촌이다. 많은 외지 투자상들이 눈독을 들여 찾아드는 고장이기도 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세세대대로 산에 의거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초요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제한된 농경지만으로는 될 수 없기에 산 자원을 합리하게 개발하면서도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전도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2003년 3월 1일 상급 정부에서는 촌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마을 2만 4천 6백 여무의 산을 성이 왕가라는 한족에게 도급 줄 때 이 마을 행정구역의 1만 8천 3백 5십 무를 포함시켜 끝없는 후환을 남긴 것이다. 그는 이 마을 산을 소유하게 되자 조선족들이 몇십 년 애써 개척하고 건설해온 역사도 무시하고 ‘거주 지역은 물론 농경지까지 자기 것인데 단지 조선족이 거주할 뿐이다.’ 등 유언비어가 떠돌아 몇십 년을 자기 터전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온 촌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촌민들의 항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적극 제창하는 조화 사회건설이나 안정 단결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2003년 촌에서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도급 준 면적이 얼마인지 경계를 나누지도 않은 상급의 합동을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촌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촌의 영도가 직접 상급 영도를 찾았다.

상급에서는 ‘증건을 사실로 하는’ 원칙에 따라 토지분쟁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명백히 태도 표시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조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촌에서는 ‘촌과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면적이 얼마이며 경계도 나누지 않은 불투명한 합동은 승인 할 수 없다’ 는 태도를 표시하였다. 마을 촌민들은 건국 전부터 지금까지 주변 산지와 황지를 지켜왔고 가꾸고 관리하여 왔기에 정부에서 도급줄 때 촌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촌에 먼저 사용권을 주어야 하는데 외지 사람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촌락 주변과 농토주변의 양지쪽 산은 이 마을의 것이니 국가에서 발급한 토지증대로 해야 한다’ 고 촌에서 반박하여 조해는 무산되었다. 협의가 무산되었는데도 산을 산 한쪽은 자신이 체결한 합동에 따라 촌의 집체 소유지 토지마저 관리해 나갔다. 촌에서 촌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해 가옥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흙을 한 두 수레 파는 것을 위해 내놓은 폐경지의 흙조차 못 파가게 막아나서고 기타의 땅도 잠식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2005년 봄 촌의 땅을 빼앗아 논 딱 하나를 사이 두고 소나무를 옮겼는데 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조선족농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급에 수차례 해

결을 제기하였으나 시간을 미루면서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소식 한마디 없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한쪽은 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잠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뺨기 인공림도 내 것이요 저 뺨기 인공림도 내 것이다.’ 하며 근간에는 무슨 낚새를 쳤는지 마을주변의 토지를 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측량하고 있다. 그래도 상급영도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찾아가면 정부 내의 일부 공무원들은 촌민위원들이 정부를 찾아가면 별떼같이 모여들어 몰아 부치며 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촌민들은 물러설 여지가 없는 처경에서 심은 묘목을 뽑아내자고 떠들고 일부 과격한 촌민들은 정부 문 앞에 가서 농성을 벌리자고 까지 하지만 촌에서는 전력을 다하여 촌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상급을 통해 해결하러 찾아갔으나 끝내 원만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법에 제기한다 해도 한 개 작은 촌에서 상급기관을 피고석에 올려놓고 송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마을은 경제실력도 약하고 소수민족으로서 언어장애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변호할 대단한 능력도 없고 인맥관계도 넓지 못하다. 그래서 천방백계로 상급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촌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이 마을 토지 사용증에 밝혀진 5천여 무를 다시 확인하여 주고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천방백계로 힘써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재료도 보내고 면담도 거쳤으나 ‘흙소가 강물을 건넌’ 듯 3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결론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다. 하다면 이 마을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이 산은 이제 이네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단 말인가?

산은 이 마을의 사랑이고 산은 이 마을의 재부이며 산은 이 마을의

의거이고 산은 이 마을의 자호이다. 산은 이 마을의 생명이며 산은 이 마을의 미래다. 산에서 나무하고 산나물 뜯어 먹고 산 경치를 흠상하고... 생활의 한 밑천이고 근거 인산이다. 이 마을을 관광지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산이 있기 때문이다. 산이 있어 남들의 각광을 받는 것이다. 산이 자랑이어서 마을이 소문났고 산이 희망이어서 의연히 사람들은 살고 있으며 산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사람들이 쉴새 없이 찾아드는 것이다. 산은 이 마을사람들의 공통한 사랑이다. 이런 산을 잃으면 마을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누군가는 이 산이 영원히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전에 없이 그 무덤에 비석까지 세웠다.

지금 산이 남의 소유가 됨으로써 마을은 건립되어 60여년 긴 세월의 역사에 일찍 없었던 나무 채벌로 (자기 산이라 하여 마음대로 채벌함) 인한 수토류실 피해를 받고 있으며 봄 해동 때 산골 물이 쏟아져 내려 농토를 덮고 수로가 끊겨 봄씨 불임이 늦어졌다. 그리고 산지관리가 이전됨으로써 주위 한족들의 남벌이 최근 2년 동안 왕성해져서 그 후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산지 분쟁이 있어 투자해도 시끄러움이 많을 줄 알고 많은 투자자들이 왔다가 돌아간 것인데 성중의학원의 모모 교수와의 '식물원 상담'이 파산되었고 상학원 교학기지의 건설 상담이 파산되었으며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이 이 마을을 거쳐 가면서 그들의 주선으로 국제농업발전개발원 이박사의 마을고찰이 위기에 직면하여 난산이 되었다. 현 교육국의 모모 간부의 소개로 삼명한국기업인의 가공공장설립 상담도 토지 분쟁사실을 알고 도중에 유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로 이 마을은 발전의 좋은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러지 않아도 자꾸 떠나는 마을에 남은 촌민들은 더욱 신심을 잃고 많은 농호가 촌을 떠나려 하고 있어 촌의 존재에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글로 써서 상급에 주었는데 그 글을 보노라니 불행하고 억울한 마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해결을 기대하는 절절한 감정이 피를 토하듯 글자마다에서 애절히 흐르고 있는 듯싶었다.

그는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여비를 써가면서 변호사를 찾고 교수를 찾아 타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 모색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연약한 한 개인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라 때로 포기하고 싶으나 어쩐지 겨레에 대한 끈끈한 정과 향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차마 포기할 수가 없어 마음을 앓고 있다. 잃어버린 촌의 이름을 되찾듯 잃어버린 산도 되찾아 올 수 있다면? 누가 이들을 도울까? 이 작은 마을의 ‘하찮은’ 존재를….

해결하자면 막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고 한다. 어쩔 미해결 상태에서 끝나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제 경제발전에 집념하면서 전엔 관심이 없는 산이나 토지에 대하여 대민족들은 심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칫 방심하다가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자원들이 인맥이 넓고 권력을 등지고 있는 그들 손에 넘어가면 소수민족의 삶의 기반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하고 힘겨운 도전이지만 나라의 정책이 있고 정의로운 법이 있는 한 어느 때고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 민족이여. 우리는 소수 민족이

여선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늘 곡절적이고 힘이 들구나. 우리들의 힘겨운 삶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 행운과 불행, 희망과 절망이 점철되어 있다. 그래도 정책이 좋은 나라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싶은 땅이기에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힘들게 마련한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 후손들 내리내리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촌의 이름을 다시 찾은 그 해 여름이었다. 한국의 모 대학의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조선족 촌인데다 최근 마을에 이런 장한 사연이 있었음을 알고 자원봉사를 와서 마을길도 깨끗이 청소하고 일손이 딸리는 어느 가정의 일손도 도우며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난간을 돈을 내여 다시 산뜻하게 색칠해주는 등 동포의 사랑을 쏟았다. 그리고 우등불을 피워놓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마을의 전도와 운명을 두고 밤이 새도록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번 모국에서 온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는 그네들에게 동포에 대한 끈근한 정을 심어주었으며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마을을 지키고 가꾸려는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 농촌은 지금 격변기의 새로운 전통으로 존재와 더불어 발전과 퇴보의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농촌을 살림으로서 오랜 우리의 보금자리가 대를 이어 우리 민족의 손에서 이어지게 할 것인가?는 이 한 마을만이 아닌 온 조선족의 두고두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우선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가꾸려는

주체의 노력이 절실한바 잃었던 이름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찾아 세운 이 마을 사람들의 기거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간 후 그들의 고마운 봉사를 기념하고 촌민들에게 ‘우리 마을’ 의식을 더더욱 북돋아 주기 위해 김 선생이 기획하고 촌민들의 동의를 거쳐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동포의 사랑으로 마을은 영원하리.’ 라는 글귀를 새겨놓았다.

인근 마을 어디서건 이 마을이 조선족 동네임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찌하여 촌 이름을 따로 또 진지하게 돌비석에 새겨 놓았는가. 이는 그네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다시 찾아온 자기들의 촌 이름을 더욱 잘 지키고 가꾸어가려는 촌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도 된다. 구태여 세상이 다 아는 ‘조선족 촌’이지만 특별히 자기 촌의 이름을 아로새긴 이 기념비는 보기엔 작고 평범해도 여기엔 우리 겨레의 만만치 않은 패기와 담력과 의지가 깃들어 있다. 여기는 조선족들이 와서 개척하고 건설한 곳이다. 이 작은 기념비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민족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려는 촌민들 그 집념의 상징인 것이다.

이 작은 기념비는 또한 자신들을 명실이 부합된 조선족 촌으로 계속 만들어가려는 촌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제 이 기념비는 촌민들로 하여금 조선족 촌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고 자각적으로 이를 이행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

이 기념비는 역사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돌비석에 새긴 글에서 확인했는가? 누구든 이 기념비를 일부러 파 던지지 않는다면 이 기념비는 오랜 세월 마을의 입구를 지켜선 파수군의 역할을 하면서

이곳은 누구 아닌 바로 조선족들이 와서 개척하고 건설한 곳임을 증실하는 유물이 될 것이다 이 작은 수호신이 있어 마을은 대대로 우리겨레의 손에서 보존될 것인가? 나라의 우월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한 그리고 이에 걸맞는 이네들의 노력이 있고 고국을 포함한 모든 동포들의 사랑과 연대가 있는 한 ‘중국의 조선족’이라는 이 역사적 존재 속에 이 한 작은 마을도 영원하리라는 것을 김 선생과 같은 ‘민족지킴이’들에게서 기대하고 싶다.

후기

그는 워낙 어릴 때부터 독실하게 문학을 희망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초·중 때는 책 뒤주로 글재간 있는 학생으로 각광을 받았다. 고졸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청년 문학도들을 조직하여 문학단체를 못하고 신문 잡지까지 꾸려볼 타산을 하고 선두자로 나섰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기후가 무릇 어떤 단체든 단체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는 공안국의 뒷조사까지 받게 되자 문학을 놓고 교육 사업을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 이 마을에 전근되어 와서는 작은 학교지만 한 학교의 책임을 지고 오랜 시간 사업해 전심해왔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에는 또 촌 사업을 돕느라고 바빠 돌면서 글을 못 쓰고…。 그러나 워낙 문학에 흥취가 있는 사람이라 짬짬이 쓴 글을 모아 비공개로 작품집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작을 쓰려던 그의 야심은 촌을 살리기 위한 실천에 나서 ‘경영지주’가 되어 볼 꿈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농사

일에 바빠 돌면서 그밖에 촌의 회계며 노인협회 회장이며 촌 당지부 위원이며 등등 실제 일을 맡아 하는 한편 많은 일들을 주동적으로 찾아 하다보니 대부분 정력이 촌의 운명을 관심하는 일에 쏠리어 한가하게 글을 쓸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대작을 쓰려던 포부를 잠시 접어놓게 되었다.

하지만 꼭 글로 써야만 하랴! 글쓰기도 사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거늘 실천은 가장 매력 있는 문장이다. 비록 글을 쓰지는 못했어도 바로 민족 사랑과 고향 사랑으로 그가 촌민들과 함께 해놓은 많은 일들로 하여 오늘도 의연히 ‘조선족 촌’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작은 산간 마을 이것은 바로 그가 정성을 기울려 쓰고 있는 ‘작품’이며 작품 중에도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는 붓이나 필이 아니라 헌신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그가 쓴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끝나지 않는 ‘대표작’을 쓰고 있다.

‘조선족 촌’ 이름을 다시 찾은 산간 마을 상공에 파아란 하늘이 비껴 있다. 하늘을 떠받치고 웅기종기 솟아있는 아름다운 봉우리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바위산 꼭대기에 봄이면 진달래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화사한 진달래다. 이곳에 사는 조선족들처럼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진달래는 모든 산봉우리에 다 있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은 받는다. 진달래꽃은 산 정상 바위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봄마다 어김없이 제 자리에 생명의 꽃을 무덕무덕 피운다. 어쩔 진달래는 우리민족의 얼과 녀의 상징이라고 한다. 하다면 해마다 진달래가 어김없이 피듯이 이네들의 이 작은 터전도 세월 따라 영원해야 하지 않을까!

민들레 인생

가작 | 박룡일

탈출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피어날 무렵은 벼농사를 하는 이곳 중국북방의 농촌이 제일 바쁜 철이었다. 망종전으로 종자를 밀어 넣어야 가을에 가서 싹알이라도 건진다며 생산대장은 어둑 새벽부터 마을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어댔다. 그러면 그것을 신호로 이 집 저집의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좀 지나면 식사를 마친 일꾼들이 골목골목에서 빠져나와 마을 안 공터로 모여들곤 했다. 생산대장의 지휘 하에 하루 일거리를 분공 받은 일꾼들이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논으로 밭으로 밀려나간다. 당일 출근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었다. 그 사람을 우린 기공원이라고 불렀다. 기공원은 어떤 일에 누구누구가 참여했다는 기록을 해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본인과 확인대조를 하곤 했다. 기공원의 기록과 본인의 기록이 맞지 않아 싸우는 때가 늘 있었는데 보

통 아낙네들과의 싸움이 더 잦았다. 옴니암니 따지기 좋아하는 아낙들이 한 점의 오차라도 허용하고 넘어가는 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하는 솜씨나 노동 표현에 따라 매 사람이 받는 보수는 저만큼 달랐다. 일삼씨가 재고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집일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는 대우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노농과 헛내기 일꾼이 받는 대우도 달랐고 여자와 남자가 받는 대우도 달랐다. 그렇게 1년 동안 누계된 공수는 연말에 가서 분홍으로 직결되어 계산됐다. 즉 1년 동안 일한 대가를 그동안 분양받아 먹은 양식 값을 감하고 나머지는 현찰로 받을 수 있었는데 힘깨나 쓰는 장정이 서넛은 있는 집이라야 고작 인민폐로 천여원이 되나마나했다. 그럼에도 마을에서는 그런 집을 부잣집으로 쳐주며 ‘따랑후’라고 불렀다. 큰 부자라는 뜻인 이 호칭은 1년 동안 그 집 식구들이 어깨에 힘을 넣고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자식들이 성가하는데도 펍 유리했다. 인격이 좀 모자라는 편이래도 그런 호칭이 당사자의 허물을 어지간히 덮어주는 방패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돈이란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그 사회 체제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물건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일한 대가를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타는 돈도 탐이 났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더 요긴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추천 하에 대학으로 가는 것이었다. 마을당 한해에 단 한 명씩 차례지는 대학생 명액은 일자무식이래도 가정성분이 깨끗하고 사회표현이 좋은 선진형의 청년만을 그 후보로 삼았기에 나는 극력 군중위신을 수립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몸을 사릴 수가

없었다. 발갈이부터 시작되는 농사일은 엄동설한까지 하루도 쉴 사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어찌다 비가 내려 반나절이라도 쉴 때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노동은 우리 생활의 전부였고 몸에 배여 고질이 되어 있었다. 띄약별 아래서 허리를 꼬부리고 하는 모내기나 김매기 일은 사람의 진액을 뽑는 일 같아도 한겨울 농토수리건설 노동에 비기면 그래도 그것은 신선놀음이었다. 침을 뱉으면 몇 초도 안 돼 얼음으로 변해버리는 이곳 북방의 한과 속에서 곡괭이를 휘둘러 언 땅을 까내여 목도채로 메어 나르는 일은 웬만한 인내력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험한 일이었다. 손을 놓고 서있으면 손가락이 곱아들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했기에 겨울철 일은 힘겹고도 지겨운 일이었다. 하루 노동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 일에 지쳐 녹초가 된 몸을 아랫목에 누일 때마다 어떻게 하나 돌아오는 해의 대학생 후보 선거에서 꼭 추천을 받아야겠다는 비장한 생각으로 어금니를 깨어 물곤 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월계관은 나에게 돌아오질 않았다. 내 앞에는 나보다 조건이 훨씬 우월한 사람이 셋이나 더 있었던 것이다. 1호 후보는 성분이 좋은데다 마을의 빈하 중농대표를 지내는 김주임 네 큰딸이었고 2호 후보는 청년단 조직사업을 맡은 단지부 서기장이었으며 3호 후보는 모택동의 지시를 받들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와 빈하 중농의 재교육을 받고 있는 하향지식 청년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셋을 앞지르기 위해 처처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라고 은근히 귀뜸을 해주곤 했지만 날고뛰는 재주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셋을 능가해 앞지를 수 있는 희망은 시종 보이질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팔자를 탓하기도 했다. 뉘라서 김주임 집 딸처럼 고귀한 고농성분을 가

진 권력 있는 아버지를 만나지 말라고 했던가? 뉘라서 이런 시골구석에서 태어나라고 했던가? 학교 때의 공부 실력으로라면 앞선 세 사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나 공부성적순이 아니라 혈통이나 노동표현 따위의 순으로 정해지는 추천서열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장난이었다. 나는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 개구리가 뛰어왔자 논두렁 안이라고 나는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을 그 어떤 세계를 꿈꾸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던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다. 대학생들 기층에서 추천해 보내는 추천제가 아니라 시험제로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당초 믿어지지 않았다. 꿈만 같았다. 그것이 바로 1977년 겨울이었다. 마을 안의 모든 청년들이 들끓어댔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시험성적만 합격되면 대학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지리 궁벽한 시골과 힘이 드는 농촌생활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흥분이 되어 언제 어디다 버렸는지 알 수도 없는 교과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만한 책이 한권도 없었다. 문화대혁명 후 회복된 첫 시험이라 시험대강도 없었고 시험범위도 없었다. 10년 동란 속에 본디 배운 게 얼마 없는 학생시절이었고 또한 손에서 책을 놓은 지가 언제였던가? 중학교 때 배우던 교과서를 찾아보았지만 그것들은 이미 불쏘시개가 아니면 뒷간의 휴지로 된지도 몇 년이 된 때였다.

나는 달랑 볼펜 한 자루만 들고 동네 청년들 속에 끼여 공사마을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아주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알 것 같으면서도 딱히는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이 사람을 더 안타깝게 했다. 얼마 후 시험성적이 나왔다. 전 공사적으로 내

성적은 앞자리 순위였으나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그해 전 공사적으로 두 명의 대학생이 배출되었다. 그들이 대학교로 떠나는 날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양푼만큼 큰 빨간 종이꽃을 선사했고 세납을 불고 징을 치며 축하해주었다.

대학시험에서는 탈락이 되었지만 성적이 괜찮은 점을 가상히 여겼던지 마을에서는 마을 소학교에 민영교원으로 나를 배치해주었다. 학생 수는 불어나는 반면 교원 수가 모자라 향정부에서는 마을마다 자기 절로 교원을 모집하고 월급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그 덕에 더 이상 퇴약별 아래서 모집을 저 나르지 않아도 되었고 엄동설한에 들판으로 내 몰리어 굶아드는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언 땅을 파지 않아도 되었지만 내가 받는 보수는 전간 노동에 나선 일군 중 제일 낮은 등급 대우인 8부 공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해 평균 분홍고가 인민페로 1원이라면 정상적인 일군들이 하루보수로 1원을 받을 때 나는 그것보다 20전이 적은 80전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야했다. 그나마 다달이 주는 월급제도 아니고 연말에 가서야 미루었다가 주는 연봉제였다. 그래도 어쨌거나 좋았다. 힘에 부치는 전간 일을 이탈했다는 안락감과 교학을 하는 외에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시간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비상을 한 셈이었고 출세를 한 셈이었다. 마을 청년들은 부러운 눈매로 나를 쳐다보았고 내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은근히 질투도 보내왔다. 상급에서 조직하는 교원연수공부를 다녀오느라고 마을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는 논머리를 지나칠 때면 대부분 사람들은 밝은 미소를 보내주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농 삼아 시까스르는 소리도 주저 없이 던졌다.

“이봐, 구두신고 길을 걸으니 발이 안 시려서 좋겠네. 이 찬물에 들어와서 가래질 좀 허구가!”

폐교

그렇게 내 인생길에 발판이자 전환점이 되어 주었던 고향마을 소학교가 얼마 전 폐교를 맞았다. 내가 교원으로 있을 때가 고향마을 학교의 전성기였던 것 같다. 80여 호가 집거해 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을에 학생 수가 근 200명 가까이 되었으니 한집에 학생이 평균 두셋은 있었던 세월이 아니었던가 싶다. 학생 수만 아니라 교원 수도 나라 봉록을 타먹는 공비 교원에 나 같은 민영 교원까지 합쳐 열한 분이 계셨던 학교다. 정부에서 조달되는 교육경비가 태부족이어서 마을에서는 생땅 한 켤이를 떼어 내어 학교에서 자기절로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도록 선처해주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고급학년 학생들은 거의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학전노동에 투입되었다. 반면에 학비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가장들도 별 의견이 없었다. 둘이 벌어 양식 값도 벌기 힘든 세월에 아이들의 학비까지 운운할 새가 없을 만큼 바쁘게 살던 때라 학교에서 아이들의 손을 좀 빌려 쓰고 학비를 탕감해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랄까 아무튼 일을 하다 애들이 손을 베고 다리에 생채기가 생기는 등 사고가 잇달아 생겼지만 지금처럼 걸고드는 학부형들은 한사람도 없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질 무렵까지 가을걷이가 끝나지 못할 만큼 다루

는 논 면적은 많은 반면에 사람마다 내일처럼 험겔차게 일들을 해주지 않아 생산대의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그랬기에 학전농사는 어른들의 도움 한점 없이 완전히 열한명의 교원과 고급학년 학생들이 손수 지어야 했다. 그래도 그때 학생들은 태생이 농촌 아이들이어서 농사 일을 곧잘 했다. 논둑 만들기, 논바닥 고르기, 모 내기, 김 매기, 논두렁 깎기, 가을걷이, 그리고 가을이 끝나면 이삭줍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굶어모은 돈이 은을 내서 마을학교는 원근에서 보기 드문 학교로 급부상했다. 체육 기자재를 사다가 운동장에 비치시켰고 겨울에는 사생이 손수 펌프 물을 찾아 올려 빙장을 만들고 스케이트를 사다가 스케이트 타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당시 다른 한족 학교들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중히 여긴다.’, ‘조선 사람들은 체육에 능하다.’ 한족학교 사람들은 이렇게 치하를 하며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체비처럼 썩썩 달리며 얼음지치기를 하는 조선학교 아이들을 일부러 구경하러 오기도 했다.

몇 년 간의 농사수입으로 학교에서는 초가로 된 교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벽돌로 된 새 교수청사를 지어 올렸다. 그날 마을은 명절같이 들끓었다. 사면팔방에서 모여온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새 집단부락에 첫 벽돌집을 지어놓고 마을 남녀노소가 흥겨운 잔치마당을 벌렸다. 마을 역사치고 이보다 더 신명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모두가 흥겨운 춤사위로 한바탕 어울려졌다. 우리민족은 흥을 몸으로 표현할 줄 아는 특이한 민족인가보다. 저마다 춤꾼이 되어 하루해가 다 가도록 그렇게 어울려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

그동안 퇴직 연령에 든 교사는 퇴직을 하고 나처럼 상급학교로 전근이 된 교원은 뿔뿔이 떠나가고 부부교사만 달랑 남아 마을학교를 지키고 있던 것이 고갈되는 학생내원 때문에 현성에다 전현 각 마을에 널려있는 조선족 소학교를 몰아다 합병시키다보니 덩실하게 지어놓은 새 교수청사는 이제 텅 빈 절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을 마을에서는 또 이웃 마을 한족부부에게 돈사로 팔아넘겼다. 마을엔 그 한족부부처럼 돼지를 키울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도 이제 없다고 했다. 모두가 연해도시나 해외로 돈을 벌러 떠나가고 마을에는 걸음걸이마저 편치 않은 노인네들만 남았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금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으스스하고 괴괴하던 빈집이 그래도 그나마 돼지새끼들이라도 득실거리니 그쪽이 펍 보기에 낫다고 했다. 촌장의 안내 하에 돈사로 변한 학교 청사와 논밭으로 개답이 된 학교 운동장자리를 둘러보노라니 지나간 기왕지사가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지는데 아쉽게도 그 어디에서도 옛날의 번성했던 자취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큰어머니

‘한국바람’에 고향마을엔 이제 친척이라고는 큰어머님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마을 초창기에 의사의 신분으로 이 마을에 접족을 한 큰아버지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살아온 큰어머님은 이제 큰아버지도 없는 마을에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옛날 그 터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다. 내가 상급학교로 소환되기 전까지 그래도 고향엔 사촌형제들

이 있었고 큰아버지도 생전이셨다. 큰아버지의 의술이 좋아 원근 한족 사람들까지 먼 길을 걸어 큰아버지를 찾아오곤 했었는데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고 한평생 약으로 침으로 남의 병은 용케도 잘 고쳐주셨던 큰아버지는 뇌혈전 후유증으로 8년간 지병을 앓더니 드디어 하늘 나라로 떠나가셨다. 큰아버지가 세상 뜨기 며칠 전 사촌들은 모두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나갔다. 언제 숨이 질지 대중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마냥 지키고 있을 계제도 아니어서 일단 그렇게 떠나면 수일 내 돌아오지 못하는 출국길 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사촌들은 모두 그렇게 제 갈 길들을 떠나가 버렸다. 사촌들 대신 큰아버지의 골회를 마을 앞 강물에 띄워 보내며 나는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민초기엔 집이 없어 이웃 한족들의 행랑채에 세 들어 살기도 했고 후엔 남들보다 좀 기름진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문화대혁명 난리 때는 투쟁대상이 되어 고깔모자를 쓰고 조리돌림을 돌기도 했던 큰아버지의 인생은 나중에 그렇게 한줌의 재가루가 되어 강물 속으로 텅텅텅텅 가라앉아 버렸다. 그저 이렇게 끝나고 마는 생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싶었다.

큰어머니는 조선말은 물론 중국말에 더 능통한 분이시다. 식성이나 기질도 남자 같은 데가 많아서 술도 잘하고 성격도 남달리 활달하다.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고회를 넘긴 지금도 동네 안은 물론 인근 한족마을 사람들 속에서까지 그 인품과 위망이 상당하다. 한국바람이 불면서 너나없이 버리고 떠난 조선족들의 논밭들을 도급 맡아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한족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마을 안은 예전 우리끼리만 살 때처럼 조용하지 못하단다.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 보

니 마을 안 대소사나 행사 때마다 골치 아픈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마다 수완 좋고 활달한 큰어머님이 척 나서면 무난히 해결된다고 하니 큰어머님은 말 그대로 마을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해결사란다. 자식들 곁으로 따라가자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죽을 때까지 고향마을에서 살다가 조용히 죽을 테니 죽은 후에 와서 시신이나 수습해달라며 여자 갓지 않은 호방한 웃음을 날리곤 하는 큰어머니. 떠나갈 사람은 다 떠나가고 학교마저 없어진 고향마을에 이제 큰어머님마저 안계시면 무슨 멧에 찾아갈까 싶다.

올해는 역사 이래 보기 드문 가뭄이 생긴다며 전에 조선족들이 다루던 논들이 모두 한전 밭으로 개답이 된다고 한다. 사람이 먹는 양식은 별이가 안 되고 사료용 곡물가격이 올라가니 한족들이 도급 맡은 논들을 모두 한전 밭으로 만들고 옥수수 따위를 심는다며 야단법석이다. 그제날의 추억을 떠올려볼만한 곳 한곳 없이 고향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길도 변했고 들도 변했고 집들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해가고 있다. 모처럼 찾아간 김에 옛날 추억을 더듬으며 이집 저집 이웃으로 살던 집들을 찾아가 보아도 열에 일곱 집이 주인이 한족으로 바뀐 낯선 집들이었다.

통혼

한 달에 두 번 꼴로 나는 요청에 의해 결혼식 사회자로 결혼예식장에 출두하고 있다. 조선족 혼례에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한

족들의 결혼식에도 요청되어 나가곤 하는데 결혼예식 순서는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대동소이하다. 예전에는 완전히 달랐던 관습이 언제부턴가 거의 닮아가고 있는 꼴이다. 내가 장가를 갈 때 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의 결혼식은 최소한 3일 동안 시끌벅적한 나날 속에 번다하게 치러졌다. 동네아낙들이 모여들어 상감으로 쓸 강정이며 떡을 만들 때부터 동네 안 잔치는 사실상 시작이 되는 셈이었다. 지금처럼 분쇄기도 없었던 세월이라 아낙들이 떡감으로 쓸 떡쌀을 불려 놓으면 힘꼴개나 쓴다는 동네 장정들이 모여들어 동넛집 절구통을 굴려 들이고 떡메를 휘둘러 떡가루를 뺑기 시작한다. 쿵덕 쿵 더덕 맞절구질을 하는 남정들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돈을 무렵이면 아낙들은 야채전을 붙이느라 야단에 법석을 떨고 콩나물을 다듬는 동네 할머님들의 손길도 바빠진다. 신부의 얼굴화장을 돕는 새각시 또래들은 집이 떠나갈듯 안방에서 깔깔 깔깔 기분을 돋우고 마당에선 동넛집 아이들이 쫓고 쫓기며 가택질을 하기에 분주하다. 두부를 앓고 떡살로 골무떡에 꽃무늬까지 박아내면 잔치준비는 거의 완숙했다고 보아도 된다. 우리 이곳의 결혼풍속은 결혼 당사자 두 집이 당일에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동떨어져 있는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랑은 당일로 신부를 제집으로 데려온다. 결혼예식은 대개 신부 집에서 치르는데 북선이 고향인 사람들은 신랑 집에서 치르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조선족이라 해도 가끔은 같지 않은 관습 때문에 분기가 생기기도 했다.

결혼초례청은 신부 집 뜰에 실탄자 따위로 병풍을 두르고 동네 집 명석을 얻어다 뜯 한복판에 펴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거기에 종이 꽃 한 묶음이 곁들여지면 금상첨화다.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던 마을에

결혼예식을 구경하는 것은 일종의 향수이기도 했다. 영친 갔던 꽃수레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시댁 식구들이 마중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새색시가 앉은 꽃수레를 맞이하곤 했다. 결혼식 개식선포, 신랑신부 입장, 결혼 등기증 낭독, 결혼 예물교환, 주례사, 내빈축사, 양가 어른들의 인사말, 신랑답사 등 순으로 이어지는 결혼식은 반시간에서 한 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해서 볼거리가 제법 톡톡했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그 농사수입이 생긴 후에야 하다 보니 이곳 결혼식은 거의가 한겨울에 치러지곤 했는데 구경나온 구경꾼들은 추워서 이빨을 달달달달 맞췄이면서도 신랑신부 퇴장이 있을 때까지 박수를 보내면서 지켜보곤 했다. 거기에는 내빈 축사를 나온 사람이 시조까지 읊조리며 품을 내다보면 시간은 더욱 길어지곤 하는데 구경꾼들이 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랑신부도 꼼짝없이 추위에 떨곤 했다. 그래도 그렇게 익살스레 늘어놓는 내빈 축사가 있으면 결혼예식은 딱딱하지 않고 웃을 일이 있어 재미도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음식질이 시작되는데 잔치 집 주위에 있는 이웃집까지 여러 칸 빌려야 할 만큼 동네 어른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어 먹고 마신다. 음식상은 지금처럼 한 끼를 먹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저녁까지 이어졌는데 동네 청년들은 신랑신부를 데리고 자정 때까지 오락을 즐기곤 했다. 그때가 바로 신부의 인물이나 문화수준 그리고 노래와 춤 솜씨까지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동네아낙들과 청년들이 관중이 되어 제법 짹짹하다. 이튿날 아침엔 새색시가 준 비해온 예단을 들고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에게 첫인사를 올리는 예식이 진행되는데 동네아낙들은 새색시가 갖추어온 예단품목이나 가

짓수로 신부 쪽의 재력이나 성의를 저울질하며 며느리를 잘 봤소, 못 봤소, 하며 입방아들을 찧고 뿜는다. 사흘 날은 신랑신부가 다시 시댁에서 챙겨주는 이바지 음식을 들고 친정 나들이를 떠나게 되고 친정갔던 새색시가 이튿날 다시 시댁으로 귀가를 해야 결혼잔치가 그로서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결혼잔치는 전과 비길 때 너무나도 슴슴하게 끝이 난다. 떡메소리도 없고 전 부치는 기름 냄새도 없다. 동네아낙네들의 웃음소리도 없고 아이들의 가래질 소리는 더구나 들을 수 없다. 모든 것을 결혼식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다 보니 별도의 준비도 없이 정해진 날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결혼식장으로 모여가면 그만이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이 끝나면 그 길로 미리 챙겨놓은 음식을 한 숟가락씩 떠먹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면 그것으로 결혼잔치는 끝이다. 시끌벅적 흥아리도 없고 예전에는 있었던 모든 의식은 허례허식이라며 일축해버리다 보니 슴슴하다 못해 처량할 때도 많다. 연해도시에서 일을 하던 와중에 저희들끼리 눈이 맞아 동거까지 하다가 양가 부모님들에게는 통보 같은 결혼선포를 하다 보니 한 가족이 된다는 뜻 깊은 의식이 의무를 이행하는 겉치레 같아 보기에다 씩 좋지 않다.

그래도 새로 맞아들이는 신부나 신랑이 다 같은 조선족인 경우의 결혼식은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복이 있어 그나마 덜 서글프다. 요즘 내가 사회를 보는 결혼식 중 열에 서너 집은 한족며느리가 아니면 한족사위를 맞아들이는 결혼식이다. 따발총을 갈기듯 고막이 찢어지도록 폭죽이 터져 오르는 속에서 예식장 앞으로 굴러들어오는 승용차 안에는 정숙함이란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행동거지가 대범한 한족신부가

앉아 있다. 어린애처럼 신랑에게 안겨 식장으로 들어와서는 시부모님
 앞에 이르러서야 땅에 내려선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향해 허리도 아니
 고 고개만 까닥 움직이며 ‘마머’, ‘빠빠’하고 부른다. 좀 전까지 불러왔
 던 ‘아주머니’, ‘아저씨’란 호칭을 바꾸는 의식이다. 신랑의 어머니는 호
 칭을 바꿔 불러준 대가에 고마워하며 새며느리의 손에 빨간 종이에 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찢어주어야 한다. 게다가 한족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키워준 대가로 사돈집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챙기는
 풍습이 있다. 그것을 ‘젓값’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조선족이라해도
 한족며느리를 맞아들이려면 이런저런 명분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
 요 된다. 깊이 찢겨져 올라가 허벅지까지 널름널름 보이는 새 며느리
 의 치마자락을 여며주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민망함이 역연하다. 그래
 도 어찌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릿감인데, 지금은 자식의 혼사에 감싸라
 배나라 하며 참견을 하는 세월이 아니고 또한 참견을 한다해서 들어먹
 히는 세월도 아니니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족이래도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연애 끝에 하는 결혼은
 괜찮은 편이라 해야겠다. 조선족 처녀는 금싸라ک 같이 귀해진 요즘 아
 들을 총각귀신 만들기 싫어 울며 겨자 먹기로 쥐나 개나 하는 식으로
 한족 처녀들을 데려다 암수의 짝 찌맞추듯 일추 며느리를 봐야하는 집
 의 결혼예식은 사회를 봐주면서도 마음은 착잡해진다. 개혁개방과 한
 국인들이 바람에 생활수준은 질적으로 좋아졌다지만 피할 길 없이 맞
 게 된 타민족과의 통혼 바람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현실로 되어 버
 렸다.

아들

올해로 스물한 살인 아들에는 사랑엔 국경이 없다던데 조선족 총각이 한족처녀에게 장가드는 일이 뭐가 그리 나쁘다고 번번이 그런 결혼식 사회를 봐주고 와서는 그렇게 개탄을 하나고 나에게 질의를 하곤 한다. 타민족과의 통혼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아들에게 들어 먹히도록 설명하자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하며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 중이다. 글썄 타민족과의 통혼에 내가 왜 이다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다지나 감상에 젖어있는 것일까? 나는 나로서 나의 선입견을 합리화할만한 이유 몇 개를 만들어보았다. 첫째,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다. 음식문화에서부터 같이 살아가는 가족 간에 있어야할 규범이나 예의가 너무 다르다. 특히 한족 아내들은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는 못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많이 부족하다. 조선족은 남자들이 방안에 앉아있고 여자들만 주방에 서있는 다며 한족여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둘째, 언어가 다르고 사유방식도 다르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감정소통도 잘 안 되고 감정소통이 잘 안 되니 괴리감이 생겨 한뼘을 같이 살아도 어울려지지 못한다. 셋째, 정서도 다르고 처세술도 다르다. 나의 친구 하나는 직업·환경상 한족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10여 년을 살고도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생활상 관념상 안 맞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족과 조선족 사이엔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 그와 같은 다름 사이에 생겨있는 골짜기를 누가 매워야 할까? 매우려면 서로가 닮아야한다. 닮아 가면 웬찮겠지만 닮지 못하면 격돌할

것이다. 나는 장차 내 아들이 한족여자의 관습을 닮아 한족으로 동화되어가는 꼴도 눈뜨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한족 머느리더러 우리의 관습대로 살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와 같은 모순 말고도 해결해야할 모순이 얼마나 많은데. 누군가 이제 민족은 문화의 개념이지 혈통의 개념이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혈통을 중시하고 싶고 혈통을 고집하고 싶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한 말이 괜히 생긴 말일까?

그런 내 마음을 아들애는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 ‘민족문제가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다같이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아들애는 외려 나를 캐캐묵은 관념에 얽매어 있다고 역설한다. 아들애겐 고국과 조국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다. 아니, 모호하다기보다 그 단어의 개념에 전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시합을 지켜보면서도 중국팀의 패전을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넌 누구편이냐?”하고 묻자 아들애는 오히려 그러는 내가 우습다는 듯이 빼꼼히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누구편은 누구편?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의 아쉬움 외에 그 어떤 편파적 안목으로 대하면 안 되요. 나와 한올의 관계가 없는 팀도 지면 아쉽단 말이에요. 아쉬움 없는 멋진 스포츠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아들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아들이 대범한 놈인지 내가 쪼잔한 놈인지 의아해진다. 너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 사람은 조선말을 해야 해. 그러면서 기어이 먼 길을 걸어야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학교로 보냈는데 아들애는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한다. 어려운 말의 뜻풀이일수록 중국말로 해야 이해가 빠

르니 아들에게 있어서 조선말은 외국어나 다름없다. 조선말을 하라고 억박지르면 호칭으로부터 술어에 이르기까지 가려 써야하는 조선말이 부담스럽고 시끄럽다며 간단한 중국말이 쓰기에 편해서 좋단다. 교과서에 나오는 중국역사는 정통했으리만큼 꿰뚫고 있으면서도 조선역사는 교과서에 기재된 한두 장의 간단한 개요로 공부한 것뿐인 아들이 가보지도 못한 고국과 나서 자란 중국을 구경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는 묻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아내

2004년 5월 아내는 처외가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서 2년간 분식업 식당에서 홀썬빵을 뛰다가 재작년 가을에 귀국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벚꽃이 피는 것과 단풍이 든 산구경만은 꼭 하고 오겠단던 아내는 그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채 일에만 쫓기다 만기가 되어 돌아왔다. 한뉘 한족학교에서 한족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한족 사람들 속에 묻혀 교원사업을 해온 아내여서 한국에 갓 입국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공식적인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해 울음이 나올 지경으로 답답했다고 했다. 그래도 영악한데가 있어 험한 고비를 다 넘기고 얼마간 돈을 벌어들인 것이 대견하고도 고맙다. 조선말도 많이 배워왔고 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도 해봤기에 총적으로 실보다 득이 큰 셈이다.

“한국 가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조선말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그 두 째 사이에 쪼그려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노릇하며 살아야지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 그것부터 우린 생각을 고쳐야 되요. 혈육? 혈육도 돈이 있고 혈육이지 돈 없으면 다 무색해집니다.”

한국을 다녀온 후 아내가 입을 열었다하면하는 어록같은 감수의 말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짜증을 내던 어느 공무원의 흉내를 내는가 하면 음식배달을 간 자기의 손목을 뺏어 잡고 애인하자며 추근대던 어떤 나그네의 추태를 새삼스레 들추어내며 비분해하기도 했다. 가난뱅이 나라에서 온 거지들이라며 비난하는 졸자들도 보았고 찾아가는 목적지까지 예의바르게 깎듯이 안내해 주는 고마운 분들도 보았던 다. 지고지상의 대통령도 내여 놓고 험담할 수 있는 자유도 보았고 신문지 한 장 깔고 누워 자고 있는,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길거리 노숙자도 보았던다. 천당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천당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 들은 공산당의 설법대로라면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지옥도 없더라고 말하는 아내. 귀여울 정도로 솔직한데도 있다. 그만큼 마음도 여리고 순진하다 못해 남에겐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인 아내는 이념 같은 문제까지 운운할 만큼 오지랖이 넓은 것도 아닌데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주방장과 6·25전쟁을 누가 먼저 벌렸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참이나 얼굴을 붉히며 싸웠노라고 했다. 새삼스레 이제 그걸 따져서는 뭘하려 했는가고 묻자 괜히 우롱당한 기분이어서 고집 한번 세워본 것뿐이라고 했다. 빨간 천 한 조각에 눈이 가리어 하늘이 푸르고 땅이 검은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살아왔던 우리세대가 아니었던가? 하물며 조선 사람은 혈통적으로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민족임을

은근히 돋보이려고 한족사람들 앞에선 일거수일투족 잔잔한 일 하나에도 신경을 쓰던 아내였는데 이제 벌어진 돈 액수만큼 지니고 있던 자부심의 수위가 낮아진건 아닌지 근심이 되기도 한다.

매형

아내처럼 친척방문차 아주 놀러왔아 외화벌이를 해온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한 번도 한국나들이를 해보지 못한 무연고 동포는 더욱 많다. 아내처럼 한국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웃이나 동료들의 고생담을 자기 귀로 직접 듣고도 옆에 열사람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으로 나가지 못해 열병을 앓고 있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가산을 탕진해가면서도 한국행 꿈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저마다 몸부림을 하고 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출구를 모색하는 그 모습들은 알을 쓸러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때들의 모습과 그처럼 방불하다. 내리 쏟아지는 물살을 헤가르며 이리저리 자맥질을 하다가도 아스라한 폭포를 만나면 겁 없이 사생결단 몸을 솟구쳐 생로를 찾는다. 거기엔 그들을 먹거리고 노리고 있는 악덕 브로커들이 아가리를 짝 벌리고 대기하고 있어도 말이다. 자칫하면 바로 그들의 입속으로 텀병 뛰어들어 고스란히 그들의 먹이가 되어 뱃속의 귀한 알들까지 대방의 먹이로 처넣게 되는데도 그들의 목적지로 가려는 자세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비장하기까지 한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볼수록 안쓰럽다. 가난했던 과거가 있기에 부에 대한 열망도 집착에 가까우리만

큼 집요하고 모질다. 자본주의를 적대시하고 부할 ‘부’자만 보아도 과민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돈맛을 알고 나니 그 누구보다도 돈에 집착하고 갈망한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마져 남기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래서 망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악덕 브로커들에게 피같은 돈만 떼운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고 명청히 앉아있는 남편이 가장구실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젠 그 아내들이 집을 나가 버리다니 집 잃고 돈 잃고 가정까지 풍비박산이다. 한국바람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조선족 사회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 되었다.

취구명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다행히 요즘 실무한국어 시험으로 출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오매불망 그리던 한국드림을 실현하는 사람도 요즘 부쩍 늘어났다. 초청장을 보내줄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브로커들에게 들이밀 만한 밑천도 없어 한국꿈을 아주 싹 접고 있던 매형이 요즘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혈통은 조선 사람이지만 낫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매형이 한국어시험을 보겠다고 덤비는 것은 이도 아니 난 아기가 콩밥그릇에 덮치는 격과 무어가 다른가? 윗누이가 매형과 혼담이 오갈 때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문화간부라는 매형의 직업이 큰 후광이 되어 우리아버지의 입에서 결혼 수락도 빨리 떨어졌다. 월급도 그때 교원인 나의 월급보다 배나 많았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주는 보너스도 짹짹했기에 신혼초기 매형네 경제형편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 윤택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국영기업들이 하나둘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속담에 큰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건만 한때는 그렇게 휘황하게 잘나가던 국가 1급 기업인 계전기 공장이 연속 부도가 나며 노동자들이 밥통을 잃고 길거

리로 쏘아져 나왔다. 특히 매형같이 문화 사업을 맡은 간부들부터 구조조정의 1호 대상이 되어 매달 200원의 최저 생활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매형은 사직서를 썼다. 인민폐 200원, 요즘 가격으로 입쌀 50키로그램 밖에 살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퇴직금을 들고 지금 매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한족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군복무를 마친 후 한족 사람들 속에서 간부노릇을 하며 살아온 매형이 지천명에 이른 나이에 초등학생처럼 가로 늦게 “가가거겨”하고 부르고 쓰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엔 마음 편케만 비쳐지질 않는다. 중국말 속담에 30년은 강동쪽 30년은 강서쪽이란 말이 있다. 한때는 그렇게 보무당당하고 유망했던 매형의 인생길, 이제 그의 앞에 놓인 길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올려고 전주곡을 울리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국식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활리듬이 다 깨졌다. 매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제 살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김치

애초 실무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 전 조선족 사회에 파다히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선뜻 나서질 않았다. 웬 떡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겠느냐면서 아무런 실리도 없는 허황한 짓거리일 것이니 팬스레 신청요금만 내든지 말고 잠자코 지켜보자며 비아냥거리는 부류도 있었고 길고 찌른 건 대봐야

안다며 무작정 덤벼드는 부류도 있었다. 무식한자가 용감하다더니 앞 뒤를 재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기름떡을 하사했다. 시험을 본 사람 중 절대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자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다. 김치매대에 줄느린히 서서 김치를 팔던 조선족 아줌마들이 다리가 성치 않은 이씨 아줌마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모두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았는지 땅으로 잦았는지 싹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갔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시험공부 하러 떠났단다. 김치매대는 한족 아낙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김치 만드는 요령만도 하루 낮 하루 밤을 가르쳐주고 갔단다. 그래서 조선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조선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겉모양을 봐서는 이씨 아줌마의 김치와 비슷비슷한 것 같았으나 그 맛은 각양각색이었다. 수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김치 종주권이 한족들에게로 서서히 이양되고 있었다. 김치 하나를 들고 수도 시장까지 짓쳐들어 갔던 조선족 아낙들이 바야흐로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벼농사밖에 할 줄 몰랐던 조선족에게 있어서 김치는 반찬이었고 양식이었고 돈줄이었다. 김치를 팔아서 집을 장만한 사람도 있었을 만큼 김치는 우리의 생명이었고 효자종목이었고 그리고 우리얼굴을 대표하는 간판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닌가보다.

가을이면 한족들은 찰채를 한 대 독씩 담그느라 분주할 때 조선 사람들은 김치를 담그느라 법석을 떨군 했다. 김치도 어디 한 두 가지 뿐이었던가? 이웃들이 모여들어 거들어야 할 만큼 푸짐히 담긴 김치는 겨울 내내 없어서는 안 되는 반찬이요, 양식이였다. 손이 큰 우리어머니는 해마다 겨우내 먹고도 남을 만큼 김치를 많이도 담그셨다. 그렇

게 먹다 남은 김치는 버리지 않고 시오리 상거한 진거리로 내다 팔아
 푼돈을 모으기도 했다. 애초 장사를 위해 담근 김치가 아니고 먹다 남
 은 것을 치워버리는 식으로 파는 터라 김치를 사러 오는 한족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많았다. 설을 쇠고 나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파는 조선동네 김치를 진거리 사람들과 주위 한족
 동네 사람들은 은근히 기다리곤 했다. 지금처럼 비닐 봉지에다 담아주
 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간 벗짚오리로 통배추 김치의 허리를 질끈 동여
 들려주어도 얼굴 찌푸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는 살림살이에 보태셨다. 첫 해는 물 끓이는 전기주전자를 사왔
 고 두 번째 해에는 큰 양푼대접을 사들였으며 그다음 해에는 전기다리
 미를 사왔다. 그런 재미에 동네아낙들은 겨끔내기로 김치를 여유있게
 많이 담그기 시작했고 서로 남다른 손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으며 서로
 많이 팔려고 자리다툼 같은 것도 하기가 일쑤였다.

그랬던 김치가 한국바람에 이제 한쪽으로 밀려났다. 밀려나서 한족
 아낙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1년 내내 동분서주 해봐야 한국 가서 서너
 달 일한 대가만큼 밖에 안 되니 누군들 그 일을 계속 하려하겠는가? 집
 체로 농사를 짓던 인민공사가 끝나고 집체 공유 토지를 가가호호에 떼
 맡겨 개인농사를 시작한 첫 해 마을엔 만원호가 생겼다. 연수입이 인
 민폐 만원을 넘긴 집을 가리켜 향에서는 ‘만원호’라고 칭송하며 치부하
 는 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땅은 시골 사람들의 명줄
 이었고 유일한 밥줄이었으며 땅을 버린 삶은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그
 령게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와중에 누군가 과감히 땅을 버리
 고 김치를 들고 진거리로 나갔고 다시 현소재지로 나갔으며 더 멀리는

수도인 북경의 골목으로까지 들어갔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농경문화는 그때부터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조선족을 성장시킨 음식 김치가 이제 우리 손을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

호도거리

중공 제 11기 3중전회가 폐막된 후 얼마 안 되어 우리 마을은 곧 호도거리 생산제로 들어갔다. 온 마을사람들이 생산대장의 지휘하에 함께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먹던 세월이 종료된 것이다. 처음 마을사람들은 흥분해했고 그다음은 걱정과 불안에 잠기기도 했다. 집체로 농사를 지을 때 남의 지휘 하에 시키는 일만 수격수격하면 그만이었었지만 이제 호도거리를 하면 자기절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한다는 압박감에 기쁨 반 걱정 반 이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니 그런 걱정은 괜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대 대부분 사람들이 집체 때 보다 일을 쉽게 했고 적게 했으며 알뜰하게 했다. 그러나 생산소출은 집체 때와는 비교도 아니 될 만큼 높았다. 가을이 끝나 트랙안으로 끌어들인 벼날가리가 집체보다 더 컸고 탈곡기에서 쏟아지는 낱알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했다. 가을걷이까지는 각자 가족단위로 자기 일을 해왔으나 탈곡철이 되자 온 마을이 단합이 되어 오늘은 이 집일을, 그리고 내일은 저 집일을 해주며 품앗이 노동에 동원되었고 일을 시킨 집들에서는 예전 결혼 잔치 집 못지않게 음식을 챙겨 품앗이 하러 온 일꾼들을 대접하며 한해

의 작황을 총결하고 축하했다. 그때가 아마 중국 조선족 마을의 전성기였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현성 백화상점으로 달려가 난생 처음 보는 텔레비전들을 한 대씩 안아오기도 했고 경운기며 탈곡기며 정미기 같은 재산 늘이기에 투자하는 집들도 속속 늘어났다.

그러나 그 반대인 집들도 가끔 있었다. 집체로 농사를 지을 땐 전간노동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가해서 연말에 분홍도 남보다 더 많이 타 쓰던 사람들이 웬 영문인지 일머리를 틀줄 몰라 농사철을 놓치는가 하면 살림살이에 구멍이 생겨 장리 돈을 꾸 쓰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나면 웬만해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고 년년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생활을 살았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집체로 농사짓던 때를 그리워하며 호도거리를 부정하기도 했으나 절대 대부분 사람들은 호도거리야말로 영명한 결책이라며 기뻐했다.

우리 집도 한 헥타르 남짓한 논을 부여받고 논농사를 시작했는데 애초 마을사람들은 한뼉 교원사업만 해온 우리아버지가 논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을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학전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별로 우려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우리 집 논농사는 작황이 괜찮았다. 벼를 수매하던 날 아버지는 향 공소점에 가서 14인치짜리 흑백텔레비전을 사왔다. 후에 색 텔레비전을 사들이면서 그 텔레비전은 고물처럼 곳간 궂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궂 속에만 박혀있던 것을 작년에 북조선 삼촌께서 가져갔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도 없다며 못내 기뻐하는 눈치였다.

북한에서 온 손님

고향이 함경도인 우리는 북한에 친척들이 여러 집 있다. 아버지의 큰집이 있고 이모외할머니도 아직 생전이시며 작은 큰아버지의 만아들과 큰 큰아버지의 외동딸도 다 그곳에 살고 있다. 형편이 닿으면 모두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 떨레가 하도 많아서 몸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줄 뿐 구태여 놀러 오십사하고 초청해 들일만큼 내 주머니사정은 여의치를 았다. 내가 한 회답편지를 빌미로 나에겐 삼촌뻘 되는 분이 지난 7월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다. 구리빛 얼굴을 한 삼촌은 한뼉 살뻘 걱정은 안하셔도 될 만큼 몸이 몹시 강말라있었다. 삼촌이 북한에서 가져 온 것은 김일성장군의 초상마크와 마른 미역 한 박스와 들키면 목이 날아날 각오를 하고 바지허리춤 안단에 감추어가지고 온 사람 찾는 주소지였다. 북한 돈 천삼백 원을 주고 일부러 샀다는 김일성주석 마크를 삼촌은 나에게 선물로 내어놓았다. 해변가에 살고 있는 덕에 그래도 아이들이 바지락 같은 것을 주어들여 생활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는 삼촌이 가져온 미역은 물에 불려보니 보관이 잘못되었던 탓인지 거의 썩어 문드러져있었다. 해변가에 살아서 그나마 해산물만은 마음대로 먹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 고기배가 바다로 출항을 못해 바다를 끼고 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삼촌이 생사를 무릎쓰고 감춰가지고 온 것은 후처가 데리고 들어온 의붓아들애의 할아버지, 즉 한국에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정홍염이라는 분의 주소였다. 찾는 당사자가 꽤 잘나가는 채소농장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하든 불

쌍한 의붓아들애에게 핏줄을 찾아주어야겠다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후에 ‘서울시 강서구 당화동 572-8호 기상관측소 북송아빠트’ 라고 쓰여 있는 그곳으로 편지를 띄워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답장이 왔다.

한 달간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마른 장작개비같이 말라있던 삼촌의 몸이 일기 시작했다. 복부가 앞으로 튀어 나오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다. 옷이며 기물이며 주는 대로 어느 한 가지 마다치 않고 받아 챙기는 삼촌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우직해 보이기도 했다. 아들이 타던 롤라스케이트를 내어 놓으며 가져가겠는가고 물었더니 평양시 내의 아이들이나 탈수 있는 것을 이제 손주 녀석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못내 기뻐하셨다. 여기저기서 모아온 헌옷가지들까지 합쳐 삼촌이 가져갈 물건이 자그만치 열세 짝이 장만 되었다. 된장이며 고추장 아울러 다 가져갔다는 이웃집 북한손님에 비기면 우리삼촌이 가져가는 것은 보잘것없었지만 신의주 세관까지 우송요금만도 인민페 600여 원이 나왔다.

“조국이 곤난하니 어찌겠니? 이제 우리도 차차 좋아질거야.”

삼촌은 떠나면서 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며칠 전에 삼촌 쪽에서 답장이 왔다. 중국에서 가져간 옷가지들을 깨끗이 씻어 가족들이 나누어 입기도 하고 많이는 팔기도 하는 덕에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고 동네에선 자기네를 중국집이라고 불러준단다. 그러면서 편지 뒷장에 덧붙인 말 한마디가 짝하다.

“그 후에도 쏘련 소식은 없니? 의붓아들이지만 피붙이를 찾아주고 싶구나!”

한국친척을 찾는다면 검문에 걸릴까봐 구태여 쏘련이라고 말을 바꾼 그 지혜가 안쓰럽다. 혈육을 찾는데 왜서 아직도 ‘쏘련’은 되고 ‘한국’은 안 될까?

한족 사람들 속에서

남들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잘도 들락거리는 한국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다. 장인과 장모님이 한국국적 소지자이시니 힘을 좀 들이면 친척방문을 빌미로 못갈 곳도 아니지만 아직 여건상 그럴 계제가 못된다. 첫째, 아내 대신 아들애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야하기에 집을 비울 수 없고 둘째, 나의 교원직업을 누구처럼 중도이폐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향촌 소학교의 민영교원으로부터 시 교육국 산하의 교원 연수부 교사로 발전되기까지 나는 민족교육을 위한 길에서 옆도 보지 않고 내쳐 한우물만 파왔다. 뒤늦게 그에 걸맞는 자격증을 따고 학식을 쌓기 위해 나는 장장 7년이란 긴 세월 통신대 공부를 견지해왔다. 통신대 공부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교육계에 직급제도가 실시 되었다. 사업을 시작한 연한과 근간의 사업 업적 그리고 소지한 학력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 중국교육계의 직급제도는 그 직함에 따라 받는 월급도 다르다. 지금 나의 직함은 고급교원이다. 그런데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배꼽에 가시가 든다고 내가 고급교원 직함을 딴 그해부터 명분만 고급교원이고 고급교원이 받아야할 월급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고급직함을 소지한 교원이 예산을 초과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에

곤란해서 경제적 대우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유의 고급 직함을 소지한 노교원들이 본직을 퇴직하고 교직을 나가야 그 수효만큼 아래 사람을 충당하는 명액제가 실시된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나처럼 직함은 땀지만 그에 상응한 경제적 대우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이 여럿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퇴직할 교원의 수효만 세고 있다.

내 앞순위에 있던 교원들이 드디어 해결이 나고 고대하고 고대하던 내 차례가 왔나싶었는데 어느 날 한쪽 교원실의 왕소령이 문득 나를 찾아왔다. 바로 내 다음 순위 후보인 그녀는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나의 다음 순위이지만 올해 본교로 조달되는 고급교원 경제 대우권은 자기가 가져야겠다고 에두르지도 않고 직설했다. 그 이유는 올해에 본교로 조달될 명액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을 자기가 뺄을 써서 사적으로 얻어 온 것이기에 나더러 순위를 양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내가 한쪽이 아닌 조선족 교원이란 것 빼고 사업 연한으로 따지나 사업 실적으로 따지나 어느 모로 보아도 내가 그녀 다음 순위로 따돌려야할 이유가 없는데 무조건 자기에게 넘기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 학교지도부의 사업 업적 평점에서도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서 내가 물려서야한단 말인가? 나는 교장사무실문을 노크했다. 일의 자초지종을 물으며 그 불합리성을 역설했더니 교장이란 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다. 남이 사적인 경로로 얻어온 밥그릇을 넘보지 말고 물려서라는 것이었다. 얻어온 밥그릇이라니? 그렇다면 왕씨가 정말로 자기의 개인 관계로 당초에 없는 명액을 만들어 왔단 말인가? 일교지장이 그렇다고 하는데야 믿지 않을 수도 없었으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하고 지켜보는 일도 일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사사로이 좌우지될 만큼 중국교육계가 무원칙하단 말인가?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의 뒷문거래 수단은 세인이 놀랄지경으로 야비하고 음험하고 그리고 창궐하다. 부패척결을 표방한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그 기세는 누그러드는 대신 더더욱 노골적이고 더더욱 일반화 되어있다.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이제 그런 현상에 웬만한 면역력이 생겨 별로 개의치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눈치다. 뺨이 있는 놈은 잘살고 뺨이 없는 놈은 내쳐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 어떻게 굶어모은 돈인지 월급수준 이상의 돈 치레를 하고 다니는 왕씨가 경제적으로 떨어져 뺨을 못쓸리는 없다. 뺨뺨스레 자기의 이유를 역설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아쉬움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꼴이 서글퍼서 절로 웃음이 나왔다.

이튿날 전교 교원대회에서 교장은 공공연히 올해 명액은 왕씨가 사적으로 얻어 온 것이기에 파격적으로 왕씨에게 돌리며 순위를 양보한 나의 배포(?)를 한바탕 공치사하는 것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 치하가 오히려 내 얼굴에 모닥불이 되어 들쭉거렸다. 사람을 이렇게 우롱해도 된단 말인가? 원칙을 무시하고 양심을 팔고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우직스런 족속들 속에서 내가 여태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회의장이 잠시 술렁이는 것 같더니 그것도 잠깐 이었다. 한쪽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일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를 놓거나 수수방관하는 고약한 내면이 있다. 아니 다음번의 화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해도 금번의 화만 내 발등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이기적이고 협애

한 면이 있다. 멀리로는 2차대전 때 두 명의 일본 군인이 십여 명의 중국 사람을 한 집안에 가두어놓고 하나하나 끌어내어 목을 쳐 죽여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하기만 할뿐 어느 한사람도 대항해 나서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고 가까이로는 백주에 길거리에서 망나니들이 여자 하나를 윤간을 하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말리기는커녕 멀거니 서서 구경을 했다는 얘기가 요즘도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내가 그 다음번 차례에 목을 잘리우게 생겼어도 이번에 잘리우지 않으면 참을 수 있고 욕을 보는 여자가 내 여자 내 동생 내 딸이 아니기에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참을성은 수천 년 봉건통치에 짓눌려서 생성된 것이라고 보기보다 피 속에 그런 참을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라고 본다. 이런 민족기질이 부패를 권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부조리를 보고는 절대 참지 못하는 우리 조선사람 특유의 성정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것만은 불보듯 뻔하다. 그들은 그러는 우리를 보고 ‘쓸데없는 일에 빠치기 좋아 한다’며 뒤에서 쑥덕거린다. 자기 이익과 관여되면 쓸데 있는 일이고 자기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일’로 보는 그 사유방식이 바로 우리 조선 사람과 한족 사람이 제일 크게 다른 점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인맥문화는 참말로 대단하다. 아무렴 ‘친구 하나 생기면 길 하나가 더 생긴다’는 속담도 생겼을까? 중국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는 아래의 레에서 여실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명문 대학생을 많이 배출해 내는 원근에서 명성이 뜨르르한 시 중점 고등학교에 공부성적은 밑바닥인 한 학생이 거금

을 내지르고 입학하기를 소원해서 그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졸업 후 대학문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어이 입학을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고 물으니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대답했다. 자기 자신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같은 학급을 다닌 다른 학생들은 분명 명문대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명문대를 나오면 분명 높은 관직에 오를 사람들이는데 그때면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한 자기를 홀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인맥을 쌓으면 그들 못지않은 실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역설을 했다. 투자치고는 참말로 황당한 투자설 같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한 설계도이다. 중국 사람들은 인맥 중에서도 동창생이란 관계를 특별히 중히 여기고 보존하려 애쓴다. 그들 사이에는 법과 질서와 원칙은 발붙일 틈이 없다. 그 바람에 법제는 호지부지하고 원칙은 지키는 사람이 더 가소로워 보이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타격을 받고 손해를 본다. 그런 인맥 때문에 죄가 있어도 벌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지켜지질 않는다. 거미줄처럼 얽기설기 얽힌 인맥관계는 법과 질서와 원칙을 꿈꿈 엮어매어 덕이 없어도 매도되지 않고 죄가 있어도 벌할 수 없으며 법이 있어도 행해지지 못하는 관행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습게도 나와 왕소령의 일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누군가 왕씨가 사사로이 인맥관계를 이용하여 명액을 발권 받았다는 내용의 낙명신을 시교육국 관계부문으로 올려 보냈단다. 분명 이번일의 부정당성에 대하여 비분해한 사람이 나 본인 말고도 또 한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족들 속에도 그런 사상과 그런 담량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기도 했다. 교장이 나를 찾았다. 분명 순위를

내여 주는데 동의를 하고는 왜 익명성을 썼냐고, 이번 기회를 넘기면 다음 해는 당신 차례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에 왜 방간을 놓았느냐는 태도였다. 확실히 인맥으로 만들어진 명액이라면 뺨이 없는 내가 빼앗아 올수도 없는 일이니 왕씨가 가지든 말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에게 속해야할 몫인데. 나는 그 내면에 있는 시비를 알고 싶었다. 결국 시교육국에서 조사단이 내려와 조사한데 의하면 왕씨가 남의 학교로 넘어갈 명액을 사사로이 빼내온 것임이 판명 났다. 그래서 왕씨도 나도 그 명액을 누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일은 한 단락 끝이 나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기회는 그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모두 아쉬움으로 남아버렸다. 한족동료들은 아마 아직도 내가 그 익명성의 주인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난 괜찮다. 나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마 같이 분노해준 동지가 있다는 사실은 한족사람들 속에도 정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며 양심을 어기고 사리사욕으로 원칙을 어기고 도덕이 부패한 짓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왕씨같은 일당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떳떳하고 시종 마음이 편하다.

마작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한족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며 볼라니 왕소령처럼 말은바 업무는 뒷전이고 마작이나 놀면서 사회교제와 인맥관계 만들기에만 신경을 도사리는 철면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업무능력은 밑바닥이지만 친분을 쌓고 인맥을 늘이는 수완은 고단수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그들은 그런 관계망을 통해 절대 밀려나지 않는다. 대신 뺨이 없고 아부할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결국 희생양이 되고 만다. 중국 사람들은 전국 인민이 다 마작을 놀 줄 안다. 남자도 놀고 여자도 놀고 늙은이도 놀고 젊은이도 논다. 집안에서 노는가 하면 직장에서도 놀고 실내에서만 노는가 하면 길거리 골목에서도 논다. 여하튼 넷만 모였다하면 마작판을 펼치는데 말 그대로 로소동락이다. 136개나 되는 마작 쪽을 다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중의 일부를 빼버리고 나머지쪽만 가지고 노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방에 따라 노는 방법도 모두 안이하지만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다. 마작쪽을 네 묶으로 나누어 무저 놓고 매 사람이 13쪽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돌아가며 남은 무지에서 한 장 씩 빼내어 자기 손 안에 있는 쪽과 한 쪽씩 엮바꾸어 가며 조합을 이루어 가는데 누가 먼저 끝내면 이긴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 것이다. 세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이기기에 한번 이겨도 들어오는 돈은 제법 톡톡하다. 일부러 저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줄 수도 있다. 셋이서 짜고 들면 남은 한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것도 순식간이고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대방에게 저주면서 대방을 호뭇하게 만들어놓고 이때다 싶을 때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킨다.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을 술친구라고 한다면 함께 마작을 놀아주는 사람은 마작친구라고 한다. 마작에 인이 박히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때시격도 잊고 놀기에 아낙들이 배우면 가정이 파탄되고 남정들이 놀면 기둥뿌리를 뽑는게 바로 마작이다. 시간이 아까워 밥도 안 시켜먹고 밤에 낮을

이어 노는 게 마작이다. 그래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마작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벌였다. 마작을 놀 장소를 제공해주고 밥을 만들어 먹여주고 커피까지 풀어 대령시키고는 마작꾼 매 사람에게서 봉사비에 장소비까지 받는다. 그들이 버는 하루수입은 웬만한 월급쟁이 뺨칠 정도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그렇게 마작판을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수단이 요즘 이곳 사람들 속에서 제일 잘나가는 장사업종이다.

물론 조선족들도 이젠 마작을 잘 한다. 옛날엔 술좌석이 파하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몸으로 흥을 풀며 즐기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마작을 시작하더니 이젠 중국사람 물렸거라 할 정도로 고단수들이 되었다. 아직 마작에 입문하지 못한 나를 두고 그들은 그렇게 재미있는 마작도 안 놀고 무슨 멋에 사느냐고 묻곤 한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냐고 되물었더니 예전에 놀던 화투놀이가 푸성귀 맛이라면 마작놀이는 잘 구워진 삼겹살을 먹는 맛이라고 했다.

이상한 사람들

집체로 농사를 지을 때 한족마을에도 가끔 조선족이 한두 집씩 섞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 한족들은 수전 농사를 지을 줄 몰랐기에 조선 사람들을 청해다가 특별대우를 해주며 기술자로 중용하곤 했다. 집체로 일을 하고 가을에 가서 똑같이 나누어 먹던 때라 작황의 여하를 불문하고 가을이 되면 한족 사람들은 저녁마다 부대를 하나씩 들고 곡식 흙치러 들판으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옥수수 이삭이며 콩단이며 낮에

금방 배여 세워두었던 벼단 아올러 안 가져 오는 것이 없었는데 한마을에 사는 조선사람 보고 같이 훔치러 가자고 권장을 하더라. 그래서 “그래서야 되겠냐?”며 아니 가겠다고 했더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하며 자기 쪽에서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더라.

개인영농이 시작된 후에는 그와 같이 내여 놓고 훔치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곳 한쪽들은 ‘가져가기’ 행각을 그리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다. 내가 출근하는 길가 유보도에는 원래 긴 벤치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1년도 못가 그 자취마저 간곳없이 사라졌다. 하룻밤 자고나면 벤치를 고정시킨 나사가 풀려있고 또 하룻밤 자고나면 나무 오리대가 뜯겨나가 있고 또 하루 밤 자고나면 다리를 이룬 쇠붙이마저 나무 꺾듯 꺾어가 버린다. 소풍 나온 노인네들이 다리쉽하기에 안성맞춤하던 벤치가 그렇게 야금야금 다 뜯겨나가 이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도 추궁하는 사람도 없다. 임자가 있는 물건도 눈길 한번 돌리는 사이 도적을 맞는 판이니 공공장소에 비치된 임자 없는 시설물이 성할 리가 있겠는가? 고철 값이 오르면서 철로 된 것이 남아나질 않는다. 아파트 벽체에 붙은 낙수 물통도 뜯어가고 고압선 철택 기둥에 박힌 나사못들도 다 뽑아다 폐철로 팔아먹는다. 그뿐인가 하면 길거리 하수도 두껍마져 남기지 않고 뜯어내어 팔아치워 이 시내의 하수도 뚜껑은 저만큼 소코뚜레 꿰듯 와이어 줄로 묶어두어야 한다.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고 나 개인의 잇속만 채우는 이런 비도덕적인 현상이 언제가야 근절될는지 모를 일이다. 체면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의 이와 같은 습성은 수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누적된 고

질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재해가 잦은 혼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로서 자가지책을 찾아야했던 생활방식의 누습이 이젠 앙금처럼 피 속에 남아 버린 것이 아닐까? 사회적 복지가 부진하고 빈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진 것 없고 권력 없고 능력 없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적질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있을 리 없다.

스승

오늘날까지 한족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해오면서 나는 그들의 몸에서 많은 결점을 발견했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반 한족적인 것은 아니다. 사골국은 끓일수록 진한 국물이 우러나듯이 알고 보면 한족사람은 깊이 사귈수록 진국인 데가 있다. 남에게서 하나를 받으면 으레 하나를 되돌려 준다. 남에게서 입은 덕은 꼭 갚는 것이 한족이고 남의 결점을 내어 놓고 폄하하지 않는다. 쉽게 남을 폄하하지 않는 그 점은 우점이기도 하고 결점이 되기도 한다. 조선족은 남의 흥을 보기 좋아한다. 이것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남의 흥을 말할 수 있기에 자기는 그런 흥잡힐 일을 좀해서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족들은 좀해서 남을 폄하하지 않기에 자기가 하는 일이 남에게서 폄 받을 일인가 아닌가를 우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 조선 사람은 체면을 중히 여기지만 한족들은 체면보다 체면을 내동댕이치면서라도 내실을 다진다. 겉으로 보기엔 얼른 가까이 다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일단 가까워만지면 또 화롯불처럼 뜨끈하고 한번 사귀 사람은 좀처럼 내치지 않는 것이 한족들이다. 우리 조선 사람을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라고 하면 한족사람들은 늦게 끓어오르고 끓었다하면 좀해서 식지 않는 돌솥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 나에게는 한족이지만 사람 좋은 스승이 한 분 계셨다.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에게 끌려 다니며 투쟁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후에 알고 보니 지니고 있는 재간이 많았고 박식한 분이셨다. 사춘기 때부터 나에게는도 황홀한 꿈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바이올린수가 되는 것이었다. 영화에서 멋진 양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훔날리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서양 사람들을 본 후부터 나는 바이올린수를 동경했다. 그러나 당시 바이올린은 파는 곳도 없었고 그것을 배워줄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곁에 없었다. 한족 중학교로 전학해서 공부하면서 몰라니 물리과를 담당한 사씨 성을 가진 선생님이 가끔 바이올린 케이스를 매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처럼 반가웠다. 나는 염치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선생님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독서무용론이 왜도하고 교원에게 교원대접을 잘 하지 않던 세월에 자기를 깎듯이 공경하는 학생에게 감동을 먹었는지 그분은 흔쾌히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만 나면 그분의 교무실로 찾아갔고 어떤 때는 아주 사재까지 찾아가 바이올린 연주법을 배우기도 했다. 지법으로 부터 악보를 보는 법까지 체계적으로는 아니었으나 나는 바이올린 연주법을 학비도 내지 않고 공으로 배웠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의 성의

가 고마워 나는 집에서 색다른 음식을 하면 잊지 않고 가져다주곤 했다. 엿이며 떡이며 김치며 하여간 한족들이 먹어볼 수 없는 우리음식들을 그분은 아주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콩고물을 입힌 찰떡이었다. 그런 것을 가져다 줄때마다 그분은 정말로 감격해했다. 그 외에도 그분은 손재주가 좋았는데 어느 날은 바이올린을 배우러 간 나에게 바이올린 대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신비하게 말했다. 영화는 영화관에 가야 볼 수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니 상자처럼 생긴 것을 펼쳐놓고 전기코드를 꽂는 것이었다. 순간 16절지 크기의 유리면에 그림이 언뜻언뜻 나타나고 라디오처럼 말까지 새어나왔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텔레비전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구경했다. 어디서 주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새것은 아닌 중고품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박래품이 아니었나싶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머리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고 입에서는 들어도 아리송한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더라면 필시 인재로 쓰였을 그런 분들이 그때 아쉽게도 많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재간과 지식을 갖고 있던 그분은 몇 년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 나에겐 참으로 좋은 스승이었는데.

세비로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의상에 무척 신경을 썼었던 것 같다. 그중에

서도 서양 사람들이 입는 세비로가 입고 싶어 안달을 떨었다. 흰 샤쓰에 넥타이를 매고 깃을 한껏 젖힌 세비로를 받쳐 입은 맵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림새로 내 눈에 비쳐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은 누구도 세비로를 입지 않았다. 일색으로 중산복이 아니면 군복이 고작이었다. 어디가서 세비로를 만들어 입을 순 없을까? 나는 진거리에 있는 복장점을 일일이 찾아가 세비로를 만들 줄 아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느 한 집도 만들 줄 안다는 집이 없었다. 모두가 도리머리를 저으며 오히려 남은 입지도 않는 그런 옷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적극적으로 수소문한 끝에 북조선 평양에는 세비로가 있다는 사실을 귀동냥해 듣게 되었다. 마침 마을에는 북조선 출입을 하는 여인 한 분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번 행차 땐 잊지 말고 꼭 세비로 한 벌을 사다달라고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다. 얼마 후 그 여인은 또 북조선을 다녀왔고 과연 나의 부탁대로 세비로를 두건지 얻어왔다. 북조선에서는 그런 것을 파는 게 아니라 군관인 자기 오빠가 나라로부터 분배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품이며 길이며 어찌구러 내 몸에 딱 들어맞아 나는 마을에서 맨 먼저 세비로를 입은 멋쟁이 총각이 되었다. 그것이 1978년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일이다.

지금 나에겐 양복과 넥타이가 여러 벌 있다. 그러나 그때 입었던 세비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작년에 북조선에 계시는 삼촌께서 친척방문차 놀러오셨다. 돌아갈 때 양복 한 벌을 맞추어 드렸더니 집으로 돌아가서 곧 치르게 되는 환갑연에 입겠다며 기어이 입지 않고 짐짝에다 정히 넣어가셨다. 그런데 환갑연때 찍은 사진을 보내 온 걸보

니 그 양복대신 중국 사람들처럼 중산복 차림이었고 윗호주머니 뚜껑엔 장군님의 초상 마크가 꽃혀있었다. 그곳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없어 혼자 먼저 입으려니 쑥스럽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옛날엔 우리 쪽으로 보내 줄 수 있었을 만큼 가지고 있던 옷마저 무언중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사드린 사진기로 찍었다는 가족사진 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얼굴들은 채굴을 하다 나온 사람들처럼 거머죽죽하였고 그 옷매무시하며 옆으로 비껴든 집안 살림형편은 이곳의 가장 궁핍한 시골 한족들 형편보다도 못하면 못했지 나는 데가 없어보였다. 삶은 살수록 나아져야 마땅한 게 아닌가?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그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들일까?

셋방살이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이 열 살을 먹도록 우린 쪽 셋방살이를 했다. 스팀이 있는 집은 방세가 비싸서 아내와 나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여러 날 수소문한 끝에 남의 집 행랑채를 얻었다. 아내 혼자 들어서면 딱 차는 정주칸 하나에 세 식구가 누우면 딱 맞는 구들 하나가 전부인 셋집은 창고로 지었던 집을 비워서 세를 낸 집이라 바람벽이 두텁지 않아 엄동설한에는 온 집안에 성애가 들어왔고 정주에 놓은 물독에는 자고나면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웠다. 그래서 구들에 불을 치때는 것으로 냉기를 막는 수밖에 없었는데 저녁에

자리를 펴고 누우면 이부자리 밑은 요가 탈 정도로 지글지글 끓어올랐지만 이불 밖으로 내놓은 얼굴은 추워서 입김이 생겨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밤이면 아들에게는 늘 방한모를 씌워서 채우곤 했다. 그 바람에 아들에게는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 시내에서 맨 먼저 지어올린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우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아파트 생활은 우리에게겐 그림의 떡이었다. 내 평생에 저런 집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아파트는 고사하고 단층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따뜻한 집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갈마들었다.

1996년 가을 시 교육국에서는 전시 교육계통 가족만이 들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공문을 냈다. 집을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살 의향이 있는 개인은 먼저 자금을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120여 가구가 들 수 있는 7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층수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남들은 어디서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저마다 선불금을 가져다 바치고 층수를 고르느라 즐거운 고민을 하기도 했다.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격으로 그러는 그들의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제일 싼 것이라 해도 7만원 돈이 있어야 엄두를 내 볼 수 있었고 거기다 집안 장식까지 하려면 적어도 2,3만원은 더 있어야 했다. 중국에서 짓는 집들은 실내 장식을 일절 하지 않아 개인이 다시 자기 구미대로 장식을 해야 한다. 나와 아내의 월급을 한 푼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저금을 해도 5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저금이어서 부럽기는 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족들은 달랐다. 우리가 이밥에 고기반찬을 먹을 때 그들은

마른 빵이나 옥수수 죽 따위로 애태우며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 중국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경제수준을 짐작하기가 힘들다. 입지 않고 먹지 않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가 아들딸들을 장가보내고 집을 사주는 것이 그들의 평생 분투목표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락이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에 관건적인 시각엔 모두 돈뭉치를 끄집어 낼 수 있는데 그 돈뭉치도 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 구석이 아니면 덮고 자는 현 누더기 이불이 아니면 베고 자던 베개통에서 나온다. 우리의 사유로는 생각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곳 한족사람들은 해낸다. 그러나 우린 그들처럼 근검하지 못하다. 그러니 남들이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러는 그들을 그저 구경하고 있을 수밖에.

아쉽지만 부득이 그렇게 귀 막고 눈감고 보지 않고 살려고 작심하는 우리에게 삶은 짓궂은 장난을 걸어왔다. 뜬금없이 우리가 세들어 사는 집이 갑자기 철거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시 공안계통에서 가속사택을 짓는데 이듬해 봄 안으로 몽땅 집을 비우라는 통보문이 날아왔다. 주인집 가장 앞으로 날아온 통보문은 협상의 여지는 꼬물만치도 없는 명령에 가까운 것이었다. 보상은 쳐주긴 쳐준다는데 따져보니 그 돈으로는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집만한 걸 사기엔 어렵도 없는 어처구니도 없는 값이었다. 그해 겨울을 주인집에서는 어디 가서 다시 집을 사야하나 하고 고민했고 우리는 이제 또 어디 가서 셋집을 얻어야 하나 근심하며 그렇게 걱정 속에 보냈다. 해토가 되자 공안제복을 입은 자들이 안 나간다고,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냈고 중장비가 들이닥치며 종이 성냥갑 부수듯 게딱지같은 집들을 짓뭇개버리기 시작했다. 권력이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일장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시위나 언론집회는 자유라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쓰여 있긴 하지만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중국 사람들이 시위 하는 것을 종래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무력으로 들이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8대 조상까지 거들어 욕을 즉살나게 퍼부으면서도 날이 저물자 결국은 어디론가 다 이삿짐을 싣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장에게 그저 이렇게 쫓겨나고 말거냐고 물었더니 그럼 어찌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가? 싸울 대상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공안국 사람들인데 중국에서는 자고로 일개인이 칼자루 쥔 사람을 이겨낸 선례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방도를 빨리 구하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했다. 겨뤄보지도 않고 지고 이김을 손금 보듯 훤히 내다보고 있는 주인장을 보며 나는 다시 한 번 한족 사람들의 참을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난생 처음 피고가 되고

이렇게 된 바에는 하는 수 없이 나도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대출을 받아 이듬해 교육계통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사는 주제라 나는 일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실내장식을 거의 손수 했다. 출근을 하는 한편 여가를 이용하여 내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될수록이면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고 꼭 남의 손이 필요한 부분만 장식일꾼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재료도 가장 싼 것으로 골라 사들였고 아무튼 예산을 초월하지 않기 위해 시내 장식재료 상점을 서케

훔듯 훔고 다녔다. 실내장식이 끝나 정식으로 입주를 하던 날 아들은 넓은 실내를 올라뛰고 내리뛰며 좋아했다. 겨울이면 모자를 쓰고 자던 역사가 종말되었고 좁은 방에서 아이가 숙제를 할 때면 텔레비전 한번 마음 놓고 볼 수 없어 불편하던 과거에 종지부를 찍게되어 나도 아내도 기쁘기는 매일반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천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다. 제일 싼값을 고르다하니 맨 위층이 차례졌는데 시공측에서 철판지붕을 올리지 않고 기름종이로 대충 마무리했던 고로 기름종이들이 햇빛에 풍화가 되면서 비가 섰던 것이다. 알고 보니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맨 위층을 산 열여덟 호가 모두 같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집단 명의로 아파트 관리소에 민원을 올렸다. 그러자 내려온 답복은 자금이 달려 지붕을 올리지 않은 것이 탈이 생겼으니 이제라도 철판지붕을 올려야한다는 것이었다. 자금은 가가호호에서 거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아래층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다. 지붕이 새는 것은 자기네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질이 있어도 시공사측의 문제이고 비가 샌다해도 자기네 집 천정은 무탈하니 자기들은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발딱 나누웠다. 이런 정황 하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7층 사람들이 먼저 돈을 선대하고 수건공사가 끝난 뒤 아래층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돈을 거두어들일겠다고 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한집에서 인민폐 3천원 씩 거두어 관리소에 넘겼다.

순식간에 철판 지붕이 완공 되었다. 제대로 한다면 응당 아파트를 지을때 다 완성되어 있어야 할 지붕이 결여되어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애초 아파트 구입자들이 선대한 돈으로 지붕까지 올리기엔 태부족이었다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자기들의 이유를 역설했다. 지붕뿐만 아니라 마당도 그랬다. 추운 지방이어서 일정한 깊이로 모래를 다져넣고 콘크리트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과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그 절차를 대충 해치워 겨울이면 언 땅이 우로 솟구치며 콘크리트가 갈라져 마당 전체가 뿔자리처럼 울퉁불퉁하다. 이와같이 사후에 불미한 곳이 생겨 해결하려면 중국에서는 아주 힘이 든다. 서로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밀막아버리는가 하면 기소대상이 아주 자취를 감추어버려 어디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된다. 총적으로 이와 같은 한탕주의를 근절시킬만한 국가법이 미진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손해 보는 건 애매한 사용자들 뿐이다. 민원이 있어 소송을 하려해도 피고가 출두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버려 시간만 끌다가 결국 소송을 다니기에 지친 쪽이 제꼭지에 물앓고마는 경우가 많다.

추가공사 후 빗물은 새지 않아 걱정은 덜었지만 추후에 아래층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인다던 대용 공사비용은 그럭저럭 땡 구워먹은 소식이 되어 버렸다. 결과를 추궁하러 갈 때마다 “뭐가 바빠서? 기다리시오.”란 말로 나의 방문을 일축해버리는 아파트 관리소다. 중국 사람들은 정부관원에서 일반 사무소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오.”, “다음에 오시오.”, “천천히 연구해 봅시다.”란 말을 너무나 예사롭게 쓴다. 무슨 일이나 그 자리에서 단번에 해결되는 법이 절대 없다. 웬만한 인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중국의 백성들은 그때위 사업 작풍에 노하지도 않고 잘도 참고 산다. 노하지도 않고 또 노해서도 안 된다. 노했다

간 자기만 상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안다. 성질 급한 사람 뇌출혈로 쓰러지기 십상인 것이 중국공무원들의 사업태도이고 고질화된 사업작풍이다.

공사비용 문제는 2년을 끌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같은 층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더러는 이미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 버려 주인이 바뀐 상태라 태무심했고 나머지 집들에서는 돈 돌려받기를 포기했다며 더 나서지도 않고 더 찾아다니지도 않겠다고 했다. 결국 공사비용문제로 쫓아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것이다. 참으려고 해도 감당이 되지 않았고 우롱당한 기분이 되어 도저히 그대로 물러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해 겨울 나는 고의로 난방요금을 상납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수차례 전단지가 날아왔고 나중엔 집에 까지 찾아와 얼굴을 붉히고 억양을 높이기ye 이르렀다. 나는 내가 선 대한 수건공사비용이 있으니 그것으로 탕감하라고 하며 그들의 방문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법원으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난방요금 체불로 아파트 관리소가 나를 기소했다는 것이었다. 법원 문이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히 살아온 나에게 날아온 고지서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감을 느꼈다. 내가 중화 인민공화국 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약속을 어기고 구렁이알 같은 내 돈을 그렇게 뚝 댕아먹은 쪽은 합법이란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지정된 시간에 법정에 들어서보니 기소된 사람은 과연 나 혼자 뿐이었다. 과태료가 겁이 났던지 아니면 맥이 진했던지 다른 집들에서는 난방요금을 제

시간에 다 지불했던 것이다. 몸집보다도 더 험렁한 법관 복을 입고 쥐 잡아 먹은 것처럼 두꺼운 입술에 입술연지를 가득 처바른 촌티가 줄줄 흐르는 여법관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공사비 부담문제와 난방요금 체불문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로서 공사비용 문제는 관리소와 피고인간에 해결해야할 사적인 문제이고 난방요금 체불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어겼기에 과태료와 체불된 난방요금을 합쳐 당장 원고측에 납부하란다. 3일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것이나?. 나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여법관의 쥐 잡아먹은 것 같은 입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어찌랴, 법관이 중국 국법을 나에게 가르치는 데야. 세 들어 살 때 셋집주인장이 하던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중국에서 일개인이 어느 집단을 기소해 이기는걸 보았소?”

아버지

18세에 교육 사업을 시작해서 48세 한창 나이에 퇴직을 하기까지 아버지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의 대부분을 오로지 조선족 교육 사업에 바쳐왔다. 상급의 지시대로 집과 멀리 떨어진 지방 분교로 발령이 되어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학교청사를 수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학교다운 학교로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이바지해왔다. 1970년대 교육계가 제일 망가졌을 때 상급에서 조달되는 학교운영비용은 거의 제로였다. 그 국면을 타개해 보려고 아버지는 생

산대와 연계하여 가둑 나무가 무성한 황무지를 도급받은 후 학생들을 동원하여 나무뿌리를 캐여내고 한 헥타르 남짓한 기름진 논밭을 일구어내는데 성공했다. 농번기에는 고급학년 학생들을 동원하고 생산기술은 노동들에게서 학습해 가면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학교살림은 눈에 띄이게 윤택해졌고 학생들은 학잡비를 면제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업능력을 보아낸 향정부에서는 아버지를 향정부로 소환시켜 향민족간부로 등용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한족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고 종당엔 집이 있는 마을학교로 다시 내려와 교장직을 연임하다가 퇴직을 맞이했다. 48세, 남자에게 있어서 48세는 청춘이었지만 상급에서는 퇴직명단에 넣어버렸다.

퇴직 후에도 아버지는 논농사를 10여 년간 지었다. 내가 상급학교로 발령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따라 시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할일이 없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나의 알선으로 자그마한 인쇄공장의 경비원으로 다시 취직이 된 날 아버지는 드디어 할일이 생긴 것에 그렇듯 기뻐했다. 크나 작으나 일개 학교교장으로 향정부 간부로 전전했던 사람이 남의 집 경비를 설 수 있을까 나의 의문이었지만 아버지는 별 군말 없이 일을 기꺼이 맡으셨다. 남을 호령하던 자리에서 남의 호령을 받는 처지로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쓸쓸한 것이어서 생의 황혼녘이 더욱더 구슬프게 느껴지기도 했다. 경비로 취직한지 갓 두 달을 넘기던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전 화벨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더니 인쇄공장 장장님의 급속한 목소리가 전해왔다.

“빨리 와보세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나는 수화기를 놓기 바쁘게 신발도 제대로 켤 사이 없이 아버지가 일하는 인쇄공장 경비실로 달려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리뼈나 발목뼈 같은 데를 뼈긋한 정도겠지, 그렇게 정정하시던 아버지가 설마 무슨 탈이야 있을라구하며 자아위안을 하며 걸어갔다. 아버지는 경비실 침상 위에 비스듬히 누워계셨다. 식은땀이 이마 전에 흥건히 고여 있었고 두 눈은 지그시 감고 계셨다. 일이 있어 마침 경비실에 들렀던 직원이 일의 자초지종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분이 약을 찾아 먹어야겠다며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 앞으로 다가가는가 싶더니 케문을 미처 열지도 못한 채 밀둥 잘린 통나무처럼 허공 옆으로 쓰러지더라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부축해 일으켜 침상위에 누여놓고 장장님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눈이 아프구나, 눈아…”

아버지는 지그시 감고 있던 눈을 간신히 뜨고 나를 쳐다보며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아주 똑똑했다. 갑자기 펼쳐진 정경에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그 어떤 결단을 낼 수도 없었다. 눈에 실리는 고통을 호소하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꾸역꾸역 구토를 시작했다. 미처 소화도 안 된 음식물을 핏덩이와 함께 처치할 여가도 주지 않고 쏟아냈다. 내가 경황없이 서두르는 사이 장장님과 사모님이 어느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들였다. 아버지의 상체를 품에 안은 채 택시 뒷자리에 올라 병원으로 가면서도 나는 사태의 엄중성을 다는 몰랐다. 한껏 구부린 다리가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 내말에 응기를 하는 말이 처음보다 많이 어눌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도 말이다.

목숨이 경각을 다투는 환자가 도착했는데도 병원 쪽에서는 서두르

는 기미가 전혀 없이 마치 올 것이 온 것처럼 예사로운 모습들이었다. 그 태도들은 마치 공항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나오는 짐짝 기다리는 손님들 같았다. 내가 보기에다 빨리 응급실로 옮겨가야 할 것 같은데 잠을 자다 나왔는지 입이 켜기게 하품을 하며 당직의사는 먼저 뇌 CT를 받으라며 처방지에다 뭔가 길게 갈겨쓰고 있었다. 게다가 CT실의사는 진찰요금 지불 영수증이 오기를 끝내 기다려서야 CT실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나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환자의 발과 당신의 신발위에 비닐봉지를 꿰시오.”

비닐봉지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짜증 섞인 얼굴로 실내 한쪽을 톡 찌했다. 먼지가 일지 않도록 위생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비닐주머니를 꿰자 이번엔 다시 나에게 지시를 했다.

“환자를 드시오. 들어서 저 침상에 올리시오.”

그리고는 막간 뒤로 돌아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계속 잔소리 같은 지시를 주었다. 널판위에 누인 아버지의 몸이 동굴 속처럼 생긴 기기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눈물이 주체 할 수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갈마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다.

“됐소. 환자를 들어내 가시오.”

촬영을 맡은 의사가 소리를 쳐서야 나는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의 몸을 일으켜 안고 CT실을 나왔다. 당직의사는 CT 결과는 나중에 나오니까 우선 뒤채 병동으로 옮기라고 했다. 뒤채 병동이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병명은 뇌출혈 같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

응한 응급처치 한건 해주지 않은 채 입원수속부터 하라고 재촉했다. 왜서 응급실에 들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응급실은 의외의 부상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구루마를 빌려야 되체로 갈 수 있겠는데 구루마를 넣어둔 창고문은 잠겨져 있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 한참 찾아 헤메는데도 의사들은 자기완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다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200미터가량 동떨어져있는 되체로 아버지를 태운 구루마를 밀고 가는 그 사이가 나에겐 삼추같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구루마 위에 누운 채 알아듣지도 못할 혀아래 소리로 연신 고통을 호소했다. 가만히 들으니 변소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았다. 움직이면 파열된 혈관이 더 손상 같까봐 움직이지 못하게 여럿이 우격다짐으로 말려도 어디서 힘이 그렇게 솟는지 아버지는 그냥 몸을 되체며 자기를 놔달라고 애걸했다.

번다한 입원수속이 끝나고 6명이 같이 쓰는 병실로 들어가 점적주사를 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곧 혼수상태에 빠져들어 갔다. 술을 과음 한 후 잠을 주무시는 모습과 흡사했는데 별스레 기도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나왔다. 점적주사약이 빛을 보아서는 안되는 약이라며 간호사는 우리더러 약물주머니와 약물이 흐르는 튜우브를 불빛을 쬐지 않게 된가로 감싸라고 했다. 갑자기 닥친일이라 신도 바로 신지 못하고 달려온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하자 간호사는 자기 쪽에서 새침해서 알아서들 하라고 우리를 면박 주었다. 여기 이곳의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란 혈압을 측정하고 체온을 점검하고 점적주사바늘을 꽂는 일 외에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

서는 뭐나 병자가 알아서 해야 하기에 병원에 갈 때 보호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병자는 촌보난행이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겨내어 가위로 요리조리 찢어 약물주머니와 튜브를 칭칭 감기 시작했다. 그리고 있는데 CT 결과가 나왔다면 담당의사가 나를 불렀다. 후사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딱매로 뒤통수를 한 매 맞는 기분이었다. 귀가 꽉 막히고 눈앞이 노래지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아직도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던 것이 드디어 내 앞으로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직도 먼 곳에, 그냥 아주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나는 병실로 들어가 주사침이 꽂히지 않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부여잡았다. 또다시 눈물이 샘솟듯이 솟아올랐다. 양 볼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려 아버지가 덮고 있는 이불깃이 젖고 있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이웃 침상의 환자 보호자들이 그러한 나를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혼수상태의 아버지께서도 오열을 하는 것 같았다. 마치 흐느끼듯이 자꾸 숨을 안으로 들이긋기 시작했고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눈은 감고 있었으나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주 서러운 울음을 울고 있는것 같았다. 누구를 만나 뭔가 하소연 하는 것 같았고 눈가로 눈물까지 자작자작 비집고 나왔다. 얼음베개를 만들려 나갔던 누님이 들어와 머리 부분을 고여 주려고 상체를 치켜들다말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의사를 부르러 뛰여 나갔다. 아버지는 흡사 오한이 든 사람처럼 이번엔 오슬오슬 떨어졌다. 이불을 젖히고 젖은 자리를 바꾸어 드리며 불라니 아버지는 들숨만 긋고 날숨이 거의 없었다. 누님의 부름을 듣고 뒤늦게 당도한

담당의사가 아버지의 옷섶을 헤치고 두 손으로 심장부위를 억세게 두서너 번 내리눌렀다. 그렇게 하면 곧 정황이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몇 번을 그러던 의사가 내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운명했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가가 아버지의 코밑에 식지를 대어 보았다. 들숨도 날숨도 없었다. 아버지께서 드디어 숨을 거두신 것이었다. 그때가 자정을 훨씬 넘긴 새벽 두시. 병이 발작해서 불과 6시간 만에 아버지는 그렇게 저세상으로匆匆 떠나가신 것이었다. 몇 시간 전만해도 담소를 하며 함께 식사를 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몇 시간 전만해도 나에게 아픔을 호소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죽음과 삶은 원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었던 말인가? 아버지의 가슴 위에 엎드려 흐느끼는 나에게로 간호사가 다가와 시신을 빨리 영안실로 옮기라고 재촉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옆 침상의 병자들도 얼굴을 찡그리고 내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내가 수의점에 가서 450원을 주고 아버지가 입고 갈 수의를 사왔다. 바느질이 엉망이고 질도 그다지 않은 값싼 양복이었다. 동네에 사는 동료선생님을 모셔다 아버지의 몸을 대충 닦고 수의를 갈아입히고 나니 어둠이 열린 새벽녘이었다.

영안실로 옮겨진 아버지의 시신은 당직 일꾼의 손에 의해 냉동실 트렁크 속으로 빨리 들어갔고 무겁고 차가운 철제문이 ‘탕’하고 요란스레 닫혀버렸다. 당직 일꾼은 다 됐으니 우리더러 나가라고 했다. 영구를 지키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도 눈을 붙여야겠기에 어서 나가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곳의 법이라는데 아니 나가겠다고 뻔칠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쓰레기 버리듯

아버지를 영안실 안에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꿈만 같았다. 밤새 지루하고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날이 밝자 부고를 받은 친지들과 직장동료들이 모여왔고 아버지의 영구는 이튿날 다시 화장터로 옮겨졌다. 예전에 마을에 상사가 생기면 어른들은 7일 장에서 짧아도 5일장을 했던 기억이 있다. 입관을 마치고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못을 치지 않고 3일에서 5일까지 윗목에 모셔두는 것을 보았다. 죽은 사람에 대한 신중함과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 관을 갖추고 상여가 나갈 때까지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어 상주를 위로해 주었고 손을 도와 밤샘을 하면서 영구를 지켜주기도 했다. 호상일 때는 과일이며 떡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어 먹이기도 했다. 그걸 먹으면 아이들에게 좋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아먹는 음식이 좋아 마을에 호상이든 애상이든 상사가 생기는 것이 그리 싫지는 않았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이었기에 나는 죽음의 향기도 몰랐고 죽음의 아픔도 모르고 살아왔다. 추도곡이 찝막하게 울렸고 고인에게 마지막 허배를 마치자 마스크를 걸고 흰 가운을 입은 화장회사 일꾼이 들어와 구르마채로 아버지의 영구를 옆 칸으로 밀고 들어 가버리는 것이었다. 시신을 덮은 빨간 천 끄트머리가 문이 닫히는 사이로 언뜻 보일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버지!”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라진 쪽 문을 향해 목 놓아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진 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곁을匆匆 떠나가셨다. 행

장도 제대로 쟁길 사이가 없을 만큼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기에 바빴을까? 한줌의 재로 되어 빨간 주머니에 담겨 나온 아버지의 골회를 들고 나는 강가로 찾아갔다. 그 강줄기를 따라 내쳐 가다보면 큰아버지의 골회를 뿌린 큰 강과 합수가 된다. 정강마디나 적실 듯 말듯 열린 물위에 아직 열기가 식지 않아 따끈한 아버지의 골회를 한 줍 두 줍 날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야할 곳은 어디일까하고 생각해보았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늙은 아버지와 형님 누나들의 집을 전전하며 살아온 아버지가 가정이란 것을 꾸려서 아들딸 낳고 이제 한창 그 덕을 보며 살아야 할 나이에 뭐가 그렇게도 바쁘셔서 이 아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대비할 틈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떠나신걸까?

변소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가는 곳마다 변소에다 참으로 많은 공력을 들이셨던 것 같다. 집안에 쓸만한 가구는 없어도 이사를 가면 변소부터 잘 다듬은 널로 아담하게 지어놓았다. 시골치고 우리 집 변소만큼 깨끗하고 훌륭한 변소가 없었다. 동네사람들은 그런 우리 집 변소를 건너다보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변소 소제부터 해치우곤 했다. 그래서 오뉴월 염천에도 우리집 변소엔 좀해서 파리가 끼지 않았다.

“변소를 보면 그 집 나그네를 알 수 있고 정주를 보면 그 집 아낙은 알 수 있다고 했니라.”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다. 아버지 덕에 우리는 시골동네에 살면서도 깨끗한 변소에 길들어져 동네 집에 놀러갔다가도 변소 찾을 일이 생기면 집으로 달음박질쳐 오곤 했다. 그 버릇은 그 후 나에게 곤혹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변이 그대로 남아있는 변소는 역겨워 당초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변소는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과 소질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땅에서 지천명의 나이까지 살아왔건만 난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변소문화에 습관되질 못하고 애를 먹는 때가 많다. 중국 사람들은 변소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 변소가 없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변소가 없어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다. 왜? 아무 곳이나 으스스한 곳은 다 그들의 변소가 되어주기 때문에. 역전에는 변소가 있다. 그러나 그 변소란 데를 가보면 문어구에서부터 변을 배설해놓아 발을 들어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아무데나 닦치는 데로 갈겨놓아 변소 주위는 온통 변의 천지다. 이런 현상은 몇 해 전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은 간이역 변소는 그냥 한모양 그 본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날 때 절대 물을 마시지 않는다.

내가 통신대 공부를 하러 다닐 때 일이었다. 새벽기차를 탔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뒤틀리며 변의를 느꼈다. 부랴부랴 차량에 딸린 수세식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져있었다. 기차가 역전에 당도할 때는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줄은 나도 아는데 기차가 역전을 벗어나 허허벌판을 달린지도 이십하건만 화장실문이 잠겨져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혹시 안에 용변자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껌을 잡고 부랴

부랴 다음 차간으로 가보니 그곳도 문이 잠겨져 있었다. 중국의 기차는 참 길다. 보통 열대여섯 바구니씩 달고 달리는데 그날 그 기차는 어느 화장실이나 매 한가지였다. 곧 바지에다 질려버릴 것 같은 다급함을 안간힘을 다해 참으며 나는 승무원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새벽녘이라 잠간 졸고 있었는지 승무원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빠르게 열고 내얼굴을 쳐다보았다.

“화장실문이 왜 다 잠겼습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정말 바쁘거든요.”

나는 급한만큼 말도 기관총 쏘듯이 두루룩 ~ 갈겨버렸다. 그런 나의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승무원은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턱짓했다.

“다 잠겼다니까요. 아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나의 다급함이 얼굴에 그대로 비졌던지 승무원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열쇠를 찾아들고 문을 따주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바쁜 와중에도 인사를 하며 아, 인제야 살았구나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 쉴 수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문을 딱 여는 순간 눈이 휘뺄 뉘그러는 광경이 내 눈 앞에 나타났다. 글썽 화장실바닥이 온통 누런 변천지가 되어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 구역질이 올라와 뒷걸음질치자 승무원은 “그 봐, 다른데 가보라고 했지?”하는 낮빛으로 나를 찌려보는 게 아닌가? 문을 다시 닫으려는 승무원을 밀치고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내 바지에다 내 변을 지르는 것보다 내 신발에 남의 변을 묻히는 것이 낫겠다 싶은 계산보다도 내 생리가 그 무엇을 가리고 자시고 할 만큼 한가한 정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발끝으로 걸어 들어가 안으로 문고리를 잡고 한발은 창턱에 올려놓은 자세로 대충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자세는 웃음이 나올 만큼 우스꽝스런 자세였다. 대충 어려운 고비를 말린 나는 나오자마자 마침 가방에 질러 넣었던 끌신을 꺼내 신고 아까운 대로 신었던 신발을 벗어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구역질이 나서 닦아 신고 어찌고 할 경황도 없었고 닦으려고 해도 그때 기차 안에는 물이 공급되질 않아 밤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세수할 물도 없던 세월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1988년의 일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의 일화다.

요즘 기차를 타보니 승무원들의 복무태도가 20년 전 같지 않게 많이 달라져있었다. 한달에 천오백 원을 받는다는데 그나마 책잡히는 일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정리해고가 된단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까벌려 놓은 과일껍질과 썩다버리는 해바라기씨들을 한마디 꾸지람 없이 그대로 고분고분 쓸어 내가기도 했다. 변소 소제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 밖의 일로 미루던 20년 전의 그따위 태도로는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그런 승무원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 볼 것 같지 않다. 중국이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비위생적인 나라라는 건 세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화장실 문화는 물론 아무데서나 가래를 탁탁 뱉어놓는 버릇은 중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북경올림픽을 맞이하면서 CCTV에서도 공익광고를 수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가슴에 와닿는것이 있으니 바로 “당신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빈콜라 캔을 지정된 곳에 버리는 동작을 해 보인다. 도리대로라면 웅당

소학교나 유치원 때 했어야 할 공중 도덕교육을 중국에서는 이제야 한다. 말 태워 놓고 버선 깎는 격이 아닌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한다는 자체가 중국이 각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 세계 사람들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하는 중대사를 앞두고 중국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려 하고 있다. 하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비위생적이고 무책임한 관습들을 고치는 어렵겠지만 하기시작하면 어딘가 달라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상가나 역전 같은 공용시설에 깨끗한 수세식 변소가 비치되어 있는 것부터 새로 보이는 양상이다. 하긴 매 사람에게서 사용요금을 받고는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다. 누군가 문명과 경제는 쌍둥이라고 했던가? 경제가 일어서니 문명도 따라오고 사람 사는 세상다워지고 있다.

줄서기

중국사람들은 아니, 이곳 사람들은 아직 줄서기를 모르고 줄서기를 안한다. 그래서 월급을 타러 은행출입을 하다보면 기분상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앞사람과의 사이거리를 한 미터 정도 보존하고 서있는 내 앞에 한족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새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새치기를 했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느라고 사이를 두고 서있는 내가 오히려 그들의 눈엔 더 이상한 사람이다. 일을 보기 싫어 멀찍이 물러서서 늘쫄늘쫄 구경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법도 지켜지는 곳에서 소중한 것이고 도덕도 지켜지는 곳에서도 고상한 것이지

무질서 무원칙한 이런 곳에서는 되레 우스운 짓거리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만다.

이와 같은 사소한 공중도덕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우고 끝내야 하는데 중국의 유치원에서는 그런 것을 배워주지 않는다. 이곳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은 소학교에 입학하면 배울 지식을 미리 당겨서 배울 뿐이다. 연필도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고사리 손에 연필을 쥐여주고 1,2,3,4를 씌운다. 한 벌도 아니고 열 벌 스무 벌 서른 벌을 쓰게 한다.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그렇게 엉망으로 내어주는 숙제 때문에 아들은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다. 제시간에 다 쓰지 못하면 다시 숙제로 남겨 또 쓰게 한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란 숙제로 낸 벌수를 제대로 썼는가를 검사하는 일이 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올림픽 수학이요, 쾌속 암산법이요 하는 과학 지식과에서는 저마다 장끼를 갖고 있지만 사회 공중도덕 지식은 그에 비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학교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으니 학부모라도 가르쳐야하는데 그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은 남에게 숙보이지 말고 남에게 지면 안 된다는 식이 고작이니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빠져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과학지식 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한 것이다. 도덕지식은 있지만 과학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폐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지식만 갖고 있고 도덕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은 위험품이다.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남에 대해 친절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며 정직을 인간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될텐데 성인 공자

가 태어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 엉망이 되었는지 모를 이곳 사람들의 이와같은 인습은 얼른 고쳐질 것 같지 않다.

어렸을 때 현 문화관에서 조직한 문예공연단이 전현 마을 마을을 돌며 문예공연을 했던 적이 있다. 현적으로 유일한 조선마을인 우리 마을에 온 공연단 일행은 무대 앞에 정연히 줄지어 앉아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히 호응하는 사람들을 향해 연속 고맙다며 관객들의 관람질서를 치하했다. 그게 그렇게 공연단 성원들의 치하까지 받을만큼 대단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튿날 한 번 더 보려고 이웃 한쪽마을에서 공연할 때 가보고야 그 의문이 풀렸다. 한족사람들은 공연관람도 좋고 그 어디에서도 쏙해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을 줄 모른다. 무대 앞 맨 첫줄 관중부터 서서 구경하다보니 뒷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걸상 따위를 딛고 올라섰고 그 뒷사람은 아주 옆집 담장이며 지붕위에까지 기어 올라가 구경을 했다. 나만 잘 보이면 뒷사람의 사정은 알은체도 않는 그와 같은 이기주의가 무질서를 낳은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보다 키가 작은 조무래기들은 아주 무대 위에 기어 올라가 구경하다니 배우들은 아이들을 쫓으라 공연도 하라, 아무튼 우리 마을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그것이 30~4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여기 사람들의 질서 의식에 별 변화가 없다.

조화로운 사회

중국은 20~40년대는 전쟁을 치렀고 50~70년대는 투쟁을 치렀으며

80~2000년대는 경쟁에 나섰고 이제는 조화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다. 조화로운 사회, 이물 없고 모순 없고 잘 어우러져 화기로운 사회란 뜻이 되겠지만 중국사회는 지금 많은 모순과 많은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첫째, 개혁개방이래 심한 빈부격차가 생겼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등소평의 리론에 힘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부자 대열에 들어섰고 또 부자가 되는 수단과 경로를 가리지 않아 많은 폐단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용감한 자가 돈을 번다는 말이 유행어로 되고 있다. 법제가 부진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다. 먼저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지옥과 천당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은 물론 별장에 승마장까지 챙겨놓고 흥청망청 천륜지락을 즐기는 폭부족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그날그날의 생계도 잇지 못해 고민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삶을 사는 신 가난뱅이들도 부지기수다. 모택동 시대에 꾸드려 잡았던 부자가 요즘은 황제이고 주인이고 할애비이다. 다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던 모택동의 이론은 씨가 먹히지 않는 공상이란 것을 중국 사람들은 이제 다 잘 알고 있다. 하다면 그들 사이에 패인 곪을 메우는 데는 경제만 활성화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정권과 통치의 유리한 쪽으로 조화로운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잘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을 돕고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베풀게하여 사회의 안정과 융합을 꾀하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본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뜻이 달리 해석되기도 해 웃지도 울지도 못할 때가 두갈래 있다. 불평불만을 표시

하는 하급에게 상급은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한다고 설교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분기가 생겨 말싸움에 드잡이까지 벌어지자 조화롭게 살아야지 웬 싸움이냐고 말리는 경찰관도 그렇다. 그래서 사회 밑바닥을 살아가는 서민들은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끌어가다가도 언성이 좀 높아질듯하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며 룡으로 끝낸다.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 가는것을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어지는 쪽으로 무마시키고 무작정 달래려는 어처구니없는 방법들을 쓰고 있다. 진정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굵고 병든 곳을 메스로 잘라내고 수세미로 씻어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관료들의 부패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회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다 돌아볼 체계가 못된다.

한국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의 사법기관에 애매한 돈을 수없이 팔았다. 식구 중 어느 한사람이 외국에 불법체류를 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안겼고 밀수배를 타다 붙잡힌 자에겐 그 죄값으로 벌금은 물론 한두 달씩 가두어놓고 구타까지 일삼았다. 출국길에 연령 제한을 했기에 젊은 사람이 늙은이로 위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에 가져다바친 장리돈은 얼마이며 이런저런 명실상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증기관에다 들인 돈은 또 그 얼마인가? 법을 지켜야할 곳에서 돈만 들이밀면 고양이뿔도 만들어 주는 곳이 중국이다. 출국을 위해 안달아하는 심리를 악용해 공안기관에서는 내어놓고 사례금을 요구하고 돈을 바치지 못하면 엄연히 정상적인 일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끈다.

“조선사람 돈 벌기 좋다.”

이것은 중국의 사법기관 간부가 친히 한 말이다. 한뉘 시골에서 논 농사만 해오던 사람을 속이기는 식은 죽 먹기다. 코에 걸면 코거리인 가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줄로만 알며 말이 팔려 시시비비 따질 수준도 못되는 조선족, 게다가 급한 성질 탓에 능구렁이 같이 지구전을 쓰는 중국 사람들의 술수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들이 하지는 데로 해버리니 출국 한번 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이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조화로운 사회, 그렇다. 빈부의 모순도 없고 민족모순도 없는 진정한 조화로운 사회가 중국 땅에서 발을 펼 수 있을는지 그게 근심이다.

중국 경찰

옛날 나의 눈에 군대와 경찰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다. 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이고 경찰은 불한당이나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의 눈에 비쳐 든 중국경찰은 믿음은 고사하고 제복을 입은 도적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위법행위도 평민이 하면 콩밥 먹을 감이고 경찰이나 공안기관 일꾼 그리고 그에 상응한 권력가가 범한 위법행위는 그 죄가 경해지거나 어느 사이에 무마되고 만다. 그래서 시내안의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게임장은 모두가 경찰가속이 아니면 공안계통 사람들이 차지하고 경영한다.

여동생 네는 생육지표를 얻지 못한 상황 하에서 아이가 생겨 낳았다. 생육지표가 없이 낳은 아이는 호구부에 올려주지 않는 것이 중국의 법이다. 여동생 네는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바둑바둑 다가오면서 근심을 지고 살았다. 적령기 아이가 입학할 때에 호구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안면이 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다. 마침 인구통계 정책이 실시중이니 이때는 지표 없이 낳은 아이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며 당지 파출소에 찾아가보라고 알려주었다. 호적을 붙이러 왔다고 말하자 담당경찰관이 출생증명서와 지표획득서류를 내놓으라고했다. 내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없어서 이렇게 늦게야 찾아왔다고 하자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인구통계 정책이 나와 지표 없이 태어난 아이도 호적에 올릴 수 있다던데 그게 아닌가고 묻자 자기는 이왕의 정책대로 일을 처리할 뿐 그런 걸 모른다고 딱 잡아 댔다. 그의 태도가 너무도 엄숙해서 혹시 변호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어 되물러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경찰관이 따라 나오면서 저쪽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인민폐 천원만 자기에게 주면 호적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이런저런 서류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돈만 있으면 정책에 위배되는 짓도 자기는 한다는 소리였다.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나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낮판 대기에 침이라도 탁 뱉어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러는 그를 무시하고 나는 파출소를 나와 버렸다.

다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그럼 이번에는 인구통계 정책실시반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통계실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둘러야한다고 했다. 나는 소빨은 단검에 빠렸다고 즉시 정부기관 청사 안에 임시 설립되어 있는 정책반을 찾아갔다. 공안제복을 입은 사람이 문어구를 지켜서서 출입을 금지시켰다. 내가 정책반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뭘일인가하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하려니 장황한 것 같아 요건만 추려서 몇 마디 하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안 된다고 밀막았다. 할 수 없이 되돌아 나왔다가 한식경이 지난 후 다시 침입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술책을 바꾸어 정책반 영도가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자 두말없이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다. 정책반 영도는 나의 말을 듣더니 출생증명서류는 소지하고 있는 가고 물었다. 내가 아이의 출생증명서류를 제시하자 그는 해당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오? 출생증명서가 있는 아이인데 왜서 호적을 올려주지 않는 거요? 인구통계가 여실히 진행되려면 그런 정황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소? 당장 올리도록 하시오.”

나는 그때 권력의 힘을 알았다. 전화 한 통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권력을 등대고 나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덤비던 자가 고스란히 나를 접대하기 시작했고 수속도 전에 없이 그 속도가 빨랐다. 수속을 끝내고 나오는 나에게 그자가 한마디 던졌다.

“당신 백도 좋아.”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한심한 경관에게 나는 돌 따서 나오며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네 어미 개 대가리라고 해라.”

그렇게 욕을 하고나도 내 마음은 후련치가 않았다. 왜서 이런 일에

도 꼭 제일 큰 어른이 나서서 지시를 해야 일이 풀리게 되어 있는 걸까? 재해지구 인민들을 보러간 중국총리가 그곳 인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시찰한 후 특별지시를 내려서야 구조물자가 당도하고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신문지상에서는 칭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그게 그래 칭찬을 할 일이란 말인가?

요즘보니 나에게서 후안무치하게 돈을 뜯어내려했던 그 경찰관은 버젓이 산하 학교의 치안담당 경찰관으로 되어 학교 청사안을 들락거리고 있다. 제복을 버젓이 입은 그 꼬락서니가 더 역겹다. 그가 우리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언가?

나는 공산당원

사업에 참가하여 얼마 안 되어 나는 중국공산당에 입당을 했다.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1년이란 고향기를 거쳐 나는 비로소 당표를 얻었다. 당원이 된 그달부터 나는 당비를 바쳤다. 처음엔 한 달에 몇 원을 바치던 것이 후에는 내가 받는 월급의 5%를 냈고 월급이 오르면 당비도 올랐다. 그래서 지금은 다달이 50여원을 바친다. 당비를 바치는 외에도 당원은 당 간행물을 주문해야한다. 당원이라면 무조건 주문해야하는 간행물이다. 그것이 수요되든 안되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문이 집행된다. 그리고도 당 간행물이 전국 간행물 주문량중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다며 자랑한다. 당기 앞에서 했던 선서는 까맣게 잊어먹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부패하지 않고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당기 앞에서 했던 선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늘이 크고 땅이 커도 당의 은덕에 비길 수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정이 깊다 해도 모주석의 은정에 비기랴? 천 가지 만 가지 좋다 해도 사회주의 보다 좋으며 강물과 바다가 깊다 해도 계급우애 보다 깊으랴?”

내가 열 살 나던 해 어머니를 비롯한 마을 아낙들이 마을 회의실에 모여 이 노래를 부르며 충성무를 추는걸 보았다. 일도 별로 하지 않고 밥공기만큼 큰 충자를 패꼭처럼 가슴에 달고 마을 아낙들은 신이 나서 등실등실 팔을 흔들어대곤 했는데 어떤 때는 어둠이 깔린 학교마당에서 온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충성무를 추기도 했다. 그때 나는 당이란 것은 지고지상의 존재인줄 알았고 모주석은 만년이 가고 천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신적 존재인줄 알았다.

사회에 갓 발을 들여놓고 보니 당표는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티켓이었고 한사람의 인격을 증빙하는 유력한 호패같은 것인줄도 알게 되었다. 마을청년들은 당표를 얻기 위해 참군을 했고 당표를 얻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당표를 얻으려고 딸이 아비 목에 개패를 씌워 조리돌림을 시켰고 당표 한 장을 위해 아까운 생명을 덧없이 던지는 무모한 짓들도 해내곤 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당표를 수요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것이라면 예전처럼 그렇게 열열 하지는 않다는 것뿐이다.

언제부턴가 아파트 입구나 계단 벽에 ‘3퇴’ 뼈라가 나붙었다간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또다시 나붙곤 한다.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파

트 계단을 청소하는 소제부 아저씨가 ‘소선대’를 사퇴하고 ‘청년단’을 사퇴하고 ‘공산당’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뼈라란다. 누가 붙였는가고 물으니 자기도 모른다. 자고나면 붙이고 뜯어내면 또 붙이고 그런단다.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진붉은 당이 이제 서서히 그 색이 바래져가는가 보다.

설

중국 사람들은 설을 설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즉 춘련, 물만두 그리고 폭죽이다. 여기 이곳 사람들은 설장을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본다. 음식거리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문설주에 바르는 주련과 천태만상의 폭죽이다. 빨간 종이에 노란 금색이나 검은 색 글씨를 박은 춘련은 그 내용도 부지기수이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새해의 소망을 비는 것들이다. 그 소망의 절반 이상이 부자가 되길 꿈꾸는 내용이고 화합과 건강과 안녕을 주문하는 내용도 허다하다. 문지방에 춘련을 붙이지 않으면 설을 쇠지 않은 것으로 친다. 설을 쇠는데 불가피한 것이 또 있으니 바로 물만두이다. 밀가루반죽에 소를 넣어 삶아먹는 음식이지만 그 소의 내용물에 따라 중국 사람들이 먹는 물만두는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이 물만두 만드는 재주는 참으로 볼만하다. 밀대 하나로 한꺼번에 두석 장 혹은 대여섯 장의 만두피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아예 밀대 2개로 여러 장의 만두피를 만들어내는 괴짜들도 있다. 그믐날 저녁 12시 종이 울리면 갓 삶은 물

만두를 먹고 마당에 나가 폭죽을 터뜨린다. 폭죽소리는 크면 클수록 좋고 그 모양이 화려하면 할수록 기꺼워한다.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고 듣기에 시끄러워도 그것을 빙자해 걸고드는 사람이 없다.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터뜨리고 더 비싼 것으로 터뜨리다 보니 그믐날 밤은 완전히 폭죽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3년부터 중국 사람들의 설 문화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첨부되었으니 그게 바로 춘절문예야회이다. 저녁 여덟시부터 장장 4~5시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춘절문예야회는 그 긴 역사나 진행되는 시간으로 볼 때 가장 긴 야회가 되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한다. 13억 인구가 다 함께 보는 특수 프로이다. 문예야회가 없는 설은 설 같지 않다. 해바라기 씨를 까고 사탕을 발라 먹으며 관중들은 밤새 즐거워한다.

중국 사람들 속에 묻혀 살아오면서 우리도 한족 사람같이 설을 쇠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 속에 묻혀 설장을 보고 떡국대신 물만두를 빚어 먹고 폭죽을 터뜨리고 해바라기 씨를 까면서 중국 연예인들이 하는 재담이나 단막극을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운다. 그러나 유독 춘련만은 붙이지 않는다. 춘련을 붙이지 않은 집은 위불없이 조선 사람들의 집이다. 그래서 설이래도 조선사람 집 문설주는 냉랭하다. 요즘 모두가 한국이나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가뜩이나 전처럼 뜨겁지 못한 설 명절이 그래서 더 한산한지도 모른다. 그 한조의 글귀에 거는 희망보다 조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신념을 더 믿는다. 부적같이 문설주에 붙어 너울거리는 글귀가 가져다주는 위안을 조선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닮아가도 그 신조만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폭정과 전쟁과 기아를 피해 살길을 찾아 이곳

만주 별판 깊은 곳까지 해대면서 쌓아올린 신조일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야한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설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망자에게 지전을 태워주며 위로해 드리지만 조선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정성들여 만든 밥상을 바친다.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던 조선 사람들은 조상님 전에 음식상을 바치지만 음식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중국 사람들은 밥상이 아닌 돈을 바친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음식에 쏟은 정성을 논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음식의 가짓수와 음식의 가격을 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설 음식은 채소만 해도 여덟 가지에서 열여섯 가지의 요리를 만들어 올려야 직성이 풀려한다. 그들이 한상의 요리를 준비하는 재료는 기가 막힐 정도로 구전하다. 하늘에서 나는 것, 땅에서 기는 것,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다 있어야하고 찢은 것, 튀긴 것, 볶은 것, 끓인 것이 있어야 하며 푸른 것, 흰 것, 검은 것, 붉은 것이 있어야하고 찬 것, 더운 것이 또 따로 있어야한다. 그리고 먼저 먹는 것이 있고 후에 먹는 것이 따로 있으며 맨 나중에 먹는 것이 또 있으니 설 쇠는 밥상이 요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술

중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습관은 특이하다. 특히 동북 지방사람들의 술 문화는 더욱 그러하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방이 취

해 곤드라질 때까지 퍼 먹이지 않으면 손님대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친다. 술을 권하는 것도 우격다짐에 가깝다. 술을 정말로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한다. 남이 권하는 잔은 받고 내가 부은 잔은 마다하라며 노여움을 내기에 예의적으로 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려면 당금 죽어 자빠져도 마셔야한다. 술을 권하는 쪽이 자기와 우정이 깊다고 생각하면 단모금에 굶을 내고 사이가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혀끝으로 맛만 보라며 들이대는데 거절이란 있을 수 없다. 술을 먹이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둥근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수효대로 돌아가며 권주령을 읊조리고 술을 한 순배씩 돌린다. 보통 한 상에 열에서 열두 사람이 앉는데 그러다보니 자기 술을 빼고도 아홉 잔에서 열한 잔을 마시게 된다. 술이 약한 사람은 그 술이 다 돌기 전에 벌써 고주망태가 되어버린다. 술상을 차린 사람의 성의를 거르지 않기 위해 초대받은 손님은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을 게워내면서라도 받아 마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좌석의 기분을 깬다고 핀잔을 받는다. 술을 잘 먹고 많이 먹으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서 그렇게 퍼먹이고 퍼먹는 사이에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애를 쌓기도 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다.

직장동료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연장자라고 한 잔 붓고 직속 상사라고 한 잔 붓고 동갑이라고 한 잔 돌리고 잘해보자고 또 한 잔 돌린다. 그리고 상에 오른 물고기 대가리가 당신을 향해있으니 또 한 잔 해야 하고 물고기 꼬리가 당신을 가리키니 또 한 잔 해야 한단다. 마주앉은 사람이 술잔을 놓지 않았는데 술잔을 놓았다고 벌주로 한 잔, 남은 사람이 술잔을 놓지 않았는데 혼자서 먼저 굶을 냈다고 또 한 잔 벌주... 여하튼 남

에게 술 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고지식한 사람은 주는 것은 마다
치 못하고 다 받아 마시다 보니 나중에는 실수가 연발한다. 중국 사람
들의 술 문화에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녹아있었다. 나 혼자 취한 상태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 남에게 강권하고 다같이 취해서 다같이 허튼소리
를 할 정도가 되어야 직성이 풀려한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결혼잔치 환갑잔치 아기 돌잔치
와 노인분들의 생일잔치 외에 뜬금없이 술상을 차리는 일이 거의 없었
다. 생활도 생활이었겠지만 동네사람들의 술 문화는 정말로 깨끗했다.
가끔가다 술판에서 싸움질이 생기기도 했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술을
무척 좋아하는 노인들은 입이 심심하면 마을안 상점에 가서 둘 혹은
셋 씩 서서 선술을 마시곤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모토리라고 했다.
일을 하다 쉴 참에도 “다모토리 한잔 합세” 그러면서 둘씩 셋씩 몰려가
서는 상점아주머니가 따라주는 근들이 술을 치떨어진 범랑 잔에 담아
놓고 네 한잔 내 한잔하고 돌려가며 한 모금씩 마셨는데 한 모금 넘기
고 카 하고 소리를 내며 마른 미역 잎이나 왕소금 알을 한 알 베어 물
고 입가를 쓱 문지르던 그 술꾼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술은
바로 그렇게 마실 때에라야 감칠맛이 있을게 아닐까?

술이란 마춤하게 마시면 보약이고 기분도 좋다. 그러나 도를 넘게
마신 술은 고통이고 악귀이고 지옥이다. 술은 그렇게 마시는 량에 따
라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마실 때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
또 그 맛이 달라 질 수도 있다. 술잔을 들고 상사의 면전에 다가가 선
웃음을 치며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과 같이 마시는 술은 그렇게 쓰거울
수가 없다. 뒤에서는 8대 조상까지 거들어가며 있는 욕 없는 욕 만들

어가며 저주까지 퍼붓던 사람들이 개인의 진급이나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위선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를 살겠다고 저렇게 비굴할 수가 있는가싶다. 한족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절이 상의 말과 짓거리를 더 하지 않는 나를 보고 “조선 사람들은 성격이 대쪽같다. 겉과 속이 똑 같다”며 칭찬인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평판을 던져온다. 그런 성격이 중국 땅에서 한족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지만 나는 나의 지조를 굽히기 싫다. 초라하게 살지언정 비굴해지고 싶지 않고 소금 한 알, 마른 미역 한 쪼가리에 감칠 맛 있는 술 한 잔을 마실지언정 마시고 싶지 않은 술을 마시려고 아까운 안주를 낭비해버리고 싶진 않다.

맺는말

민들레를 중국 사람들은 ‘포공영’이라고 하고 민간에서는 ‘퍼퍼땡’이라고도 부른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제일 먼저 돌아나는 나물인 민들레는 겨울을 이겨내는 위대한 생명력과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완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늘같이 생긴 씨앗의 형태는 어디든지 발을 붙이기 쉽게 생겨서 바늘귀만한 돌 틈에라도 비집고 들어가 구태여 누가 가꾸어주지 않아도 왕성하게 생성한다. 산이건 들이건 자갈밭이라도 가리지 않고 자랄 수 있으며 못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도 절대 죽지 않고 질기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다시 그 씨앗은 바람 부는 데로 정처 없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날아다닌다. 만

가지 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때 민들레꽃은 너무나 왜소하고 수수해서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면 들판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한다.

중국 조선족의 삶은 바로 민들레 삶이고 민들레 인생이다. 우리의 삶은 누구네처럼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다. 폭정과 전쟁과 자연재해를 피해 살길을 찾아 민들레 꽃씨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 저만큼 자리를 펴고 뿌리를 내린 배달민족이다. 그래서 그 삶은 더더욱 가냘프고 더더욱 험난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바람부는 들판에서도 질경이처럼 살아남았다. 터줏대감들의 기시와 전례 없는 운동과 사품치는 생활의 소용돌이들을 넘나들며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이제 그 씨앗들은 또 어딘가로 날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왕성한 삶을 펼치고 이어갈 것이다.

영원한 이방인

가작 | 박순평

내게도 누구나의 그것과 같이 잊혀 지지 않는 생의 한 토막이 있다. 그 토막은 불현듯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오며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어쩔 감추고 싶었던 암담했던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하다. 감추고 싶도록 암담했던 부분이라 함은 이웃에게서 크게 인정받지 못할 직업을 가졌었던 때였기에 그렇고 살아오는 동안 사이사이 추억으로 떠오르는 것은 천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 속에서도 작을지언정 꿈을 가꾸어 가던 시절이었기에 그렇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니 몸서리 쳐지도록 힘들게만 생각되던 그 기간이 눈 깜짝 할 사이에 흘러가버린 아주 짧은 순간이 되고 말았지만 그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던 암담한 시간들이었다고 기억된다. 무섭던 가난 앞에 홀로 세워진 듯 무한정 외롭던 그 시절,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전후 폐허로 변했던 조국의 참담함을 몸소 체험하며 소년기를 보낸 나는 청년이 되어가며 처했던 환경에 막연한 불안과 불만이 쌓여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던 그런 때 영원한 이방인

으로 지내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작은 사건이 있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젊음 하나만을 무기 삼아 적수공권으로 첫 발을 디딘 이곳에서의 삶이 한편의 파노라마로 되어 뇌리를 스친다.

무겁던 발걸음

삼척군 장성읍 황지리 이었던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탄광촌 마을은 이후 읍으로 승격 하였다가 지금은 시로 변모하여 어엿한 도시 형태를 갖춘 곳이라고 들었지만 그 땐 아주 까마득히 멀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험하기까지 했던 곳이었다. 크게 마음이 내키는 길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던 앞길에 거쳐야 할 피할 수 없는 여정,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그날 아침 까지도 망설이다 서둘러 떠났던 길이었다.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기 반 뛰기 반으로 청량리역 대합실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했던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주위를 살피는데 뒤에 오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던 걸 보면 아마 내가 제일 늦게 도착했던 모양이었다. 그 때 동료들의 반가운 영접은 정작 반가움에서라기보다 마지막 한 놈이 드디어 도착 했다는 안도의 환희였음을 나중에야 깨닫고는 솟구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 그것도 좋게 보면 출장의 일종이었을 텐데 먼 길을 떠나는 마음이 어찌면 그렇게 무거울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 하면 부질없는 두려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늦게 도착했음이 너무 미안한 나머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서둘러 몸을 실었는데 열차는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얼마를 지났던지 덜커덩 큰 충격과 함께 빼 애 액 - 긴 기적 소리를 뒤로 한 우리 중앙선 완행열차는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 하는 모양이었다. 보통은 열차 여행이란 즐거움을 동반하는 설렘이 일고 조금씩은 흥분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날의 내 기분은 웬지 착잡하기만 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야릇한 감정이 가슴으로 스며드는데 지체되는 시간은 앉아있는 자리마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도록 만들었다. 반시간은 족히 지체한 후 출발한 완행열차는 역이란 역은 물론 간이역 까지도 모두 멈추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니 가끔은 앞으로 가기를 잊었던 듯 답답하기만 했다. 그래도 열차는 움직이는지 청량리를 출발해 몇 정거장인지 지나고 나니 별거벗기는 했을지언정 창밖으로는 산 정상이 보이지 않는 가파른 민둥산들이 말없이 차창을 스친다. 멈칫거리다 늦게 도착한 미안함이 잦아들 무렵 그때서야 비로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내 망막에 더욱 선명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산자락을 굽이 칠 때마다 한 번은 왼쪽에서 또 한 번은 오른쪽에서 얼굴을 내미는 손바닥만한 고추밭들이 그 사이사이 어우러진 참깨 밭들과 어울려 정겹기 그지없다. 가파른 산자락에 계단식으로 잘 다듬어진 밭뺨기들에서는 억척스런 우리 농부들의 참 모습이 보이고 그 위에 가지런히 자라는 작물들에서는 농촌 아낙의 살뜰한 손길이 비추이기도 했다. 풍경에 취하다 보니 얼마를 더 달렸는지 가쁜 숨이 잦아들던 열차는 제법 커 보이던 시골 도시의 역에 미끄러지듯 들어서며 멈춘다.

차가 멎기도 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무리의 아낙네들이 저마다

바구니에 무언가 담아 머리에 이고 뛰면서 외쳐대는데 고요하기만 하던 시골 풍경이 어느 듯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장으로 변한 듯 했다. “강냉이 사래요! 고구마 사래요!” 저마다 외쳐대는 아낙네들의 말소리는 그게 강원도 사투리였던지 억양이 귀에 설었다. 머리에 인 바구니를 내려다보니 모두들 삶은 고구마며 찢 옥수수가 수북이 들어 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던지 매우 옛되게 보이던 젊은 아낙의 등에 업힌 어린아이는 엄마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줄음을 쫓는 모습과 함께 작은 조막손 등으로 연신 눈과 코를 비비며 열차 안의 우리들을 힘없이 올려다본다. 비비는 손등에 밀려 볼때기에 번진 콧물은 검게 말라 들어가고 있었다. 열마를 쉬었는지 뒤 따라온 디젤 기관차가 굉음을 울리며 역을 통과 하는데 아마도 급행열차였던 모양이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크지도 않은 역에 참 오래도 서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급행열차를 통과시키느라 우리 열차는 좀 오래 쉬었었던가 보다.

뒤따라 출발한 우리 열차는 몇 개 역인가를 더 지나며 열마를 달렸는지 가녀린 코스모스가 늘어선 역 구내에 자자들 듯 들어서더니 까익 쇠 바퀴의 마찰음을 길게 끌면서 멈춰 섰다. 우리의 목적지 황지 역이었다. 길게 끄는 마찰음보다 더 긴 기지개를 켜 후 플랫폼에 내리는 우리들의 귀에 “여기는 황지, 여기는 황지 역입니다” 어찌고 하면서 예의 그 강원도 억양으로 안내 방송이 흐르는데 작은 백열등이 녹슨 양철 갓을 뒤집어 쓴 채 흔들리듯 매달린 전봇대에 빼딱하게 걸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음성은 메마르기 그지없다.

아침부터 지나온 여느 역보다 크지 않은 작은 역사를 빠져 나와 역광장을 지나는데 말이 광장이지 어느 부잣집 마당보다 별반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한갓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광장 끝 역사 맞은편 두 전봇대 사이에 걸려있는 환영 현수막이 내 눈을 사로잡는다. 큰 바람 구멍이 뗏 개 송송 뚫린 기다란 광목천에 왼쪽 끝에 “환” 자 오른쪽 끝에 “영” 자를 붉은 글씨로 또 그 가운데에 검정 페인트로 “파독광부황지도착”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황지 청년회”라 적었는데 그 도시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쓴다는 어느 누가 썼겠지만 어설프기 그지없는 그런 환영 현수막이었다.

모습은 어설프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거는 황지 주민들의 기대가 묻어있어 여기에 머무는 동안 큰 불상사는 없겠구나 하는 안도가 새어나니 을씨년스럽게 보이던 그 현수막이 한층 정겹기까지 했다. 현수막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역 광장에 늘어선 우리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하숙집 배정을 받는 동안 먼저 도착해 있던 해외 개발 공사 황지 출장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본래 파독광부 교육은 도계라는 곳의 광업소에서 실시했는데 황지 광업소가 그 때 처음 교육 장소로 지정이 되어 앞으로 계속 될 것을 기대하며 제1차인 우리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주민의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깊은 안도감이 스며들며 내면에 자리 했던 두려움이 걷히었다. 사실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는 광산촌이라는 곳이 전국의 주먹들이 모여들어 드세기 이를 데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잔뜩 긴장 되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다.

출장소장의 호명에 따라 열을 지어 늘어선 우리들은 각자 예정된 하숙집을 배정 받았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더 들은 후 무리무리 배정된

하숙집으로 향하는데 우리를 미중 나온 아낙은 출산 달이 가까운지 배가 위태롭도록 커 보였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아낙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우리들 여섯 명을 맞이하는 하숙집 입구에는 “소망 정육점”이라는 간판이 걸려있었다. 이걸 또 윈 횡재인가? 하숙집이 정육점이니 쏠쏠히 고기반찬을 맛보겠구나 하는 기대로 방을 배정 받고 들어가 각자 가지고 온 짐들을 푼다. 짐을 푼다고 이야기는 해도 뭐 대단히 풀 짐도 없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속옷 몇 벌이 전부이니 뭐 그리 풀 짐이나 있었겠는가. 아무튼 갈아입을 옷이나마 꺼내서 구석에 걸려있는 햇대에 걸쳐놓고 깔고 덮을 이부자리를 정하는 것이 그 이후 한 달간 살 준비의 전부였다.

돼지고기로 베풀기 목구멍 돌가루

광산 실습을 위한 첫 출근길, 족히 한 시간은 걸었을까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일 생각을 하지 않던 울퉁불퉁 모양 없는 돌들이 박힌 산길이 넓은 광장과 연결되며 희미하게 광산 건물이 나타난다. “대한 광업 진흥공사 황지 탄광”이라는 역시 석탄 가루에 찌든 듯 검게 변한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걸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노무과장의 안내로 강당에 들어선 우리 모두는 광업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안전 감독관의 광산 내 안전에 관한 교육은 물론 안전모와 안전 헬멧에 부착하는 조명등을 위시해 각종 지급품을 받은 후 모두 작업장 배치를 받는다. 다음 날부터 우리가 채탄 실습을 해야 하는 지하

작업장이었다.

삽이라고는 집에서 화단을 가꾸며 손에 쥐어본 것이 전부인 내가 지하에 들어가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캐야 한다니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한심스러운 게 어디 나 하나뿐이겠는가. 우리 일행 모두가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게다. 우리가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학교 공부를 게을리했던 사람이라면 합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일행 중에는 상당 부분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기에 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한번 입을 열면 단을 줄을 모르던 봉규도 광산에 머무는 동안에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말을 잇은 듯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는 정시인 새벽 여섯 시까지 출근해서 곧바로 갱내에 들어가 오후 두 시까지 채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잊혀졌던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점심때가 채 되기 전에 일정을 마친 우리 일행은 다시 걸어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아침 출근길의 어둠으로 모양을 알아보지 못한 듯 기억에 없던 개천 위의 다리를 건너오는데 개천 바닥이 모두 검정 색이고 흐르는 물마저 검정 일색이다. 아하, 이래서 탄광촌 아이들은 시냇물을 그리면서 물빛을 검정 색으로 칠한다고 하는 구나하고 깨달으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데 누군가 내 지르는 소리가, 야, “여기는 물도 새까맣다.”라며 신기해했다.

넷가를 건너 동리 어귀에 들어서니 이젠 어제 보지 못했던 아님 느끼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풍경이 내 두 눈에 들어왔다. 한 집 건너 하

나뭇잎이나 되는 듯 흔하게 보이는 게 정육점이고 또 정육점 안에는 어디나 별장게 타오르는 구공탄 불이 드럼통으로 만든 화덕 안에서 이글거리는 게 보였다. 고향이 대관령이라는 병수가 본래 광부들은 언제나 목에 돌가루가 걸려있으니 그 돌가루를 씻겨 내려가게 하려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푸줏간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고 그럴듯한 아는 체를 했다. 돼지고기도 껌데기에 털이 드문드문 남아 있는 것이라야 거칠거칠해서 돌가루가 잘 벗겨진다고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하숙집이 정육점이라는 것도 그리 신기하다거나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집에 하숙을 들게 된 것이 아니고 그저 장소에 맞는 하나의 풍경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 목에도 그렇게 매일 돼지고기로 벗겨내야 할 돌가루가 쌓일 거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이르자 갑자기 목안에 스멀스멀 돌가루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며 새로운 두려움이 나의 말수조차 앗아가 버리고 만다.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푸줏간 안의 연탄불 화덕 위에 얹은 석쇠들에 서는 하나같이 굵은 왕소금을 듬성듬성 얹은 돼지고기가 지글거리며 익고 있는 것이 보인다. 진풍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둘러앉은 아저씨들 중 누구 하나 손이라도 씻고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석탄이 새까맣게 묻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입 언저리까지 석탄을 묻힌 채 앉아서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던가 조금이라도 익은 고기가 보이면 넋름 들어서 몹시도 뜨거운 듯 앞니들을 하얗게 드러낸 채 헉헉거리며 씹어 삼키는 모습은 광산촌이 아니고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다. 주어진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광부 아저씨들이 그날 몸속에 들어가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가루와 석탄 가

루를 씻어 내려는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행사인 것이었다.

고기와 술이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손은 물론 입 언저리의 석탄이라도 씻어내고 먹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한편으로는 몸속에 들어간 돌과 석탄 가루가 얼마나 밍고 무서우면 저렇게 허겁지겁 씻어내려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걸까 하는 순간의 상념에 이르자 내 가슴으로 애잔함이 스며든다.

“나도 이제 광부가 되려는 문턱에 있는데 매일 저렇게 돌가루를 씻어내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이르니 가고자 하는 길에 건잡을 수 없는 후회가 엄습하는가 하면 당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신기에 가까운 사끼야마의 능력

다음날은 난생 처음으로 광산에 가서 석탄을 캐내는 막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하는 날이다. 탄광 입구에서 갱도에 들어갈 때 광부가 타는 차를 타고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들었다. 지정된 통로만 이용할 것, 갱내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재수 없는 말을 하지 말 것, 사끼야마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 등등 주로 막연하지만 사고 방지에 필요하다는 사항들로 어느 것 하나 그 때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는 생소하지 않은 말이 없었다. 사끼야마라는 생소한 말에 머리를 갸웃이는데 우리 조의 실습을 담당한 늙수그레한 광부 하나가 그 말은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는 선탄부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 준다. 말로만 듣던 광산 또 그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장이라는 데서 본 환

경은 내가 그 때까지 상상도 해 보지 못하던 곳이었다. 어쩔 이런 데가 다 있을까 나는 이런 데서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견뎌 낼까? 여기서 20년도 더 일 했다는 저 사끼야마 라는 이는 어떤 사람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 내게 떠오르는 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젊은 패기로 무장한 나인데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것저것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차차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살펴본 사끼야마의 작업 모습은 정말 신기에 가깝다. 탄맥의 중량을 정확히 찾아내어 작은 삽과 곡괭이 하나로 파낸 막장에 나무 동발을 세우며 자기 몸 하나 들랑거릴 구멍을 뚫고 마침내는 맨 위에서부터 주위에 묻혀 있는 석탄을 캐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석탄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능력은 신통력에 진배없었으니 내 눈에는 아주 경이롭게 보이기도 했다. 하기야 광산의 생산직 종사자 중에서는 수입이 가장 많다는 사끼야마이니 경험이 풍부해야만 함은 물론 채탄 능력 또한 출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독 일 광산에는 저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간다고 나서는가 또 의 기소침 해지려는 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짜잉 - 울리는 전기 벨 소리다.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기쁜 마음으로 사끼야마가 이끄는 대로 인차가 대기한 곳에 오니 먼저 교육생들이 타고 갱 밖으로 나가란다. 자기들끼리만 있었다면 사끼야마가 먼저 나갔을 터인데 우리를 먼저 배려하는 걸 보면 황지 주민 회의 결정 사항이 여기서도 잘 지켜지는 듯 보였다. 너나없이 생전 처음 경험 해 본 갱도 속의 하루였고 후회와 두려움이 범벅된 여덟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성취감 또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이기도 했다.

회회낙락 산길을 내려오는 무리 속에서 누군가 한마디 매우 선동적으로 내 뱉는 것이 “야 우리도 목구멍에 쌓인 석탄가루 좀 벗기자” 하는 것이다. 이 말에 그래 그러자, 그거 좋지 모두 한마디씩 보태며 의기투합 한다.

동네 어귀부터 늘어 선 것이 술을 함께 파는 정육점이니 그 주점들이 우리 일행 120명을 삼키는 데는 불과 몇 집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 나 또한 몇 집채 인가 지난 후 같은 하숙집 친구들과 어울려 들어갔지만 손도 씻지 않고는 아무 것도 입에 넣을 수 없을 기분이다.

장독대 옆의 펌프에서 물을 퍼내 대야에 담고 손과 얼굴을 씻고 툭툭 흐르는 물을 그대로 한 채 술청에 드니, 나 외 다섯 명 모두가 누구하나 입 언저리는커녕 손가락 하나 씻은 사람이 없다. 두어 순배 돌아간 술잔조차 손에서 묻어난 탄가루로 가망게 물들어 가고 있다. 외눈박이 나라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던가? 모두 새까만 채 고기들을 씹으며 술잔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찌나 맛있게들 먹던지 혼자만 뽀얀 손과 얼굴을 하고 고기를 씹는 내 모습은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겉뚱뚱이로 보여 민망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나도 다음에는 씻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지 다짐했다.

파독 광부

참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디 나한테 뿐 이기야 하겠나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제 삼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던 회사에 다니던 그 해 여름

어느 날 우연히 들여다 본 신문의 광고 난에서 해외 개발 공사에서 주관하는 파독광부 모집을 알리는 제법 큰 광고를 보았다. 안정된 직장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득한 상황에서 무언가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게는 정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가 아닐 수 없었다. 반짝 빛나던 눈빛도 잠시 내 눈은 금방 다른 기사로 옮겨 가고 말았다.

독일에 광부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광부나 뺨이 든든한 선택된 사람들이나 가는 곳으로 알았지 시험을 치고 합격자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냥 포기하기는 대단한 기회를 놓치기라도 하는 양 아쉽기 그지없었다.

망설임으로 지냈던 그 며칠 후 시간을 내어 당시 종로구 청진동에 있던 해외 개발 공사에 들러 지원서 양식을 받아다가 정성스레 작성하고 구비서류 일습을 준비해서 접수를 시키려고 알아보니 접수비가 1200원이나 된다 했다. 내 한 달 월급이 12000원 쯤 했던 때이니 작은 돈이 아닌데 돈만 버리는 게 아닐까?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할 보장이 없고 합격한다고 해도 꼭 독일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게 아닌가? 매우 망설여지기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감일 즈음에 큰맘 먹고 접수를 시키기로 작성하고 원서를 제출 하니 접수 번호가 이천사백 몇십 번이나 되었다. 광고에 120명 모집한다고 했으니 숫자 그대로라면 경쟁률이 20대1도 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공연한 두려움에 후회스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시험에 합격할 자신은

커녕 그 때까지 20대1이나 되는 경쟁률의 시험을 쳐본 경험이 없었으니 말이다. 더욱이 식당의 백반 일 인분이 99원 해서 100원을 내면 거스름돈 대신 껌을 한 개씩 내 주던 시절이었으니 백반 12그릇 값을 한꺼번에 버리게 되면 아깝기도 할 것이고.

언제나 행운은 내 편이 아니라는 자조 속에서 살아오던 내게도 운이 따랐는지 필기시험을 치고 온지 두어 주일 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이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 차례였다. 또다시 망설여지는 관문이 아닐 수 없다. 키만 훌쩍 컸을 뿐 체력은 형편없어 자력으로는 턱걸이 세 번도 못하는 위인이니 힘을 제일로 쳐야 하는 광부로의 능력을 검사하는 신체검사가 겁날 수밖에, 거기에 신체검사비가 또 3000원이라니 작은 돈도 아니고.

기왕에 내친걸음, 그래도 도전이다. 검사비를 지불하고 접수증을 받아 신체 검사장에 나가니 보건 검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역시 모래자루를 지고 뛰는 체력 검사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나 보았다. 모두들 30킬로그램 모래 자루를 가볍게 어깨에 메고 잘도 뛰는데 나는 50미터만 뛰면 되는 거리에서 두 번씩이나 모래자루를 떨어뜨리는 불상사를 연출해 내고 말았다. 죽을힘을 다해 체력장에 임했던 결과 겨우 턱걸이로 합격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도움이었던지 모든 그 룹 별로 검사가 끝나고 각 개인에게 종합 구충제를 나누어주었는데 천사 같아 보이던 백의의 간호사가 내 손에도 구충제 한 개를 쥐어 주는 게 아닌 가.

내게 그 구충제는 정말 천사의 선물이었다.

야호, 합격이다! 얼마나 기쁘던지, 보건 검사 불합격자나 체중 미달

등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에게는 구충제를 주지 않았는데 내게는 주는걸 보면 나는 합격을 한 게 틀림없다.

여권을 받아 들다

비행기는 고사하고 배로 제주도만 다녀와도 해외에 나갔었다고 으스대던 때이니 외국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까짓 광부로 독일에 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실습까지 마치고 출국날만을 기다리던 그 3개월은 또 얼마나 지루한 날들이었던지. 잘 다니던 직장에 퇴직계를 내고 실업자가 된지도 벌써 4개월을 훌쩍 넘겼는데도 출국날은 커녕 신청한 여권조차도 나올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허황된 마음으로 외국 바람이 들어 직장도 걷어치우고 하릴없이 빈둥댄다는 이웃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쉬쉬하며 기다리는 날들은 얼마나 지루했던지, 조바심에 몸부림치며 기다리다 지칠 무렵 여권을 받으러 오라는 해외 개발공사의 편지가 왔다.

진의 여부가 궁금한 채 한창이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한걸음에 달려간 내 손에 쥐어주는 여권은 그때까지 내가 받아 본 어느 선물보다 귀하고도 반가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어렵사리 발급 받은 여권을 손에 쥔 나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기 정말 힘들었다. 평생 처음 쥐어보는 눈앞의 여권에 적힌 내용을 읽고 또 읽어보지만 그 안에 쓰여진 내 이름마저도 영 생소하게 보였다. 여권에 붙인 사진은 새로 산 점퍼를 입고 찍었는데도 어쩐지 어색해 보여

“에이, 넥타이를 매고 짝을 걸” 공연한 불만도 생겼다. 난생처음 받아 본 여권을 손에 쥐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들어간 나를 보는 어머니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훑아나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셨다.

시험을 치러 간다, 교육을 받으러 간다, 법석을 떨어낼 때는 그저 덤덤히 보기만 하시더니 막상 여권을 받아 들고 출국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하니 막내아들이 외국으로 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전해지는가 보다. 결혼 적령기가 지나 그 때도 이미 노총각 소리를 들어야 했던 막내아들이 외국을 가서 삼 년을 지내고 오면 서른을 훌쩍 넘기고 말텐데 결혼은 언제 할 것이며 또 돌아오거나 할 것인지 당신 살아생전에 다시 볼 수는 있을 것인지 별별 걱정을 다 하셨다.

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소년가장으로 어머니를 도와 내 뒷바라지에 자신을 고스란히 희생하던 형님도 하나뿐인 동생을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하신 모양이다. 처음에는 나가라고 스스로 권고하고 수험비며 신체검사비 무엇이던 아낌없이 내 손에 쥐어 주던 형님이었는데 여권을 들고 들어온 동생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이셨다.

만형은 부모 만잡이라고 했듯이 형님은 내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이다. 나와는 나이가 십 년이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심양으로 불리는 만주 봉천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동생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던 형님은 요즘 흔히 말하는 우리 집의 소년 가장으로 우리 세 식구의 생활에 보탬이 되느라 자신을 고스란히 희생 했던 분이다.

내 형님은 대천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수산 중학교를 학교 소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진학의 길이 보이지 않던 때 형님은 혼자 훌쩍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 역시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하셨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고등학교 삼학년이었으니 우리 형님은 그 때 당신의 동기생들 보다 아마 대 여섯 살은 더 위였을 게다. 그렇도록 어렵게 졸업한 고등학교였는데도 형님께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조차도 없다. 늦게 고학으로 학교를 마친 상황에 아마도 돈이 없어서 앨범을 사지 못하셨던가 보다. 아픈 추억을 건드릴 것 같아 지금까지 한번도 “왜 형님은 중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어요.” 물어보지를 못했다.

그런 형님도 이제는 막내아들과 며느리 또 손지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사대가 한 지붕 밑에서 행복한 여생을 즐기신다. 칠순을 훌쩍 넘기고 팔순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아직도 매일 테니스를 하러 운동장엘 가시는걸 보면 어쩔 쥘었을 때의 고생이 오히려 약이 되었던가 보다. 지금껏 한번 도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이 돌봐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지내지만 늘 감사하게 여기며 형님의 한결같은 건강을 비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내 염원이 형님이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독일, 독일 탄광

망설임과 기다림이 심신을 지치게 하던 육 개월을 황지와 서울에서 보낸 우리 120명은 드디어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 취한 고국산천을 뒤

로하고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도쿄의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다. 우리를 독일로 실어다 줄 에어 프랑스 전세 여객기를 타기 위해서다.

김포에서 아침 9시쯤 출발했는데 하네다 공항에 내려 확인하니 우리가 타야 할 에어 프랑스 여객기의 출발 시간은 오후 5시라고 했다. 할 일없이 공항 대합실에서 여섯 시간여를 점심도 거른 채 서성이던 우리들은 드디어 난생 처음 가까이 대해보는 금발 미녀들의 환영을 받으며 푸른 동체의 화려한 에어 프랑스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120명이나 되는 일행 중에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 단돈 몇 푼도 가지고 있는 이가 없었는데도 안내를 안 해 준 해외개발 공사를 원망해야 하는지 준비성이 없었던 자신들을 원망해야 하는지 아무도 입을 여는 이가 없이 모두가 그저 들뜬 기분뿐이었다.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이 달러화를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저 독일로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도 못했고 비행기를 타 본 경험이 없었던 우리들은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으니 점심을 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하네다 공항의 환승 대합실이었는데 일본 입국 비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밖에는 나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여섯 시간을 내내 거기서 죽치고 있었으니 우리를 가리켜 “가난한 조센진”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그 시절의 무지가 새삼 부끄러워진다.

김포 공항을 출발 하여 하네다를 거치고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30 시간도 훨씬 더 지난 후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 곳은 독일 산업의 중심지였

던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주도에 위치한 뒤셀도르프 공항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공항은 역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벌써 해가 떠올랐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지는 온통 회색 빛 일색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공항은 가뜰이나 겁에 질렸던 우리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갈색머리에 늘씬늘씬 하던 승무원 아가씨들의 맛깔스런 기내 서비스로 내어주던 백포도주의 맛에 취해 희희낙락 하던 일행은 갑작스레 바뀐 환경에 그저 어리둥절한 채 비행기를 내리는 모습은 아무리 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누구랄 것 없이 모두 검정색 양복을 입었는데 장시간 비행으로 조금씩 구김은 있어도 얼핏 보기에 모두 새로 맞춰 입은 듯한 양복들이었다.

그 때 우리들은 서울을 출발하기 전 독일의 현지 적응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들은 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예복으로 두루두루 잘 입을 수 있다는 검정색 양복들을 하나씩 맞추어 입었는데 우리 일행들은 서울을 출발 하면서 무슨 유니폼이나 되는 듯 대부분 이 양복들을 입고 있었으니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보스의 뒤를 따르는 마피아 단원들을 연상케 하는 모습 이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바뀐 환경에 잔뜩 주눅이 들어 연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걷는 소침한 모습 들 뿐 이라는 게 당당한 마피아 단원과 비교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숙사에 여장을 풀고 주말을 지낸 우리 일행은 월요일 첫 출근길에 올랐다. 황지의 탄광을 보고 겁에 질리던 우리는 걸으로일지언정 독일

의 탄광을 보고 난 후는 약간이나마 안도의 숨을 내 쉬게 되었다.

독일의 탄광은 우선은 황지의 그것과 같이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한 가운데 있다. 우선 출근길을 보더라도 기숙사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광산의 바로 정문 앞까지 태워다 준다. 광산은 겉에서 보기는 어느 공장과 다름이 없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지역의 중앙에 광구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이십 여 층 높이의 탑이 직경이 십여 미터도 더 되는 쇠 바퀴 네 개를 받치고 있다는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탄전이 옛 소비엣 연방의 우랄(Ural) 탄전과 독일의 루르(Ruhr) 탄전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있던 곳이 그 루르 탄전의 일부인 오버하우젠 광구였다(이 광산은 지금 폐광이 되어 아홉 홀짜리 골프장이 되어 있다).

처음 지하 광구에 들어가 본 우리의 입에서는 히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진 광산이 아니고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나 나올법한 지하도시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1000미터쯤 들어간 우리들의 눈에 나타난 광경은 우리들의 벌어진 입을 더욱 더 다물지 못하게 했다. 우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지하 광장은 황지 역 광장보다 훨씬 더 넓어 보였다.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철길이 나 있고 군데군데 채료창고, 기계실, 정비실이 늘어서 있는데 황지의 탄광과는 모양부터가 다르다. 이진 광산이 아니고 그냥 거대한 공장이 지하에 있는 형상이다. 제 이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다룬 나바론(Nabaron)이라는 영화에서 보던 나치 독일의 지하 무기 공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공장 같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석탄도 별로 묻어있지 않고 우리들이 입었던 하얀 작업

복도 그대로 뽀얀 채 전혀 석탄을 캐는 광부의 모습이 아니다.

교육 담당관은 신출내기 광부에게 지난 4 주일 동안 지상에서 받은 교육을 되짚어가며 이것저것 설명을 한 후 우리 앞에 대기해있던 전동차에 모두 타라고 했다. 한 칸에 20여 명을 태우는 전동차는 우리를 실은 다섯 개 객차 뒤에 자재를 가득가득 실은 트레일러를 몇 개나 더 달고 출발을 했는데 지상의 기차 길 터널만큼이나 크고 넓은 터널을 한참이나 달리던 전동차는 옆으로 난 작은 터널로 궤도를 바꾸어 암흑속을 더 달린다.

반 시간여나 죽히 달렸을 즈음 내린 곳은 작은 공간이 있는 끝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작은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고 직접 석탄을 캐는 작업장으로 더 내려갔다.

머리에 쓴 헬멧에 쏜 전등불 빛이 아니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 얼굴에 서서히 열기가 느껴지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문이 열린다. 열린 문으로 후속하고 뚰어 들어오는 열기가 가히 살인적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였다. 거기가 우리들이 앞으로 한 달간 석탄을 캐며 현장 교육을 받을 막장이라고 했는데 그 환경은 너무도 잔인해 보였다.

불과 반시간 전만 해도 독일 광산은 황지와는 사뭇 다르다고, 이견 광산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큰 공장과 다를 게 없다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던가! 겨우 반시간이나 지났을까 한 새에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은 이제까지 상상도 하지 못하던 모습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놀라움을 눈치라도 챘는지 인솔한 교육 담당관은 앞 벽에 붙어 있는 온도계를 말없이 손으로 가리켰다. 손끝을 따라 올려다본 온도계

의 수은주는 섭씨 2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상에는 아직도 엄동의 찬바람에 겨우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섭씨 28도라니 그것도 어디선가 강력 에어컨을 가동해서 그렇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 두리번거리니 한쪽에는 뒼뒼거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 새 없이 석탄이 실려 와서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운반되어 나가며 흩날리는 석탄 가루는 눈을 뜨고 있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한 옆에서 기계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광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게 새까만데 눈만 희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지 고릴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 본 그의 눈동자는 흰 것이 아니라 석탄 먼지에 시달려서인지 아예 붉게 충혈되어 금세 피라도 흘릴 듯한 모습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선 그 사람은 석탄 가루를 새까맣게 뒤집어쓰고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만든 것인지 몰라도 군용 텐트 조각 같은 두꺼운 천에 띠를 대어 만든 어린애 턱받이 같은 것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앞부분만 살짝 가린 채다.

그것을 본 우리들의 얼굴에 희죽희죽 웃음이 돌아나는데 유난히 희게 빛나던 하얀 이를 내어 보이며 싸익 웃던 그 광부 어쩌나 미웍하게 보이던지 사십 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갑작스레 웃어 제치며 떠들어 대는 우리의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그 광부, 작업장이 그렇게 덥다 보니 실오라기 하나라도 몸에서 내려놓고 싶었던가 보다. 어쩔 우리를 향해 “너희들도 앞으로 당해봐라” 하며 오히려 우리를 동정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육중하기만 하던 연장들

지하 작업장을 돌아본 다음날 각자 배정 받은 작업 위치로 출근을 했다. 한 달 동안이나 광산에 출근하여 지상 교육장에서 오전 네 시간은 연장 다루는 방법 지하에서의 신호체계(지하에는 늘 찰흙의 어둠이 드리워 있으니 모든 신호는 불빛으로 한다)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어김없이 독일어를 배운지가 한 달이 지났으니 두 번째 지하에 들어가는 날의 여섯 시 출근도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5시에 기상하여 간식으로 먹을 샌드위치와 과일을 싸 들고 버스를 타고 가 출근카드에 시간을 찍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 내 충전기에서 전조등 배터리를 빼내 허리에 차고 5리터 물통에 수없이 늘어선 수도꼭지에서 입맛에 맞는 허브차를 따라 가득 채우면 찌르르웅 - 아침 일과를 알리는 여섯 시 벨이 울린다. 예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 광장을 지나 전동차를 타니 이내 어제의 그 교육 막장으로 데려다 준다.

예의 별거숭이 광부가 작업하던 그 곳을 지나 한참을 걷는데 군데군데 희미한 전등불만 보이는 암흑의 동굴(갱도) 속을 걷기만 할 뿐 도무지 작업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백여 미터나 걸었을까 우리를 세운 교육 담당관은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 독일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가다 서고 서서는 작업장을 배치 받기를 십여 차례 나를 포함한 세 명을 데리고 막장을 기어(막장의 높이가 일 미터 밖에 되지를 않으니 기어간다고나 해야 했다.) 200여 미터나 더 가더니 환하게 불이 켜진 아까의 그 갱도와 평행으로 뚫린 또

다른 갱도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일을 하란다.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길라도 했던지 먼저 와 있던 독일 광부 하나는 반갑게 우리를 맞는데 덩치가 얼마나 크던지 작지 않은 내 몸뚱이의 두 배는 족히 되어 보였다. 반갑다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데 얼떨결에 잡아보니 그게 어디 손인가, 솔뚜껑도 작은 뚜껑이 아니다. 우와 이런 사람에게 걸리면 뼈도 추리지 못하겠다 생각하며 좁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우람한 덩치와 내민 손에 비해 아주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한 이 독일인은 시익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자기는 마이스터 한스 훈데프라이쉬(Meister Hans Hundefleisch)라고 했다.

여기서 마이스터라는 호칭은 황지 탄광의 사끼야마쭈 된다. 숙련된 선탄부로서 교육장에서 우리의 해당 교육을 담당하는 그룹 교관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성명을 한스 훈데프라이쉬라고 소개하는걸 보면 이름이 “한스”이고 성은 “훈데프라이쉬” 인듯 한데 참 이상한 성도 다 있다. 훈데프라이쉬라면 우리말로 개고기라는 뜻인데 이걸 아주 상놈의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이름이 다 있나 생각하니 의아하기 그지 없다.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출신지나 직업 또는 생활의 일부에서 따 왔으니 나중해야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말로 옮기면 목수, 재단사, 소피(Rindsblut) 등을 위시해서 요일로는 “월요일(Montag)”에서 “일요일(Sonntag)”까지 심지어 “공휴일(Freitag)”이라는 것까지 벼라 별 성들이 다 있다. 그 훈데프라이쉬라는 이름의 뜻을 이해한 동료들은 누구나 모두 한마디씩 수군거리며 낄낄댄다. 이 사람 이름과는 다르게 어찌나 자상하게 우리를 가르치려는지 힘들고 위험할 듯 보이는 일은 설명만

하고 직접 자기가 하려ندا.

작업장에는 막장에서 필요로 할 모든 재료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다. 삼, 곡괭이, 나무 동발, 쇠 동발, 버라별 물건이 다 있는데 우리 개고기 아저씨 자기 있는 곳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여자만 없다고 했다. 잘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띄엄띄엄 알아듣는 말로는 자기에게는 여자는 집에 가도 없단다. 아마 이혼을 했던가보다.

광산 지하에서 일한지 30년이 되어 얼마 안 있으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람인데 목에서는 풍선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쉬” 소리가 약간씩 나는 아저씨였다. 어쩔 이미 돌가루가 폐에 붙어 폐의 활동을 방해하는 진폐증에 시달리는 모양이었다. 이것도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첫날 작업을 하게 된 이 갯도는 그 환경이 훨씬 좋았다. 지상에서 자재를 들여오는 곳이어서 먼지도 덜 날뿐더러 지상에서 불어 넣는 신선한 공기가 제일 먼저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던 갯도에 비해서는 그 온도가 섭씨 5도도 더 낮은 곳이었다.

여기엔 우리 눈에 아주 신기한 물건이 있었다. 정리되어 있는 연장들 중에 보이는 삼인데 자루가 긴 것에서부터 짧은 것 또 날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그 중간 것 버라 별 모양이 종류별로 있는데 날이 큰 것은 얼마나 크던지 그 삼의 날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던 삼태기 만하다. 우리가 삼을 깔고 앉아도 그 삼날이 둥그렇게 궁둥이 밖으로 한 뼘씩이나 나오는 그렇게 큰 놈이다. 저 삼으로 석탄을 뜨면 나는 들지도 못할 텐데 큰일이 아닌가, 또 다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거기서 캐는 석단은 비중이 아주 낮은 무연탄으로 그 삼으

로 하나 가득 떠도 별로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 사람하고는 처음 일을 해 보는지 우리 개고기 사끼야마는 무엇이 그리 궁금했던지 우리에게 묻는 말도 많았다. 내가 어디든 눈길만 주면 그게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려 애쓰면서도 틈틈이 묻는 게 코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코리아에도 광산은 있으며, 맥주도 있는가? 아시아 사람은 가라테를 잘 한데 너희들도 할 줄 아는 가? 참말로 알고 싶은 게 많은가 보았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연방 무언가를 물어댔다.

가라테라는 말이 나오자 내게서는 금방 애국심이 솟아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주보다는 영양가가 훨씬 높은 라이스 와인(막걸리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을 더 많이 마시고 가라테는 안하고 그건 찻도 되지 않는 태권도를 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태권도 도장은 가라테 도장보다 훨씬 많다. 내가 씨부렁거리는 독일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대는데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지 누가 태권도를 배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 보란다.

그 말을 듣던 우리의 김석화 씨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면서 별떡 일어서는 게 아닌가. 전라남도 화순 어디선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왔다는 사람인데 그 때 우리의 수준으로는 노털 축에 들도록 나이가 많은 동료였다.

일어선 김석화 씨 엄숙히 품을 잡더니 날렵하게 품세 시범을 보인다. 여기저기 수북이 쌓인 자재 더미를 요리조리 잘도 피하면서 돌아가는데 중간 중간 질러대는 이얍! 하는 기합 소리도 우렁차다.

한참을 구경하던 우리 개고기 씨 격파도 할 줄 아느냐고 묻는다. 신

이 난 김석화 씨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며 개고기 씨가 내미는 나무
삽자루를 받아 쥔 우리의 사범 김석화 씨 요리조리 살피더니 듬직한
벽돌 두 개를 놓고 그 가운데 잘 얹어놓은 후 끼고 있던 장갑을 벗으며
격과 폼을 잡는다.

드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들어 올리던 오른 손을 칼날 같이 세
워 “이 압”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수도로 내려쳤다. 아! 그러나 부러
졌으면 무슨 문제가 되었겠나만 부러지라는 삽자루는 휘 청 하더니 그
대로 말짱하다.

수도로 내려 뚫음과 동시 으윽! 소리를 내 지르던 김석화 사범 님
왼손으로 감싸 쥔 오른손을 사타구니에 처박고 뱅글뱅글 돌며 죽는시
늬를 했다.

우하하하 … 신나게 웃어젖히는 데 우리의 마이스터 개고기 씨는 죽
겠다고 돌아치는 김석화 씨를 부등 켜 잡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시키라는 교육은 시키지 않고 태권도를 시키다가 부
상을 당해서 내일부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보라, 그 책임이 모두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김석화 사범님의 멋들어진 태권도 시범에 이은 부상을 수습하는 사
이 언제 시간이 갔는지 어느덧 일과가 끝난 모양이다. 작업장의 모든
전등이 세 번씩 깜빡이더니 우리들의 마이스터는 재빠르게 작업장을
정리하며 우리보고 나갈 준비를 하란다. 걸어 놓았던 작업복을 찾아
입고 얼른 허브 차 통을 찾아 어깨에 걸쳐 매는데 아침에 채워 오며 언
제 다 마실까 싶던 5리터 물통이 어느 샌가 비어있다.

지열도 지열이려니와 먼지 속에서 작업을 하려니 입 안에 쌓이는 석

탄 가루를 씻어 내느라 쉴 새 없이 마셔 대었으니 6시간 동안 벌써 차를 5리터나 마셔댔던 것이다.

막장을 통해 아침에 들어온 길을 되짚어 나갔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하루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침의 그 벌거숭이가 있던 곳까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나오니 우리를 실어다 주었던 전동차가 다시 대기를 하고 있다. 들어갔던 길을 되잡아 나오니 중앙 엘리베이터 광장에는 이미 수 백 명은 되어 보이는 광부들이 모여섰다.

한편으로는 막 내려온 엘리베이터가 토해 낸 오후반 광부들이 대기한 인차를 타기 위해 바빠 움직이는 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막 일과를 끝낸 우리들이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해 있는 모습들이다. 우리 한국 광부들도 있지만 이미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새까만 석탄가루를 뒤집어썼다.

한 번에 일백여 명을 실어 나르는 삼층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윈 일 독일에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던 햇빛이 지붕 틈새로 비취 들어온다. 와! 모두가 질러대는 환호는 황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햇빛을 좋아하는 건 동서양이 다 같은 모양이다. 우리들은 물론 독일인 터키인 할 것 없이 틈으로 비추이는 태양빛을 보고 모두가 즐거운 환호 소리를 뱉어낸다.

소시지와 맥주

이제는 창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목욕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막

장에서 중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잊은 듯 가볍기 그지없다.

목욕실로 들어가 열린 작업복을 벗어 걸어 놓고 폭포 같은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실에서 몸에 땀과 범벅으로 묻어있는 석탄 가루를 씻어내고 자신들의 평상복을 걸어둔 방으로 가서 옷을 입고 퇴근을 하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샤워실은 머리 위에 폭포 같은 물줄기를 쏟아 내는 샤워 꼭지가 달려있어 한꺼번에 백여 명 이상이 동시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러 가는 길에 독일 광부 하나가 앞서가던 우종의 등을 툭툭 치고는 무어라 말을 거는데 바라보니 우종의 등에 땀이다 만 채 조금 남은 석탄 자국이 보인다.

그 이야기를 우종에게 해 주니 “이야, 독일 사람들 짜다더니 정말 짜구나, 이 석탄 조금 가지고 간다고 그걸 놓고 가란다. 라고 중얼거리며 샤워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그의 익살에 와하하하 박장대소를 하니 그 독일광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며 얼굴을 붉힌다.

옷을 갈아입고 건물을 빠져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둥근 탁자들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무언가 먹고들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 보인다. 따끈히 데운 소시지와 맥주 등을 파는 구내매점이다.

어느새 쏘시지를 샀는지 어린애 팔뚝만한 쏘시지를 두 개나 든 우리들의 마이스터 개고기 씨는 슬며시 김석화 씨 옆으로 와서는 쏘시지(Bockwurst) 한 개를 건네주며 수도로 잘라 보라는 시늉을 한다. 그 의미를 알던 우리 몇은 우하하하하 … 또 다시 신나게 웃어젖힌다.

하도 먹음직스럽게 보여 나도 슬며시 줄 끝에 섰다가 받아 든 브론헤(Broetchen)이라고 하는 노릇노릇 굽혀 주먹만한 빵 한 개가 곁들인 소시지와 맥주 한 병이 일 마르크 오십 페니히였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 130원쯤 했는데 받을 월급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값이다.

값이야 고하간에 받아 든 소시지에 겨자를 듬뿍 묻혀서 얼른 한입 물고 우지끈 깨물으니 따끈한 육즙과 함께 부드럽게 씹히는 독특한 맛 내 입맛에 아주 딱 이었다.

물론 겉은 바삭바삭 하면서도 속은 말랑말랑 부드럽기 그지없는 브론헤 역시 형언하기 어려운 독특한 맛이 있다. 아하, 독일 광부의 목구멍 탄가루 벗기기는 황지의 그것과는 사뭇 격이 틀리구나 생각하며 맛있게 먹고 광산을 나섰다.

학사 광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 날도 일과가 끝나고 함께 먹고 웃으며 왁자지껄 기숙사로 돌아오니 먼저 돌아 온 친구들이 웅기중기 모여 작은 소란이었다. 영문을 물으니 독일에 온지 한 달여가 되도록 별 말없이 외톨이로 지내며 매우 우울해 보이던 유석중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며 당장 간다고 짐을 싸고 있었다.

얼른 석중의 방에 들어가 보니 밤 근무를 하고 돌아온 그가 잠을 자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어느새 술을 한잔 했는지 핏발이 선 눈으로 나

를 보더니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서울로 가려는데 나도 함께 서울로 가잔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제법 귀티도 보이고 명랑해 보이며 불임성이 있는 듯 사람도 잘 사귀더니 독일에 오자마자 눈에 보이게 말수가 줄어들고 언제나 우수에 차 보이 던 그다. 무엇이 그를 폭발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이 사뭇 심상치 않다.

서울에서 H대학교 건축 공학과를 졸업하고 어느 건축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독일에 오기로 마음먹었는데 자기는 계약을 마치면 독일에 남아 공부를 계속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다. 그러나 며칠 지하에 들어가 일을 하고 보니 3년을 견디는 게 도무지 자신이 없게 생각되었던가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언제나 나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일에 온 처지가 자기와 비슷하다며 함께 노력해서 성공하여 돌아가자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던 그였다. 그러던 그를 오늘은 내가 위로를 해 주어야 하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겨우 달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니 막상 갈 곳이 없어 생각 끝에 간 집이 내가 퇴근만 하면 동료들을 피해 혼자 찾아가던 작은 맥주 집이었다. 언제고 그곳에는 독한사전 한 권 만 바지 뒷주머니에 찔러 넣고 가면 내게 모든 게 해결되었던 집이다.

나는 독일에 올 준비를 하면서도 해외 개발 공사에서 시키는 독일어 교육 시간에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집에 있는 시간에도 틈만 나면 독일어 교본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연한

결과였던지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독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법 그네들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 비밀스런 노력은 독일에 와서도 계속 되었는데 언제나 일과 시간 이후에는 한인 동료들을 피해 사전 하나만 달랑 들고 이 술집을 찾아오면 내게 독일어를 가르쳐 줄 사람은 줄을 서있었다. 그날 강의 시간에 배운 독일어를 여기 와서 즉시 써먹는 것이다.

손님들은 대부분 광부들이었지만 언제나 들어서며 “그뤼카우프(Glueckauf)” 인사를 건네면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던 그런 친구들이 있던 맥주 집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그 지방에는 아시아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갔던 곳이다. 왜소한 몸집에 새까만 머리하며 쪽 찢은 두 눈 희지도 검지도 않은 적당히 갈색으로 그을은 듯 보이는 우리의 피부는 그들의 눈에 매우 신기하고 귀엽게 보였던가 보다.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더 자기들의 말을 배우려고 사전을 끼고 다니는 이 작은 코리아너(Koreaner)는 그들이 보기에 그저 귀여운 하이틴으로 보여 밋지 않게 생각되었던 게 틀림없다. 언제나 발음 하나라도 좀 어색하게 하면 즉시 고쳐주는가 하면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느라 땀을 흘리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슬며시 건네는 내 사전을 받아 들고 손수 단어를 찾아서 가르쳐준다.

어디 그뿐인가 가끔 맥주도 한 잔씩 보내주니 몇 잔 받아 마시고 나면 더욱 혀가 부드러워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어렵게 생각되던 독일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니 이걸 그야말로 핑 먹고 알 먹고였다.

유석중과 함께 들어서는 나를 본 우리 친구들 사방에서 팔을 높이 쳐들고 “글뤼кау프, 팍(Glueckauf, Pak)”을 외치며 반갑게 맞아 주는데 이를 본 유석중은 매우 경이스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다. “글뤼кау프”라는 말은 독일 광부들끼리 하는 인사말로 “안전하게 올라 오십시오.”라는 뜻으로 작업장이 지하이니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올라오기 바란다.”라는 기원이 담긴 광부 특유의 인사말로 우리가 보통 하는 “조심하세요” 하는 것과 같은 인사다.

의아해 하는 석중과 자리를 잡고 앉아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에 더해서 우리가 독일에 온 것은 광부로 머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할 학비를 장만하러 왔고 장가 갈 밑천을 마련하러 오지 않았나, 그러니 어떻게 목표도 달성하기 전 육체가 고단하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도 무척 힘들다. 그러나 이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길은 독일어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면 되도록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기 와서 독일 사람들과 어울리며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 어서 독일어를 배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힘내자!

별로 준비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명 받을 열변도 아닌데 내 이야기를 듣던 석중의 눈빛이 조금은 변하는 느낌이다.

평소와는 달리 친구를 데리고 와서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코리아너 팍을 흘금흘금 쳐다만 보던 친구 하나가 슬며시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

면서 어느 틈엔가 오늘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 해 주었다. 그러나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어찌 제대로 말해줄 수 있었겠나? 한말 또 하고 사전을 넣다 뺀다 하기를 여러 차례 거치고 나서야 그 친구 우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렵פות이 이해가 되는가 보다.

어렵게 의사를 통하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 가던 석중을 보며 내 이야기를 듣던 이 친구 석중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자기는 이제 스물세 살에 역시 광부라고 했다. 우리에게 비하면 서너 톱 아래 동생이 되는 이 친구, 자기 아버지는 40년 동안 광산에서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집에 있는데 자기는 더 낡은 직업을 갖기 위해 아침에는 광산에서 일하고 저녁 시간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더군다나 자기는 공부를 하기 위한 돈이 더 필요해서 광산에서도 제일 어려운 굴진(갱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젊은 이 친구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어 광산에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체격이 좋은 독일 사람이지만 아침 시간에는 다른데도 아닌 광산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대학에 다닌다니 그는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되었다. 더군다나 맥주를 석 잔이나 시켜서 우리에게도 한 잔씩 나눠주며 마시고 힘내란다. 참 고마운 친구였다.

맥주를 두어 잔 더 마신 석중이 다시 힘이 솟는가 보다. 눈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을 머금은 채 내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함께 힘내고 성공해서 돌아가자며 제 방 냉장고에 돼지 족을 삶아서 넣어둔 게 있으니 가서 한잔 더하자는 말도 잊지 않는다.

마음은 진정이 되지만 안주 없는 맥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보다. 독일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는 맥주를 엄청 마셔 대는데 이렇게 술집에서 마실 때는 맥주건 포도주건 또는 위스키건 전혀 안주가 없이 술만 마셔 댕다. 꼭 안주라고 한다면 간간히 독주를 한잔씩 털어 넣는 게 고작이다.

저녁시간 얼큰한 기분에 어깨를 맞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발걸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헬라우!

석중은 이제 서울에서의 모습을 서서히 다시 찾는 것 같다. 대단히 늘은 건 아니라도 제법 말수가 늘었고 얼굴엔 그런대로 활기도 보였다.

다음 날 저녁에는 나를 따라 나려고 싶어 하는 것을 “함께 가면 우리끼리 한국말이나 지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너는 다른 데를 찾아봐.” 하며 등을 밀었던 것이 못내 미안하다.

이 친구 계약 중에 간호사로 왔던 아주 현명해 보이던 처녀와 결혼을 했고 광산에서 계약이 끝난 후는 간호 장학금을(부인이 간호사의 급료로 남편의 학업을 돕던 것을 간호 장학금 이라고 했다.) 받으며 공대에 진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아직까지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천하가 회색 빛 일색이던 흑독한 겨울이 잦아들며 제법 햇빛을 보이는 날이 많아지던 3월도 중순을 지난 어느 금요일 아침 출근길이었다.

주 5일제로 누가 뭐래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우리 것인데도 그 5일을 지내기가 서울에서 한 달을 견디기보다 힘든 시간이었다.

작업 환경은 각오를 한 바이지만 다루어야 할 연장이나 기구들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으니 하루를 견디는 게 고역이라고만 표현하기는 부족함이 너무나 컸었다. 그러나 하루만 견디고 나면 이틀간의 휴식이 기다리는 금요일 출근시간의 발길은 무겁지만은 않다. 하루쯤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해도 다음 이틀은 내 것이라는 희망도 있고 거기다 이제 두어 주 만 더 견디면 두 달 교육 기간을 끝내고 여니 광부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현장에 배치를 받게 될 때였으니 그 날의 발걸음 또한 여니 금요일 못지않게 가볍던 날이었다.

독일의 3월 아침 여섯 시는 아직도 한밤중이니 그 이른 시간에 천근이나 되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작업장으로 향하는 처지는 아무리 청운의 꿈을 이루는 준비로 내딛는 걸음이지만 어찌 가벼울 수만 있었을까. 그 날도 쌀쌀한 아침 공기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면서도 오늘 하루만 견디면 이틀을 논다 라는 생각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데 앞에서 웬 여자들 몇 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시끌벅적 한걸 보면 거나하게 한잔씩 한 모습들이다.

어느새 우리들 옆을 스쳐 지나스가 싶더니 “헬라우” 소리와 함께 뭉클 무엇인가 내 입으로 하나 가득 들어온다. 억!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이 아줌마들 우리들의 목을 하나씩 끌어안고 볼때기에 키스 세례들을 퍼 분는데 이걸 사뭇 성폭행을 방불케 한다.

입안에 들어온 것이 다른 것 아닌 저들이 쳐 넣은 소시지 도막인 것을 알아차리기 무섭게 뿔뿔히 뻗어내고 어안이 병병해 있는데 아랑곳

하지 않던 그녀들은 어느새 저만치 사라지고 있다. 헬라우, 헬라우를 연발하면서.

버스를 타고도 두어 그룹 여자들이 보이는데 그들도 모두 얼근한 채 무엇이 그리도 즐거웠던지 모두 히히낙낙 이다. 그때서야 그 며칠 전 작은 맥주 집에서 내 물주들이자 독일어 선생님들이 해 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목요일은 바이버파스트나흐트(Weiberfastenacht)라는 여자 카니발(Karnival)인데 남자들은 조심을 해야 하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나중이야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이지만 그리스도교 종교국가인 독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난 받고 죽은 마지막 수난주간까지 육주일 동안을 근검 금욕 생활로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함께 아파하며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참회로 지내는데 이 기간이 오기 전에 지내는 축제인 카니발(사육제)을 매우 즐겁게 지낸다.

사육제 마지막 일주일의 목요일이 여성 축제일 인데 이 날을 맞이하는 여자들은 광란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즐긴다. 이날의 대표적인 사건은 여자들이 가위를 가지고 다니며 거리에서건 사무실에서건 넥타이를 맨 남자들만 보면 그들이 비록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달려들어 넥타이를 사정없이 잘라간다.

이날 여자들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잘라온 넥타이를 무슨 승리의 펜던트 인양 주옥 벽에 걸어 놓고 자르게 된 무용담을 이야기 하며 자못 의기양양해 한다.

바로 남자의 심벌을 자르는 상징적인 썰러머니다.

이 날만은 축제를 즐기려는 여성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축제장에 나

타나서는 춤과 노래로 밤을 지새우고 누가 누구와 즐기던 아무도 심지어는 자기 남편도 상관을 하지 않는단다. 참견을 하려 드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일 년 중 그 하루도 편하게 해 주기 싫어하는 폭군이거나 좀팽이로 낙인 찍혀 2급 신랑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광란의 밤이 어제 저녁이었으니 아까 그 이쭈마들 밤새워 질펀하게 즐긴 기분으로 우리를 납치해서 데리고 가지 않은 게 이상할 뿐이었다. 어쨌 이 이쭈마들 지난밤을 즐긴 결과로 다음 크리스마스 썸카니발 베이비를 출산할 지도 모르는 일이고.

늦게서야 나도 그녀들을 향해 헬라우!를 외쳐주고 싶었다. 헬라우는 사육제 기간에 지르는 이 지방 사람들의 환호 소리다.

고국 광업 발전의 역군

독일 광산에 도착 한 후 지상에서 한 달 또 지하에서 한 달 도합 두 달에 걸친 현장 교육이 모두 끝났다. 과독광부로 신청한 후 장장 십여 개월에 걸친 준비와 교육 기간의 대미를 장식하고 이제 진짜 국제 광부가 되고 말았다. 눈물과 한숨으로 범벅이 되었던 나날들이었지만 이제 하릴없이 한국에서 독일로 온 애기 사끼야따가 된 것이다.

교육이 끝나는 날 강당에 모인 우리들에게 그동안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오버슈타이거 라스로프(Obersteiger Laslop) 씨는 무사히 교육을 마친 것에 축하를 한다며 우리가 교육 중에 캐낸 석탄을 값으로 치면 교육비와 월급을 모두 충당하고 남는다고 칭찬을 했다.

이제 우리는 각자 광구에 들어가 채탄 작업에 투입되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 모두 사고 없이 무사히 계약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의 광업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격려로 교육 종료를 알렸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독일에 영원히 머물 광산 사끼야마가 아니고 선진화된 독일 광업기술을 익히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조국의 광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견습생임과 동시 대한민국 미래의 광업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조금은 어깨가 올라가려고 했다.

오늘까지는 함께 이곳으로 온 100명 모두가 같이 있던 교육 막장에서 일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각 막장으로 흩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독일에 와서 두 달간 같고 닮아온 실력을 발휘하여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채탄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마지막 날 작업장을 정리하고 나오려는 나와 몇몇 동료들을 불러 세운 우리들의 교관 중 하나였던 개고기 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일하던 교육 막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낯설지 않은 곳에 마음씨 고운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게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이제 광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모두 끝났으니 돈을 버는 일만 남았나 보다. 돈을 벌더라도 얼른 독일 말을 제대로 해야 권리를 찾으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 다시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노력은 남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기울이는 것 같은데 도무지 늘지를 않아서였다.

남들 보기에는 내 독일어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는지 칭찬 일

색이었는데 내 자신의 생각은 영 아니다. 제대로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전 작업 후 피곤한 몸으로 반은 졸면서 배우는 외에는 그저 사전이나 끼고 다니며 매일 거리에서 또 맥주 집에서 चु는 몇 개의 단어들로 이어지는 내 독일 말이라는 게 평상시 의사소통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하루는 퇴근길 기숙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길가의 상점에 붙어 있는 간판을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가 광고판에 쓰여진 문구를 읽고도 무슨 뜻일까 골똘히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한방의 동료인 경상도 사나이 정삼이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아요, 저게 무슨 말이고” 하며 물었다.

집이 포항이라던 정삼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니 운전석 뒤편 위에 무어라고 써어 있는 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내가 누구인가, 우물거릴 틈도 없이 “야, 운전사와 잡담하지 말라고 써있잖아” 하고 호기롭게 말해 버리니 “마 여기도 그렇게 써있네” 라며 정삼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중얼거린다.

기숙사에 돌아와 잠시 쉬었다가 아까 그 생각이 나서 열린 사전을 들춰서 운전석 뒤에 써 있던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았다. 아뿔사! 이 건 “운전사와 잡담을 하지 말라” 는 뜻이 아니고 “내리는 손님은 뒤로 내려라” 는 뜻이 아닌가.

서울 시내버스에는 모두 차장이 있어서 표도 받고 안내도 하지만 여기 시내버스는 달랑 운전사 하나만 있어서 모든 승객이 탈 때는 앞으로 타면서 지참한 표를 운전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에게 새로 표를 사기도 한다. 그러니 내리는 손님은 모두 뒤 문으로 내려야 했는데 그

래서 뒤로 내리라는 말이었던가 보다.

다음날 출근길에 정삼의 귀에 살짝 입을 대고 “야, 저거 뒤로 내리라는 말이더라.” 하니까 “야, 나도 벌써~ 사준 차즈 받았다” 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얼굴이 뜨겁던지 무안한 마음에 “젠장, 서울에는 운전사와 잡담하지 말라고 써어 있는데” 궁시랑 궁시랑 거려 보지만 무안한 마음을 지우기는 쉽지 않았다.

낙반 사고

교육생 딱지를 뎀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났다. 제법 광부 티가 생기며 현장에 배치를 받자마자 남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독일어를 무기로 우리 막장에 책임을 맡고 있는 항장인 슈타이거(Steiger)를 잡고 체력에 맞는 일을 찾고 싶으니 해야 하는 일의 종류별로 순환 근무를 하게 해 달라고 졸랐었다.

처음부터 나를 밋지 않게 보는 것 같던 슈타이거는 선뜻 그렇게 하라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내 일자리를 바꿔주었다. 이 슈타이거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같은 존재다. 일백 여명이 일을 하는 레비어(Revier)를 책임진 사람으로 노무는 물론 막장 내 인사 관리까지 한 손에 틀어 쥔 사람이니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은 편하고도 급료가 높은 일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주일에는 순환근무의 제일 마지막으로 굴진 작업을 하게 되었다.

독일 광산의 막장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막장

(직접 석탄을 파내는 곳)은 그 넓이가 상황에 따라 한 150에서 200 미터 정도나 되는가본데 그 양 끝에 평행으로 널찍한 터널을 뚫어 길을 내고 (이 터널은 한쪽에는 자재를 실어 들여오고 다른 쪽은 채굴된 석탄을 실어 내는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고 폭파해 낸 돌덩이를 퍼 올리는 대형 로더가 움직일 정도로 크다) 양쪽 터널을 사이에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석탄층을 파내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일하는 광구의 석탄층은 그 두께가 일 미터에 조금 부족한 높이였다. 터널과 터널 사이는 형성된 탄층을 긁어내기 위해 설치한 육중한 호벨(Hobel, 석탄을 긁어내는 대형 대패)이라는 놈이 밑에 깔려있는 판차라는 것의 틀에 달려 판차가 밀어붙이는 힘으로 석탄층에 밀착되어 좌우로 움직이면서 드르륵 드르륵 석탄을 긁어낸다.

긁어져 내린 석탄은 판차(Panzer)라는 놈 위에서 돌아가는 철제 컨베이어 설비에 실려 계속 한쪽으로 운반되어 나가서는 예의 벌거숭이가 작업하는 곳을 통해서 한 곳에 모였다가 지상으로 퍼 올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막장의 탄층을 긁어내고 나면 그 후방에는 긁어 낸 탄층과 같은 높이의 암반 바닥과 천장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천장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철제 동발을 새우는 일은 내가 그 전주에 해 본 일이다.

이렇게 하루 여섯 시간쯤을 작업하면 삼 미터쯤 전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파낸 석탄이 600구배(입방미터) 쯤 되니 오전과 오후로 나뉘는 두 개 조가 여기 한 막장에서 하루 파낸 석탄량은 우리가 과독 준비 교육을 받던 황지 탄광의 전체 막장에서 한 달쯤 캐낸 량과 맞먹을 정도였다. 이런 탄층을 본 연후에야 비로소 왜 우리나라에서는 탄광이라

고 하는데 독일 루르에서는 말 전자를 써서 탄전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여기 루르지방의 탄전에는 지하에 층층으로 수백만 평 아니 수 천만 평의 석탄이 적게는 일 미터 두께로 또 많게는 이 미터 가까이 나 되는 두께로 매장되어 있다.

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긁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었나 보다. 어쨌거나 오늘은 굴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날이다.

광부로서의 일당은 여기 굴진 현장과 막장에서 동발을 세우는 작업자의 그 것이 제일 높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업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지난주에 오 일 동안 막장에서 동발을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옆에서 같은 일을 하던 독일 사람과 터키 사람들은 여섯 시간 작업 하는 동안 동발을 27개(9개씩 석줄)나 세우고도 시간이 넉넉한 것으로 보이던데 나는 같은 시간에 죽어라고 세운 게 열다섯 개였다. 항장인 슈타이거가 오며 가며 돕지 않았으면 나는 미쳐 동발을 세우지 못한 공간에서 떨어지는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육체노동이 우리 가냘픈 동양인에게는 서서 한다고 해도 별로 당해낼 일이 없을 텐데 일 미터 정도 높이 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앉아서 한 개가 이십여 킬로그램이나 되는 동발을 비스듬히 누운 채 팔로만 움직이며 새워야 하는 것은 물론, 연신 판자를 넘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석탄을 예의 그 날이 삼태기 만하던 삽으로 다시 판자 안으로 퍼 넣어야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했다.

겨우 일 미터 높이의 공간에서 6시간을 오줌 한 번 시원하게 누지

못하며 일을 한다는 건(떨쩍한 사람이 비스듬히 누워서 소변을 보아야 하는 건 큰 고역이다) 말 그대로 징역살이이지 정상적인 근로가 아니었다.

터널을 뚫는 굴진 작업이라고 쉬운 건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위협까지한 작업이기에 지하에서 하는 일 중에 일당이 제일 높은 작업 중의 하나이다.

광산의 채탄일은 모두 “게딩에” 라고 일컫는 도급 형태로 채굴한 석탄의 양에 따라 일정 금액을 광부 전체가 일의 경중을 감안하여 분배 받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이는 바로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주게 되니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다. 다행인 것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는 독일인 같이 일을 더 잘하거나 나 같이 못하는 경우도 구분 없이 같은 급료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굴진 작업이라는 것은 최전방에 있는 암벽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마다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넣어 폭파해 낸 자리에 일 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철제 빔을 세우고 그 밖으로 통나무와 돌들을 쌓아가며 터널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었는데 폭파해 낸 천장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 몸에 상처가 나기도 일쑤이지만 세워야 하는 철제 빔 한 개의 무게만도 육십여 킬로그램이나 하니 해야 할 작업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이 육중한 빔을 어깨로 짊어져 날라야 하는데 요령이 붙은 독일 광부들은 저 나르는 작업물을 각도에 따른 역학적 힘을 이용하며 어깨에 걸쳐 메고 사뿐히 옮기는데 신참인 내게는 이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빔 하나를 메지도 끌지도 못하며 찢찢 매는 나를 가엾게 여겼던지 마이스터가 나보고는 가벼운 나무토막이나 나르며 돌 쌓는데 보조나 하란다.

물론 폭파한 자리의 천장에 위험하게 보이는 돌덩이를 기다란 장대로 건드려 미리 떨어지게 하는 작업도 내가 해야 하는 임무 중의 하나다. 그날따라 천장에는 폭파 때 금이 가서 위험해 보이는 돌 조각들이 많아 보였다.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며 하나씩 돌들을 떼어 내는데 어느 순간 후두둑 무더기 돌들이 한꺼번에 떨어진다. 피해야 한다. 마음은 먹은듯한데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았다.

피하려고 구부리는 내 머리 위에 돌이 떨어지며 쓰고 있던 안전 헬멧이 벗어진다는 감은 느꼈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없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불빛이 휘황한 어떤 방인데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흰 가운을 입은 누군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았다. 정신이 드느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머리가 천근이다. 아픈 것은 느끼지 못하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나는 현장에서 삼시간에 돌무더기에 깔려버렸고 반시간 여나 돌무더기를 치우고 보는데 내가 보이지를 않았다고 했다. 다시 살피니 옆에 있던 로더 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구부려 있었다고 한다. 아마 피한다고 생각하고 로더 밑으로 기어드는 순간 머리에 돌을 맞고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끝까지 로더 밑으로 몸을 감추었었나 보다. 이런걸 보고 기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믿는다.

며칠 병원에 누워 있으니 뒤통수에 난 상처에 통증은 느껴도 머리가

무겁거나 흔들리는 느낌은 없어지는 듯 했다. 두 주일이나 죽히 임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하는 날에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다시 살아 나온 듯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하얀 명찰을 달다

이런걸 보고 호사다마라고 하는 게 틀림없을 것이다. 내가 낙반 사고를 당하던 날은 본래 아침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그 근무를 오후로 미루고 당일 아침 루르탄관 주식회사(Ruhrkohle AG) 후생직원과 오버하우젠에서 온 오버슈타이거 라스로프 씨 앞에서 인터뷰를 받은 날이었다.

교육이 끝난 며칠 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것인데 100명이나 살고 있는 기숙사에 한국인 통역이 없어 매우 불편하니 한국인 통역을 배치해 달라는 동료들의 간절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광산 측의 이야기가 있었고, 기왕에 통역을 배치해 주려거든 동료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우리와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뽑아 달라는 어쩔 염치 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능력만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기들은 나를 추천했고 급기야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생과를 대신해서 온 분은 한국인 통역으로 가끔 우리 기숙사에 들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던 자상한 분이었고 오버

슈타이거 라스로프는 교육 때부터도 독일 말을 제법 지껄이는 나에게 늘 다른 동료의 말을 통역해 달라고 이야기하곤 하던 분이니 별로 떨림도 없었다.

모두 얼굴을 아는 사이였기에 인터뷰는 그저 일상적으로 몇 마디 묻는 것으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즉, 인터뷰가 4월 30일이었으니 다음 5월부터는 광산에 출근하지 말고 기숙사에 마련해 주는 사무실에서 머물며 동료들을 위한 통역만 하라고 했다.

독일에 도착한지 불과 석 달만의 일이었다. 떨 듯이 기뻐다. 아무나 붙잡고 자랑을 하고 싶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듯 요동을 쳤다.

인터뷰를 하고 나를 통역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 그분들도 고맙기 그지없지만 통역은 동료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나를 강력히 추천해 준 동기생들도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지금도 그 동료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들이다.

남자들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며 명실상부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오는 게 보통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이 혈육 같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 군대생활 삼 년이 또한 일생의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내게는 독일에 와서 광산 생활을 한 그 삼 년이 평생을 함께 해도 질리지 않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으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 그 친구들은 아직도 삼십 여명이 독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가끔이나마 서로 만나서는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언제 보아도 형제 같은 그들이다.

그렇게 인터뷰 후 출근을 했는데 하루만 잘 넘겼으면 좋았을 걸 그 하루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으니 병원에 있던 기간도 나날이 불안함의 연속이었다.

퇴원 후에도 약속대로 통역으로 근무하게 해 줄까,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좌불안석이라는 말은 그런 때 쓰는 말이었던지 하루가 여삼추로 불안하기 그지없어 몸이야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얼른 퇴원을 하고 싶기만 했다.

이런 내 심정을 알지를 못하던 담당 의사는 머리를 다친 후유증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니 더 병원에 있으면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된다고 태평 무사한 소리만 해대고 있었다. 고마워야 할 배려가 야속하기만 했다.

애국심으로 뭉친 산업 역군

앞으로 계약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 대한민국 광업 진흥의 건인차가 되어야 할 인물들이었으니 언제 어디서나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애국심 또한 감출 수가 없었던가 보다. 독일에 와서 지상 교육을 끝낼 즈음 삼일절을 지냈는데 누구 하나 그 날을 입에 올리기는커녕 기억조차 하던 이가 없었다.

우리 동료들 중에는 어엿한 화이트칼라 회사원에, 선생님, 군 장교, 경찰 출신을 위시해서 학사 출신이 삼분의 일도 넘는데 언제나 휴일이면 삶은 돼지 족을 놓고 맥주 박스를 의자 삼아 (한방에 두 명씩 기거

하여 의자가 두 개씩 밖에 없으니 하나라도 더 모이면 나머지는 맥주 박스를 의자로 대신 했다) 술주정들을 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그날은 누구의 생일이나 되었던지 영양통닭을 곁 드린 식탁 위의 안주가 제법 푸짐했었다.

고국에 있을 때는 운이 좋아야 일 년에 한두 번 영계백숙을 맛 봤는데 독일에 오니 가는 곳마다 전기구이 영양통닭이 지천이었다. 값도 싸서 그때 돈으로 200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면 살 수 있는 한 마리가 둘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크기도 했다. 기숙사에서든 식당 아줌마들이 밥을 하기 싫으면 이런 통닭을 구어서 반 마리씩 주었다. 어떤 때는 큼지막한 닭다리를 오븐에 구어서 프렌치 프라이를 곁들여 하나씩 주기도 하는데 다른 음식은 어느 것이나 짜고 느끼하기만 할 뿐 정말 우리 입맛에 맞지를 않았지만 이 닭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이 있었다.

넓적다리 하나를 주욱 찢어서 한 입 베어 물고 손에든 맥주를 병나발로 삼분의 일쯤 비우는데 우리 동기 회장님 점잖게 입을 열었다.

“어이, 삼일절 기념일이 지났는데 독일에서는 기념식도 없고 다음 팔일요 광복절 때도 뭐 슬그머니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광복절 행사를 하면 어떨까?”하며 사뭇 의미심장한 얼굴로 점잖게 한마디 던진다.

우리 동기 회장은 포병 중대장 출신으로 예비역 육군 대위였는데 애국심 하나는 특출한 건수 메이커다.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먹는 일이건 노는 일이건 그가 짜내는 아이디어는 다 재미가 있는 것임은 물론 의미가 있기도 한 것들이었다. 또 우리 회장의 오른팔로 지극 정성으로 회장을 보필하던 총무는 육군 헌병 상사 출신이었던 싸움닭에 해결사다. 힘은 없으면서 비위 상하는 일을 보지 못해서 남의 일에

도 곧잘 “이 ××알 같은 ××들” 하며 대들면 아무도 당해 낼 사람이 없었다. 회장의 제안에 모두 “좋지”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니 금방 눈들이 반짝이며 의기가 투합 되는 모습이다.

이때가 눈부시던 벚꽃이 눈송이 같이 그 꽃잎을 흩날리며 자취를 감춘 후 들에 나가보면 흐드러지게 피어난 유채 꽃 사이 밭두렁에 수줍게 엮드린 민들레가 만개한 것이 보이던 때였으니 오월 어느 때쯤 되었던 듯하다.

어쨌거나 불과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엿그제 독일에 온 신출내기들이 겁도 없이 전 독일 한인 8·15 경축 행사를 하자고 한다. 이야기야 자기들이 내 놓지만 그 뒷바라지는 모두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생각 할수록 걱정이 앞서는 일이지만 내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동기생들의 후원으로 통역이 되었는데 무엇이던 하자면 해야지 도리가 없었다. 나 또한 어물쩍 동의를 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벌써 각 분야별로 인선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획, 섭외, 총무, 체육 등 각 분야로 나뉘는데 나는 끼지 않는 데가 없다. 제일 눈에 띄는 내 임무가 섭외였다.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하니 여성 도우미를 구해 와야 하고 행사장을 빌려야 함은 물론 광산의 사장 이하 간부 또 지방의 유지들을 초청하는 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 (당시 분단 독일의 행정수도 Bonn)에 주재하던 대사를 모셔 오는 일이었다.

즉흥적인 제안이었을지언정 일과 후에는 모두가 하루도 쉴 새 없이 매달리다 보니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런데 정말 큰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던 유

채 꽃의 빛이 바래지며 쪽사리가 닥지닥지 열리고, 송이도 탐스런 함박꽃의 봉우리 가 커져가던 어느 날 한 무리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이웃 동네에 있던 광산에 우리보다 6개월 쯤 먼저 독일에 온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새까만 후진들이 무슨 전 독일 행사를 하느냐고 자기들이 할 것이니 모두 내어놓으란다.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독일에 좀 먼저 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선후배를 따진단 말인가. 이미 우리는 모든 공문을 발송했음은 물론 대사님의 참석도 약속 받았고 또 행사 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이번 행사는 그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 대신 다음 해에 선배님들이 하고자 하면 그 때는 적극 협조하겠노라고 입술이 너털너털해 지도록 설득을 한 후에도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하는 수 없이 그때까지 하던 모든 추진 활동을 접고 지엄한 선진들에게 행사 개최 업무를 이양하고 말았다.

그래도 기왕에 하려고 하는 것이니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단골 메뉴인 삶은 돼지 족에 맥주까지 대접해서 보냈다. 그렇게 손에 쥐어준 서류 몽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선진들을 배웅하는 우리들의 어깨는 소금에 절인 배추인양 늘어질 데로 늘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8·15 경축 행사

크던 작던 어떤 행사를 추진 한다는 것은 녹록하지 많은 아닌 것인

가 보았다. 아침부터 찌부러져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음산한 날씨에 이웃한 코크스 공장의 석탄 타는 연기조차도 대기 속으로 솟아올라 사라질 줄 모르고 지면으로 기어들던 그런 7월 어느 날이었다. 예의 그 선진들이 예고없이 우리 기숙사로 들어 닥치더니 거두절미 8·15 행사는 다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며 가지고 간 서류철들을 코앞에 내려놓는다.

이럴 때 사람들은 황당하다고들 한다. 정말 우리들에게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얼떨결에 그들이 가지고 온 서류들을 다시 받을 수밖에 행사 일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다시 우리보고 행사를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원, 채 한 달이나 남았을까 한 기간에 새로이 시작을 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다시 행사를 떠맡고 말았다.

그러나 대사 초청을 위시하여 우리 한국 사람끼리 준비한 일들이야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독일인들이 관계되는 일들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사용 계약을 취소했던 운동장을 다시 빌리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곤욕이었다.

공설 운동장 사용과 같은 모든 일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독일인들의 업무 방식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우리들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시청 체육 국 담당자는 운동장 사용계약을 취소한지 두어 주일 만에 나타나서는 다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우리들의 염치없는 모습에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무슨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올린 끝에 예정되었던 잔디 구장이 달린 장소는 아니라도 클레이 구장이

달린 장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장소 사용권을 얻었다.

지엄하신 선진들의 횡포에 치미는 울화를 갈아 앓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 어쩔지 않게 시작해서 준비한 것이지만 8·15 행사 일의 날은 맑았다.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온다던 일기예보가 무색하리만치 아침 햇살이 쨍 비치는 게 여간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다.

일찍이 조직해 둔 대사 경호대를 운동장으로 가는 고속도로 출구에 대기 하도록 보내 놓고 인근 동네에 있던 도우미가 도착 하는걸 기다려 기숙사 부엌에 배치하여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한 후 다른 도우미들을 대동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우리 도우미들은 이웃 도시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었는데 우리가 방문하여 행사 개요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니 기꺼이 동의를 하며 자기들끼리 안내조, 취사조, 의무조 등 각 그룹을 구성하여 적극 참여해준 백의의 천사들이다. 취사조에 속한 도우미를 우리 기숙사의 부엌에 안내하고 안내조와 의무조를 데리고 행사장인 공설 운동장으로 간 것이다.

각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참가하는 우리 동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여자들은 함초롬히 한복들을 차려 입었는데 그 모습들이 여간 아름다운 게 아닌데 대다수가 검정 양복 차림들인 남자들은 어딘가 독일의 그림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모습들이었다.

모든 이의 손에는 우리 동료들이 몇날 며칠을 그려 만든 태극기가 들려있다. 지금이야 이메일 하나만 보내면 서울에서 다 준비해서 보내주고 그저 몇 푼 안 되는 비용만 송금하면 되겠지만 그때야 어디 그런

가, 모든걸 손으로 만들어야 했다.

현수막도 손으로 쓰고, 태극기도 손으로 그려야 하고 그저 우리들 손을 거치지 않아서는 되는 게 없었다.

드디어 경축 행사가 시작될 오전 열 시가 가까워졌다. 길목에 나가서 기다리던 연락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쏘살같이 운동장으로 들어오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는 “땀다”고 소리친다. 주독 대한민국 대사가 탄 차가 보이나 보다.

열린 입구로 나가서 보니 참 가관이다. 한 일 킬로미터쯤 곧게 뻗은 길에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양쪽으로 앞세우고 대사관 일 호 차인 미끈한 벤츠가 범퍼 위에 태극기를 팔랑거리며 행사장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

오토바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건 비엠더블유(BMW)나 하리데이비슨(Harley Davidson) 같은 그런 우렁찬 게 아니다. 요즘 서울에서 흔히 보는 스쿠터(Scooter)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 독일 아이들은 열다섯 살만 되면 생일 선물로 받아서 타고 다니는 모파(Mofa)라는 놈이었다. 이놈을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조차 필요가 없는 그저 자전거에 엔진이 달린 듯한 것일 뿐이다.

우리 동료들이 각자 출퇴근을 위해 월부로 산 것들인데 새것도 뒤에서 연기가 퐁퐁퐁 나오는 아주 양증맞은 탈것들이었다. 앞에 좌우 두 줄로 늘어서서 들어오고 있는데 입구에 온 걸 보니 뒤에도 두어 대씩 두 줄이 붙었었던 것 같다. 아마 그때의 우리 주독 김영주 대사님은 평생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개무량 했을 것이다.

식장에 도착한 대사는 도열한 우리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르

고 대회장(물론 우리 동기회장이다)의 개회사에 이어 대사가 기념사를 하려는 순간 경찰차 한 대가 파란 등불을 번쩍이며 행사장에 들어와서는 책임자를 찾는다. 무슨 일인가 나가서 물으니 지금 대한민국 대사님이 왔다는데 경호는 어떻게 되었느냐며 눈을 부라렸다. 대사가 관내에 들어오면 경찰에 연락해서 경호를 받아야 되었던 모양이다.

경호는 우리가 오토바이 스무 대로 다 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때부터는 자기들이 경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젠장, 경호는 무슨 놈의 경호란 말인가, 한 사람은 키는 커도 맥주 살이 붙었는지 배가 드럼통만 하고 하나는 키까지 작은데다 뚱뚱해서 서 있는 것인지 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를 안는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경호는 커녕 우리가 그들을 경호해 주어야 할 듯했다. 그래도 어쨌든, 두 경찰관을 대사의 자리가 가까운 본부석으로 안내를 했다.

단상에 선 대사는 막 경축사를 시작하는데 “장내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간호사 광원 여러분”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다.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들고 이국 만리 독일까지 와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들 앞에서 나라를 대표한 대사님의 경축사이니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모으고 눈만 반짝이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정녕 목이 메었던가보다.

참 대견한 일을 시작했구나 하는 자찬 아닌 상념에 빠진 내 귀에는 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끝에 겨우 한마디, 엇그제 독일에 온 오버하우젠 동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뜻 깊은 광복절 경축 행사를 전 독일에 흩어져 있는 교민을 초청하여 이렇게 성대히 시작했으니 앞으로 이 행사가 끊이지 않

고 계속되어 민족혼을 가꾸어 나아가며 조국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재
독 동포들의 단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 맺음말만은 아직도 내 귀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된 재독 한인 8·15 경축행사는 그 이후 강산이 네 번
변했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거름이 없이 해마다 이루어져 축구를 위시한
체육 경기를 겸한 재독 동포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영한이의 사고

영한이는 처음 독일 왔을 때 나와 한방을 쓰던 친구인데 경북 영천
사람이다. 아마 영천읍은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 거기서 꽤 떨어진 시
골 동네 출신인가 보다. 저는 고향이 영천이라고는 했지만 가끔 “영천
에 가서 놀은”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그렇다.

고국에 있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죽 유도를 했다는 친구였
다. 몇 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 때 가지고 온 도복에는 검정 띠가
달려있었던걸 보면 유단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결혼을 해서 고향에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고 막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했다. 그 친구 미혼이었던 우리들 앞에서 아내와의 신혼 생활
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이야기 할 때는 사뭇 정열적이고, 돌이 지
났을 아들을 생각하며 그 끝 어딘가에 고향 땅이 있을 동쪽 하늘을 바
라 볼 때는 우리를 애잔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다.

이 친구는 김치를 참 잘 담근다. 지금이야 독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풍부해졌지만 그 때는 무는 작고 곱이 하얗기만 한 왜무 종류로 맛이 없어 보일뿐더러 배추는 눈을 씻고 보려도 찾을 수 없는 채소였다. 기껏 있다는 게 동그란 양배추이거나 아님 그때까지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이상한 야채만 있었다.

아주 신기한 것은 “비어징”이라는 채소인데 모양은 양배추 같이 둥근게 단단하고 잎은 우리네 김장 배추같이 오글오글 하게 생긴 것이다. 이 비어징을 사다가 큼직큼직 썰어서 적당히 소금에 절인 후 마늘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버무려 양동이에 넣어서 침대 밑에다 삼 일만 놔두면 몇들어지게 익는다.

참, 김치에는 젓갈이 들어가야 되는데 궁하면 통하는 법이니 이것도 문제없다.

남쪽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앤초비”라는 놈이 있는데 경상남도 통영의 멸치 젓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굵은 생멸치를 포를 떠서 짜게 절여 삭힌 후 올리브 기름에 담근 서양 멸치 젓이다. 이놈을 사다가 건져서 올리브 기름을 대강 씻어내고 잘 다져서 다른 양념과 함께 버무려 넣으면 삼천포 멸치 젓이 사돈하자고 따라올 그런 양념거리다.

이렇게 담근 영한의 비어징 김치는 아마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였을 것이다.

영한은 물론 물김치도 잘 담근다. 그의 물김치를 담는 모습을 보면 목욕재계만 생략했을 뿐 온갖 정성을 다한다. 제일 먼저 쇠고기를 사다가 물에 담가 피를 빼고 술에 넣고 푹 삶아서 몇 번이고 육수를 우려내어 식힌다. 중간 중간 위에 뜨는 기름을 말끔히 걷어 내는 걸 잊지

않기도 하고.

다음에는 양배추를 보통 깍두기보다 더 크고 네모지게 송덩송덩 썰어 넣고 적당한 크기의 양파를 한번 칼질로 가운데 양분한 놈을 듬성 듬성 넣어 적당히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하루쯤 숙성시켰다가 받아 놓은 육수를 분는다. 육수를 부을 때는 어디서 구해 왔는지 소금에 삭힌 풋고추 피클을 한줌씩 집어넣기도 한다.

역시 이삼일만 지나면 김장철 담근 동치미 버금갈 훌륭한 물김치가 된다. 이놈을 겨울에는 발코니에 놓았다가 꺼내서 송송 썬 실파를 동동 띄워 먹으면 그 감칠맛이 우리나라 동치미가 형님하며 따라올 것 같다. 이 김치는 영한의 표현을 빌리면 동치미가 아니고 감치미 였다.

이렇게 김치를 잘 담그던 영한이가 광산에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가니 그는 아직도 응급실에 누워있었다. 사고 부위를 살펴보니 오른손 검지가 어디다 눌렸는지 일그러져 건들건들 하고 있다. 의사의 이야기로는 당장 잘라내야 하는데 그가 절대 자르지 못하게 한단다.

영한에게 의사가 잘라야 한다는데 왜 자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고 물으니 그의 말이 저는 병신은 되기는 싫으니 못쓰게는 되더라도 있는 부분을 그대로 치료해서 붙어 있도록 해 달란다. 독일인 의사가 생각하기 매우 딱한 주문이었던가 보다.

이런 경우 독일 의사들은 보통 얼른 잘라내고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손가락 아홉 개가 더 남아 있으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손가락은커녕 손가락 마디가 하나만 없어

도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마디 하나 없는 친구”로 불려져 신체불구라도 되는 듯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게 예사다. 그렇게 되기 싫은 영한은 손가락을 자르지 말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서 원상을 회복 시켜 달라고 하는가 보았다. 공감이 가지 않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의 손가락은 내가 보아도 구부러지기는커녕 그냥 붙어있을 가망조차 전혀 없어보였다.

부러지기만 했다면야 무슨 문제일까만 뼈가 으스러져 도저히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 의사의 말을 전하며 유도를 하더라도 구부려 힘을 주지 못하는 손가락은 거추장스러울 뿐일 것이라고 가까스로 설득하여 상한 오른손 검지를 자르도록 했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하기에 더욱 불편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 틀림없겠기에 그랬다.

남의 일이라 쉽사리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은 내 통역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지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원망으로 비치더니 끝내는 자르도록 동의를 했다.

자르기로 동의는 하면서도 그때 그의 실망하는 모습은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미안함이 스며나게 한다. 그때 그에게는 내가 의사를 설득할만한 독일어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통역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공연히 미안한 마음에 그가 퇴원을 한 후에는 보험회사와 싸워서 그들이 정하는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도록 힘써 주었다. 그 이후 그는 계약을 채 마치기도 전에 친지의 초청을 받고 캐나다로 떠났다. 캐나다로 가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꼭 한번 다

시 만나자고, 캐나다에 가서 좋은 자리 있으면 연락하마고 하고 떠났다.

다시 연락은 없었지만 워낙 성실한 친구이니 그토록 뜨겁게 신혼시절을 보냈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초청하여 잘 살고 있을 줄 믿는다. 이제는 그도 백발이 성성한 모습일텐데 한번쯤 만나보고 싶다.

인영을 보내다

화사한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비치던 어느 오후 한적한 들길을 걷는데 눈같이 희디흰 옷을 입은 어느 노인이 멀찍이서 내게 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무심코 손끝에 이끌려 따라가니 그보다 더 앞서 누군가가 힘없이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다. 매우 낮익은 뒷모습에 누군까 생각하며 뒤쫓아 가는데 한국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음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군까 궁금하여 따라가며 부르는데도 그 사나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으로만 가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우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더니 낮은 산자락을 도는가 싶던 그가 끝내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참 이상도 하다 생각하던 차 아련히 전화 벨 소리가 들려오는 데 언뜻 깨어보니 내 책상 위의 전화가 요란히 울린다.

보기 드문 화창한 햇살에 노곤한 몸으로 책상머리에서 그대로 오수에 빠졌었나 보다. 참, 별 꿈도 다 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생각하며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사방에서 봄기운이 막 스며들며 잎도 없는 앙상한 가지에 피어난 목련의 자태가 화려하던 그 날 광산에서 온

전화는 인영이 지하 현장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다는 전갈이었다.

퇴원 후 낙담한 영한을 겨우 몸을 추슬러 다시 지하 근무를 시작하도록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착하기만 하던 인영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인영은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지우지 않던, 선량하게만 보이고 마주 칠 때마다 “힘들지.” 하고 물으면 “필요.”하며 씨익 웃기만 하던 친구다.

불과 그 몇 달 전에는 그의 부인이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다행히도 우리 동네로부터 일백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의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어 주말이면 부인을 찾아가는 낙으로 일주일을 지내곤 했던 친구였고, 더군다나 그 친구는 자기 부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멋지고 참한 처녀가 있으니 내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터라 사망을 했다는게 전혀 실감이 나지를 않는다.

인영은 정말 범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의사에게 가서 “마겐 카퓷” 이라고 한마디만 해도 한 주일은 쉬도록 병가 증명을 해주는데 그 흔한 병가 한 번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던 친구다.

카퓷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참 편리한 도깨비 방망이다. 아파도, 망가져도, 부서져도 또 고장이 나도 그저 카퓷이라고 한다. “마겐(Magen)”이라는 단어가 위장을 뜻하는 말이니 배가 아플 때 마겐카퓷이라고 하면 보통 의사도 알아듣는 외국인 독일어다.

병원에 가 보니 인영은 벌써 영안실로 보내졌다고 했다. 아침에 웃는 얼굴로 출근 하는걸 보았는데 그의 죽음이 아무래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시신이라도 한번 보도록 해 달라는 내 이야기에 담당 의사

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사고가 워낙 심했던 터라 시신을 수습은 했어도 몰골을 알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독일에 와서 처음 당하는 일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동료 영수를 데리고 그의 부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갔다. 가기는 하지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경악하고 슬퍼할 부인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 이었다.

영수에게는 부인을 만나서는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전하라 하고 나는 병원의 간호과장을 만나서는 그 슬픈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부인의 친구 하나를 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 슬픈 소식에 접한 백의의 간호과장은 말을 잊으면서도 기숙사에 가서 아무나 갈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가라며 친절히 허락 해 주었다.

부인의 가장 친하다는 친구를 대동하고 차에 올랐다.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차례다. 부인의 친구에게는 이미 대략의 사실을 이야기해 두었지만 부인은 아직도 남편의 사망 사실을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이미 임신 석 달째가 되었다고 친구가 귀뜸을 해 주었다.

인영의 사고가 워낙 커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내 말에 미망인은 이미 눈치를 채는가 보다. 내가 아무리 태연하려 노력을 해도 내 얼굴에 그려진 어두운 그림자까지 감출 수는 없었을테니 말이다. 더욱이 그녀는 젊은 나이였으면서도 병원에 근무를 하니 사람의 죽고 삶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놀라면서도 의연한 자세로 염려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란다. 나

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다. 가서 보자고 얼머무리며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바라보며 가고 있었다.

그 날은 우리의 친구 인영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영결식 날이었다. 우리가 독일에 와서 처음 겪어보는 영결식이니 동료들 모두다 그가 누워있는 육중한 참나무 관에서 눈들을 떼지 못한다. 하나같이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맨 모습들이 숙연하기보다는 아예 처연하다고 하는 게 옳을 듯했다. 영결식장인 공원묘지에 따른 경당에는 광산에서도 사장 이하 여러 간부들이 나와 있다.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 중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니 광산에서도 지극히 엄숙하게 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우리 동료들은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채 도열해 앉아서 훌쩍인다. 영인을 시립 공원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분서주하던 이틀이 지나고 허무하고도 빠르게 진행된 영결식에 이어 이제 곧 하관식이다. 광산에서 배치된 검정색 전통 광부복장을 한 윤구조는 처음 대하는 모습인데 매우 엄숙해 보였다.

대사관에 파견되었던 노무관의 집전으로 거행된 영결식에 이어 하관식에는 그 윤구조가 양쪽에 세 사람씩 모두 여섯이서 관을 들어 미리 파 놓은 묘혈 위에 얹는다. 저 속에 며칠 전 까지도 늘 빙그레 웃기만 하던 친구가 누워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크기에 고국산천을 버리고 이역만리 여기까지 와서 이 차가운 땅에 묻힌단 말인가. 태어나지도 않은 배속의 제 핏줄은 또 어찌라 하고.

영결식 내내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제하며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이던 젊은 미망인은 묘혈 위에 올려진 남편의 관을 잡고는 더

이상 밀려오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지는 오열을 토해낸다.

동료들 또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도열해 있고 광산 오케스트라의 슬픈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영이 누워있는 관은 서서히 묘혈 속으로 가라앉는데 하늘도 함께 슬퍼했던지 내리는 이슬비가 빛이 나도록 잘 손질 된 관의 덮개를 방울방울 적시고 있었다.

내리는 비도 아랑곳 않은 채 우리 모두는 차례로 준비된 붉은 장미를 한 송이씩 인영의 관위에 던지며 한줌 씩 흙을 뿌리고는 묘지를 떠난다. 이승과 저승이 이렇게 가까운데 삶을 개척하면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차가운 땅에 묻히고 만단 말인가, 안타까운 마음만으로는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었고 이역만리에서 친구를 묻는 슬픔과 회한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렇게 영인은 독일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배속의 아이는 무슨 운명이기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유복자는 아니라도 돌을 맞이하며 아버지를 잃었던 내 가슴도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끓어오르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미망인을 부축하며 묘지를 떠나는 동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슬픔인양 묵묵히 걷기만 하고 있다.

독일이 열 문장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우리들이지만 어이없게도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동네

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 코리아너들이 독일 전역에 있다는 수백 명 한인들을 초청하고 자기나라 대사를 모셔다 무슨 기념행사를 한 사실이 신문에 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동네에서 우리들의 인기는 연일 상중가를 쳤다.

거기다가 독일 광부들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터키나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광부들은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무튀튀한 모습에 (그 사람들 얼굴에 정말 수염이 많이 난다) 입성마저 단정치 못하고 그냥 보기에 지저분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싼 옷들은 아니라도 언제나 단정히 빨아 입고 하나같이 뽀얀 동안에 면도도 단정히 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흘 면도를 하지 않아도 별로 표가 안 난다.) 거리에 다닐 때도 언제나 조용조용 다니니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인원이 200여명도 넘게 되어 기숙사 주위의 가게며 맥주 집이 호황을 누리게 되니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던가 보다.

석탄의 본 고장이니 거의 각 도시마다 광산이 있고 눈 가는 곳마다 동산을 이루듯 캐어 낸 석단들이 무더기무더기 쌓여 있어 그 석탄을 기초 에너지로 철강을 생산하던 제철 회사들이 즐비한 루르 지방에는 정말 맥주집이 많다. 보이는 게 맥주 집이고 식당이며 디스코테크(Tiskoteque)다.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과 후에는 무거운 노동은 모두 잊고 술이나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리는 사회적 배려 아닌 배려였던가 보다.

우리 기숙사에서 뻥히 내려다보이는 곳에도 “빅 벤 (Big Ben)”이라

는 디스코테크가 있었다. 사장은 갈색 머리를 유난히도 새까맣게 물을 들었던 하이디라는 젊은 아줌마고 디스크자키(DJ)는 인근에서 제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릴로(Rilo)라는 처녀였다.

하이디는 일주일이라도 머리에 물들이는 일을 잊으면 금방 가르마 자리에 노란 줄이 생기는 아줌마다. 내가 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며 말없이 맥주병을 내미는 맘씨 좋은 사장이기도 하고.

나는 그 때까지 그 집 DJ 릴로처럼 그렇게 신나게 흥을 돋궂어 주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 요즘이야 서울에도 수 없이 많은 나이트클럽들이 그만큼 DJ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때는 서울의 “디 쉐네”나 “라 데팡스”라던 음악 감상실이나 고급 다방이나 가야 DJ가 있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팝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속삭이듯 연인들의 귀를 자극해 주거나 했지 우리 릴로 같이 온 몸으로 흥을 돋궂어 입장객의 엉덩이를 잡시도 가만 두지 못하고 들썩이도록 하는 여자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체격이 당시 우리의 국민 코미디언 백금녀와 견줄 만해서 앞과 뒤가 잘 구분되지 않는 처녀였다. 하루는 아마 그날이 내가 그 전해에 입에 가득 차는 쏘시지를 그리고 얼굴에 키스 세례를 받던 그런 여성 카니발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가 막 빙벤에 들어서니 그녀는 자신의 일터인 싸운드믹서(Sound Mixer) 앞에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궂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가면을 벗는데 보니 가면을 뒤통수에 쓰고 돌아서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렇게 앞과 뒤가 구분은 되지 않아도 이 처녀 애교와 재치는 만점

이다. 간간이 걸죽한 입담까지 곁들이며 흥을 돋우는데 연인들에게는 더욱 진한 사랑을 또 싱글들에게는 없던 사랑이 날아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다.

어느덧 이 빅 벤은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아지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 동료들의 댄스 교습소요 독일어 학원으로 자리 매김 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여기만 오면 무엇이던 다 해결이 된다. 저녁에 와서 맥주든 콜라든 한 병만 시켜 놓으면 애인도 사귄 수 있고 서양 춤을 배울 수 있음은 물론 독일어도 배울 수 있다. 배운 독일어를 써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데가 있을 수 없기도 했고 더욱 좋은 건 맥주와 음료수 외엔 이런 교육들이 모두가 공짜였다는 것이다. 가끔은 다른 테이블의 낯익은 방문객들로부터 음료수가 한 순배 전해지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아무 하고나 야자 트고 아무 데나 끼어 앉으면 내 자리였다.

대부분이 하이틴인 그들 눈에 왜소한 우리들의 체구에 동양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도 없고 우리들 나이가 그저 자신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지 그저 친절하기 그지없었다.

아무 처녀나 보고 춤을 추자고 권하면 선뜻 일어나 나온다. 거기서 몸으로 비비며 배우는 독일어는 그대로 산교육이 되어 그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에 두 단어씩만 배워도 한 달이면 육십 단어인데 거기에 문장력까지 함께 길러지니 조금만 정신 차려 배우면 금방 통역을 능가하는 실력을 쌓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내 친구, 우리의 영원한 총무 천우는 독일어 배우는데 별 흥미가 없었나 보다. 나에게 적어 달래서 외운 열 문장만 가지고 처음

부터 끝까지 뭉겠다.

그 열 문장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1. 안녕하세요
2. 춤 한 번 권해도 될까요
3. 춤 참 잘 추시네요
4. 다음 주말에 뭐하세요
5. ...

뭐 이런 절렁한 것들인 데 자기는 언제나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 하다고 했다.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뭐 상관없다고 했다. 좋은 말하는데 저이들이 나쁜 말 하겠냐는 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간에 외운 문장을 잊기라도 하면 슬며시 나를 쳐다 보며, 야, 5번이 뭐지? 하고 묻는 정도다.

알려 주면 멋쩍은 듯 씨익 웃으며 돌아서서 자기 춤 파트너에게 그 말을 한다. 이 친구 한번은 내가 보니 저 멀리 화장실 입구에서 독일 아가씨와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며 킁킁 깔깔 야단인데 독일어가 무척 늘은 것으로 보였었다.

궁금하게 생각되어 슬며시 지나치며 슬쩍 들어보니 독일 처녀는 독일말로 말하고 저는 거의 한국말로 말한다. 그래도 서로 통해서 킁킁 거리는걸 보면 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사용했었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성서에 쓰인 대로 “하늘에서 수많은 혀가 나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두가 이해를 했다.” 라는 말이 실감으로 전해졌다.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 통역은 금물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통역으로 일을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더군다나 나와 같이 함께 온 동료들 가운데서 다른 동료보다 실력은 좀 나은 편이나 적절한 위엄을 갖추지 못한 형편에서 통역으로 근무를 한다는 건 더욱 그랬다.

함께 온 나를 추천해 주어 육체적으로나마 편하게 또 적지 않은 월급으로 그런 대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준 동료들이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가끔은 그들이 지겹도록 미울 때도 있었다. 이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 카멜레온으로 배우이거나 그것도 아주 훌륭한 연극배우가 되어야 동료들 속에서 통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를 대하는 동료들은 급할 때는 내가 자기들의 아버지도 형도 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친구로 동생으로 또 어떤 때는 선생님이나 의사로 심지어는 광산의 노무 과장이나 인사과장이 되어 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가끔은 동료들에게 심심풀이 오징어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없는 곳에서는 나를 올려놓고 찢고, 밟고, 찢고, 올리고, 내리고 난도질을 해 대니까 말이다.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면 무슨 큰 은인이냐 되는 듯 존경의 눈빛을 보내다가도 잠시 소홀해 지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린다.

첫 눈이 소복이 내린 어느 날로 기억한다. 내가 있던 루르 지방은 눈이 그리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날 내린 첫눈을 사무실 창밖으로 바라보는 내 뇌리에는 별의별 상념이 다 떠올랐다. 한참이나 잊고 지냈던 고향집이며 함박눈 부드러운 눈송이를 수건을 쓴 머리에 맞으며 장독대 옆 묻어 둔 무를 꺼내는 어머니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던 그런 순간이었다.

김포공항에서 막내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꼭 돌아와야 되여, 얼른 갔다 와서 장가도 가구 그래야지” 하시며 눈물을 찍어내시던 그 어머니 인데 독일에 와서 두어 번 편지를 보내드린 후 벌써 몇 달째 잊고 지냈다. 너무 죄송하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잠시라도 잊고 살 수 있었던 말인가. 오늘은 편지라도 보내 드려야겠다. 상념에 젖어 들어 주름진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던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란 말도 하기 전 벌컥 열린 문으로 복기가 들어서면서 깨져버린 상념에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내게 “박 통역 빨리 나와 봐.” 숨이 넘어가듯 재촉이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어느새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내 손을 잡고 나가자고 재촉이다.

황망히 끌려 나온 나를 자기가 타는 딱정벌레 폴크스바겐에 밀어 넣듯 태운다. 엉겁결에 차에 타고 뒤 좌석을 돌아다보니 이게 웬일, 가비(Gaby)와 페트라(Petra)가 앉아 있다.

페트라는 복기의 애인인데 가비는 철옥씨가 좋아하던 아가씨다.

철옥씨는 복기의 애인 페트라를 통해서 그녀의 친구이던 가비를 소

개받고 몇 번 만났는데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영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한번 가서 통역 좀 해 달라던 그 아가씨다.

물론 며칠 전 함께 만나서 철옥씨가 그녀에게 해주고 싶어 하던 이야기 통역도 해주고 어울려 춤도 추면서 하루 저녁 재미있게 지냈던 여자다. 영문을 모른 채 엉거주춤 앉아 있는데 이내 복기는 차에 오르더니 부르릉 시동을 걸고 출발한다. 어쩐 일이냐는 내 말에 그는 “가서 이야기할게”라며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다.

도착한 곳은 우리가 가끔 들르던 이웃 동네 찻집이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페트라와 가비는 화장실에 가려는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선다. 독일 여자들은 화장실에 갈 땐 꼭 핸드백을 들고 가서 화장도 고치고 귀 밑에 살짝 향수도 뿌리고는 한다.

우리 둘만 남은 사이에 얼른 복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비가 나와 이야기 하니까 말도 통하고 좋다며 나를 데리고 나와 달라고 했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가비는 철옥씨가 좋아하는 여잔데 어떻게 나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처녀 제 댄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철옥씨와 놀기는 재미가 없던 차에 나를 만나고 보니 말도 좀 통하는 데다 내가 좀 더 젊어 보였던지 그와는 만나기 싫어졌었나 보았다.

나를 한 번 만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만나지 않겠다고 페트라를 통해서 말 했더라.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집에 가려니 차도 없고 얼른 이 자리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큰일이다. 안절부절 못 하지만 시간이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눈경치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데 어느덧 찻집 주위엔 어둠이 깃든다.

찾집은 드넓은 공원 한 구석에 자리 잡았는데 주위의 정원수와 아름드리 참나무 숲과 어울려 동화책에 그려진 요정의 집을 연상케 하던 그런 집이었다.

어색한 자리에 한동안 서로 별 말이 없다가 우린 어느 샌가 서로 말문이 열리고 소복이 눈꽃을 엮은 창밖의 나뭇가지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두어 시간 지난듯한데 출입문을 마주보고 있던 내 눈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틈에 우리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지 철옥씨가 출입문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먹이를 찾은 표범의 눈이랄까 그의 눈에는 이미 쌍심지가 돋았다.

전광석화와 같이 달려든 철옥씨 “이xx들” 한마디 내어 뱉더니 내 면상을 향해 주먹이 날아든다. 겨우 그 주먹을 피한 나는 혼비백산 출입문을 향해 내달렸다.

집 앞 공원으로 내달리는 내 뒤를 철옥씨는 잡아 죽일 듯이 이를 악물고 따라온다. 소복이 쌓인 눈 위에는 우리 두 사람의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복기가 우리 뒤를 따르면서 “철옥형 그게 아니구 말여 내 야그 좀 들어보랑게” 마음이 급하니 조심하던 사투리가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얼마를 뛰었는지 숨이 턱에 차서 더는 못 뛰겠다. 멈춰서 뒤로 돌아서며 나도 한마디 내뱉는다. “철옥형, 왜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때리려고만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외치며 돌아서 노려보니 철옥씨도 주춤한다.

쫓기던 쥐가 쫓던 고양이를 물려는 듯 노려보는 기세에 그도 놀랐었

나 보다. 그사이 기복은 그를 열른 부동켜안는다. 식식거리는 철옥씨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가시가 가득 차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띄엄띄엄 하는 말이 우리를 찾아 동네 술집이라는 술집은 모두 뒤졌단다. 그 때 우리 셋은 자주 어울려 지내던 사이였는데 일과 후에 둘이 한꺼번에 보이지를 않아서 궁금해 하던 차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우리 넷이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자신들의 바지 주머니 속같이 뻔히 알고 있던 사이였으니 그 넷이 누구 누구였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었다.

뛰어야 벼룩, 우리가 와 있던 옆 동네 찻집은 함께 어울려 가끔 들르던 곳이니 그에게는 여기도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철옥씨도 사건의 내막이 대략 이해가 되는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쁜 숨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하는 말이 나를 보는 순간 죽이고 싶더라는 말을 빼 놓지 않았다.

대략 분위기를 눈치 채 가비는 참으로 어이없어 하는 눈빛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번 만나기만 했을 뿐 무슨 사랑하는 연인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 소유물을 뺏긴 사람같이 설치나 하는 눈치다. 아무튼 분위기 못되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연애하는 사람들 통역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각오를 했었다.

현성이 장가보내기

자기 고향은 우리나라에서 양과 농사를 제일 많이 하는 고장이라는 현성이 결혼을 하겠다. 이 친구는 정말 진국 중에도 진국이었다. 기숙사에서 천우와 한 방을 썼는데 광산 일도 상당히 몸에 맞는 것으로 보이던 친구였다. 복이 발바닥에만 붙었는지 역세게 나돌기만을 좋아하던 천우와는 달리 늘 기숙사에서 휴식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착실히 저축을 하던 친구다.

그 때 우리 동료들은 휴가를 받으면 유럽 순회 여행을 떠나곤 했다. 이미 그 시절 우리들은 일 년에 육주일 썩 유급 휴가를 받았는데 이 휴가는 언제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잘라서 쓰면 되는 것이기에 그 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여행으로 언제 다시 와 볼지 모르는 유럽 각국의 풍물을 눈에 넣고 머리에 새겨 두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미혼 총각과 처녀들에게는 결혼 상대를 구하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다.

모두 혼기를 넘긴 한국의 선남선녀들이 수천 명이나 와 있었으니 이런 기회에 두 주일 가까이 함께 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 맘에 드는 짝을 만나지 못하겠는가. 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짝들이 이런 여행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해서는 함께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호주로 이민을 가거나 독일에 머물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그때 그 여행이야말로 처녀 총각들에게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뭐 이런 흔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었다.

친구 현성이든 유럽 팔 개국 순회 여행을 하는 동안에 참한 파트너를 만났는데 여행에서 돌아와 양가에 연락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까 양가에서 서로 연락을 하고 어른들끼리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웬걸 부친들끼리는 어릴 적부터 서로 친구들 이었더라. 그런 천생연분이 어디 또 있겠는가?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여행에서 돌아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청 호적계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독일의 신랑 신부는 통상 각자의 결혼 증인과 양가 부모 및 친지 몇 명만 참석해서 시청 호적계 직원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시 각자의 교회에서 해당 교회의 양식대로 혼례를 치른다.

친구 현성도 내 주선으로 시 호적계에서 계장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 후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되어있던 노무관의 주례로 많은 하객의 축하 속에 우리식 전통혼례를 올렸다.

이 친구 또한 독일에서 가정을 이뤄 지금은 근사한 집을 짓고 커다란 주말농장을 가꾸며 편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건 못하는 일이 없는데 집수리는 물론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어떤 것이라도 고장 난 것이 이 친구의 손을 거치면 새로 태어나지 않는 게 없다.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고칠 것부터 찾는 고마운 친구다.

그의 부인은 토속적인 한국 음식을 정말로 잘 만드는 아줌마다. 그 젊은 나이에든 언제 배웠던지 독일에 살아도 철마다 된장, 고추장, 각종 젓갈을 담가 놓는 등 그 집의 모든 음식 재료는 요즘 우리나라 그것보다 더 토속적이다.

1년에 한두 번 우리 집엘 오지만 그의 부인은 올 때마다 된장 한 보재기라도 들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절하고 마음씨 후덕한 아줌마다. 이제는 정년퇴직을 한 이 두 친구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생을 보

내도록 빌어주고 싶다.

부족한 지구력

여기 유럽 사람들은 광산에서도 참말로 일들을 잘 한다. 일이 주어지면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해대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구력의 부족인지 어떤 일이던 꾸준히 하는 것이 없다. 얼른얼른 해 치우고 폭 쉬고 또 얼른얼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하루 일을 하고 나면 해낸 일량은 양측이 모두 같을지는 모르더라도 지주 쉬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독일 사람에게는 농땡이꾼으로 비추이기 십상이다. 여기 사람들은 지하에서도 그저 먹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시간 외에는 무언가 꿈지락거리며 일들을 해댄다.

참, 담배를 피운다고 하니 지하에서 무슨 담배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던가, 가스 폭발 위험 때문에 지하에서의 흡연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니 여기 지하에서 즐기는 담배는 아주 색다른 것이다.

물에 넣으면 녹아내리는 인스턴트 커피와 같이 몸에 들어가면 녹아내리는 그런 인스턴트 담배 가루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쁜 주석 병에 담긴 슈넵타박(Schnupftabak)이라고도 하는 프리제(Priese)라고도 하던 이 가루담배를 가지고 다니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는 언제고 그 놈을 조금 덜어내서 손등에 올려놓고는 코를 갖

다 대고 그냥 흥흥 들어 마시는 것으로 피우는 담배에 대신하는 것이다.

이 인스턴트(Instant) 담배 가루인 슈넬타박에도 등급이 있어서 비싼
놈은 한번 들이 마시고 나면 진짜 담배를 피운 듯 그 향이며 기분이 매
우 좋다. 다만 가루를 코로 들어 마셨으니 초보자에게는 말 할 것도 없
지만 누구에게라도 금방 채채기가 터져 나오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심
한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채채기를 해대고 꽤애 코를 힘차게 풀고
나면 기도에 까지 들어갔던 석탄 가루가 모두 쏟아져 나오 듯 시원하
기 그지없다.

아무튼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
이 일을 하다 말고 시도 때도 없이 틈틈이 쉬는걸 보면 늘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가보다. 더구나 지하 광구에서 일을 하다보면 쉬고 있
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나게 되어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안전모에 부
착된 전조등 빛에 의지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려 표가 나지 않지
만 쉬는 순간에는 불빛이 고정되게 되니 쉬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학현이 하루는 급기야 일을 냈다. 갯도에서 자재를 정리하거나 컨베
어벨트에서 흘러내리는 돌이나 석탄을 걷어 올리는 일을 하던 그가 피
곤한 몸에 잠깐 앉아서 졸다가 멀리서 이를 바라보던 슈타이거에게 발
각이 되었던 것이다.

슈타이거가 자기 옆으로 오기까지 알지 못하고 졸고만 있던 그는 노
발대발하는 그의 고함 소리에 깨어나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슈타이거는 학현에게 “고 흙”을 외치며 (이런 상황에

서 고 흠 은 그냥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고 목에 핏줄을 곤두세우며 질러대는 “당장 꺼져, 이xx야” 하는 심한 꾸지람이다) 펄펄 뛰었었나 보다.

안전 교육 때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들어서 아는 말이지만 지하에서는 앉아서 조는 것을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배웠고 조는 것이 발각 되더라도 하는 경우는 언제나 엄한 징계가 따른다고 했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하에서는 더욱이 무엇이든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데서는 언제 어느 때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데 졸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전혀 무방비가 되어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잔뜩 주눅이 들어 “엔트슐다궁(Entschuldigung)”,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는 독일어를 연발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고함을 질러대는 슈타이거의 모습에서 당장 해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던가 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독일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은 학현이 “에라이 쌍 될 대로 되라.” 하는 기분으로 그 슈타이거에게 대어 들며 “쇠이세(scheisse!)” 소리를 질러댐과 동시 연장들을 집어 던지며 함께 설치됐던 모양이다.

이 “쇠이세”라는 말은 “똥”이라는 뜻을 가진 욕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앞서 말한 “카똥”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쓰임이 많은 단어다. 외국인이 독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중의 하나이니 여기 광부들은 그저 입에 달고 사는 욕설이다.

할 일을 다 해 놓고 조금 즐았는데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학현의 서슬에 놀란 슈타이거는 혼비백산 달아나서는 일과 후 지상에 올라와 학현의 돌발 행동을 노무과에 보고하고 말았다.

해고되어 귀국을 당할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용서를 빌었고 마침내 주말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 보수교육을 받기로 한 후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자칫 해고를 당하여 본국으로 추방당할 뻔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음식을 가릴 필요 없는 위장병 환자

세환이는 유별나게 얼굴빛이 검고 야윈 사람이었다. 기름기 많은 독일 음식이 입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소화도 잘 되지를 않아서 자기는 음식을 따로 해 먹어야 되겠으니 자기를 기숙사 식수 인원에서 빼 달라고 했던 친구다. 하는 이야기가 어찌나 간곡하던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담당 부서에 부탁하고 식수인원에서 빼 주었던 친구였다. 날마다 살피지만 이 친구 독일 생활이 또 광산 생활이 너무 힘든 것으로 보였다. 가끔 병가를 얻어 쉬고는 하지만 이내 일을 시작하면 퇴근 길에 반쯤 죽어서 돌아오는 때가 점점 늘어만 가던 그다. 보다 못한 내가 종합 검진을 받아 보도록 하자고 권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병은 자기가 잘 아는데 고향에서부터 위장병을 앓았고 위궤양이라고 했다. 암포젤이라고 하던 우유빛 위장약을 늘 물마시듯 하더니 언젠가 부터는 타가멘(Tagamed)이라는 알약을 복용하는

데 그 약만 먹으면 심하던 통증도 없고 아주 편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본인이 진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그대로 두고 보는 수밖에. 그러나 이 친구 점점 더 아위어가고 얼굴은 숫덩이 같이 검게 물들어 갔다. 몸이 약하니 광산에서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데도 그날은 지하에서 토하기까지 했단다.

보다 못한 나는 의사에게 진료 일정을 받아놓고 얼마 후 오후에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매일 병원에 쫓아다니며 각종 검사를 시키고 셋째 날 인가에는 위 내시경 검사를 끝냈다.

환자를 병실에 보내 놓고는 내시경 검진을 담당했던 전형적인 게르만 민족의 갈색 머리를 가졌던 의사는 나를 보고 자기 방으로 줌 오라고 했다. “좀 심각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직감하며 들어서는 나에게 의사는 의자도 권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위가 암세포로 뒤덮여 이미 수술도 하지 못할 지경이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장기에까지 전이 된 게 분명하여 수술은커녕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독일 의사들은 아시아인들 아니 한국인들을 대해 볼 기회가 없어 한국인의 얼굴에 나타나는 병색은 차치하고도 식습관에 따른 위장장애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던 게 틀림없다. 몸이 아파 찾아오는 우리 동료들에게 위가 아프다면 소화제 주고 더 아프다고 하면 병가 증이나 써주었으니 무슨 치료가 제대로 되었겠나. 그동안 세환을 진료했던 의사들이 한 없이 원망스러워졌다.

그거야 그렇다 치고 이런 상황을 세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준단 말

인가. 또 다시 난감함에 가슴이 답답해 졌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운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분명할진데 우리네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보다. 죽음이란 다른 어느 누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고 어떤 악의 세력이 자기를 데려간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러니 이런 경우를 맞이하는 우리는 내가 무얼 잘못했다고 누가 나를 밀어내나, 염라대왕도 무심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벌써 데려가려고 하나 원망에 또 원망이 앞서는가 보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는 각자의 표현하는 말에서도 나타난다. 독일 사람들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며 누가 암을 앓으라고 명령을 하는 듯 섬찍한 표현들을 하기에 말이다.

세환이라고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질 세환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게 내 작은 의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되는 내 처지가 사뭇 원망스럽다.

의사에게 우리네 정서를 이야기해 주고 당분간 세환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병이라는 사실을 덮어두고 치료를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했다. 또 죽음이 임박한 중병이라면 독일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을 하직하도록 해주라고 졸랐다. 참 별난 사람들도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한데도 냉정하게만 보이던 이 중년의 의사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독일에 와서 곧바로 용자를 받아 부모님에게 보내서 자신이 독일에 오느라 졌던 부채를 모두 갚고 남은 돈은 저축을 했다면서 앞으로 저축하는 돈을 가지고는 귀국을 해서는 장가를 들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할 것이라고 좋아하던 그다.

이제 세환은 그 소박하기만 하던 꿈을 이루어지기도 전에 생을 접어야 하는 운명이다. 서른을 갓 넘긴 젊은 나이에 어찌 것처럼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암세포가 퍼질 수 있었으며 환자 자신은 또 어떻게 슬픔 없이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위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묻고 또 묻지만 내게는 답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주치의와 함께 병실을 찾았다. 의사와 함께 들어오는 나를 본 세환은 진단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는지 의사에게 보내는 눈길 이 평소보다 더욱 애잔하도록 어둡게 보인다. 이런 세환의 기분을 알기나 하는지 의사는 환한 미소까지 머금은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위에 종양이 많은데 이런 병에는 약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하니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먹고 타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되도록이면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한다.

몇 마디 더 나누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의사가 병실 문을 나가자 세환은 내 두 손을 꼭 잡는데 그의 야윈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형, 위장병 환자보고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하는데 나 큰 병 걸린 거 아녜요? 혹시 위암 인가요?” 몹시 겁에 질린 얼굴이면서 벌써 눈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위에 종양이 많아서 약을 복용하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몸에

항체를 키워야 된다는데 뭘 걱정해” 입으로는 이야기 하지만 나 또한 세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다.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몇 마디 더 던지고 다른 환자 치료받는데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 나오고 말았다.

세환이 입원한지 한 주일 쯤이나 되어 가던 날 그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에는 병마다 꽃힌 꽃은 물론 파인애플 통조림, 종합 비타민 주스, 바나나, 온갖 과일과 음료수가 그들먹하다. 남자 병실에 무슨 꽃들을 그렇게 사 가지고 오는지 병동 담당 간호사는 그렇게 많은 꽃들은 처음 본다고 불평인지 칭찬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투덜거린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남자가 입원을 하면 그 부인이나 애인이 꽃 몇 송이 사다가 꽃아놓을 뿐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독일인들도 남자 병실엔 꽃이 별로 없다. 그러나 동료가 불치의 병으로 입원 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한국 사람들은 너나없이 모두 꽃다발 하나와 음료수 두어 병은 들고 병문안을 온다. 들고 오는 꽃다발들은 그 다발의 크기로 우정의 깊이를 과시라도 하려는 듯 모두 한 아름씩 이고 이제는 병동에 화병이 없어 마시고 난 음료수 병에다 꽃아 놓아야 할 정도였다. 지극한 동료들의 염려도 세환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는가 보았다. 친구들이 면회를 와서 자기를 보는 눈빛들이 모두 곧 죽어야 할 자기를 측은한 마음들을 가지고 보는 눈빛들로 보여 너무 싫다고 했다.

세환은 결코 조기 귀국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자기가 귀국을 하면 이루다만 꿈이 깨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병든 몸으로 귀국을 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또 부모님의 짐이 되어야 하는 것도 싫다는 말이었다. 그래도 세환이 입원해있는 사이 나는 그의 조기 귀국을 위해

서 여러 면으로 노력을 해 보았다. 먼저 광산의 관련 부서들을 찾아가고 의료 보험을 포함한 연금 보험 회사를 찾아다니며 귀국을 위한 비용문제들에 관한 의논을 했다.

독일에는 그 때 벌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출산의 비용에서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학교 교육은 물론 질병의 치료 사망 후 장례비용까지 어느 하나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엄청 높기는 해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은 아무 염려 없이 치료에만 전념하면 되는 나라였다.

한국 근로자를 받아 본 적이 없던 광산에서는 처음 당하는 이런 일에 매우 난감해 하면서도 비교적 협조적인 편이었다. 광산의 후생과와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일정액의 추가 보조금 지급을 결의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었다.

보험 회사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걸 없으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때를 쓰는 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일정 기간 치료비를 사전 지급함은 물론 고객이 사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용 등을 미리 지급해 주는 등 선선히 협조해 주었다. 모두 합쳐보니 환자가 거의 일 년 가까이나 월급의 전액을 저축해야 할 큰 액수가 된다.

내용을 전해들은 세환은 기뻐하는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련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보며 어느새 힘없는 눈 꼬리에 또 한줄기 눈물을 보인다.

불치의 병임을 짐작은 하면서도 애써 초연한 척하던 그다.

“형, 나 정말 가야 한대요?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된대요?” 끝내는 치료가 불가함을 아는 듯 힘없이 중얼거리듯 입을 달싹거리더니 이내 눈을 감아버리는데 감긴 눈에서 주루룩 한줄기 눈물이 흐른다.

“치료가 왜 안 돼, 병원에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치료할 약도 준다고 하면서 고향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치료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아냐?”며 위로하지만 그런 내 말이 그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세환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귀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내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 왔다. 쓰느라 얼마나 힘을 들였는지 편지지에 눌린 연필 자국이 뒷면까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편지였다. 저는 잘 있으니 염려 말고 형님은 성공해서 귀국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들어 있었다. 점점 깊어 가는 병마와 싸우며 생을 정리하는 마당에도 나를 잊지 않는 것이 무척 고마웠었고 편지를 다시 접어 넣으면서 웬일인지 내 눈시울도 건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었다.

육지의 섬 베를린

세환의 귀국을 준비하면서 동분서주하던 몇 주간 고단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어려운 처지의 동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조금은 느긋해지던 즈음 부활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 박 오일이나 되는 긴 연휴였으니 궁둥이가 근지럽던 차에 철옥 씨의 방문을 받았다. 자리도 권하기 전 그의 이야기는 오는 부활절에 베를린으로 놀러 가자며 금방이라도 출발할 요량인 듯 사뭇 상기된 모습으로 내 대답을 재촉했다.

철옥 씨는 내 통역 사건으로 기대했던 청춘사업이 박살이 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이후도 언제고 길을 떠나고 싶을 땐 늘 내게 동행을 청하곤 했는데 이번엔 그 목적지가 베를린 자유대학 소속 대학병원의 기숙사였던 모양이다. 거기에는 현성이의 결혼식에 왔던 인순, 정님, 현자 등 발랄하던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던 곳인데 그네들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는 함께 어울리며 근처 구경도 시켜주고 결혼식에서 만난 신랑신부의 처녀 총각 친구들이 언제나 그렇듯 어색하면서도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던 그런 사이였다.

출발을 하는 날은 전에 코펜하겐의 자기 친구 집에 함께 놀러 갔던 영택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준비도 없이 따라 나섰다. 가는 길이 오백여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셋이 함께 가는 길은 지루한 줄 모르게 줄어들었다. 점심은 가면서 적당히 때우기로 하고 새벽에 서둘러 출발한 오전 열 시쯤이나 되어서 벌써 국경인 헬름슈타트까지 도달해서는 어느 듯 동서독 국경 검문소가 앞에 보였다.

눈에 익은 제복을 입은 서독 국경 수비대의 검문을 통과하는데는 대체로 수월한 편이었다. 우리의 여권을 받아 든 국경 수비대원이 우리들의 행선지와 여행 목적 등 예상 되었던 질문을 몇 마디 던지더니 쿡 통과 스탬프 하나를 찍은 여권을 내어 주고 그냥 가란다.

삼백여 미터나 될까 앞으로 가니 이번에는 동독 수비대의 검문소다. 웬지 모를 불안감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쓰며 다가가니 자동 소총을 든 수비대원이 거만하게 손을 흔들며 우리 차를 옆의 주차장에 세워두고 모두 내리라고 했다. 그때 그 지역은 눈길 가는 곳 마다 보이느니 철조망뿐이고 높다란 망대 위에서는 기관총쫑이

나 되어 보이던 커다란 총을 걸친 채 움직임 없이 서 있는 초병들의 모습뿐 이었다. 6·25 사변 이후 처음 대하는 적성국가 군대를 보는 기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감에 젖어 한참 주눅이 든 우리는 수비대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무슨 큰 죄나 지은 양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부터 육이오 전쟁을 겪었고 귀에 환청이 들리도록 반복해서 받았던 반공 교육은 우리들에게 공산주의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라도 되는 양 여기게 만들었으니 육이오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공산주의 국가 국경수비대에 갖는 공포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야릇한 것이었으며, 이거 괜히 왔나 보다 하는 후회감은 말로 그리기 어려운 두려움 그 자체였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까짓거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하는 마음으로 멋어버릴 듯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안간힘을 쓰며 들어서는 우리를 보고 웃음기 한 점 없는 제복의 여 사무원은 우리가 내미는 여권을 받아들며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고 묻는다.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베를린에 있는 여동생에게 가는 길이라고 하니 이제는 동 베를린인가 서 베를린인가를 묻는다. “서 베를린”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생각하니 ‘젠장 당연히 서 베를린이지 우리가 공산당 너희들의 수도 동 베를린은 뭐 먹으러 가니?’하며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반문 아닌 반문이 생겼다.

우리의 여권을 한참 뒤적이면서 몇 마디 더 질문을 던지던 이 여직원이 여권을 펴 놓은 채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 꺼내려는 손 짓을 한다. 잠깐! 여권에 통과 도장을 찍으려는 줄 알고 저지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녀는 멍뭉히하면서 손은 그대로 서랍에 넣어 둔 채 나를 올려다본다.

그러는 그녀에게 우리는 쉬드코리아(South Korea)에서 왔는데 여권에 바로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의 통과 사증을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제서야 빙그레 조소 같게도 보이던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서랍에 있던 손을 꺼내는데 그 손에는 글씨도 선명히 비자(Visa)라고 쓰인 사증 용지 석 장이 들려져 나온다.

나중어야 안 일이지만 당시 동독에서는 분단국가 출신인 우리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객의 확실한 통과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별도 통과 사증을 만들어 주고 다시 국경을 나올 때 반납을 받았었다.

어쨌거나 당시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있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적성 국가로 분류되던 동독을 여행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여행 한 후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던 때였으니 역시 동독지역을 육로로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한다는 건 보안법 저촉으로 귀국 후에는 감옥으로 직행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고, 더욱 내가 놀랐던 이유는 언제 다시 귀국을 할지 알 수 없는 몸이었으나 항공료를 아끼려고 국법을 어기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행여 여권에 동독 도장이라도 찍히는 경우 귀국해서 간첩으로 몰리는 불상사를 당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일에는 그 얼마 전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무렵 대사관 직원의 동독을 통한 월북으로 한창 교민 사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던 때인지라 육로를 통해 서 동 백림에 갔다 왔다는 소문만

나도 별로 이로우 게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 조이며 통과한 국경을 뒤로 다시 평온을 찾으려 애쓰며 동독지역 아우토반(Autobahn)을 달린다. 드넓은 경작지하며 누추한 길모습 이기는 해도 건축 양식은 서독의 여느 주택들과 다름이 없는 분명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 서로 나뉘어 대치하는 국가를 여행하는 감회는 같은 분단국가 출신인 우리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다가왔다.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만나는 동독 사람을 보더라도 말을 걸어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 봐 마음조리며 의식적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지났는지 어언 베를린 입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먼저 동독 수비대의 검문을 거쳐 통과 사증을 반납하고 역시 겹겹이 둘러 쳐진 철조망과 높은 조망대에 위치 한 경비초소로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속을지나 서 베를린 경비 지역으로 들어갔다. 역시나 독일병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웃음기 없이 서 있는 수비대원이기는 하지만 눈에 익은 제복만으로도 한결 친근감이 드는 서 베를린 경비대원의 통상적인 질문 몇 마디에 답을 주고는 경비 지역을 통과하니 이내 서 베를린이다.

긴장 후의 안도감으로 몸이 나른 해 오던 그 기억은 그 일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쉽게 잊혀 지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베를린은 서양사에서 배웠던 옛 영화는 간 데없고 전쟁이 종식 된지 사반세기가 흐른 그 때 까지도 드문드문 보이는 흉측한 폭격의 잔해들로 무모한 전쟁의 흔적이 역력한 그런 도시였다.

지도가 가르치는 대로 곧장 서베를린 중앙역을 향해 달린다. 중앙역에는 이인순이 우리를 마중하기로 되어 있었다. 약속장소를 찾아 촌답 서울구경 하듯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서 우리를 보았는지 인순이 두 손을 흔들며 뛰어온다. 총각들을 마중하는 처녀의 씩스러움을 떨치기라도 하려는 듯 사뭇 큰 제스처를 쳐대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녀를 따라 전쟁의 참상을 보이는 게대흐트니스 교회(Gedaechtniskirche, 이 교회는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의 포격으로 부서진 교회의 잔해를 그대로 둔 채 옆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한다), 옛 영화의 상징 샤로텐 성(Schloss Schalottenburg) 등을 돌아보며 그의 집으로 향했다.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경계에는 가운데 완충지대를 두고 이중으로 구축된 흉물스런 콘크리트 장벽은 을씨년스럽게 거기에 서 있었고, 저절 무너뜨릴 때는 언제쯤일까 공상에 젖어 지나치는데 같은 분단국가에서 온 내 머리에는 온갖 상념이 떠나지를 않았다.

교대로 근무를 하며 우리를 안내한 세 처녀들의 헌신적인 배려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지낸 꿈같은 4박 5일의 일정을 보냈다.

헤어질 때는 눈 꼬리에 맺히는 이슬방울을 들킬세라 슬며시 돌아서며 찍어 내던 아리따운 그녀들을 뒤로 다시 탄광촌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다시 또 만나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만 그 이후 한 번도 다시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한 채 우리들은 벌써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쯤에는 그녀들도 손자 손녀를 본 젊은 할머니가 되었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만나서 함께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 보고 싶다.

적성국가 잠입기

갔던 길을 역행해서 돌아오는 우리는 가던 때의 역순으로 검문소를 통과해서는 다시 동독 아우토반에 올랐다. 지난 며칠간의 즐거웠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갔던 길을 돌아오는 우리들은 그녀들에 대한 고마움과 헤어진 아쉬움이 교차했다.

답답한 광산촌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베를린에 머물러 버릴까 하는 농담 아닌 농담들을 주고받으며 갔던 길을 돌아오는데 어느 지점부터였던지 스치는 풍경이 내 눈에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초행길은 한번 갔던 길을 돌아올 때는 언제나 갈 때 보다 더 낯설어 보이는 게 예사이기는 하지만 한 시간쯤이나 달려온 그 길은 너무 낯이 설기에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그들 또한 같은 생각들을 했었는지 자못 심각한 표정까지 지으며 지도를 보자고 했다. 한번 갔던 길이니 올 때는 자신이 들어 지도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차에 다시 지도를 펼쳐 들고 지나 온 지명과 도로번호 등을 찾아보니 이게 웬일,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은 서독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동독의 북쪽으로 나 있는 아우토반 이었다. 우리는 어느 틈엔지 모르게 서독 행 아우토반을 벗어나 북쪽으로 반 시간여나 달렸으니 이제 완전히 동독에 와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서 베를린을 가는 지정된 도로도 육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아주 동독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으니 우리 정부의 제재는 차치하고라도 동독 경찰에게라도 발각이 되는 날에는 붙잡혀서 꼼짝없이 북한 대사관에 인계되고 급기야는 평양으로 압송될게 아닌가, 우리 셋에게는 모두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를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경우 차를 열른 돌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최상이겠지만 아우토반 출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다. 아우토반 밖에 혹시 검문소라도 있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우토반 출구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평양행을 자청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는 생각에 어쩔 바를 모르고 주춤주춤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늘의 도우심인가 얼마 후 중앙 분리대가 열려있는 곳이 보였다.

당시만해도 동구라과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소련의 다음으로 잘 산다는 동독이었지만 모든 시설 수준이 서독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고,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도로 주위는 좁은 정비가 되어 부족한대로 고속도로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그외의 동독 고속도로는 군데군데 노면이 파여진 채 정비가 되지 않은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물론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조차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하나씩 보이는 정도였고 그 차들마저 모델이 두 개뿐 조그만 트라비(Trabant의 애칭) 라는 모델과 그보다 조금 더 큰 받부르그(Watburg)라는 것뿐이었다. 온 세계의 모든 차종들이 도로가 넘쳐 나도록 질주를 하던 서독의 아우토반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기상천외하게도 고속도에서 유턴을 한 우리는 오던 길을 되돌아 출행량을 치는데 누구라도 금방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갈 듯 뒷덜미를 당기는 것 같은 공포감에서 달리는 차에서조차 목들을 움츠린 채 모두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얼마를 달렸는지 영겁을 달려 온 기분에 젖어

드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도로 표시에 서 베를린과 헬름슈타트(Helmstadt, 동서독의 국경도시) 두 곳으로 가는 갈림길이 보였다. 아마 우리는 여기를 지나면서 모두 한눈을 팔다가 동독으로 들어가는 아우토반을 타게 되었었나 보다.

안도의 숨을 내 쉴 틈도 없이 서독 쪽으로 가는 도로로 바뀌 타면서 이어 나타난 주유소를 겸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그때야 비로소 철옥 씨와 영택을 쳐다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모두 납 가루를 덮어쓴 듯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죽은 시체의 얼굴빛이 그러한 것처럼. 내 얼굴빛이라고 그들의 것과 다름이 없었을 텐데도 아랑곳없이 두 사람의 화살이 내게로 날아온다.

독일어를 잘 한다는 사람이 도로 표시 판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비난인 것이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불과 수 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길을 잘 찾아서 멋진 베를린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칭찬으로 입에 침이 마르지 않던 그들이었는데 어느새 태도가 급변하여 모든 화살을 내게 쏘아대니 어안이 병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등이 축축함을 느꼈다. 아니 폭 젖었다고 표현하는 게 옳았던 것 같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 지난 한 시간이었던지 공포의 진땀으로 속옷들이 모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가까스로 다시 서독으로 나온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베를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때의 공포와 긴장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서 베를린을 가지 않게 되었고 약속의 그녀들을 지금까지 다시 만나지 못하고 말았나보다.

팔자소관

나는 누가 내게 고향이 어딘가라고 물을 때 참 곤혹스럽다. 무릇 고향이라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이야기 하는 게 정상 일 텐데 내게는 딱히 그곳이 어디라고 짚어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이다.

태어난 곳은 만주 봉천(지금의 심양)이고 어린 시절은 충청남도 대천과 아산 또 경기도 평택과 서울을 돌며 살았고 군대 생활 삼 년을 부산에서 지냈으니 고국에 있는 동안에는 십 년이나마 한군데서 살아본 곳이 없다. 가장 오랜 기간이라면 도합 5년을 살았던 서울이 되겠는데 그 곳은 내 부모님이 살아 보신 적이 없으니 고향이라고 일컫기 부족하고 일생 중에 제일 오래 산 곳이 여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데 아직도 조국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를 고향이라고 하기는 더더욱 싫다.

아버님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이니 그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련만 거기는 내가 지금까지 선산에 성묘를 간 것 외에 한 번도 가 본적조차 없어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

어쩔 이런 현실은 일생 동안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우리 세대의 자화상인지 모른다.

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물론 사진첩 속에 있는 귀퉁이가 모두 낡은 희미한 흑백 사진으로 어렴풋이 그 모습을 알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진을 보고 나중에 안 것이지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첫돌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국내 거주를 포기하고 봉천으로 이주하여 양복점을 경영하셨던 디자이너다. 디자이너, 이렇게 쓰고 보니 사실 좁은 쪽스럽다. 요즘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좀 고상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일 뿐 그 때 상황으로는 그저 “재단사”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이야기 하실 때는 언제나 “디자이너”가 아닌 “재단사”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말을 빌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재단사였던 듯하다. 남자 옷이야 더 말 할 것 없지만 여자 옷도 그 손에서 재단을 해내면 어떤 고객도 만족해하지 않는 이가 없었을 만큼 솜씨가 뛰어 났었다는 어머니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다.

심지어는 극장에 가셔서 연극을 구경하거나 활동사진을 감상하면서도 손으로는 뜨개질로 식구들의 양말이나 장갑을 뜨거나 스웨터를 짜면 코 하나 빠지 않는 훌륭한 뜨개솜씨를 발휘하시고는 했다고 한다.

아버님이 손수 박쥐무늬까지 넣어서 뜨신 어린이 망토는 어떻게 간직이 되었던지 우리 형님을 거쳐 내가 어릴 때 걸치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우리 어머니는 후일 내가 더 컸을 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스웨터를 떠 주셨는데 시골에서는 제법 귀티가 나던 입성이기도 했었다.

물론 아버지는 초창기 대한민국 반골기질의 청년들이 그랬듯이 일제의 압제를 피해 단신으로 만주에 건너가 사업을 했고 점차 자리가 잡혀가자 부모님을 위시해 가족을 만주로 불러 들였다. 만주에 들어가서 가족을 불러들일 때는 당신의 양부모님을 위시해서 동생들 둘과 우

리 가족 다섯 이렇게 아홉 명이나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대 패밀리 엑소더스(Exodus)였었다고 한다.

이주하신지 불과 이삼 년 만에 번창하는 사업과 함께 가족이 재결합하며 생활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될 즈음 그 재주가 출중하셨다던 우리 아버지도 가족에게 드리우는 마의 그들은 피할 수 없었던가 보다. 만주 벌판을 휩쓸던 괴질에 사랑하는 두 딸들을 차례로 잃고 상심에 쌓여 살던 우리 부모님에게 그 슬픔이 가실쯤에는 더 할 수 없는 재롱 등이 막내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하직하자 그를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내가 태어났다. 그러나 귀엽기만 해야 했을 막내아들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덮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우리 아버지는 한없이 나약한 남자요 삶의 의욕을 잃은 남편으로 변하고 말았고 급기야 당신마저 흔히들 화병이라고 일컫던 이름 모를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알다가 세상을 하직하시고 말았다. 그 때 나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에 우리 형님 역시 열한 살 소년에 불과 했던 때다.

사랑하는 세 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의 튼튼한 대들보였던 남편마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그때 가졌을 우리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감이 어땠을지 나는 지금 손톱만큼이나마 짐작도 할 수 없다. 그저 당신의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고 또 세상을 떠난 딸들이 보고 싶다고, 어린 아들들 또 사랑하는 아내 우리 어머니 그리고 대를 이어드리겠다고 양자로까지 입적되어 모시던 양부모님을 뒤에 두고 딸들을 따라 가시다니. 얼굴도 모르는 나조차 살아오며 아버지의 빈자리가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는데,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하신 그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절절히 남편이 그리웠고 남긴 그 빈자리는

또 얼마나 원망스러워하셨을까!

우리 아버지의 영혼은 지금도 세 딸의 영혼과 함께 옛 봉천의 하늘만 떠돌고 계실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해를 먼저 간 세 딸들과 함께 봉천의 한 절에 모셔두고 늘 기일은 물론 언제고 함께 기억하고 싶으신 날들에는 빠짐없이 찾아가 명복을 빌어드리고는 하셨다고 했다.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급한 마음에 얼른 어린 아들들만 먼저 안전하게 고국에 데려다 두고 빠른 시일에 다시 가서 못다 했던 가산을 정리할 그때 남편과 딸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겠다 생각하고 몸만 내려왔는데 그렇도록 그리던 조국은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중국 대륙조차 공산화로 다시 넘을 수 없는 죽의 장막으로 가려지게 되고 말았으니 우리 아버지와 누이들의 영혼은 환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그대로 만주에 머무시게 되어서 말이다.

이제 왕래가 자유로워진 중국이지만 홍위병의 광풍이 지나간 다음 우리 아버지의 유해가 모셔졌던 그 절은 폐허가 되었고 이어진 개발의 물결로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니 구천을 떠돌고 계실 우리 아버님에게 죄송하기 그지없는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던듯하여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청상에 홀로 되셨다. 훗

날 우리 두 형제를 키우는데 큰 몫을 했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분이 신데 재단사였던 우리 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그 솜씨가 큰 몫을 해서 우리 가족이 만주에서 재결합을 이룬 후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양복점을 만주 봉천의 신사들이 더욱 즐겨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았던 그런 분이다.

이국땅에서 남편을 잃은 채 귀국을 해서도 늘 우리 둘만을 바라보고 사셨다.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자 자식을 남의 나라 땅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작정 하시고 두려움 없이 미처 가산도 정리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패물 몇 점과 몇 푼의 현금만 손에 들고 단신으로 우리 둘을 이끌고 고국을 찾은 우리 어머니는 먼저 환국하셨던 당신의 시부모를 찾아 우리를 고향에 정착시키기를 원하셨다.

물론 원했던 대로 두 아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오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남은 가산을 정리 하러 다시 만주에 가지 못하는 불운을 당하고 말았으니 조국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불과 며칠 사이에 국토가 남과 북으로 분단됨에 더하여 중국 국경까지 폐쇄되어 더 이상 중국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남편을 잃은 것 못지않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을 게다. 미처 가산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식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거처를 옮겨두었건만 이제 청춘을 바쳐 피땀을 흘리며 일구어 놓았던 재산을 더는 만져 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 절망감이 오죽 컸을까만 우리 어머니는 줄지에 슬퍼할 여력조차 없으신 채 적수공권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시고 말았다.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우셨으면 평생을 두고 그 때를 생각 하시며 “그때 그런 불행만 없었으면 너희들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

있을 텐데”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셨다. 어쩔 어머니의 속마음에는 두고 온 재산보다 만주에 유골로 남아계신 아버님과 고생 중에 장만해 애지 중지하셨을 손때 묻은 가재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 되셨을 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그 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편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더 편하게 일생을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 것 역시 기적이라고 이야기들 할 수 밖에 없을게다. 우리 어머니는 겨우 오 척이 좀 더 되는 단구에 가냘프기까지 한 몸매다. 요즘 같으면 무병장수를 약속 받은 복된 체구라고 타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겠지만 당시로는 여자의 몸으로 모진 세파를 헤쳐 나가기에 너무 가냘픈 체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우리 어머니는 육이오 동란 중에는 머리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닳아 없어지도록 임질로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두 아들을 남에게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건실하게 키워 냈고 이제는 슬하에 증손자까지 3대 가족을 거느리는 어른으로 변모하셨으니 말이다.

누구도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겠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를 더욱 존경한다. 청상에 홀로 된 몸으로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불굴의 의지로 우리를 키워 내신 게 첫째 이유요, 광복 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귀국길에 올려 공산 치하에서 고통 받을 위협에서 건져 낸 해안을 가지신 게 그 둘째 이유며 행여 의붓 아버지 밑에서 구박이라도 받으면 어쩔까 염려에서 재혼조차 마다하셨던 지극한 자식 사랑이 그 셋째 이유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백수를 바라보시는 고령으로 고통 없이 더 오래 사시라고도 할 수 없도록 쇠약해 지셨다. 먼 타국에 살기에 자식의 도

리를 다 하지 못하는 처지가 못내 죄스럽지만 자주 들러 얼굴이라도 보여 드리며 몸 저 누우신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 그 조차 뜻대로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이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는 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다음에 또 귀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머니 옆에 자리를 펴고 함께 자며 밤 새워 불편하신 어머니의 시중을 들어 드리고 싶다.

우리 큰딸의 고생

우리 큰 아이가 백일이 될 무렵 어머니를 독일로 초청해서 함께 모시고 지낸 적이 있다. 하기 좋은 말로 모시고 지냈다고 하지 사실은 어린 딸아이를 돌보아 주실 보모로 모시게 된 것이다.

하기야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지 않았던 때이니 가족을 초청하더라도 우리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대사관 공증을 필하고 왕복 항공 티켓과 함께 보내야만 여권을 받을 수 있었으니 비록 손녀를 돌보아야 할 큰일이 앞에 놓였다고 할지언정 작은 아들은 물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던 막내며느리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겸사해서 유럽 구경도 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 초청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잘못 된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어머니를 초청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다른데 있었다. 나는 그 동안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같은 도시의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던 오늘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며 지내면서 첫 딸을 얻었는데 이놈이 어

찌나 올어 대던지 나는 낮에 또 아내는 밤일로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게 여간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우리 큰 딸은 낳아서 백일이 될 때까지 엄청 울었다. 모유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모자랄 때마다 분유로 보충을 하곤 했는데 먹어야 할 분량을 다 먹고서도 입에서 젖꼭지를 빼기만 하면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해서는 거의 다음 먹어야 할 때까지 울곤 했다.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는 나는 차치하고도 밤새워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는 눈이라도 붙여야 하는 제 어머니에게는 늘 부족한 잠에 시달려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어머니가 오실 수 없었다면 우리 아이를 여느 친구들이 그러했듯이 독일 가정에 양육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런 실정이었다. 다행히 어머니가 오실 수 있어서 우리는 큰 시름을 덜은 셈이다.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우는 아이를 보더니 애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고 하셨다. 그럴 리가 없다고, 언제나 지가 먹어야 할 양은 다 먹인다고 펄쩍 뛰며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그래도 미심쩍으신지 아이 몸무게에 맞춰서 타다 놓은 분유병을 보더니 더 타 오라고 하신다.

내가 계산한 적정 양을 다 먹어갈 즈음 다시 한 병이나 죽히 되게 더 타다 드리니 아이에게 물리는 데 아이는 허겁지겁 땀까지 흘리며 빨아 먹더니 우유가 반쯤 남을 즈음 젖꼭지를 혀로 슬그머니 밀어 내고서 스프르 잠이 든다. 이래서 어른들의 경험은 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가 보다. 아마 우리의 육아 방법이 옳지 않았었나 보다. 어린애를 키워 본 경험도 없고 누구 하나 조언을 줄 사람도 없던 우리 부부는 아이 출생 후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날 선물로 받은 육아방법 책을 놓

고 되도록 책에 쓰인 방법대로 애를 키우려 노력했었다. 식자우환이라고 했던가, 책을 보면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먹여야 하는 양이 너무도 정확하게 쓰여 있었으니 아무리 독일어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책에 써어있는 대로 정확을 기하고자 우리는 언제나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는 먼저 체중을 달고 체중에 맞도록 데운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유와 함께 분유를 먹였으니 늘 먹일 때가 되면 먼저 체중을 달고 모유를 먹인 후 다시 저울에 달고 부족했던 양을 다시 분유로 채우는 식이었는데 아이마다 식욕과 식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책에 쓰인 방법대로 몸무게에 비례 하는 양만을 주고 칼같이 젖꼭지를 빼고 말았으니 우리 딸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 했을 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큰딸에게는 아빠의 무지로 출생 후 백일이 되도록 배고픔을 견디며 울기만 해야 했으니 너무나 미안하다.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을 하며 배운 독일어가 결국은 우리 큰 딸을 굶주림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빚게 되어서 말이다.

아무튼 세 아들을 키우며 가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우리 형수님에게 또 한 번 못된 일을 한 시동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 때 우리 어머니의 독일 방문은 우리 부부에게는 마음 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우리 큰 딸에게는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게 틀림없었다. 그 때 우리 형수님은 슬하에 올망졸망한 세 아이를 두고 시골에서 직장 생활을 겸하며 양돈업을 하던 우리 형님을 도와 온갖 꾀은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처지인데 갓난 애기 하나를 키

우기 힘들어한다고 쪼르르 막내아들에게 달려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서운하셨을 까? 당시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수님에게 여간 미안한 짓을 한 게 아니었고 생각 날 때마다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천성이 곱기만 한 우리 형수님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아주 당연한 일로 생각 하셨는지도 모른다. 우리 형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남편인 형님에게는 물론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짜증 한번 내시는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렵기로 말하면 어디 형수님만 어려웠겠나. 아마도 그 때 한 말씀 표현도 없으셨기는 하지만 아는 이 하나 없고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데리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만을 기다려야 하는 어머니는 그 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드셨을까만 그래도 젊은 시절 중국에서 생활하신 강단이 있어서인지 우리 어머니는 참 잘도 견디셨다.

행복을 찾아가는 지도

누군가 이야기 했다던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기대와 절망, 기쁨과 슬픔, 안도와 공포가 교차하는 이국의 광부 생활도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광산과 맺은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

우리들은 지난 3년간 단순 노동을 요구하는 단조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던 광부들이었는지언정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냈다.

지하 작업의 공포에서 해방감을 주던 위스키와 친분을 맺은 영철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던 일, 또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국한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하직했는가 하면, 급성 간질환으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한 정섭이 그리고 승용차 사고로 비명횡사한 기환이까지 모두 세 명의 친구를 더 잃는 슬픔을 감당해야 했었다.

계약을 무사히 마친 수많은 동료들이 그동안 생의 배필들을 맞아 보금자리를 이루어 새 삶을 시작했으니 그 각자의 가는 길들에 드디어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했다.

조국이 산업화의 문턱에서 국민소득 일천 불을 갓 넘겼던 시절 각자는 행복을 찾아가는 지도를 스스로 그리는 심정으로 독일행을 감행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 질 때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 국가 광업 발전의 역군이 될 사명을 부여 받은 귀한 몸들이 되었지만 각자가 설계한 미래는 자신들만이 아는 것, 이제 불과 두어 달 후면 제각각 준비해 둔 길을 가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재빠른 친구들은 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이미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났고 미혼으로 독일에 왔던 총각들은 어느새 하나씩 결혼들을 하고 배필들을 따라 다른 직장으로 자리들을 옮기고 있는가 하면, 고국에 처자식을 두고 왔거나 결혼이라도 약속 했던 약혼녀라도 있었던 동료들은 그 동안 제법 두둑해진 적금 통장을 들고 금의환향을 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매일 가족에게 가지고 갈 선물을 사거나 못다 한 여행을 한다고 틈만 나면 시내 상점들을 더듬고 여행사

의 문을 두드리느라 분주하기 그지없었다.

어떤 이는 3년간 그렸던 행복으로 가는 자신의 지도를 더 키우거나 하려는 듯 독일의 또 다른 직업학교나 대학들을 찾아 등록을 준비하는 발길로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우리들이 지난 그 3년 동안 해 낸 일들은 참으로 대견한 것들이었다.

건국 후 유엔의 후진국 개발 기금이나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의 원조 물자로 연명하던 우리나라에게 역사 후 처음으로 정부 상업 차관을 공여한 나라가 독일이었으니 우리가 송금한 당시의 마르크화들은 한 푼 한 푼이 고스란히 정부가 도입한 차관을 갚는데 요긴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어온 차관으로 한편으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놓아 국가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는가 하면 국민 모두에게는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외국으로 나가 자신의 삶을 개척할 의욕과 자신감을 일깨우게 되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코리아가 지도상 어느 구석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독일 산업의 심장 루르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리들의 근면함을 마음껏 보여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부지런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참 모습이 자리 잡게 했으니 민간 외교 또한 훌륭하게 실천에 옮긴 기간 이었고 연로한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홀로 길을 가는 병약한 노인들을 부축하며 짐을 들어 줄줄 아는 자그마한 코리아너들은 독일 청년들에게 잃어버렸

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되찾아 주기에 충분한 선행을 보이곤 했었다.

요즘 고국에서는 식자들 사이에 당시의 이런 사실들을 돌이켜 보며
파독광부나 간호사들을 국가 유공자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여론
이 있다고 한다. 가슴 뿌듯할 일이다. 이제 칠십 줄을 바라보며 손자들
의 재물을 보는 재미에 일 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들고 말고가 무에 그리 대수이겠는가? 하지만 아
주 작은 귀퉁이에서나마 우리들의 지난 삶들을 재조명해 보려는 움직임
이 있다는 걸 보면 그 시절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이었다고 후세에게 자신 있게 이
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에게나 가슴속에는 대소를 막론하고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속에는 티 없이 맑은 피가 끓고 있음
도 모르지 않는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끓고 있는 맑은 피
를 가졌던 우리와 같은 세대를 가리켜 가장 불운한 세대, 즉 위로는 국
가 발전과 부모의 안위를, 그리고 아래로는 자식의 교육과 그들의 미래
만을 위해서 희생한 마지막 세대라고들 한단다.

급격히 핵가족으로 변모하는 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입에 올리며 부
모를 공경한 마지막 세대이며 또 자식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게 될 첫
세대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이야기들 같다.

상관없다, 자식에게 공경을 받지 못해도 좋고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해 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작은 귀퉁이에서나마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좋고, 부모의 고난스

러웠던 삶의 여정들에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일거에 독일의 주류 사회에 진입해 주는 자식들이 있으니 더욱 자랑스러울 뿐이다. 잊혀 지지 않던 그 생의 한 도막이 피하고 싶거나 아님 감추고 싶은 그런 도막이 아니라 돌아보며 반추하고 또 반추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귀중한 추억이 되어있어서 좋다. 그렇기에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조국이 발행해 주는 여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가지고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이방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작 | 박춘섭

‘이’로부터 시작된다

1993년 9월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연변의 연길역. 북경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한 나는 개학 마감일에 맞춰 북경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려 34시간이나 소요, 그것도 침대석을 구하지 못하여 좌석에 앉아 꼬박 2박 3일을 가야만 하는 힘든 여정이었다. 연변에 와서 막일을 하던 남방 사람들의 귀향과 맞물려 나는 그들 속에 끼어 ‘비빔밥’이 되었다.

‘어, 이거 뭐지?’

북경에 도착하여 하도 몸이 근질거리기에 화장실을 찾아 입고 있던 티셔츠를 뒤집어보니 큼직한 이 한 마리가 나왔다. 샴푸, 비누 및 타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영영 사라진 줄로 알았던 이.

‘이놈, 여기가 뭐 동물원인줄로 아나?’

나는 씩씩하게 웃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로부터 시작된다.

‘동물원’

나는 대학에 입학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곳을 ‘동물원’이라 부른다. 중국 최대의 북경동물원이 우리 대학에서 멀지 않았고, 또한 우리 대학은 중국의 56개 민족이 모두 집결해 있는 곳이니 그러한 이유로 이 이름이 붙어진 것 같다. 중국에서 최대 인구인 한족이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그곳, 그곳이 바로 나의 모교 - 중앙민족대학이다.

우리 대학은 대략 6,7천명의 재학생이 있는 종합대학으로 국가에서 소수민족 간부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에 북경에 특설한 대학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예술학부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매년 중앙텔레비방송국(CCTV)에서 주최하는 ‘춘절만화’에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춤추는 애들이 거의 모두가 우리 대학 출신이라고 보아도 별로 무리는 없을 듯싶다.

우리 대학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의 모두가 있지만, 민족적 특징과 인원수 등에 근거하면 대개 ‘4대 민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조선족, 몽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이다. 중국에서 최대 소수민족인 좡족은 비록 인구수가 천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되지만, 언어 문화적 특징이 뚜렷하지 못하여 우리 학교 내에서 대(大) 민족으로 분류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정책상 민족 통혼으로 출생한 자녀는 민족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소수민족 특혜를 받는 이들은 대개 허울만 소수민족이고 민족적 특징은 한족과 별반 다름이 없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우리 대학에서 우리 소수민족 언어문학 계열의 경우,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으로 등록금

이 거의 면제가 되고 월 생활비가 별도로 지급되기로 되어있다. 말 그대로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다.

그러나 100%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학부는 몽골학과와 조선학과로 구성되었었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우리 학과가 몽골학과보다 생활비가 2위안 정도 적게 지급된다는 것, 이유가 뭐냐고 알아보았더니 몽고족은 육식을 주로 하는 반면 우리 조선민족은 야채를 즐겨먹기에 고기를 먹는 그들에게 보조금이 조금 더 지급된다는 것이다.

참, 고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구별하듯 민족도 차별화하는 이곳, 그렇다면 ‘동물원’과 다를 바가 뭇일까?

하고 싶은 말

개학한 뒤 곧 한 달가량의 고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6.4’사태 이후 한결 강화된 대학생들의 군사 훈련, 이는 무장경찰부대에서 직접 교관을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때 북경대학의 동기 신입생들은 일 년간 군사학교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다는데 그들은 어떻게 견뎠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얼마 안 되어 나는 앓아누웠다. 난생 처음 30여 시간을 기차에서 부대까지 온 노독의 여파도 있었고, 북경의 9월 폭염 속에서 내내 교내 운동장에서 행진 연습을 한 지겨움에 견딜 수가 없었던 ‘피병’도 일정 정도 작용했다

나는 교내의 병원에서 5일간 매일 4시간씩 링거를 맞았다. 인적이 별로 없이 조용한 대학병원 병실, 북경에 일가친척, 친구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나에겐 찾아오는 이들이 없었다. 다만 우리 학급 담임이신 오 선생님이 다녀갔을 뿐이다. 그이는 당시 40대 초반의 여 선생님이로, 나중에 나를 문학 석사 연구생으로 받아주신 고마운 분이셨다.

우리 학급 동학들은 문안을 오지 않았다. 하긴 초면으로 서로 변변한 인사도 못 나누었고, 그때 우리 학급은 반장도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그 누가 선뜻 나설 입장이 못 됨을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맘속으로 좀 서운했다.

10월 초, 고된 군사훈련이 끝나고 정상적인 수업이 시작될 무렵, 첫 학급 회의가 열렸다. 우선 학급 간부를 선거하였는데 고등학교 간부 경력도 없고 여학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나로서 학급간부는 그림 속의 떡이었다.

그 다음 절차로 담임인 오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내에 수필을 써내라고 하셨다. 언어문학학과이니 당연 제자들의 문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고, 겸사겸사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이다. 먼 옛날 주(周)나라 때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민간의 노래를 수집하여 민심을 알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적었다. 고등학교에서 3년 간 분투하여 첫해에 대학에 입학한 기쁨과, 대학에 대해 가졌던 꿈들, 그러나 정작 대학에 입학하니 언제나 느껴야만 하는 외로움, ‘사랑은 베 풀수록 커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모두 서로 베푸는 마음을 갖고

합심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자는 희망을 적었다. 촌스럽지만 진실되고, 그 어떤 문학적인 수식어가 붙지 않은 글이었다.

나의 이 글이 오 선생님의 맘에 들었던 모양이다. 선생님은 나중에 나의 이 글을 ‘모범작’으로 동학들 앞에서 읽었고, 동학들 간의 단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지우지은(知遇之恩), 이 글은 내가 문학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백두얼》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우리들은 민족의식을 모르고 성장한 세대이다. 유례없는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침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자기 민족의 역사의식은 담박해져 갔다. 그 ‘덕분’으로 교원가정에서 태어났고 역사와 정치과목에서 언제나 1,2등을 다투던 나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했었다. 북경에 와서야 민족에 대한 안목이 생겼고 지식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경에 와서 타 민족과 교섭하면서 민족의식을 새롭게 느꼈고, 타 지역의 조선족 동학들과 사귀면서 민족 내부 갈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심양 출신의 한 동학이 우리가 서로 익숙해진 뒤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대학교에 올 때 나의 어머니가 연변에서 온 아이들과는 절대로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 연변사람은 심성이 고약하다고.”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같은 민족임에도 지역적 감정이 이렇게 골 깊은 줄 몰랐고, 타 지역 조선족들에게 우리 연변조선족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어 있음은 정말 뜻밖이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는 거야.”

나는 말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그 친구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연변 왕청(汪淸) 출신은 연변사람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결론을 내렸다.

92학급의 한 선배가 나를 찾았다. ‘북경시조선족대학생구락부’라는 조선족 대학생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년에 한 기씩 《백두월》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한다. “듣자니 너 문필이 좋다는데 네가 편집 직을 맡는 것이 어떠냐?”고 나의 의향을 물어왔다.

북경시조선족대학생구락부. 이 조직은 북경시 조선족 대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1992년에 설립된 조선족대학생조직으로 일년에 한번 씩 “북경시조선족대학생운동회”를 개최하고, 기관지로 《백두월》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때 제2대 회장은 북경체육대학의 박씨였다.

나는 선뜻 수락하였다. 민족의식에 갓 눈뜨기 시작하였던 시절이었기에 《백두월》편집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고취하고 싶었다.

나는 자신이 평소에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숭배하고 있는 조선족 원로작가 김학철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신자를 연변작가협회로, 김학철 선생님한테 전해 주십사 하고 편지를 썼다. 김학철, 의열단 출신인 그분은 후에 팔로군으로 뜻을 바꿨고, 태항산에서 항일하시다 다리에 부상을 일본군에 체포되어 일본에서 옥고를 당하신

분이다. 일본감옥에서 부상된 다리는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절단하였다. 광복 후 남과 북에서 계시다 최종적으로 중국의 연변에 거주하신 그분, 그이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미 발표작 장편소설 《21세기의 신화》로 장기간의 옥고를 겪으셨다.

80년대부터 그이는 사회비판을 주제로 한 잡문(雜文)으로 많이 발표하였다. 잡문, 한국에서는 수필로 취급하고 그 역사적 연원을 찾아보면 패관문학에 속하는 문체일 것이나, 중국 현대문학에서의 잡문은 이와 다르다. 날카로운 사회 비판 정신과 사상 계몽을 접목시켜 잡문 문체를 새로운 경지로 이끈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노신, 중국의 잡문은 춘 설살인의 미학이다.

거의 한 달이 될 무렵, 선생님한테서 답장이 왔다. 아니, 답장이라기 보다 자신의 사적을 소개한 신문, 잡지의 내용을 스크랩하여 보내주신 것이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영웅 김학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선생님의 인생사를 조명하고 그이의 불굴의 투사 정신을 예찬하였으며, 그이의 문학적 성취를 서술하는 격식으로 된 짧은 글이었다.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좀 유치한 글이었다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때 그 시기에 그분은 우리 민족 대학생들에게 강력히 알려야 할 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경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이며 ‘고려학회’ 초대 회장인 최응구 교수님을 인터뷰하여 《연변여성》에 발표했다. 남북통일을 위하여 학술 영역에서 선행되어야 하는바 남과 북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중국조선족이라며 우리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신 분이셨다.

우리 대학교 민족학 학부교수인 김병호 교수님을 인터뷰하여 《민족

단결》에 발표했다. 우리 대학에서 황유복 교수님과 더불어 우리 민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셨던 분, 일찍부터 ‘연변 위기론을 강조하시면서 해당 연구 성과를 중국어로 발표하시어 학계와 정부의 관심을 끌셨던 분이였다.

이를 통하여 나 자신도 우리 민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80년대의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참여 세대였다면, 90년대의 대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멀리하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실용을 추구하는 세대였다. 어느 한어 잡지에서 〈80년대의 대학생과 90년대 대학생의 대화〉라는 글을 읽은 적 있다. 80년대의 대학생은 90년대 대학생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비평하면서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 가치의 상위 개념이 아닌가? 고 질문한다. 90년대 대학생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펴면서 취직이라는 현실적인 미래를 대비하여 실용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고 반문한다. 그리고 형들이 추구한 정신적 가치는 결국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되었냐고 질문한다.

우리 민족 대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90북경아시안게임”과 92년 양국수교를 계기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한국기업들의 대량적인 중국 진출로 조선족 대학생들의 취업이 폭이 넓어졌다.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온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대학생 비율이 중국 1위이고 개명하고 충직하다던 정부의 신임이 그래도 ‘가

재는 게 편이라는 인식으로 돌아섰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우리 민족의 대학
생들에겐 물질이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던 시대였다.

정신적 가치가 실추되던 그 시절, 우리 《백두열》의 외침은 가냘프
기만 하였다.

《옹달샘》

95년, 우리 학과에서 문예지를 창간하기로 하였는데 나에게 책임편
집을 맡으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한 학기에 한 기씩 내는 것으로 별로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창간호, 이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선 학부지 명
칭부터 정해야 했다. 명칭은 현상공모를 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를 냈지
만,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이 없었다. 민족 담론을 주제로 한 거창한
《백두열》보다는 문학도들의 문예지로 색깔이 달리해야 하지 않겠냐
고 나는 생각했다.

문득 나는 옹달샘이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심심산골, 아름다운 골짜
기에서 옹달샘이 뿜뿜 솟아난다. 고달픈 산행에 지친 행자(行者)가 두
손으로 샘물을 받쳐 든다. 갈증에 목마른 입안으로 감로수가 들어간다.
어, 시원하다. 행자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속 갈 길을 간다. 샘물도
계곡을 따라 졸졸 흘러간다.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로 합류하며
나중에는 바다로 흘러든다. 무릇 큰 꿈은 작은 꿈으로 시작되고, 거창

한 대의는 작은 뜻으로 발원한다. 그리고 웅달샘이라는 어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오케이, 편집부의 협의를 거쳐 명칭을 웅달샘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내가 제안한 명칭이어서 현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수필 〈행자〉를 썼다. ‘남남북녀’의 우리말을 빌어 남자는 남으로 남으로, 여자는 북으로 북으로 서로의 인생의 꿈을 찾아 가야만 하는 행자의 슬픈 이별을 담았다. 고등학교부터 서로를 애모하였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별을 맞이하는 사랑의 슬픔을 그렸다.

수필 〈파랑새는 날아갔다〉를 수정했다. 나 혼자의 학부지가 아닌 만큼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했고, 비록 글은 안 되더라도 뜻만 새로우면 많이 뜯어고치더라도 등재하기로 하였다. 산업화의 충격으로 날로 피폐해지는 농촌, 우리 민족 총각들의 고민을 그린 한 여학생의 글이다. 여성을 상징하는 파랑새의 도시를 향한 꿈, 나는 그것을 읊아매려는 총각들한테 풀어주라고 권한다. 동아줄이 되어 쑥쑥 뭉으려 들지 말고 분발하여 넓은 하늘이 되어 그들을 포용하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수필 〈빠꾸기는 철없이 운다〉를 수정했다. 그때는 우리 민족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가는 열풍이 불기 시작한 무렵, 단란하던 가족이 두 동강난 현실을 우려하면서 이 글을 수정했다.

문학은 내가 외부와 소통하는 길이었다. 컴맹인 나는 펜으로 글을 썼고 남의 글을 수정했다. 모든 원고가 완성된 후 우리는 책자로 만드는 작업에 힘을 합쳤다. 그때에는 컴퓨터가 보급되지 못하여 컴퓨터 입력자가 별도로 있었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등 컴퓨터 미술 작업

자도 없어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편집도 새롭게 영입했다. 타
이핑한 원고를 수정, 교정하고 초본을 만들고 거기에 그림을 넣고 다시
그것을 수정하는데 여럿이서 여러 번 밤을 샜다. 학부의 복사기가 과
로로 작업을 못할 지경이 되었고, 수많은 초본들이 한 번 또 한 번 폐
지로 처분되었다. 진통 끝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초본을 만들고 그것
을 외부에 의뢰하여 백여 부 만들었다. 작업에 참여한 이는 5명 좌·
우, 난산의 창간호였지만 그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에 피로는
있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만든 창간호였기에, 반년 뒤 제2기는
별 어려움 없이 만들어냈다.

태권도

남자라면 뉘라 없이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것을 일러 음성양쇠(陰盛陽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의
올림픽종목만 보더라도 대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은 금메달을
탄다. 문인들은 이를 일러 ‘중국남인결개(中國男人缺鈣, 중국남자들
은 칼슘이 부족하다)’라는데 이를 동음이의어로 이해하면 ‘남인결개(男
人缺概)’, 즉 남자는 기백, 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된다.

북경의 날씨를 보라. 외부인들이 북경의 악천후에 대해 익숙한 것은
봄가을의 황사와 여름날의 폭염이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또 있다. 20세기 90년대 북경에는 매년 4~5월이면 눈이 내렸다.
때 아닌 계절에 웬 눈이냐고? 그 이유가 따로 있다. 북경에서는 환경조

성사업의 일환으로 50년대부터 도로 변에 백양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90년대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들은 암컷 백양나무를 수컷에 비해 훨씬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봄이 되면 수정하느라고 하얀 솜을 날린다. 암컷 백양나무의 수량이 엄청 많다 보니 봄이면 그것들이 바람에 흩날려 눈꽃으로 되는 것이다.

나는 대남자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현실생활에서 남자들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온다. 그 무렵 북한에서 파견한 태권도 사범이 북경대학과 우리 대학에 격일로 태권도 학습반을 꾸렸다. 국제태권도연맹의 중량급 경기에서 연속 두 번이나 우승한 정 사범은 키가 훨씬 크고 몸집이 우람진 7단이었다.

나는 학습반에 등록하였다. 그때 우리 반에는 인근 북경외국어대학의 북한 유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은 북한에서도 뼈대가 있는 집안의 출신으로, 북경외국어대학에서 일정기간 타 소국의 언어들을 연수한 뒤 귀국하여 사상 교육을 받고 다시 해당국가의 북한대사관으로 파견된다고 한다. 북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도 꽤 많아서 생활수준도 괜찮아 보였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우리도 한국 책에서 독일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국가 기념일이 되면 현지의 친구를 찾아서 위대한 지도자를 칭송하는 글을 부탁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음으로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대개 공인 1단이었지만 태권도 실력은 훌륭했다. 외부 행사에 태권도시범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면 주로 사범과 북한 유학

생들로 팀을 꾸렸다.

태권도 과정은 기본기 훈련과 기본 틀 배우기, 맞서기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내가 태권도를 배우려 한것은 체력과 의지를 단련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에 ‘단군틀’, ‘천지틀’ 등 품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사범은 웅장한 체구의 사나이로 세심한 기술보다는 힘있는 실전 무술에 역점을 두고 가르쳤다. 아래에 태권도를 배우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1994년 8월 여름,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회장이 북경에 왔다. 모두들 북경대학 체육관에서 환영 모임을 가졌는데, 정작 실물을 보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알려졌던 그이는 별로 크지 않은 키에 몸집도 웅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 보였지만 눈과 행동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여러 제자들이 태권도 시범을 하였는데, 그이는 제자들의 시범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몸소 나섰다. 태권도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다. ‘짜악~’ 그이가 도복 아닌 양복 차림으로 나서다 보니 옆차기 동작 시범을 할 때 그만 바짓가랑이가 찢개졌던 것. 우리들은 감히 소리 내어 웃지도 못하고 웃음을 참느라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럭저럭 1년간 배웠고, 1단의 금방 아래급인 1급 붉은 띠를 두르게 되었다. 그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태권도 수련을 접게 되었다.

행운

북경 생활에 적응하기엔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이 너무 짧았다. 고심 끝에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문적으로 실력을 더 쌓고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사회 무대에 진출하리라 결심했다.

중국의 경우 대학원 입학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대학원 입시는 매년 1월경에 전국통일시험으로 치러졌고 성적은 3월에 발표, 합격여부는 4월에 알게 되며 입학통지서는 5월 중에 발부된다. 지도학생을 받으려는 교수는 미리 상부에 신청하여야 하였고, 보통 신청한 교수가 일인 당 1명씩 국비연구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비연구생이란 국가에서 학비 등을 지원하고 연구생 당 숙소를 제공하고 매월 생활비 230위안 정도를 지급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는 학부생에 비하여 대략 3배가량 많았다. 국비연구생에 합격되지 못하면 자비연구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학비가 엄청 많고 숙소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였으며, 생활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전국통일시험으로 치르는 입시는 2개 전공과목은 지도교수가 직접 출제하였고 외국어, 정치, 중국어는 전국 통일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반년은 준비하여야 한다.

나는 담임인 오 선생님의 석사연구생에 응시했다. 그때 오 선생님은 금방 부교수로 승진하여 첫 석사연구생을 받으려 하던 참이었다. 나의 경쟁자도 세 명이 되었다.

힘든 공부가 시작되었다. 대학에 와서 한동안 놓은 입시 공부를 시작하자니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았고,

다른 동학들은 다 놀고 있는데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모두 견뎌야 하는 힘든 공부였다.

3월에 성적이 발표되었고 4월 말에 국비생 합격자 명단이 나왔다. 나는 국비생 합격 점수선 안에는 들었지만 같은 지도교수에 지원한 다른 학생이 나보다 성적이 높았기에 그만 낙방하고 말았다. 오 선생님께서 자비생을 지원하라고 하셨지만, 자비생은 체면이 구겨지고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했다.

그러던 5월, 취업을 준비하던 나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미 합격한 다른 학부의 석사연구생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생 정액이 하나 남게 되어, ‘마당발’인 오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 것이 나한테 배당된 것. 나는 기적적으로 대학원 입학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인생은 때로는 대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때부터 동학들은 나를 ‘행운아’라 불렀다.

학부 졸업

4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렀다. 우리 동학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할 무렵 졸업이 다가왔다.

우리 93학급은 좀 특이한 반급이었다. 모두가 개성이 강하다 보니 다른 학급에 비해 말썽이 많았고, 평소에는 서로가 화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작 일에 맞닥뜨리면 달랐다. 우리 반의 경우 남학생은 11

명이었는데 축구경기가 있으면 전원이 출장해야 했다. 조선족언어문학학과 운동회 남자축구 종목에서 결승에 올라 남학생이 30명이나 되어 선수 자원이 넉넉한 우리 학과 소속의 2년제 전문대학 94학급을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꺾는 이변을 연출해냈다. 그뿐만 아니다. 평소에 우리 학급과 우리 대학 93학번의 타 학과 조선족학생들과 축구경기를 많이 가졌는데, 매번 우리가 졌었다. 나중에 우리를 깔본 그들은 내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우리가 1:0으로 이겼다. 그 뒤로부터 그들은 내기 시합을 하자는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했다.

말썽 많던 우리 학급은 팀워크가 날이 갈수록 더 탄탄해져 비록 나중의 일이기도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1년에 2회 정도 학급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7월 초면 졸업한다. 97년 6월, 우리 93학급은 졸업을 앞두고 교외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행선지는 북경시 밀운현(密雲縣) 흑룡담(黑龍潭)로 1박 2일의 일정이었다. 동학 두 명이 이미 행선지를 탐사하고 민박을 예약하였다.

우리는 기차를 탔다. 2시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마중 나온 민박주인의 안내로 민박에 들어 짐을 풀었다.

저녁에는 산양을 잡아 양 구이를 해먹는단다. 양고기는 예전부터 북경사람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육류이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개고기는 다르다. 예로부터 북경사람들은 개고기는 먹지 않았고 개가 죽으면 땅에 파묻었다 한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조선족, 한국인들이 북경에 대거 진출하면서 북경시의 개고기는 금값이 되었고, 북경 시내를 멀리 벗어나지 않으면 개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어쩔 우리 민족

이 평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북경개의 명운을 달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하긴 그때 북경에 우리 조선족 인구만 6-7만을 헤아렸으니 그럴 법도 할 것이다.

화롯불에 불을 지피 양고기를 굽으며 민박주인은 “당신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고 물었다. 우리가 북조선, 한국을 말해줘도 민박주인은 모른다고 했다. 다만 우리들의 말투를 들어보니 옛날 일본군의 통역의 말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가 본 사람이 일본군을 위해 봉사한 통역이 조선인인지를 우리는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일본군 통역 중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시기의 문헌에도 꽤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우리 민족에 대한 비하적인 지칭인 ‘꼬리빵즈’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민족을 욕하는 ‘꼬리빵즈’를 근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부의가 동북에 세운 소위 ‘만주국’ 시기에 일부 민족의 반역자들이 일본군의 위세를 앞세워 경찰 노릇을 하면서 경찰 몽둥이로 심하게 한족들을 구타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좀 고전적이고 우리 민족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였을 때 고구려 백성들이 쫓기하여 몽둥이로 당나라 군대를 두들겨 뺐다는 뜻, 참말이지 정녕 나는 후자를 믿고 싶다.

밤에 파티를 즐기고 우리는 이튿날 흑룡담으로 향했다. 흑룡담은 산 위에 있었다. 북경 시내에는 산이 없다. 자금성 뒤의 경산은 중해, 남해 호수를 파면서 생긴 것이고, 이화원의 산도 역시 곤명호를 파면서 생겼다. 북경에서 산을 보려면 시내를 벗어나야 한다. 자, 이제 진짜 산으로 간다.

입구 앞에는 밀운(密雲)저수지가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저수지와 더불어 역시 멋진 흑룡담 풍경을 나는 상상했다.

우리는 산에 올랐다. 코스는 졸졸 흐르는 냇물을 따라 올라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비록 나무는 별로 자라지 않았지만 여름의 산은 푸르렀고 공기는 맑았다. 우리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물놀이도 즐겼고, 흑룡담에 도착하면 꼭 풍경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걸어서야 흑룡담에 도착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했던 바와 달리 흑룡담은 다만 바위 밑에 물이 고여 있는 자그마한 웅덩이였다. 검푸르게 보이는 것 봐서는 꽤 깊어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 전설 속의 흑룡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못이란 말인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그에 못지않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작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가 올라오는 길에 있었다. 다만 우리가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과정을 무시하였을 뿐.

몽고족과 티베트족 친구

1997년 9월,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학부생과 달리 대학원생은 군사훈련이 없고, 숙소엔 8명이 기숙하는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 숙소는 정원이 4명이며, 저녁 11시경이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대학생 숙소와는 달리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 즉 모든 면에서 대학 때의 조건과는 비교가 안 된다.

대학을 다닐 때 조선 언어 문학학과를 다니다 보니 숙소에는 모두 같은 민족 동학들이었고, 따라서 타 민족과는 별로 교제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원에 입학하여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우리 대학의 조선족 대학원생 중 남자는 나 혼자뿐이었기에 타 민족과 같은 침실에 배정되어야 하였다. 우리 침실에는 나를 제외한 외 몽고족 두 명, 다른 회족 한 명이 들었다. 그 회족 친구는 어머니가 회족이고 아버지가 한족이기에 동화되어 한족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그 몽고족 두 명과는 학부 때부터 같은 학부여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색음파아이(色音巴雅爾)라는 친구는 나와 같은 93학번으로 학부에서 학생회 간부를 한 경력이 있었는데, 얼굴에 화기가 없이 늙음침하였다. 다른 한 몽고족은 아일목찰(阿日木扎)로 나보다 한 학번 위인 92학번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사표를 내고 대학원시험을 보다 보니 대학원은 같은 반이 되었다. 그때 우리 대학원은 같은 해에 입학한 석사연구생들을 모두 합쳐 한 개 반으로 편성하여 박사연구생이 담임을 맡았다. 우리 97대학원반은 9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민족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몽고족은 선배에 대한 예의를 중히 여기지 않아 마음 착한 선배인 아일목찰이 늘 색음파아이 한테 당하는 눈치였다. 곧고 바른 말을 잘 하는 성격이어서 나는 ‘이 자식, 아무리 그래도 선배인데 예의는 갖춰야지’하는 생각으로 아일목찰을 도와 색음파아이를 면박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일목찰은 이에 감동을 받아 나를 가까이하게 되어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난 아일목찰을 보고 농담으로 “참 이상하다. 이거 역사가 잘못 기록

된 거 아니야? 너희 몽고족들을 보니 도무지 칭키스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말이지. 아아, 원통하다. 우리의 고국 고려가 너희들한테 짓밟히다니.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맞짖 뜨자. 우리 조상들을 위해 복수해야겠다. 우리 태권도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하니, 그 애는 킬킬 웃기만 한다. 워낙 심성이 착한 애여서 남한테 ‘아니’라는 말을 못하는 성격, 은연중 나는 그의 ‘보호자’로 되었다.

몽고족들은 보통 대학교에 와서야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데,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대학졸업 시에는 중학교부터 일본어를 배운 우리보다 실력이 더 나은 애들이 많았다. 일본인들도 유달리 몽골인을 좋아하였다. ‘가미카제(神風)’의 덕분으로 원나라 군대가 일본을 침범하지 못한 것과, 같은 몽골인종이라는 이유로 일본인들이 내몽고에 여행가고 몽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아일목찰의 친구 몇몇도 일본인과 교제가 있었고, 그 자신도 나중에 일본회사에 취직하고 일본인 애인을 두었다.

그때 옆방에는 니마찰서(尼馬扎西)라는 장족이 있었다. 장족이란 곧 티베트인을 이르는 말. 그 애의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장족들은 마음이 착했다. 비록 말은 얼마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티베트 문제에 대하여 담론하지 않는 것을 대방에 대한 예의로 간주하였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일력은 우리와 달랐는데 일명 장력(藏曆)이라 한다. 그들의 설은 3월경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아침 7시경, 그 친구가 우리 침실로 들어와 꿈나라에 들어있는 우리를 모두 깨우고 “짜시더러(扎西德勒, 행운, 행복을 뜻하는 장족들

의 인사말)” 하더니 맥주를 부어 맥주 컵을 돌리는 것이었다. 몇 년을 안 씻었는지 유리잔이 깨끗하지 않았다. 서장지역은 물이 귀해서 인간이 태어나면 단 세 번 목욕하는데, 그것은 각각 갓난아기 때, 시집 장가갈 때, 사망한 뒤이다. 결코 그들이 불결하다는 뜻은 아니다. 깨끗하거나 더럽다는 표현은 표상일 뿐 그것이 꼭 본질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일례로 청정지역에서 온 그들은 북경에서 거주하려면 우선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만큼 북경은 오염이 심하고 공기가 안 좋다는 말,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인간들이다.

예의상 술을 단숨에 마셔야 했었는데, 굽을 내고 보니 속이 울렁거리 참을 수 없었다. 허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 친구는 참파(Tsamba)를 내 앞에 내밀었다. 참파란 서장지역에서 나는 보리를 가루 내어 우유에 버무리는 장족의 전통 음식인데 우리 민족의 미숫가루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다른 점은 그들은 맨손으로 참파를 버무리고 맨손으로 집어먹는다. 먹기 싫었지만 먹는 시늉을 해야 했다. 괴로운 아침이었다.

행운은 쌍으로

1997년, 그 해는 유난히 운이 좋았다. 운이 좋게 국비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제쳐놓더라도 신문에서 우연히 롯데 껌 현상광고를 보고 롯데 껌을 사서 종이껍질을 롯데에서 지정한 청도의 주소지로 보냈더니 3등 상에 걸려 100위안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 20위안을 공제하고 80위안을 수령했다.

그 뒤 어느 날 나는 《축구보足球報》에서 레드불(紅牛, Red Bull) 음료 현상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레드불 캔음료 뚜껑을 그들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어 당첨되면 태국여행을 보내준단다.

1995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태국의 레드불 음료회사는 그 시기 중국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다. 1997년에 실행한 ‘레드불 음료 먹고 태국여행 가기’ 10개월에 한 달에 한번, 한번에 10명씩 추첨하여 모두 100명을 무료로 태국여행을 보내는 판촉활동이었다. 사실 레드불 음료는 캔 용량이 작은 반면 가격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한 통에 4.8위안이었는데 이 돈으로는 캔 콜라를 3병 살수 있었다.

이 음료를 사먹자니 돈이 아까웠다. 그래서 같은 침실 애들을 보고 우스개로 ‘나 이제 레드불 음료를 먹고 태국에 여행 간다.’고 큰소리를 뽕뽕 치고도 돈이 아까워 그 음료를 사지 않았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저녁, 졸업한 대학 동창들과 술 한 잔 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갈증이 났다. ‘에라, 모르겠다. 레드불이나 사먹자’고 작심하고 가게에 가서 레드불 음료를 사먹고, 그 이튿날에 우편으로 레드불 캔 음료 뚜껑을 그 회사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냈다. 그리고 그 일을 감감 잊고 있었다.

대략 2개월이 지난 뒤, 편지 한 장이 날아왔다. 내가 당첨되어 태국으로 여행 갈 수 있단다. 당첨된 사람들이 팀을 꾸려 가니 상세한 일정은 사후에 통보한단다.

이 일로 나는 ‘행운아’라는 별명은 대학원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다.

우선 여권을 만들었다. 그때 중국에서 1998년에만 하더라도 여권은 공무 여권, 여행 여권, 개인 여권 등 3종으로 나누었는데 여행 여권의

경우 유효기는 일 년이고 일 년 내에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개인 여권의 경우 유효기가 5년이어서 사용하기 편하지만 그때는 발급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어서 나는 북경시공안국에 가서 여행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1998년 4월, 나는 타 당첨자들과 함께 5박6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때는 동남아 금융위기로 태국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북경에서 오후 5시경에 이륙한 비행기가 5시간 정도 날아 방콕에 도착하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이는 나의 첫 외국 나들이이자 난생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였다.

호텔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이튿날부터 우리는 방콕 시내 구경을 했다. 현지가이드는 여자였는데 화교출신이라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태국은 불교국가로 태국의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삭발하고 몇 년간 승려 생활을 한다. 또한 태국에서 왕궁, 공원 관람은 무료라 한다.

4월의 태국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다. 열대우림기후에 속하는 태국의 4월은 건조기인데, 서로의 몸에 물을 뿌려 몸을 적셔주는 ‘송크란’ 축제도 4월에 열린다. ‘송크란’은 중국어로 ‘泼水节’이라 하는데 중국에서는 운남 타이족들이 이 축제를 즐긴다. 우리 대학의 경우 타이족 학생들이 이날이면 민족 복장을 차려 입고 길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마구 물을 뿌려대는데, 사실 4월에 이 축제를 즐기는 그들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었다. 중국은 더운 계절이 6~8월인데 말이다. 덥지도 않은 4월에 물을 맞고 좋아할 사람이 어데 있겠냐고, 참 이상한 민족이라고 가이드는 태국 토착민들은 게을러서 공무원 등 직을 선호하

는데 반해 화교들은 고생에 잘 견디고 장사꾼이 터서 태국의 많은 부는 모두 화교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방콕에는 당인거리도 별도로 있었다.

첫날 점심식사가 끝나자 가이드는 ‘등소평 타임’이 됐다고 말했다. 뭐고 하니 예전에 등소평이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 점심식사를 마친 후 꼭 짧은 시간이나마 잠을 잤었는데 오침 습관이 없는 태국인들은 이를 보고 ‘등소평 타임’이라고 불렀다 한다.

방콕에 있는 악어 사육장에 가봤다. 수만 마리의 악어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가이드의 말로는 세계 최대의 악어사육기지인데 전에 강택민 주석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악어란 놈들은 게을렀는데 그들 중 하루 종일 입을 썉 벌리고 가만히 있는 놈도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방콕여행을 끝내고 관광버스를 타고 4~5시간 달려 파티아 해변가로 갔다. 파티아는 미군기지가 있었던 곳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인근 바다는 오염이 되어 바닷물이 좀 더러웠고 배를 타고 한 시간쯤 나가니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는 섬이 나타났다. 나는 수영에 익숙하지 못한지라 그냥 열은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좀 지쳐서 백사장에 나와 앉아 있는데 웬 두 여자가 우리 일행한테 다가와 ‘사진을 찍지 않겠냐?’ 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가이드의 말로는 이들은 중국어로는 ‘仁妖(인요)’, 영어로는 ‘SHEMALE (쉬메일)’이라고 하는 인간들인데 나름대로 예쁘고 젖통도 있어 여자로 보이지만, 아래는 남자의 성기가 있음으로 ‘반은 여자, 반은 남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집 출신으로 돈을 벌려고 가슴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으로 인하여 그들은 대체

로 40여 살이 되면 죽는다고 한다. 돈이 좀 있으면 성전환수술을 할 수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증에는 여전히 남자로 남기에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이드는 모든 태국인을 감동시켰다는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다. 오래 전, 한 독일 신사가 태국에 관광 왔다가 한 예쁜 아가씨와 눈이 맞아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독일신사는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 미심쩍어 독일 신사가 알아본 결과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였던 것.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독일 신사는 그날로 행장을 챙겨 귀국해버렸다. 그 ‘아가씨’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일 년 후, 독일신사는 그녀를 잊을 수 없어 다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둘은 태국공항에서 열렬히 포옹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미담으로 한때 태국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10바트란다. 그들은 비키니 상태, 여러 사람이 모두 그들과 사진을 찍었고 나도 준비한 카메라로 타인한테 부탁하여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사진 찍으려 준비하는 과정에 브래지어를 푸는 바람에 그만 우리 둘의 사진은 나는 옷통을 벗고 아래에는 반바지만 입었고 그녀는 유방이 다 드러난 ‘음탕한 사진’으로 되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북경에 돌아온 뒤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면서 좀 말썽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 ‘황색사진’은 현상할 수 없는데, 이 쉬매일이 여자가 아니라고 설명하여서야 비로소 현상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아직도 잘 보관하고 있다.

저녁에는 쉬매일 공연을 관람하였다. 전문직 쉬매일은 모두 아름다

왔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두 녹음된 것으로 그들은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여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한다. 그 시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왔기에 중국 노래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거의 2시간 진행된 공연이 끝난 뒤 그들은 모두 줄지어 밖으로 나와 돈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보통 10바트를 주면 되었는데, 내가 같이 찍은 쉬메일은 나의 손을 잡아다 자기의 유방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 전에 섬광등이 번쩍했고 내가 10바트를 주니 그녀는 'NO'란다. 미처 그의 육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나마 부끄러워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그만 어정쩡하게 100바트를 주고 말았다.

반미 시위

1999년 5월 8일, 중국 현대사에서 영원한 치욕으로 남을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 폭격기가 미사일로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을 습격하여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대사관은 곧 그 소속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영토요, 대사관을 공격한다는 것은 선전 포고나 다름이 없음을 기본적인 외교 상식, 중국의 방송에서는 매일 피폭 관련 뉴스가 비중 있게 방송되었다.

중국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며칠, 북경은 조용했다.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 군사보복의 가능성을 저울질하다가 나중에 무력보복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대중을 동원하기로 하였다는 방침은 후에 들은 말.

며칠 뒤, 북경대학 학생 및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가서 항의, 시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6·4’ 이후 중국에서는 학생 데모를 신중하게 대하고 있었다. 집회, 시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지방정부에 가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5월 말 6월경이면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학교 출입 시에 학생증을 검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외부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때문에 자발적인 시위란 표현 그대로 ‘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잘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이번 반미시위가 도를 넘을 경우 자칫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 노심초사 했을 것이다.

곧 우리도 학교 측으로부터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가서 항의 시위하니 참석하기 바란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의 도발 행위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시위할 엄두를 못 냈던 우리들, ‘6·4’의 영향으로 우리 90년대 대학생들은 정치적 행위 표출 면에서 자제를 요구 받는 삶을 살아왔다. 내일은 어쩌면 인생에 단 한번밖에 있을지도 모를 시위가 있다. 멋진 모습의 한 장면을 출현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리라!

이튿날 오전, 나는 부근의 가게에 가서 8위안 주고 흰색 티 한 장 샀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먹 잉크를 찾아 붓으로 앞면에는 ‘미제 타도’를, 뒷면에는 ‘클린턴, 발정이 나기로 아무 곳이나 ×을 집어넣어? 콕 찌라 치올라.’라는 내용을 중국어로 적었다. 마침 그때에는 클린턴이 루원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이 들통 나 곤욕을 치르던 시기였는데, 나는 미제의 길쭉한 미사일의 형체를 클린턴의 ×에 비유한 것이다. 동학들은 너나없이 재미있다고 웃어댔다. 한 친구가 나한테 기념사진을 찍어줬다. 유감이라면 앞면만 나와서 뒷면의 내용은 남들에게 영영 증명할

길 없다는 점.

우리는 전용버스로 미국대사관으로 향했다. 교문 밖 도로에 길게 늘어선 것을 보니 우리 대학에서 동원된 버스만 하여도 수십 대는 될 것 같았다. 듣자니 다른 대학들도 모두 시위하러 간단다. 우리 대학은 북경 시내의 서쪽인 해전구에 위치하였고, 미 대사관은 대사관 집결지인 조양구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타고도 거의 40~50분 가야한다.

버스는 대사관 구역에 좀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앞에 줄지어선 버스가 너무 많아서 더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하였다. 그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엄청 많았다. 미 대사관 부근에 가보니 중국의 무장경찰들이 손에 손 잡고 네 겹으로 대사관을 에워싸서 시위대의 대사관 접근을 막았고, 대문가에는 적어도 여덟 겹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시위노선은 사전에 엄격히 규정되어 미 대사관을 반 바퀴 도는 거리로 제한되었고, 일단 앞으로 걸어 나가면 뒤로 후퇴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몰려드는 인파가 너무 많아서 후퇴하고 싶어도 후퇴할 길 없었다. 사람들은 한껏 ‘미제 타도’를 외쳤고 돌멩이를 들어 미대사관에 던지는 이들도 많았다. 한 사람이 먼저 던지니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흥분되어 던지게 된 것이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선동하면 만 사람이 호응하는 것, 이것이 곧 평화 시위가 폭력시위로 바뀌게 되는 원인이다. “잘그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돌멩이를 던져 미대사관 건물을 맞히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상한 것은 타국 대사관들과는 달리 미대사관의 건물은 담장에서도 꽤 먼 거리에 위치하여있다는 점. 미대사관 유리창으로 한 사람이 얼굴이 빠끔

히 얼굴을 내밀었다. “우와!” 시위자들이 고함을 지르니 그 얼굴은 곧장 사라졌다.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그때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미대사관 대문가를 지나던 시위대가 무작정 밀며 무장경찰들의 방어벽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려 시도한 것, 처음 네 겹은 삼시간에 뚫렸지만 두 번째 방어벽에 막혀버렸다. 이어 무장경찰 증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시위대는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시위대 조직자들은 인파를 앞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밀려 결국 앞으로 밀려나갔다.

우리는 미대사관을 반 바퀴 돌아 사전에 지정된 노선을 따라 나오게 되었다. 길을 따라 나오는데 마침 쿠바대사관이 나타났다. 그들은 대문가에 책상과 걸상을 놓고 음료수 등을 준비하여 우리 시위대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미제 타도!’, ‘우리는 형제!’이라는 중국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우리를 실어왔던 버스들은 다른 학생들을 실으러 갔으니 숙소는 각자가 알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돌아가란다. 나 참! 위에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하얀 티만 입고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등뒤에 적힌 글을 보고 킁킁 웃고 있었다.

결혼 수속 대행

한국과 수교한 후 우리 중국조선족들의 한국 방문의 길이 열리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가짜 초청장 사건’! 많은 조선족마을을 황폐화되었다고 조선족 언론매체들은 전한다. 동삼환(東三環)에 위치한 국제무역센터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하루에도 수백 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비자를 받으러 줄을 섰는데, 대부분 초청장이 가짜로 판정되어 브로커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초청장을 산 이들은 하루 사이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90년대 후반은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이 유행되던 시절. 그 시기 나에겐 대학을 졸업하고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취직한 대학 동창이 몇 명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중학교 때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던 여선생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제결혼 하려고 수속하러 북경에 오는데 초행길이어서 기차역으로 직접 마중 나올 수 없느냐?’는 전화였다.

예의상 거절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분을 픽업하였고 내가 잘 알고 있는 학교 부근의 여인숙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저녁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결국 결혼수속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나는 마침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아는 동창생이 있어, 내일 선생님을 영사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 오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북삼환 대로를 따라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향했다. 그때 한국대사관은 국제무역센터로부터 이전하여 량마교(亮馬橋)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여 있었고, 대사관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영사부가 있었다. 영사부에 도착하여 보니 대기하고 있는 여자들만 어림짐작으로 이백은 되어 보였다. 영사부의 규정

상 오전에만 접수하기에 빨리 끝내야 하였다.

나는 동창한테 연락하여 여선생님과 함께 영사부로 들어갔고 그 수속을 돕는 과정에 많은 내부 사정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과의 국제결혼 수속은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사실상 영사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고 나중에 미비한 서류는 영사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보충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것은, 보충하여야 할 서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퇴짜 맞으면 그냥 퇴짜 맞은 서류를 보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문제없던 서류, 예하면 공증서 등이 유효기를 넘겨버려 다시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하여 하는 점이였다. 하여 결혼수속을 하려면 1년 쯤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선생님은 연변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필요한 서류는 우편물로 보내 주기로 하였다. 그 뒤 한 달도 채 안 걸려 나는 동창생의 도움으로 서류를 1회 보충하고 간단히 수속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별수 없이 어정쩡하게 결혼수속을 도와줬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우리 민족의 여성들에 대한 실망감, 민족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민족에 대한 공부를 한 녀석이 어찌 이런 일을 했나 하는 자괴감!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다.

어떻게 되어 이 일이 소문이 나서 한 초등학교 시절의 동창생이 찾아왔다. 도와주기 싫었지만 연락 없이 찾아온 그녀를 보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와주기 전에 분명 잘라 말했다.

“이젠 그 누구도 이런 일로 날 찾지 마라!”

그 뒤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왔지만 나는 동창생이 영사부의 일을 그

만두였다는 핑계로 모두 거절하였다.

문학, 새로운 세계를 보다

나의 전공은 중국조선족문학연구이다. 우리 중국에서 정착한 문학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나의 주 전공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는 만큼 중국문학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 실정, 나에게 이 분야에서 시야를 넓혀준 선생님 두 분이 계신다.

한 분은 우리 대학 중문학부의 래성강(來成剛) 선생님. 그는 자신의 지도학생과 함께 1년 간 나에게 90년대 중국문학에 대하여 가르쳤다. 우스개도 잘하시어 ‘행복(중국어로 幸福)이란 무엇이나? 성(性, 중국어에서 幸과 동음인 XING으로 발음)이 있어야 하느니, 성생활이 없으면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농담도 하신다.

그는 북경 평론계에서 꽤 유명한 평론가였다. 문화중심인 북경에서 작가들은 새 작품을 출판할 경우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명한 평론가 몇 분을 모시고 작품 토론회를 열어 해당 작품을 평하고 그 평가 글을 많은 신문 매체에 등재하여 홍보했다. 그이는 매번 신작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이로부터 책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다른 한 분은 북경대학 한국어학과 위옥승 선생님이다. 한족 분인데 북한에 유학하여 한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그이는 한국 모 재단의 지원으로 자신의 학술성과를 취합하여 《위옥승문집(韋旭昇文集)》(총 6권) 내셨는데 우리 대학에서 조선 문학에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교

정 작업을 도와주기를 희망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이의 중국어로 된 한국문학 학술 성과와 《옥루몽》, 《구운몽》 등 한국고전 번역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한국고전에 대하여 흥취를 가지게 되었다.

사족 : 1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한국의 모 대학에서 한국 고전문학 박사과정을 다니고, 한국의 문학을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는 번역가가 되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번역과 출판에서 시야를 넓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추락사고

1999년 가을, 졸업을 반년 앞둔 시점, 번민의 계절이다.

한적한 밤이면 나와 몽고족 친구 아일목찰은 늘 4층에 있는 넓은 옥상으로 올라와 맥주를 마셨다. 내년에는 졸업인데 취직도 걱정이고 졸업논문을 쓰는데도 시름겹다. 우리의 숙소는 3층에 위치하였는데 숙소에는 큼직한 가방 하나를 비치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언제나 빈 맥주병이 10개 정도 들어있었다. 그때 북경에서는 맥주를 살 때에는 맥주 값 외 개당 0.50위안씩 보증금을 예치하고 빈 맥주병을 가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었다. 그것이 시끄러워 아예 우리는 아예 보증금을 찾지 않고 맥주 사러 갈 때마다 빈 병을 들고 가서 맥주병을 바꿔왔다.

우리는 옥상 베란다 위에 걸터앉아 맥주를 마셨다. 4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곤 하었는데, 나는 가끔 여기에서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부질없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었다.

우리 둘만 친했고 색음파아이와는 놀지 않았다. 그러는 그가 안쓰러워 간혹 같이 술을 먹기는 하였으나, 그 녀석의 술버릇이 안 좋았기에 그와는 언제나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우리는 또 옥상에 나왔다. 그날은 색음파아이의 생일이었다. 우리가 외식하여 축하해주려고 하였으나, 그는 밤늦게야 숙소로 들어왔다. 별수 없이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가 대학원의 몽고족 후배들 몇을 더 불러 자리를 마련하였다. 타민족은 나 하나.

술을 마시며 두루 얘기를 나누다 밤이 깊어졌다. 자리를 과하려는 와중에 색음파아이와 한 몽고족 후배가 시비가 붙었다. 몽골말로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려도 들은 통 듣지 않았다. 그 고약한 몽고족 후배가 이는 제네 몽고족 내부 일이니 나는 관계 말고 돌아가 잠이나 자란다. 예라, 피곤한 족속들. 나는 속으로 욕을 하며 아일목찰과 끌고 침실로 돌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의 다급한 노크와 고함소리에 우리는 잠을 깬고 문을 열어보니 그 고약한 몽고족 후배였다. 그는 울먹울먹한 소리로 다급하게 색음파아이가 3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뭐? 얼추 들어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급히 1층으로 달아내려 가 보니, 색음파아이가 일층 콘크리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붙어있었다.

우리는 그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우리 대학의 지정병원인 적수담(积水潭)병원으로 이송하란다. 적수담병원, 중국의 위대한 문학가 노사(老舍)가 문화대혁명시기에 고통을 견디지 못

하고 뛰어들어 자결한 호수-태평호(太平湖) 바로 병원 뒤에 있다.

천만다행으로 색음파아이는 별로 다치지 않았다. 3층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왼팔 뼈만 부러졌으니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그것은 잠시뿐, 이 사건으로 일으켰을 파동과 나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들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징계함으로 주범에 대한 죄를 경감시키려 할 것은 분명했다. 그 주범이야말로 그들이 인정하는 공산당원 간부이고 모범학생이니 당연히 학교 측에서 보호하려 할 것이고, 또한 대학원 실무 책임자가 몽고족이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 나 그리고 아일목찰, 색음파아이, 몽골 후배는 모두 똑같은 경고 처분이란다. 이상한 것은 그가 공산당원임에도 당 차원의 징계가 없었다는 점. 선심 쓰듯 그들은 이는 학교차원의 징계이고 그나마 졸업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징계가 풀리기에 우리한테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문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니 개인의 역사에는 오점으로 남지 않는단다.

그러나 같은 징계임에도 개인에게 미치는 결코 영향은 같지 않았다. 아일목찰과 색음파아이는 모두 학부 때의 예비 당원, 대학원 시절에는 당원으로 되었으니 영향이 없었지만, 대학원에 와서야 공무원에 뜻을 두고 입당지원서를 바친 나로서 대학원 졸업 때에는 예비 당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들은 중국공산당 당원이었고 당적을 보류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나는 대학원 중

국 공청단 97학년 조직위원으로 그 시점에 예비 당원 인준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입당이 영영 물 건너 간 것이다.

공산당에 특별히 집착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시절부터 정치과목을 잘한 나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은 나름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굳이 입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문학을 하려면 폭넓게 다른 사상들을 포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대학원에 입학한 후 생각이 좀 달라졌다. 공무원이 되려면 거의 필수인 조건, 입당!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초원에서 토끼 한 마리가 이리떼한테 갈가리 찢겨 죽는 장면이 떠오르며 나는 짹 식은땀을 흘렸다.

한번쯤 꽃으로 살고 싶다!

중국의 석사 정규과정은 3년, 곧 졸업이다. 그 사이에 논문〈노신과 김학철 잡문에 대한 비교〉를 《조선학》에 발표하였고, 또 반년 간 노력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했다. 평소 우리 민족의 이민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온 나는 조선족 작가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80년대 창작)와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90년대 창작)을 비교하여 우리 민족의 눈물겨운 만주지역 이주, 정착사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뿌리 찾기’노력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졌다.

졸업이다. 무엇을 할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 또 고민했다. 인생이란 단 한번밖에 없는 것, 여태껏 책 속에만 파묻혀 살아온 나는 사회에 진

출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다. 젊음이란 이름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도전하였듯이, 겁 없이 사회에도 도전하고 싶어졌다. 내가 배운 지식, 그것으로 전공에 맞는 직장에 취직하면 앞날은 훤히 보인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 업무, 바깥 세계를 꿈꾸면서도 먹기도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쉬운 계륜 같은 기득권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 그런 삶을 살기엔 자신이 너무 젊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대학원의 마지막 글로 〈한번쯤 꽃으로 살고 싶다!〉를 발표했다. 사랑의 열병에 앓던 시절이다. 한번 화사하게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지는 꽃보다는 영원을 꿈꾸는 푸르싱싱 소나무로 되고 싶었던 나였다. 은근히 꽃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는 그녀에게 ‘너의 아름다움은 한 날 꽃에 비할 바가 아니며 꽃이 시들 때면 내 맘이 더 아플 거라.’고 절대로 꽃만은 선물할 수 없다던 나, 그녀가 영원히 곁을 떠날 때에야 꽃을 선물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인생의 미는 영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끈함에 있다고, 젊음도 한 계절뿐이라고, 단조로운 영원의 지속보다 화끈하게 불타는 한때의 젊음, 정녕 한 계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으로 살고 싶어졌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나는 결심한다.

첫 직장

북경에서 직장을 찾는 것은 대체로 지인의 소개거나 한국인들이 무

료로 발간하는 광고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취직 광고를 내니 연락 오는 회사가 많이 되었다. 그러나 면접 심사에서는 번번이 미역국을 먹었다. 왜? 문학 석사라는 학력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한 반면 월급에 대한 요구가 대학생보다 높을 것이라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있었고, 사실 나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더라도 석사라는 자가 컴맹에 회사 근무 경험이 전무하니 내가 사장일지라도 대학졸업생을 고용하여 새로 가르치며 쓰지 나 같은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대학 교육은 사회의 실수요와 이탈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북경시 교외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반도체연구소인데 한국말을 아는 이가 필요하니 올 의향이 있느냐문의 전화였다. 취직에 굶주렸던 나로서 죽이고 밥이고 가릴 처지가 못되었다.

그들이 알려준 주소대로 면접 보러 창평구 사하진(沙河鎮)에 있는 반도체연구소에 도착하니 벌써 땅거미가 저 있었다. 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직접 면접을 보았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독특했다. 그는 창평구 지도를 내 앞에 펼쳐놓더니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성(韓國城)’ 하이테크과학기술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면접이라면 면접자가 간단히 자사에 대해 설명하고 구직자의 정황에 대해 캐묻기 마련인데, 이번 면접은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의 직감은 이곳의 월급이 적을 것! 과연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국성’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 한국의 반도체회사와 합작하여 현재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는데 통역이 필요하단다. 이미 통역 2명을 중국

연수생과 함께 한국에 보내어 연수를 받게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제 2기 연수생 통역으로 나를 보내주고, 당장은 월급이 적지만 곧 합작공장이 설립되면 그때부터 합작기업에서 비교적 높은 월급 표준에 근거하여 월급을 주기에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렴, 잘나가는 반도체회사의 월급이 적겠냐고. 그는 장담했다.

나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직장 경험이 전무한 나로서 새로 탄생하는 회사에서 한국 측에서 파견한 총경리의 통역으로 일하는 것도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첫 직장이다. 소중한 경험을 쌓은 곳이지만 근무 조건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이곳 사하진은 북경시와 명 십삼릉(十三陵)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또한 팔달령(八達嶺) 만리장성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있다. 명나라 황제가 선조의 묘소에 제를 지내러 갈 때 먼 의례 자금성에서 가마를 타고 나서는데, 가마꾼들이 걷는 걸음에도 법도가 있어 반드시 그날 저녁 무렵에 이곳에 도착하여 하룻밤 묵기로 되어 있다. 이 지역도 나름대로 유명한 고장. 바로 이곳에서 중국의 익태그룹이 도산 위기에 놓인 국영반도체연구소를 인수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성건설이라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합자회사 북경반도체회사는 익태그룹과 그가 인수한 반도체연구소, 한국의 동양그룹과 그의 자회사인 동양반도체회사 및 이 합작을 성사시킨 한국의 컨설팅회사 모두 5개 투자 측이 있는 복잡한 투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나마 공장 건설 시기에는 내부 문제가 적었다. 이 회사에 워낙 동

양반도체에서 총경리, 즉 대표이사를 남 부장이라는 기술부장을 발령 내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국 모기업인 동양그룹에서 강압적으로 반도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정 본부장을 총경리로 파견하였고, 동양반도체에서는 별수 없이 남 부장을 이사로 승진시켜 부총경리로 파견하였다. 그러니 남 이사가 반도체에 대하여 모르는 정 총경리한테 불만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일. 공장을 새로 건설하며 워낙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할 장비가 많았기에 초기에 남 이사는 한국에 체류하며 장비 구매업무를 전담하였고, 정 총경리는 북경반도체회사에 와서 공장 건설을 감독하고 중국 현지에서 구입하여야 할 장비들을 구매하는 업무를 책임졌다.

현지에서 구입하는 장비도 꽤 되었고 협상에서 여러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상대하는 업체도 꽤 많았다. 하루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업체만도 서너 개가 되었고, 통역을 통한 협상이다 보니 한 업체와 협상하는 데만 보통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공장 건설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고 투자 측의 투자자금이 제때에 조달되지 못하여 장비의 구매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게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 또한 한국에 발주를 낸 장비들도 계획보다 늦게 선적되어 생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공장이 가동되었다. 남 이사도 중국으로 왔고, 익태그룹에서 파견한 재무총감과 연구소에서 파견한 영업 부총경리도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각자의 이익을 대표한 이들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1) 시장 문제: 한때 호황을 누리던 국제반도체시장이 공장이 준설 되던 2000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제품 가격이 폭락하여 공장이 가동된 후 한국에서 원자재를 100% 수입하여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OEM방식으로는 전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 때문에 원자재의 현지 조달과 중국 내수시장의 개척이 급선무로 떠올랐고 이로 인하여 중국 측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 기술 문제: 보통 신규 생산 장비는 가동 뒤 약 반년 간의 셋업(SET UP)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많은 생산 장비는 생산업체에서 기술자를 3~4번씩이나 파견하여 정비하게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없었기에 이는 여러 측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했다.

(3) 자금 문제: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측에서 증자를 해야 하였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총경리가 매일 재무 총감을 찾아 회사 운영자금을 해결하라고 들볶았다. 통역인 나만 중간에 끼여 ‘미운 털’이 되는 셈.

(4) 통관 문제: 우리 회사는 별로 무게가 안 가는 부품은 인편이거나 혹은 DHL 등 국제 특송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에는 꽤 가격이 있는 물품도 있었다. 이런 비싼 물품들은 세관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야 하였는바, 우리 회사 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시세보다 꽤 적게 신고하다 보니 수차 재신고하여야 통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하다 보니 우리 회사는 중국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고 조금 의심 가는 물품은 가차 없이 ‘통관 통지서’가 날아왔다.

어려운 회사, 힘든 업무였다. 회사의 현실도, 미래도 암담했다. 한국으로 2차 연수생들을 파견하려던 계획이 비록 초청장까지 받았으나 공장이 곧 가동됨으로 취소, 합자기업에서 적용하려던 고임금 체제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 연구소 수준으로 동결. 매일 제때에 퇴근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총경리와 함께 근무하여야 하는 일도 참으로 고역이었다.

나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북경 조선족 교회

반도체회사에서 근무하던 무렵 나는 교회로 나갔다. 암담한 현실에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싶어 나는 가끔 북경 시내의 서시(西市)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를 다녔다. 중국에서는 헌법으로 국민의 신앙자유를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그것은 중국에서 승인하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할 뿐 교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그 어떤 포교도 신앙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국민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북경조선족 교회에는 청년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을 다니는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들이었다. 어쩐지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속세를 벗어나 선계에 온 듯한 느낌, 찬송가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노라면 머리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잡념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매번 일요일 오후의 목회활동이 끝나면 우리 몇몇은 청년부의 책임자이자 북경사범대 교수이신 어 선생님의 집에 가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가졌다. 그이는 일본에서 10년 간 유학생활동을 하신 분으로, 우리들의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사모님 또한 좋은 분이셨다.

한동안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입당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십수 년 받은 마르크스의 유물론 교육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나로서 한 특정 집단에 예속되는 것이 싫어졌다.

이직

이번에도 무료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냈다. 곧 한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1년이 지난 오늘, 취업의 세계에서 더는 어제의 초라한 내가 아니었다. 컴맹을 탈출했다. 그 동안 실무경험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다룰 줄 알았고, 무역 업무에서도 더는 본선인도가격(FOB),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 뭔지 몰라서 사전을 뒤적이던 내가 아니었다. 무역 실무 및 계약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여러 번 경험한 경력자였다.

내가 면접 본 회사는 한국인 사장이 중국인 부인의 명의로 등록, 경영하는 무역회사였다. 참고로 중국에서 이런 무역회사는 직접 한국에

수입 및 수출할 권리가 없다. 내가 전에 근무했던 북경반도체회사와 같은 류의 회사, 즉 중외합자/합작공장의 경우 자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비와 원자재 등에 한하여 직접 수입, 수출할 권리가 있었다.

면접에서 한국인 사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일년 근무 경력은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초보자로 생각하고 많이 배워라. 학력이 좋으니 일반 직원으로는 받을 수는 없고 과장급으로 받겠다. 그리고 나중에 잘하면 부장으로 시켜주겠다. 잘 해보자.’고 말하는 것이었다.

성공. 이제는 북경시내로 돌아온다. 다니던 반도체회사에 사표를 냈다. 회사도 인사치레로만 말할 뿐 굳이 만류하지 않았다.

내가 북경시내로 돌아오려는 이유는 또 하나 있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절대 연변사람과 친구 사귀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신 심양 출신 동학의 어머니께서 그 뒤 나를 몇 번 보시고 자신에게 딸이 없음을 한탄했고, ‘나중에 꼭 색시를 소개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시어 그 무렵에 나에게 맞선을 주선하였다. 그 여자가 바로 현재 나의 아내로 된 사람, 그때 그녀는 북경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북경시내로 돌아왔다. 헌데 급히 집을 찾다 보니 일시에 마땅한 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여 나중에 이사할 생각으로 국제 전람관 부근에서 한달 월세만 지급하면 곧 입주할 수 있는 반 지하 방을 찾았다. 북경에서 꽤넓은 방을 찾으려면 석 달 치 집세를 미리 내야 하는데 그런 집은 좀 오래 살아야 함으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필수, 그때 급히 돌아온 나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지하 방에서 하룻밤만 자고 곧 후회하였다. 방에 습기가 많아서 잠자리가 무척 불편했던 것이다.

회사로 출근했다. 이 무역회사는 한국의료기기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팔고 있었다. 사장은 나더러 의료기기 외의 사업을 개척하란다. 아이템만 좋으면 회사에서 투자할 테니 될 만한 항목을 알아보라는 것.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악연

세상에는 좋은 연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아주 기적적으로 만나더라도 그런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8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났다.

2001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내가 이직하여 북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국제 전람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그를 만났다. 눈썹미 빠른 그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나의 어깨를 툭 치며 나의 이름을 불렀고, 나는 화들짝 놀라다가 이내 기억을 더듬어 그를 알아봤다.

김남. 그는 내가 왕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자, 같은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낸 동학이다. 그러나 친구는 아니었다. 친구란 적어도 뜻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나는 서로 판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때 내가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고자 만사를 제쳐놓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책벌레’였다면 그는 짬만 나면 여학생들과 시시덕거리는 ‘노는 애’였다. 타고난 목청으로 가수 꿈을 꾸는 애였고 후에 예술학교에 입학한 애였다.

나는 출근길이 바빠 그와 그냥 인사말을 나누고 저녁에 만나기로 약

속했다.

저녁에 우린 만났고 알고 보니 우리는 100미터 이내의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참, 세상은 이처럼 작구나.’ 그는 연변예술대학교에 자비로 입학하였지만 경제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아프리카에 돈 벌러 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2년이 된다고 했다. 북경에 들어 온지는 1년이 되었고 현재는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였다.

그의 손에 끌려 그의 집에 갔다. 혼자 살고 있는 방은 꽤 아담했다. 동거하던 여자가 딴 남자와 눈 맞아 나가 이젠 독신이란다. 나는 그의 제안에 따라 방세를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짐을 그리로 옮겼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의 아프리카 경력을 듣게 되었다. 그는 워낙 원양어선을 타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여차여차하여 아프리카대륙에 상륙하게 되었고, 또 여차여차하여 한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취직하게 되었다 한다.

“뭐? 흑인들이 칼라 사진을 즐겨 찍는다고?”

나는 그가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등학교시절부터 좀 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 흑인들은 칼라사진이라면 껌뻑 죽는다. 특히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이 수십 장씩 찍는다야.”

“지금 날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아프리카대륙의 대부분 국가는 가난으로 먹을 것도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돈 내고 사진 찍어? 그리고 상식상 검은 피부에 뭐 칼라사진 찍을 맛이 있을

까? 다 흑백으로 나올 것이 뻔한데.

“진짜야. 우리 한국사장은 아프리카지역에 열 몇 개소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의 한 지사의 지사장으로 일했어. 우리 같이 간 조선족 애들도 몇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지금 현지 흑인과 결혼하여 애를 낳아 기르고 있어.”

“뭐 흑인과 결혼한다? 밤에 꿈자리가 사납겠다.”

“넌 몰라. 그 애들의 피부는 물같이 부드러워. 아! 그 황홀한 느낌.”

“안 되겠다. 너 당장 아프리카로 다시 가라.”

둘은 킬킬 웃었다. 그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나는 종잡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한심한 사람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번 돈을 흥청망청 유흥에 다 써버리고 중국에 돌아와 첫사랑 약혼녀와 같이 상경하였는데 일하기 싫어서 백수로 놀다 보니 약혼녀도 그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다. 가이드 일을 한다던 말은 거짓이었고, 그는 수입이 없었다. 결국 방세 100%와 생활비 지출도 나의 부담으로 되었다. 악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한테 그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달라는 말이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만 하여도 편편하던 사람이 웬일이지?’ 별수 없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나는 말미를 말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착하여 보니 그는 무더운 삼복철 입에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다. 학질이란다. 아프리카 말라리아모기에 물려서 걸린 병. 그의 말로는 이 병에는特效약인 프랑스산 분말약에 희석제를 넣고 섞어서 주사 맞

아야 하는데 희석제를 살 돈 20위안이 없어서 나를 불렀단다.

한심한 친구였다. 부근의 진료소에 데리고 가서 희석제에 그가 가지고 온 프랑스산 특효약을 섞어 주사를 맞혔더니 그제야 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그의 말로는 이 병에 걸리면 1년에 한 번씩 총 세 번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한다. 이 약이 여간 비싼 것이 아니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모기에 물리면 이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간단다.

국내 출장

20세기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실행하였건만 나는 이 회사에서 토요일에 편히 쉴 수 없었다. 젊은 한족 여성과 결혼하여 금방 딸애를 본 한국인 사장은 장인, 장모와 한집에서 사는 집에 있기 싫어서 휴일인 토요일에도 곧잘 일을 만들었다. 전문 비서 겸 통역이 별도로 있음에도 비즈니스 통역은 정확한 의미 파악과 그것을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장은 언제나 나를 불렀다. 그렇다고 토요일 휴무를 반납한 대가로 보너스나 월급을 올려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출장도 사장과 함께 다녔다. 갈 곳은 사장이 직접 정했고 나는 거기에 맞춰 출장계획표를 짰다. 한번 길을 떠나면 상해, 소주, 항주, 장사 등 지역 중 적어도 두 곳은 가야 했고 낮에는 업체를 방문하고 밤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식으로 뻑뻑하게 일정을 잡았다. 관광 명소를 눈

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쳐야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소주에서도, 항주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장사에서 상담이 잘 되어 업체 측에서 모택동의 고향인 소산을 관광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 뒤에 명승자-장가계로 모시겠다는 제안을 해 올 때에도 사장의 대답은 ‘나중에 보자’였다.

출장길에서

상해에서 택시기사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홍교 호텔에서 국제전람센터로 가는 택시를 잡았다. 그 때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여럿이 하루 전에 도착하였었고 나는 회사일로 하루 늦게 상해에 왔다. ‘지척인데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사장이 미심쩍어 한다. 사장과 수행비서는 전에 같은 노선을 이용한 적이 있고 나는 초행이다. 의심이 가면 확인이 필요하다. 택시기사한테 확인하였더니 웬걸 택시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말로는 상해 국제전람센터를 상해전람센터로 잘못 들었단다. 물론 상해 말은 표준말과 다르다. 그러나 수행비서가 상해 국제전람센터라고 분명히 말했고 나도 옆에서 들었다. 참, 짐짓 표준말을 잘못 알아들은 척, 음험하게 내속으로 먼 주판알을 튕기는 기사한테 잘못 걸려든 것이다.

평소 사장은 다툼을 싫어했다. 북경에서도 자신이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바가지를 쓴다고 운전은 전문 기사한테 100% 맡기고, 중국인들의 어지간한 바가지는 그냥 모르는 척 쓴다.

그러나 그날은 아니었다. “이런 심보 고약한 기사를 그냥 두면 민폐가 생긴다. 한번 단단히 혼내주어야 한다.” 면서 110을 호출하게 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는 외국인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국제도시 상해의 이미지에 손상주는 일이라고, 이런 기사는 즉각 면허증을 몰수해야 한다.”고 나는 통역했다. 사장이 심각한 말투로 나왔기에 나도 목에 힘을 주었다.

장사에서는 난생처음 아슬아슬한 경험을 하였다. 장사의 밤 생활은 다양하다. 북경보다 우위에 있고 광주와 견줄만하다. 장사에서 여름이면 평일 새벽에도 다양한 야식을 즐길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키느라 업체 사장은 이튿날 아침에 우리를 공항까지 배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쪽이 휴대폰까지 분실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비행기 탑승시간이 다 되어오니 빨리 택시로 공항으로 가자고 말했으나, 사장은 예의상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비행시간 50여 분을 앞두고 업체사장이 나타났다. 그 사장이 운전할 형편이 못되었기에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택시를 잡았다. 장사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적게 잡아도 40여 분이 걸린다. 결국 우리는 비행기 이륙 10분전에 공항에 도착하였고, 급히 탑승 수속을 마치고 착석하자 바람으로 비행기는 출발하였다. 업체사장이 미리 공항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하였다는 말은 후에 들었고, 이번 일은 아마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찔한 탑승 경험으로 되었다.

장사에서 장사하다

장사를 다녀온 후 그 쪽과 꾸준히 업무를 추진하여 마침내 한국산 의료보건매트 2,000장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의료보건 매트란 오늘날의 황토매트와 기능이 비슷한 것으로 음이온 발생 등 기능이 있다는 매트다. 이번 계약 건으로 재차 장사를 방문하였고 우리는 합작 성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장사시내에 위치한 악록산(岳麓山)에 올랐다. 악록산 자락에는 976년에 착공된 ‘악록서원(岳麓書院)’이 있다. 이곳은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 등이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곳과 성균관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군.”사장은 말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더 발전시켜 “장사시가 위치한 호남성이 한국의 전라남도 호남과 명칭이 같으니 이 두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호남성 성정부의 대외연락처 처장을 옥루동(玉樓東)으로 청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

옥루동은 호남성에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름난 식당이다. 옥루동은 장사에 분점이 4개 있고 대련에도 분점이 하나 있었다. 총괄 주방장 - 허국운(許菊雲)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요리대가 중의 한 명이다. 이곳은 역대로 국민당 정부와 중국공산당 정부 지도자들을 위하여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는 대가들을 여러 명 배출하였다. ‘옥루동 요리가 매콤하고 맛있으니 서울에 분점을 내보는 것이 어때냐?’고 사장이 제안했다. 그리고 옥루동 장 총경리를 보고 ‘한국 측 투자자는 자기가 한국에서 찾아줄 테니 조만 간에 그 투자자가 장사를 방문하도록 주선 하겠다.’고 사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한 합작파트너를 보고 ‘현재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사장과 북경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장사에
서도 합작파트너를 찾고 싶다.’고 했다. ‘북경TV방송국과는 중국의 고
전 《투란도트》를 2D로 제작하려고 협상하고 있었고, 중앙 TV방송국
과는 3D합작을 추진하고 있는바, 호남TV방송국도 중국의 유명 방송국
임으로 이곳과도 합작하고 싶다.’고 사장은 말했다.

또한 장가계를 촬영하려는 한국방송인협회 심 회장을 청해왔고,
‘2002년 한국월드컵 티켓을 확보할 수 있으니 호남에서 관광객을 조직
하여 한국관광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합작파트너에게 물었다.

이처럼 사장의 아이디어는 샘처럼 솟았다. ‘장사란 아이디어 열 개
중에서 하나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나는 실전으로 배우
고 있었다.

한국 출장

옥루동 식당 한국 투자 건은 순행이었다. 얼마 뒤 한국 투자측대표
인 윤 사장이 우리와 함께 장사를 방문하였고, 그 역시 옥루동 요리에
대하여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조만간에 초청장을 보내겠
으니 서울을 방문하라고, 서울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옥루동 측은 흔쾌히 동의하였다. 총괄 주방장은 자신이 펴낸 요
리책을 친필 사인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한국으로부터 초청장이 왔다. 한국 업체 측은

쌍방이 사전에 조율하여 옥루동 측 5인에 통역인 나까지 합쳐 모두 6명을 초청했고, 호남성에 한국영사관이 설치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북경에서 대행하여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회사 여직원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접수시켰다. 그때 사장은 미리 한국에 갔고, 우리는 비자가 나오는 시점에 내가 비자를 가지고 청도공항에서 합류하기로 일정을 짰다. 비자가 무난할 것이라는 판단에 미리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상일은 쉽지 않았다. 비자를 찾으러 간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단다. 신청한 인원수가 너무 많고 구성원이 복잡하기에 담당영사가 불법체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았단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신청인이 직접 영사와 면접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신청인 6명이 모두 같이 가서 담당영사의 면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말도 안 돼. 장사에 있는 5명을 모두 북경으로 불러들인다고? 이미 청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속에 불이 일었다. 이관사관으로 당장 옥루동 총괄 요리사가 선물한 요리책을 들고 택시를 탔다. 직접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갔다. 참 오랜만에 가는 길이다. 전에 내가 부탁한 국제결혼수속을 도와준 동창생이 여전히 영사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온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여권을 좀 봐라. 나를 제외한 5명 중 한 명은 미국비자가 아직도 남아있고 다른 한 명은 영국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을 봐라. 이 저자는 중국의 유명한 요리 대가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

민국에서 불법체류 할 거 같으냐? 우리가 한국에 돈 쓰러 간다는데 왜 이러냐? 이해 안 된다. 멀리 장사에 있는 다섯 사람을 북경에 불러들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동창생은 비자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난감해했다. 한참 설복한 결과 그녀는 그 요리책을 들더니 정녕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담당영사님께 여쭙보겠다고 하였다. 한동안 지나서 그 동창생이 우리 여권을 가져왔다. 비자가 모두 나왔단다. 단, 자기가 보증했으니 귀국하면 귀국한 도장이 찍힌 부분을 복사하여 팩스로 영사부로 보내달라고 부언했다.

오케이. 하마터면 엄청 곡절을 겪어야 할 비자 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그때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가슴을 죄이는 순간이었다. 그만큼 어렵게 발급받은 한국비자였다. 고맙다, 친구야!

이튿날 저녁 나는 청도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청도는 초행길이다. 그곳에 가서 하루쯤 묵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다. 내일 아침 청도에 도착하면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에 가서 장사에서 청도로 날아오는 옥루동 팀과 합류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으로 간다. 출국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옥루동 측으로 놓고 말하면 장사-청도-서울 노선이 가장 경제적이었기에 그쪽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청도역에서 택시를 탔다. 청도가 처음이니 청도에서 좀 볼만한 곳을 돌아가라고 하였더니 기사는 해변가에 위치한 옛 독일대사관 건물이 있는 곳을 돌아서 공항으로 갔다.

세상에 참 묘한 우연도 있다. 공항에서 북경반도체회사의 정 총경리를 만날 줄이야. 그이도 어제 북경에서 나와 같은 기차를 타고 왔단다. 동양그룹과 동양반도체가 청도지역에 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오늘 회장, 사장이 온단다. 훗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들은 위해에 반도체공장을 세웠고, 그 후에는 북경반도체회사의 합자 건은 중단한 듯싶다. 그날 우리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

얼마 안 되어 옥루동 팀을 맞이했고 우리는 곧 서울행 대한항공에 탑승했다. 드디어 5박 6일의 일정이 시작된다. 때는 2001년 11월 14일 저녁 무렵,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때는 2001년 11월 입국 수속을 끝내고 공항에서 픽업하는 한국 투자측을 만났다.

우린 승용차에 앉아 서울로 향했다. 나는 옥루동 팀에 나름대로 준비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문득 위옥승 교수의 책을 교정하면서 읽은 《옥루몽》이 생각나 한국에는 《옥루몽》있고 호남에는 ‘옥루동’이 있어, 우리는 지상 옥루(玉樓)의 꿈을 찾아서 동국으로 왔다고 우스개를 하였다.

우리는 강남의 팔레스호텔에 행장을 풀었다. 식당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우선 3일은 한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한국의 특색 있는 음식점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화요리점을 찾아 식사, 견학했다. 인사동도 돌아봤고 재래시장에 가서 한국의 물가도 알아봤다. 하루 관광도 예정되어 있어 임진각에도 한번 다녀왔고.

4일째 드디어 협상이 시작됐다. 옥루동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국 측 투자액은 50만 달러 정도, 한국 측에서는 쌍방의 투자액을 합쳐 100만 달러로는 강남에서 자그마한 가게도 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늘여야 하는데 아직 점찍어 둔 곳도 없어서 총투자액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 하여 이번엔 그냥 쌍방의 투자 의향만 확인하고 나중에 적당한 가계를 알아본 후 쌍방이 투자액을 늘이거나 혹은 신규투자자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다.

방문 일정이 끝났다. 옥루동 팀은 청도를 경유하여 돌아갔고, 나는 사장과 함께 북경행 대한항공에 몸을 실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6명의 출입국 기록을 복사하여 팩스로 북경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발송했다.

북경, 안녕!

북경TV방송국과 중앙TV방송국의 애니메이션 합작 건은 점점 어려움에 처했다. 북경TV방송국과의 2D작품 《투란도트》합작 제작 건은 거액의 투자자금이 필요하였고, 중앙TV방송국의 3D합작 건의 경우 그들은 한국 측에서 능력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소견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많은 3D작품을 수주 받고 제작하였지만 하위 제작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3D작품 감독들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심천에서도 외국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수주 받으면서 일정한 제작기술자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 그때 세계 애니메이션 구도를 살펴보면 2D애니메이션 작품 기획, 감독, 제작 능력은 일본이 최고이고 3D애니메이션 작품의 기획, 감독, 제작능력은 미국이 으뜸이었다. 한국은 후발국으로 미국, 일본으로

부터 작품을 수주 받아 제작하던 단계에서 작품 기획, 감독 능력까지 키워가고 있었고, 중국도 애니메이션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국가차원에서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다. 중국의 거대 업체와 손잡기엔 우리 회사도, 한국의 애니메이션회사 측도 버거운 일이었다.

장사 측과의 합작업무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 한국월드컵 관람권 확보가 어려워지자 장사 측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피일차일 미루고 있었다. 옥루동 합작 건도 담보 상태로 발전이 없었다. 우리 회사는 건물임대료가 몇 개월 밀려 건물주가 회사 대문을 봉하였고 나중에 사장이 보증 각서를 써서야 일정기간 해제되었다.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게 되었는데, 사장의 일반 직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자금 여유가 있어야 회사 간부들한테 지급한다는 원칙으로 나의 월급은 남들보다 더 늦게 수령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여친과의 관계는 발전을 가져왔다. 구정에 심양에 있는 예비 장인 집에 다녀왔고 쌍방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냈다. 여친은 북경에서의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자주 심양에 가고 싶어 하는 기색이 완연했다. 친구와의 ‘동거’로 부담하는 생활비와 여친과의 데이트 비용 그리고 자꾸자꾸 밀리는 월급, 이 삼중고로 인생살이는 점점 버겁게 느껴졌다.

심양 예비 장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심양에 괜찮은 취직자리가 있는데 심양에 와서 살고 싶지 않냐?”고 물어왔다. 고심 끝에 심양에 가기로 결심했다. “미안하다. 나는 이만 심양으로 가야겠다.” 김남한테

말했다. 내가 심양으로 간지 얼마 안 되어 그도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인 사장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지금쯤 아마 콩고에 있을 것이다.

안녕! 내가 9년간 살아왔던 북경아.

심양 국제

2002년 3월, 나는 심양에 와서 중국심양국제공사(약칭:심양국제) 한국부에 취직하였다. 심양국제는 일찍 심양시 공기업으로 창립되어 시 정부의 모든 해외 무역과 정부 지원 건설 프로젝트, 예하면 중국 정부에서 아프리카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 무상으로 병원, 학교 등을 지어주는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였는데, 90년대에는 정부 개혁 정책으로 시 정부 직속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재산 구조를 갖추게 된 사업체였다.

한국부의 주업무는 한국수협에 근해어업연수생을 파견하는 것이었고, 내가 책임지고 개척해야 할 업무는 대한건설협회의 연수생송출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2년의 한국에 연수생 송출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때 한국연수생 송출업무는 대개 2가지가 있었다. 1종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실제 투자금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의 연수생을 한국에 데려다 연수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내가 북경반도체에서 근무할 때 한국의 투자기업인 동양반도체로부터 초청장이 온 것 등의 경우이다. 다른 1종은 심양국제 같은 인력 전문송출기관에서 전담하여 파견하는 연수생이다. 2002년에만 하더라도 중국 인력 송출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두 곳이고, 그들이 지정한 중국송출기관은 각각 열 몇 개소였다. 심양국제는 바로 수협중앙회의 중국 인력 송출기관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연수생 송출 건은 한국의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연수생을 받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연수생들의 임금이 턱없이 쪼고, 한국 인근 바다에서 며칠 조업한 뒤 상륙하여 휴식하는 근무 형태를 취했기에 그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불법 이탈하는 자가 많았다. 그리하여 심양국제는 요녕지역보다 펙 낙후한 강소성지역에서 100% 한족들만 뽑아 연수생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인력송출업체의 자격 요건이 반드시 중국청부상회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되었고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었기에 우리 심양국제로 한국의 많은 중개업체들이 합작하려고 찾아왔다. 찾아오는 업체가 많다 보니 옥석을 가리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의 장모가 소개한 한 한국 업체는 그나마 믿음직했는데, 초기에는 그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에 준비하여 보내주고 안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외에는 우리 측이 할일은 별로 없었다.

산업연수생제도, 한국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중국 동포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오려면 중국송출업체와 한국중개업체에 지급

하여야 할 수수료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 현재에는 한국정부의 ‘동포방 문취업체’ 등 좋은 정책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한 상황이다.

이때 심양에서 중한합작경영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한국인 사장이 찾아왔다. 한국으로부터 생산 장비를 수입하는데 우리 심양국제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려는 것이었다.

이해 안 되는 일이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합자기업은 자사가 사용하는 장비를 수입할 수출입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그냥 운송업체에 수입을 대행시키면 되었다. 즉 굳이 돈을 더 팔아가며 우리 심양국제 같은 수입대행업체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도 안다, 다만 번다함이 싫어 편하게 다 맡기고 싶다.’고 그 사장은 말했다.

쿨러온 호박을 차버릴 수는 없는 법, 우리는 그 수입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업체의 말로는 이 장비는 중고 장비인데 부산의 한 업체에 무료로 준다고 하였지만, 중국 세관의 규정상 중고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바, 설혹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새 장비로 신고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세금은 무료 기증에 관계없이 반드시 새 장비 가격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였다.

부산에서 선적한 이 화물은 대련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신고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싸기에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 통관 담당이 몇 번이나 가격을 높게 매겨 신청하여도 NO, 알고 보니 이 새 장비의 국제가격은 엄청 비쌌던 것이었다. 이 장비는 대련항 화물 창고에서 거의 석 달을 지냈다. 이 화물은 나중에 가격을 거의 국제시장의 가격과 비슷하게 신고하여서야 비로소 통관될

수 있었다.

수출도 해보려고 부지런히 인터넷을 뒤져 코리아월드라는 새로 설립된 업체와 연락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회사는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세워진 중소기업였는데 중국시장 견학 목적으로 광주에 갔다가 심양국제를 방문하였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시디가 언급되었고, 이 제품을 우리 심양국제가 중국 국내에서 찾아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2 한국월드컵

2002년 5월, 한일월드컵이 곧 시작된다. 우리는 한국의 코리아월드로부터 흰색 월드컵 기념 티셔츠를 선물 받았다. 월드컵 개막일에 우리 한국부 직원들은 모두 이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였다. 타 부서, 특히 경쟁 부서인 일본부 경우에는 매우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월드컵! 나와 월드컵과의 인연은 1994년 여름 미국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맞이하는 1994년 7월 초, 북경의 폭염에 나는 밤에 숙소에서 돛자리를 깔고도 무더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대학교 숙소의 규정상 평일은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 30분까지 정전, 휴일은 저녁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 30분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선풍기도 돌아가지 않는 침실은 숨 막힐 듯 더워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

숙소의 복도와 세면실에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복도 혹은 화장실에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불법으로 복도 조명등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새벽에 월드컵 생방송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공 하나만 들어가면 온 숙소 건물이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그로 인하여 가뜩이나 설치던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지못해 구경한 것이 곧 1994년 미국월드컵이요, 나는 이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유명 축구선수 로베르토 바조를 좋아하게 되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은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숙소에 텔레비전을 얻어다 놓고 관람하였다. 대학원 숙소는 침실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기에 모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나는 브라질의 호나우두를 좋아하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은 심양에서 관람하게 되었다. 다른 월드컵과는 달리 한국월드컵은 밤을 새며 시청하는 일이 없어 좋았다. 축구경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봐야만 그 재미가 가미된다. 그때 우리는 별도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는데 휴일이면 보통 장인 집에 가서 함께 지냈다.

장인 집에는 KBS를 시청할 수 있는 위성신호 접수 장치가 있었고, 그때 장인 집에 기숙하며 중국어 공부를 하는 효진이라는 한국 여자에게도 있었다. 그 애가 한국 팀의 경기를 볼 때마다 하는 응원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박자에 맞춰 ‘대~한~민~국!’을 외치며 손뼉을 쳤는데 우리 장모는 그것이 우습다고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즈음이면 먼저 소리높이 ‘대~한~민~국!’을 외쳤다. 한국 팀은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었고 장인 집의 ‘대~한~민~국!’ 외침은 높아만 갔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서서히 응원 문화에 젖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TV와 신문매체들은 한국의 예상외의 선전과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중국 축구팀의 졸전이라는 상반된 결과에 양양불락하고 있었고 이는 곧 한국 팀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되었다. 중앙TV방송국의 유명한 축구 해설가 황건상은 이탈리아축구 열혈 팬이었는데, 그는 한국 팀이 연이어 강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를 꺾자 곧 심판이 매수당했다는 어불성설 논리를 제기하였고, 또한 한국팀을 폄하하기 위하여 역시 공동주최국으로 선전하고 있는 일본 축구팀을 적극 올려 세웠다. 개인차원의 호감보다는 스포츠의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축구 해설가에 있어서 황건상은 자질이 부족했고, 그것은 그 뒤인 2006 독일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축구팀이 패널티킥으로 간신히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 축구팀을 꺾자 '이탈리아 만세!'를 부르는 해프닝까지 연출하였으니, 이로부터 그의 2002년 한국 축구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겠다.

다른 한 신문 스포츠신문의 폄하는 더욱 심했다. 무한에서 발행되어 전국에 유통되는 한 유명 스포츠신문에서는 한국 축구와 우리 조선민족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꼬리뿔'이라는 욕설적인 언사로 우리 민족을 욕하고 '조선족(한민족)은 초식하는 민족으로 체력을 강조하는 축구스타일로는 영원히 육식하는 서양 민족을 넘을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민족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신중히 접근한다. 많은 조선족 유명 인사들이 연명으로 민족사무위원회를 통하여 항의서한을 보냈고, 이는 나중에 해당 스포츠지에서 사과문을 등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한국 유학

2002년 10월, 우리 심양국제는 대한건설협회 인력송출기업으로 선출되었다. 단 초기에는 배당인력이 20~30명 밖에 안 되어 중요한 요건이 한국사무소를 개설하여 송출인력을 관리할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송출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이는 건설인력송출에서 장밋빛 미래가 곧 다가옴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나의 월급이 금방 대련외국어 대학 한국어학부를 졸업한 한족 대학생과 똑 같음을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석사학력에 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차가 되는 데... 돌아온 답변은 심양국제는 회사여서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 타 회사 근무경력도 승인할 수 없단다. 직급 제만 유효할 뿐 일반직원은 모두 같은 조건의 월급제를 실시한단다. 대학졸업생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 이는 펍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대한건설 인력 송출 건이 나의 장모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입사한 뒤 6개월 내에 성사되었으니 나의 업무 실적도 가히 높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 어디를 가던 자긍심을 안고 떳떳이 살려는 것, 이는 나의 최저의 자존심이었다.

마침 장모가 잘 아는 한국의 지방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IT관련 석사연구생을 모집하는데 일정 정도 등록금을 면제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IT기술, 나는 자신의 지식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 인문학 전공자로

서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정복하고 싶어졌다. 새로운 땅, 고국이라 이름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고 싶었다.

나중에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함은 나의 숙명인줄로 안다. 결국 내가 잘해낼 수 있는 것이 인문학 연구일 것인데, 다만 나 자신이 인생에 단 한 번 뿐인 젊음에 더 많이 경험하고자 회귀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3월, 나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홍콩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2003년 첫 여름방학이 되었다. 나는 곧 출산할 아내를 보러 심양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때 내가 알고 있던 코리아월드로부터 “중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으니 광주, 심천 등지로 출장 통역으로 같이 갈 수 없냐?”고 물어왔다. 가만히 따져보니 10여 일간의 통역일정을 완료하면 아내의 해산 예정일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2003년 8월 7일, 나와 한국 업체의 무역담당은 비행기로 광주에 도착하였다. 8월의 광주는 그야말로 도가니 속처럼 폭폭 찌는 날씨였다. 광주에서는 기존 거래하던 인라인스케이트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인터넷에서 새로 찾은 업체들을 두루 돌아보는 것이 임무였다. 인라인스케이트는 2003년 한국의 히트상품으로 부상하였던 제품. 이튿날, 우리는 광주에서 일정을 끝내고 대만 업체가 많이 진출해있는 동관을 거쳐 심천에 도착하였다.

심천에서의 일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되어 9일 오후에는 할 일이 없었다. 호텔에 박혀있자니 갑갑해졌다.

“홍콩이 가까운데 홍콩에나 가볼까요?”

한국담당자가 물어왔다.

“전 홍콩비자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걱정이 앞섰다. 마침 우리가 숙박하는 호텔 1층에는 한국부가 있어 곧 그곳에 문의했다. 한국인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나의 경우일지라도 한국비자가 있으니 문제가 없단다. 아무렴, 그들은 실무자들인데. 그들의 대답이 너무 확정적이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홍콩여행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천에서 홍콩으로 건너가는 세관은 모두 두 곳, 나호(羅湖)세관은 새벽 한시면 문을 닫고 사두각(沙頭角)세관은 24시간 개방한다. 우리는 우선 가까운 나호 세관으로 홍콩에 건너가서 놀다가 시간이 늦으면 사두각 세관으로 돌아오기로 계획을 짰다.

오후 4시경,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심천역에 가서 나호 세관에 들어섰다. 수속하러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우리는 한참 줄을 서서야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중국세관 직원은 나의 비자를 보더니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냥 홍콩에 놀러 갔다가 올거라.’고 했더니 그 세관직원은 상사에게 보고한 뒤 꼭 도장을 찍어줬다.

중국세관에서 출국수속을 밟은 뒤 곧 맞은 편에 있는 홍콩세관에 가서 입국 수속을 해야 했다. 그런데 홍콩세관에서 문제가 생겼다. 홍콩세관 직원은 나의 비자를 보더니 나의 이 비자는 반드시 홍콩을 경유

하여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머리가 아찔했다. 모든 짐을 호텔에 두었고 나는 반드시 심양에 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홍콩으로 가지 않겠다. 날 중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그것은 불가능이었다. 지금에 와서 빼도 박도 못할 지경. 남한테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빌붙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민으로 홍콩은 당연히 중국 땅이니 별도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홍콩에 돈 풀러 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제발 한번만 봐 달라. 죽어도 이 길로 한국으로 못 간다. 한국 가는 비행기 표도 없다.’ 손이야 발이야 빌고 한동안 사정해서야 홍콩세관직원은 홍콩에서 7일간 체류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었다. 아마 지금 말하는 즉석 비자인 듯. 그러면서 하는 그가 말이 ‘당신은 홍콩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단다.

홍콩세관을 통과하여 우리는 전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갈지 고민 고민하다가 빅토리아만으로 가기로 했다. 부근의 지하철에서 내려 현지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그들은 표준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이 구사하는 홍콩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동행한 한국인이 영어로 물었더니 그제야 소통이 되었다. 100년 영국식민지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중국 땅 홍콩에서 우습게도 한국인이 통역과 길라잡이가 되어 나를 인도했다.

우리는 빅토리아만에서 유람선을 탔다. 산 위에 우뚝 솟은 건물들이 안겨온다. 불빛이 명멸하는 도시, 그 불빛이 물에 비껴 아롱거린다. 홍

쿵의 야경은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아름다웠다. 유람선은 거의 한두 시간을 돌더니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젠 어디로 갈까요?”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난 길이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나중에 ‘홍등구’에 가보기로 했다. 홍콩의 ‘홍등구’의 풍경은 과연 어떨는지?

택시에 앉아 영어로 갈 곳을 말하니 택시기사는 홍콩엔 그런 곳이 없다고 한다. 기사가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언어 소통이 잘 안됐던지 택시가 멈춰선 곳은 ‘마사지’ 가게들이 많이 들어선 곳이었다. 그곳들이 붉은 색상으로 도배되었으니 ‘홍등구’라 말해도 무방할 듯, 우리는 조금 돌아보다가 몇 적어져서 곧 심천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때는 12시경, 우리는 전철로 입국하였던 나호 세관으로 갔다.

밤이 늦었는지라 사람이 적었다. 마침 나에게 홍콩비자를 내준 그 홍콩세관 직원이 나를 보더니 나를 불러 ‘다시는 이런 식으로 홍콩에 오지 마라. 당신은 홍콩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말을 반복했다.

내가 먼저 홍콩세관을 통관했고 그 다음은 한국 담당 순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단수비자로 중국에 온 그는 이미 홍콩 출국 수속을 밟았기에 그 비자로 중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없단다. 알고 보니 복수비지만 홍콩 왕복이 가능했던 것. 특별구 홍콩은 엄연한 의미에서 말하면 중국 땅이 아니었던 것이다. 방법은 단 하나, 홍콩으로 돌아가 이튿날 아침에 홍콩주재 중국사무소에 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단다.

이미 통관한 나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 담당은 그 길로 홍콩으로 돌아가 호텔에 투숙하고 이튿날 오전에 중국비자를 신청하여 오후에 심

천으로 건너왔다. 그의 영어 실력이 뛰어났기에 홍콩에서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았다.

특별구 홍콩 여행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 일을 다 끝내고 나는 심양으로 돌아왔다. 그 해 9월, 예쁜 딸애가 태어났다.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새 서른 고개를 훌쩍 넘겼다. 이젠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무모하게 도전하던 과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이젠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맞이한다.

2006년, 나는 고려대 고전문학 시가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현실적인 삶과 현실로 통하는 길을 가더라도 낭만을 향한 꿈만은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전시가전공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문학연구의 길로 가련다. 한동안 버려진 펜은 무더졌고 창작의 열망은 젊음과 함께 사라졌다. 우리 조선어와 다른 한국어 문법 역시 적응하기 힘든 상대다. 노력, 끊임없는 노력만이 유일한 답안이다. 공부를 하는 동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한중사전》에 대한 수정 작업도 병행하였다. 금년 6월, 2년간 작업한 《한중사전》 개정판을 인쇄에 넘겼다.

문학번역가에도 도전했다. 2007년에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가 과정 1기’를 수료했고 현재 2008년 2기를 다니고 있는 중이다. 나는 2007년

중국어권 1학기 우수학생으로 선출되었고, 2008년 현재 중국 아니, 아시아 최고의 출판사인 상무인 서관에서 출판할 책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무려 3개월이 걸리는 상무인서관의 총 3차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번역원고에 문제가 없으면 곧 출판 계약이 체결된다. 이 책이 출판되면 한국의 번역서가 중국 최고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새로운 기록이 탄생된다.

길은 열려있다. 나는 그 길로 힘차게 걸어 나갈 것이다.

*한국 회사의 명칭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호주 이민의 삶

가작 | 양상수

기러기가 중동을 떠나다

주 사우디 호주 대사관에서 1989년 3월 이민 비자를 받았다. 7월 27일까지 기술독립이민으로 입국하라는 조건이다. 아직까지 사우디 정부와 계약기간이 여전히 4개월 남짓 남았으므로 바쁘게 고국 서울에 돌아가 호주로 향하는 일정을 짜야 했다. 아직도 4개월이나 남아 마치 4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덥고 삭막한 사막의 생활을 살아온 지가 10년 가까이 흘러 왔는데 막상 중동생활을 청산하고 떠나려니 아쉬움이 앞선다. 이 병원은 수십 개국 나라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 한국 간호원들이 제일 많았고 그 이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간호원, 의사 합쳐서 천 명 정도의 의료진이 있는 2천동이나 되는 큰 종합 병원이었다.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은 maintenance 기술 인원 하청업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되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바쁜 나날이 되었다. 각 부서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였다. 병원 원장이 송별식도 특별히 마련해 주시고 기술팀 및 한국 의료팀들도 내가 그곳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이임식을 마련해 주었다. 이별의 잔을 나누다 보니 먼저 아쉬움이 앞선다. 각국의 다른 문화 및 습관, 음식문화를 보고 익히고 같이 근무하면서 민족은 틀리지만 마음은 똑같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 한국으로 향하여 보름동안 가산정리를 하고 호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과 아내가 아프다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한편 중동을 떠나게 되서 아쉬움과 시원섭섭함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한 많은 사막, 이곳에서 외로운 기러기는 영원히 떠난다고 동료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저녁 해질 무렵에 짐꾸러미를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어머님과 이별

한국에 1년여 만에 돌아와 가족, 아내, 어머니와 상봉하니 무척 즐겁다. 아내를 보니 즐거운 마음이 한순간 사라진다. 아내의 희멀건 눈동자와 과대망상의 헛소리, 그리고 잠 못 자는 우울증 증상이 심한 상태다. 며칠사이 남편이 있어서 좀 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을 먹어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사우디에서 이미 편지로 이민에 대한 준비사항을 미리 알려 주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계약은 이미 되어 있었다. 아내는 아픈 상태이므로 아이들 학교 문제는 나 혼

자 직접 방문하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아울러 학교 성적 증명서를 만들었다. 딸과 아들은 같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다녔는데 품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민 간다고 선생님들께서는 못내 아쉬워 하셨다. 아내와 같이 학교에 못 간 것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못내 서운했다.

집은 최소로 줄여서 컨테이너 운송업체를 통하여 호주로 보내고 집을 팔은 잔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호주 은행으로 송금했다. 아내가 병이 심한 상태라 이제 이민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귀로에 가슴을 조였다. 주어진 비자의 유효 기간으로 가지 아니 할 수도 없고, 어머님과 아픈 며느리 걱정, 아들 이민 후 어머님 자신의 거처 걱정으로 한숨만 쉬고 계신다. 어머님과 아픈 아내에게 말은 못하고 병어리 냉기슴만 태웠다. 차마 나는 말을 못하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민을 안간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 골똥히 해보았지만 도저히 궁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민가서 치료하자고 마음을 정하고 이삿짐을 쌌다. 어머님에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어려운 준비를 일부러 서둘렀다.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어 창가의 밤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만든 낸 운명의 탓으로 돌렸다.

이민 준비를 정한 기간 내에 바쁘게 하다보니 어느새 입국해야 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먼 곳에 사는 친척들한테는 내려가서 인사도 못했다.

어머님 슬하에 4남 2녀, 나는 다섯 번째 아들로써 서울에만 두 누나가 있고 모두 부산에 살고 있다. 전화로만 인사하고 가까운 서울 누나를 불러 어머니와 온가족이 함께 최후의 송별 저녁 식사를 하였다.

동네 이웃 사람들, 아들, 딸 친구들, 친지들한테 방문 인사를 하였다니, 이웃들은 우리가 호주로 간다는 것이 부러운 눈치였다. “이민해서 아내 병 잘 나수고, 자주 소식 전하며 잘살라”는 부탁이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호주 오시면 꼭 들려주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떠나왔다.

그 이튿날 싱가포르를 거쳐 1박을 하고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 표가 예약되었다. 아이들은 오랜 친구들이 이곳에 있어 호주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할머니와 이별하려니 마음이 아픈 듯 했다. 어머니께서 손녀, 손자를 어릴 때부터 계속 돌보아 왔기에 어머님과 나와 이별도 이별이거니와 할머니와 손자들의 이별이 더 가슴 아프다. 아내는 내가 이끄는 대로 그저 묵묵히 따랐다. 너마져 떠나면 나는 어찌사냐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신다. 떠나는 나는 말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부산에 가시더라도 의지 할 곳이 없다. 그렇다고 이민비자에 부모는 포함시켜 주지 않으니 같이 갈수도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 현재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따로 방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돈을 어머니께 챙겨 드리고 누나한테 상의하여 어머니 계실 방을 구하라고 누나한테 부탁 하였다. 생활비는 예전 중동에서 벌은 돈으로 사두었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어머니 생활비를 충당토록 하고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기로 예약을 했다. 누님과 어머니가 공항에 나오시겠다는 것을 전송을 뿌리치고 싱가포르를 거쳐 시드니로 향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어머니를 남기고 떠나가는 일이다. 그 이후 10년 동안 이민생활의 바쁜 핑계로 떠난 고국 한번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작은

형님의 딸 조카 시집 갈 때 한번 들려 왔으니 그 사이의 사연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머니께서는 그 후 호주를 방문하여 머물다 가셨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야간학교를 다니며 노력하는 아들이 너무나 측은하셨던지 지금도 그때에 이민 와서 살아온 이야기를 가끔 하시며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혼자서 건강하게 오셨다 가시곤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98세로 연로하시어 올 수는 없지만,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 느껴진다. 학자이신 집안에서 난 어머니께서 재산이란 논 두마지기 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께 시집오셔서 갖은 고생하시며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하여 개나리뭇짐 들고 도시로 향한 용감하신 어머니, 당신이 아니었던들 불효자인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는지?

민들레꽃처럼 소박하고 느긋한 어머니는 돈 한 푼만 생겨도 동네 어르신들을 불러 모으셨었다. “나 죽은 뒤에 돈 다 소용없다. 살아 있을 때 나누어야 즐거운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지금까지도 집안 어르신, 자식, 손자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집안의 역사를 읊으시는 충기를 지니신 분. 요즘엔 전화하면 “내 몸 걱정 말고 너희나 건강해라. 나는 와 안 죽노? 몇 년 전 큰 아들, 작은 아들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죄인이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들 걱정해라” 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아 설움에 눈시울이 뜨겁다. 어머님 부디 양로원에서 건강하시웁고 먼 길이지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로 향한 이민

떠날 때 더운 여름이라 한국은 무더웠지만 중간 기착지인 싱가포르도 무더웠다. 이민을 향해 바쁘게 서울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1박2일, 모처럼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이다. 지나온 나날들의 헤어짐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행하게 됨을 다시 한 번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공항 가까운 곳에 호텔을 얻어 짐을 맡기고 활기찬 마음으로 일가족 4명은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바닷가도 거닐며 레스토랑도 들렀다. 아이들도 모처럼 나온 외국이라 호기심에 찬 눈동자로 두리번거렸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만화도 보고, 아니면 공부에 열중하든지 했을 것인데 오랜만에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재미있게 가족들과 갖는 모처럼의 추억 있는 하루가 되었다. 호주로 가기 위해 저녁 늦게 출국을 서두르는데 이제 제2의 고향이 될 호주로 비행기 트랩을 밟고 오대양의 호주땅을 향하니 한편 좋기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 떠오르기도 했다.

손에 들은 가방을 기내 위에 올리고 나란히 한 줄에 자동적으로 남편, 아내, 딸, 아들 순서로 앉았다. 아내가 우울증기가 약간 있지만 잘 자고 있다. 한시를 놓고 이제 호주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까 계획을 어렵잡아 보기도 하고 어디에서 살까 시드니 아니면 캔버라.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벌써 내 나이 45세, 얼마나 중동생활에 지쳤길래 가족과 함께 있는 가정의 그리움, 어린 아들 딸의 교육문제가 중했길래 이러한 이민 생활을 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자괴감과 비

애감이 접어들기도 했다. 이민의 목적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아들 딸 교육시키는 농사, 이것이 나의 최고 농사꺼리라 생각한다.

어느새 시드니 새벽에 도착. 아무도 마중하는 이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했다. 초창기 직장 동기 집 세븐 힐에 숙소를 정하고 캔버라에 있는 외사촌 누이 집에 머물면서 직장을 찾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2주일동안 숙식을 하였다. 매형에게 인사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 직장 문제도 상의 할겸, 조카들도 우리 아들·딸과 비슷한 나이로 잘 어울렸다. 조카들은 한글을 모른다. 매형은 40년 전에 이곳에 왔는데 호주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글이 필요 없었는지 우리 식구들이 한글을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글로 가르쳐 주었더니 재미있게 배운다. 그 와중에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 한번은 어디 갔다 집에 아무도 없길래 조카 줄리아 한테 너의 어머니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삼촌 주으러 갔다(Pick up)’고 한다. 무슨 말인가 의아하여 물었더니 영어로 pick up이라고 한다. 그때야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를 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있어 당장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다. 아이들이 잘 어울려 교육환경도 좋고 새로운 도시라서인지 조용하고 농촌에 온 기분 같았다. 그러나 내 처지엔 이민 온 사람이 조용하게 이런 곳에서 한가하게 보낼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으나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시드니에서 정착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한 대사서 아내와 의논하여 외사촌이 있는 가까운 시드니로 향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이민 영어학교에 한 달간 캔버라에서 다니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에 두고 나와 아

내는 붓짐을 싸고 시드니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운전면허도 호주 면허로 바꾸고 호주의 생활상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 한 달 후 시드니에 도착하여 셋집을 얻고 직장을 찾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정보를 얻었다. 날씨도 캔버라보다 시드니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많아 어딘가 훈기가 감도는 환경이기도 했다. 세계의 3대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시드니라는 말을 초등학교 지리시간에 널리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이곳저곳 둘러볼 시간과 여유도 없다. 집을 얻고 한 달이 다 되어서 아이들을 시드니로 데려와야 한다는 강박감에 바쁜 하루하루였다.

캔버라에 있는 외사촌 누나, 매형한테 작별을 하고 시드니 10월의 봄에 Pagewood에 정착 하게 되었다. 같은 Unit 옆집에 영빈이네 식구, 한국 사람이 살았는데 온지가 1년이 되어 내가 온 몇 개월 후 호주는 인구가 적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훌쩍 가버렸다. 만나서 정들자 이별이다. 모처럼 고국 사람과의 이곳에서의 처음 인연이었는데 아쉬운 작별만 남기고 떠났다. 호주가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어떤 생활이 더 낫은 것인지? 물질인지, 행복인지... 2개가 모두 충족되면 더 낫겠지만 행복하게 산다는데 의미를 두어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바로 잡았다.

사랑하는 아들, 딸 푸른 소나무처럼 커다오

딸 현지, 아들 대열이를 이민 영어 학교로 입학시켰다. 막바로 중학

교 1학년, 2학년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6개월 교육을 받고 Parramatta 지역으로 옮겼다. 우리 집도 옆집에 영빈이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 간 후 Lidcombe 쪽으로 집을 사서 우리 식구도 거처를 옮겼다. 정부에서 모처럼 첫 집을 샀다고 만 불을 지원해 주었다. 나는 혹시 다른데 보낼 돈을 우리 집으로 잘못 왔나 싶어 눈을 의심했다. 정부에서 보내온 편지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받는 사람이 내 이름이다. 그래서 매형에게 물었더니 처음 집사는 사람은 이사집 경비로 준다고 한다. 복지시설이 잘 된 나라이구나 하고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놀랐다. 길을 물으면 버스를 정차하고 길을 안내 해주는 버스 운전수들, 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엇을 도와줄 것이 없느냐며 자기 차에서 내려 차를 밀어주는 사람들 등등... 사람들이 순박하고 너무나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감사함에 세금을 거짓말하지 않고 신고를 꼬박 꼬박 잘하고 있다. 또한 길을 가다가도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차에서 내려 돕는다. 이곳은 시내와 위성도시 파라마타 중간이고 기차길의 삼각지라서 교통이 좋았다. 한인 성당도 가까이 있어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좋으리라 판단되었다. 초원의 넓은 운동장이 옆에 있고 수영장, 정구장, 슈퍼마켓, 철도, 버스 정거장도 가까이 있어 우리 생활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아이들의 덕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딸은 인성교육에서 덕성은 제대로 되었으되 개성이 부족한 것 같고 아들은 교양이 부족한 면이 보여, 아내가 잘 보살피고는 있지만 그러한 면을 면밀히 관찰하고 아이들과 서로 대화하여 고치기도 한다. 부모로써 모범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서 책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도록 독촉을 하기도 한다. 잔디를

깎을 때는 각자에게 분배하여 아들은 깎고 나는 갈꾸리로 끌고 딸은 잔디를 쓰레기통에 담고 그리고 아내는 잡풀을 뽑았다.

딸과 아들은 같은 학교 파라마타에 있는 필립고등학교에 다녀서 학교를 방문 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성적 및 행동 발달 사항 등을 대개 알려준다. 아들은 교양이 부족한 듯하지만 공부는 자기학교에서 120명 중 일등이란다. 딸은 중간보다는 좋은 편이고 품성은 좋다고 한다. 아들은 특이한 보험 통계전문(Actuary)과에 입학하였고 딸은 간호과에 입학하였다. 그래서 딸한테 너는 나이팅게일이 되려고 하느냐 농담 섞인 진담도 하였다. 방학 동안에 아들한테 두 달간 아버지가 하는 건설 일을 시켰다. 부모의 하는 일과 삶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배관작업이었는데 마루 밑도 기어 들어가도록 하고, 옆드려 용접도 하고, 천장 밑도 올라가 설비 배관 및 용접하는데 도왔다. 외국인 공사도 하고 교포 한국인 공사도 하였다. 일이 어렵다는 것과 밤늦게까지 하니 고되다는 것과 공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공기개념도 알렸다.

한 번은 아들이 대학 2학년 시절 다른 과에 전과하겠다고 저녁 식사 후에 느닷없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불러 앉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반 같은 과 학생이 20명이 맨 처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11명만 남았다, 그래서 공부도 어렵고 다른 과로 전과하겠다고 한다. 나는 확고한 다짐을 받기 위해 물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 네가 좋아해서 갔느냐? 아버지가 현재 네가 다니는 그 과에 가라고 했느냐?

아들의 대답이 자기가 좋아서 입학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는 초지일관 처음의 생각으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인 나는 공과

대학 쪽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공과 쪽으로 나왔으니 기술 쪽이 직업 찾기도 쉽고 호주는 기술 천국이며 기술이 대접받는 사회라 하지 않느냐, 너는 창의력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공과는 싫고 굳이 다른 과로 전과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나도 단단히 확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 그렇다면 너는 학교를 그만두고 내 비즈니스 하는 건설을 하라고 다그쳤다. 그랬더니 아들의 말이 나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건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를 아예 그만두라고 다그쳤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시 처음 다녔던 자기가 선택한 과로 되돌아 유급 없이 무사히 보험통계전문과(Actuary)를 좋은 학점으로 그곳을 졸업하고 지금은 좋은 직장과 연봉도 꽤 높게 받고 있다. 한국인의 소나무 정신과 대나무 같은 기상을 가짐에 조상과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때에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나. 물론 전과해서 더 잘될 수도 못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30대 젊은이로 호주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 잘 되었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고달픈 삶

사우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아롱거리고 오대양 남쪽 호주를 향한 것이 엇그제 같이 머리에 맴도는데 지상낙원이라는 나라에 왔다는 생각이 어느새 떠나고 매일 매일 삶의 준비와

도전의 시간이었다. 기술영어 코스 3개월, 직장구하기, 여전히 남은 백호주의 텃세. 영어권 나라에서는 고국에서의 학력과 경력도 별 소용이 없어, 다시 기술학교(TAFE)에 다녀야 했다.

그러는 동안 동시에 직장도 얻게 되었는데 학교는 밤에 다니며 바쁜 이민 생활을 했다. 4년이 지난 후 늦깎이로 50대에 본래의 직업인 건설계통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나마 고용인에서 고용주가 된 희망찬 마음으로 주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치중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다친 몸으로도 재미 같이 일했다. 생계유지와 바쁜 일과 업무에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1993년도 처음으로 집수리 공사를 하였다. 시드니에 사는 외사촌 누나 매형의 집이었는데, 내가 건설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원가로 계약을 했다. 그러나 매형은 지방서에 기재된 그 이상의 기구를 원했고 정문 앞에 유럽식 테코레이션을 옛날과 똑같이 원했다. 70년 된 오래된 집이라 테코레이션 아치를 구하지 못하여 특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양과 맞지 않는 부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더니 법원에 거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내용은 모든 것이 사양대로 안 되었다고 그때부터 얼티기를 잡았다. 나는 이민 온 후 처음 공사 작품이므로 정성을 다 쏟아 돈이 들어가더라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막무가내다. 사양대로 안 되므로 배상금액을 계약금액 만치 청구하였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처음 법원에 가는 일이라 내심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못다 한 일들을 빨리 서둘러 완공을 하기 위해 자재를 사러가다 차에 치여 몇 바퀴 튕굴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 팔과 어깨 부분,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다. 교통사고가 불행 중 다행

이라 조상님께, 하느님께 감사하게 생각했다. 아팠지만 겨우 걸을 수 있어 그 다음날로 아픔을 무릎 쓰고 직접 일은 못하였지만 인부들한테 일을 시켰다. 그때 85살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이곳에 잠시 동안 한국에서 오셔서 중재까지 해주셨다. 어머님의 조카 되는 분께 “법원까지 갈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시면서 법원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으나 매형은 코방귀도 안 끼었다. 어머님께서도 공사 마무리 및 청소를 돕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셔서 병만 얻어 한국으로 귀국하셨다. 법원의 판결은 공사계약자가 일을 더 했으니 돈을 더 지불하라는 판결로 끝났다. 친척들과의 공사거래에서 어머님의 마음고생에 가슴이 아팠고, 이민 후 첫 건설공사에서 나는 큰 경험을 얻는 단련의 장으로 여겼다.

그러나 일요일은 온 식구가 플레밍톤 시장에 들러 일주일 분의 부식을 준비했다. 저녁에는 상점마다 문을 닫아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식구가 많은 집은 대개 냉장고가 2개나 되었으나 우리 집은 1개였다.

플레밍톤 시장 보기

플레밍톤 시장은 주말에만 청과물과 수산물을 파는, 말하자면 시드니 농수산물 센터이다. 이곳을 자주 찾는 것은 싸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청과, 수산물을 한 곳에 살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민족 문화권이 한데 어울려있는 왓자지껄한 시장판의 이민자들의 활기찬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바쁜 와중에도 빼놓지 않고 이곳을 찾게 된다. 돛데기 시장 같아 서민층에 어울리는 것이,

쇼핑과 함께 낭만도 느낄 수 있다하면 어폐일까.

이곳 생활이 주급 생활이다 보니 보통 일주일 분의 부식을 한꺼번에 사게 된다. 현재는 아들딸들이 다 출가하여 두 식구인데도 몇 해 전 네 식구일 때나 장을 보는 양은 똑같다. 오히려 현재 더 많은 양을 사게 된다. 회사 사무실 직원이 늘다 보니 자연히 사는 양이 느는가 보다. 어쨌든 아내를 돕기 위할 겸 쇼핑도 즐길 겸 뽕 먹고 알 먹기로 주말 장을 간다.

주말에 열리는 시드니 플래밍턴 시장은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짹 짹 차서 돛대기 시장 같았는데 요즘은 텅빈 것 같다. 여느 때와 같이 야채 가게를 거쳐 과일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 가게를 거치곤 한다.

시드니의 봄인 9, 10, 11월엔 딸기, 체리가 많이 나고 여름인 12, 1, 2월엔 수박, 망고, 멜론, 리치, 바나나, 아보카도, 파파야, 파인애플, 복숭아와 자두(채소류로는 오이와 풋고추가 제철이다)등 다양한 과일이 나와 과일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가을(3, 4, 5월)에는 사과, 밤, 감, 배를 맛 볼 수 있고, 겨울(6, 7, 8월)에는 만다린, 오렌지 등이 주종을 이룬다. 요즘은 대부분 사철 과일과 채소를 살 수 있지만, 역시 제철 과일에 비해 영양적인 면이나 가격적으로 우수하지 않다.

하루는 멀찌감치 지나는데 6살쯤 된 어린아이가 ‘9달러 9달러’ 하고 있는 목소리를 다하여 외치면서 오렌지를 팔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얼마짜리인데 ‘9달러’로 파는가! 다른 데는 15달러, 12달러인데 조그마한 아이가 왜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파는가? 싸기도 하고, 그 어린애가 파는 그 외침이 하도 켑켑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무조건 굴 한 박스를 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농촌 Golburn 근처에서 이른 아침 3시 30

분에 출발하여 온다고 한다. 자기 아버지는 옆 저쪽에서 팔고 있었다. 아이가 소리치고 있는 동안에 시선이 집중되어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모여들어 많이들 사고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몇 군데라도 값을 물어보고 사는데, 군중 심리인지 그 아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끌렸는지 후딱 사버렸다. 아내는 다른 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근처 다른데서 굴 1 박스를 12 달러에 사 들고 왔다. 한 박스만 살 것을 두 박스를 사게 돼버린 것이다. 아내는 자기한테 의논도 안하고 왜 샀느냐고 궁시렁 댔다. 나는 오히려 싸게 살 것을 비싸게 샀다고 투덜댔다. 하기야 내가 아내와 의논도 안하고 무턱대고 산 것은 값을 떠나 잘못은 잘못이다. 비싼 것은 그만한 값을 할 테니깐. 바쁘다 보니 시비할 겨를도 없이 과일 박스를 어깨에 메고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향해 유유히 갔다. 무거웠지만 또 좋아하는 오징어 생선 가게도 못 들렀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저 어린아이가 아버지 따라 일찍 그 먼 곳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새벽잠도 설치고 온 효심에 안쓰럽고 대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동인지 모르겠다.

나무에 새싹이 움트는 듯한 어린 아이를 보면 봄비에 생기 오르듯 활기차고 생생한 모습이 이민생활에 새삼 살아가는 삶의 감동을 느끼게 한다.

업무 이야기

어느덧, 벌써 이민 20년의 세월이 강물같이 흘렀다. 어떤 때는 열심

히 노력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못 받아 트럭 문고리를 붙잡고 수백 미터를 끌려간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 때론 소비자는 계약에도 없는 데, 일을 서비스로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값을 내놓고 제일 좋은 물품들을 요구하는 사람, 돈을 주지 않는 사람, 대수롭지 않은 일에 흠집을 잡으며 돈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러다 못해 법정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등등...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민해서 이렇게까지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안 할 수는 없는가, 때로는 참담한 마음과 비정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공정거래 재판소도 몇 번 들락거렸는데 들릴 때 마다 소가 도살장을 들어가는 기분이다. 그러나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재판은 공정하였다.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총 40년의 직장 및 비즈니스, 인생의 삶을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 익혀들어 알지만 실제로 부딪쳐 보면 고되고 어려운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까지 잘 버티어 왔다. 이민이 도전의 시작일진데, 삶을 헤쳐 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하루대로 충실한 삶을 살고 내일은 앞으로의 희망찬 나날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았기에 이렇듯 잘 견디어 올 수 있었다.

2000년대는 바쁜 와중에도 호주한인건설협회 단체장을 8년 하느라 무척 바쁜 나날이었다. 기술 무자격자, 한국에서 갓 온 사람들 취직, 라이선스 취득, 한인 건설인들의 위상을 호주에 알리는 일, 회원들의 친목 및 체육대회, 회원 확장, 공사 정보 등의 많은 업무가 회장의 일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워킹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이민을 돕는 일, 비자가

만기된 상태에서 이민을 돕는 일, 워킹비자가 없는 사람의 이민을 돕기 위해 법정에 갔던 일들. 한편 무면허업자의 불법 광고 및 피해사항들에 대한 조치, 불법 면허자 및 무면허 업자들이 마치 박힌 주춧돌을 뽑듯 상도익가 없는 사람들의 정화 등 반목과 질시에 가슴이 아팠다.

돌이켜보면 처음 8명의 회원에서 현재 200여개의 회사가 호주한인 건설협회에 가입하였으니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 건설개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건설공제조합도 세우고 더욱더 이곳의 많은 건설인들이 모이는 단체가 되었다. 어느 나라이든, 건설업 및 부동산의 부가가치는 다시 부연할 필요도 없지만 생면부지의 타국, 이민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설업 기술이 유리하다. 많은 기술과 경력 그리고 해외경력을 가졌음에도 이민 초기에는 위축되고 두려움이 앞서서 이곳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설업자 및 다른 직종의 기술자를 독려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손재주들을 이곳에서 인정받아 가고 있다. 물론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 및 협조의 힘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오늘의 한인 건설인들의 보람을 느끼겠는가? 교민사회 속의 호주한인건설협회, 호주사회 속의 호주한인건설협회로 발돋움되고 있다. 호주의 이민이 앞으로는 대양주 속의 그리고 세계 속의 호주한인건설협회를 꿈꾸며...

수도자의 길로 떠난 딸

이민 오자 집을 Lidcombe으로 옮긴 후 성당이 나의 집 1.5Km 내외

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성당에 식구들과 함께 빠지지 않고 나갔다. 아들·딸은 이곳에서 중등학교 2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젊은 30대 시절 나는 포항제철에 근무하고 아내는 부산에서 국민학교 교사로서 교편을 잡았다. 그때 회사 복장이 누른색이었는데 처녀들한테는 산업의 역군이라 꽤 인기가 있었고 아내도 부산시 가까이 있어서 꽤나 괜찮은 학교근무로 직장이 좋았다. 친지의 소개로 맞선을 보아 결혼해서 1년 만에 부산에서 딸을 낳았다. 그 다음해 나의 직장 따라 아내는 포항에서 근무하였는데 포항 바닷가 회사 사택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의 직장 따라 서울에서는 내곡동의 초등학교를 다녔다. 아내는 딸이나 아들을 평범한 가정교육을 시켰고 근면, 성실과 의롭게 살자라는 집의 가훈아래 덕성을 중하게 여겨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이민 온 후 일요일마다 열심히 성당에 간 것이 딸에게는 수도의 길이 된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 후 병원에 2년 근무한 후 느닷없이 수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위에 놓지 않겠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싶다며 굳이 그길로 가겠다고 결심이 서 있었다. 아내는 말렸다. 나도 말렸다.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딸조차 수도자의 길로 가면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말렸다. 둘째 날 아침을 먹지 않아 방을 노크하고 깨웠더니 아무 대답도 없다. 침대 옆 책상에 (마르코 4장 21절)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위에 놓지 않겠느냐?”를 큰

글씨로 적어 놓고는 깨우니 이불을 더 뒤집어쓰고는 묵묵부답이다. 어쩌 할 수가 없어 딸을 흔들어 깨워서 식사라도 하라고 하고는 방을 나왔다.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아 단단하게 마음자세가 섰구나 하여 아내와 의논해서 딸이 좋아하는 길로 보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부모의 마음은 아팠다. 얼마 안 있으면 시집보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특히 아내는 마음이 더 아팠다. 아내는 밥도 몇 끼 굶고 잠도 잘 자지 않았다. 아내가 안쓰럽다. 나는 아내를 달랠 욕심으로 더 좋은 자기 길로 가는데 서러워하지 말고 기쁘게 보내자고 제의를 했다. 나 역시 마음이 아팠는데, 아내의 마음은 어머니로서 더 많이 아팠으리라 생각하고 몇 일간 그대로 두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딸에게 물었다. 언제 입교하느냐? 물었더니 “이틀 있으면 간다.”고 했다. 그렇게 갑자기…라고 말하고는 나는 아무 말 없이 알았다고만 대답해주었다.

무엇 준비할 것 없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준비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틀 후 시드니 공항에서 성당에서 나온 친구, 수녀님들, 성당 사목회에서 나와 자기 친구인 아놀드, 양 엘리자벳(딸의 본래 이름) 두 사람이 이제 수녀가 되기 위해 수도자의 길로 떠난다.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놓였다. 혼자 떠나면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 생각을 해본다. 호주에서 중학교 2학년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 병원 근무 2년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수도자의 길로 영원히 떠났다. 가족 이민의 목표가 가족과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 삶의 보람된 가치를 찾으러 온 것인데 벌써 성장하여 부모의 길, 자식의 길로 가야할 때가 온 것이구나! 다가오는 숙명으로 생각했는데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 아내가 흐느껴 울었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감내 할 수가 없어 손수건으

로 흠쳐 덮었다. 아내한테 기쁘게 보내자고 어깨를 두드리고는 뒤돌아서서 흐르는 눈물을 감당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딸의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 달라고 하느님께 빌어 주자고 걸어가면서 기도 했다. 진실한 사랑은 떠나보내 주는 것이라고….

딸이 떠난 그해 1999년 1월 호주는 더운 여름 날씨였다. 한국은 추운 겨울이라고 뉴스에서 전한다. 떠난 지 6개월이 되어 딸한테 편지가 왔다.

아빠 엄마께 그리고 동생에게…

아빠, 엄마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빠와 엄마 모두 건강하시겠지요? 두 분께서 보내주신 기쁜 소식의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자매님들을 위한 편지를 보고 수녀님, 자매님 모두 기뻐했어요. 저도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존경스러워요.

엄마 편지를 받고 엄마가 다시 건강하시다는 소식에 뿔 듯이 기쁘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두 분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는 여름이라 더운데. 산이 바로 건물 뒤에 있어서 수녀원은 시내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원한 편이에요.

5월 6일은 면회 날이었는데 삼촌, 숙모, 지성, 큰어머니 네 분이 모두 오셔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큰어머니께서도 수녀원이 너무 경치도 좋고 또 자매님들도 즐거워 보인다고 좋아하셨어요. 면회를 외주셔서 고마웠구요. 맛있는 점심도 싸오셨어요.

이제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이번 99년의 반도 다 지나갔어요.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지만 어느 해보다 뜻 깊고 보람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 봉고차 사진 것 축하드려요

With love 딸 현지 올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망과 집착은 눈빛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은 욕망을 채움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내주는’ 사람으로 인간다워집니다.

맑고 아름다운 눈,

진실하고 너그러운 마음,

은근하고 끈기있는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보다 더 필요합니다.

보고 싶은 대열이에게

대열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정말 보고 싶다.

넌 아마 지금쯤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학교생활은 어때?
Timmy와 톨이는 잘있겠지? 난 여기에서 기쁘고 또 즐겁게 지내고 있

어.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기에 계신 수녀님들과 자매님들은 모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비록 집과 떨어져 있지만 또 엄마, 아빠, 너와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정착해서 같이 입회한 자매들은 친언니와 동생 삼아 지내려고 해.

이렇게 너랑 떨어져 있으니 너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너를 좀 더 잘해주고 이해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줘. 원래 너의 일에는 열심히고 확실하니 걱정 안하구, 언제나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기를 바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길 빌며 always….

아빠 엄마한테 난 비록 효도도 못했지만 못다 한 효도, 기도로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노력할게. 따뜻한 한 마디라도 더 해드릴걸 하고 후회가 된다.

대열아, 언제나 너의 생각하면 그리움으로 밀려오는구나. 네가 했던 싱거운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

항상 건강하고, 또 감기 몸살 조심해라. 그럼 이만 줄인다. 그럼 안녕!

+찬미 예수

1999. 3. 6.

누나가

편지를 받고나니 한편 마음이 가볍다. 답장도 보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네가 보내준 정성스런 편지 엄마, 아빠는 잘 읽어 보았다. 어느 해보다 뜻 깊고 보람된 한해였다니 엄마, 아빠는 기쁘기 그지없다. 그리고 그곳 훈련 수녀님들 모두 다 무사하신지? 안부 전하려무나. 어느덧 네가 떠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으니 세월은 참 폭포수와 같이 빠르구나. 계절도 바뀌어 이곳 호주는 겨울이라 어느 때보다 비바람과 태풍이 심하단다. 너의 어머니님 건강하고 너의 아버지도 강건체라 감기도 못 달라드는가 보구나. 그러나 너의 동생은 감기가 연중행사이다.

집안 걱정은 염려하지 말려무나. 이곳에는 조카 은실이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서 할머니님 오시고 큰 고모님도 오셨단다. 우리 식구도 모두 멜버른에 2박 3일 갔다 왔단다.

이곳 새 수녀님들 모두 건강 하시단다. 너의 이야기도 많이 하는가 보드라. 너의 어머니는 앞집에 젊은 한국 부부가 이사를 와서 재미있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요일이면 성당, 봉사, 그리고 레지오 활동, 풍물놀이로 하루가 바쁘게 지나고 있단다. 그러니 이곳은 걱정하지 말려무나.

그곳은 무더운 여름이라 특히 광주는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내는데 아무 탈 없는지?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몸 건강하고, 희생과 봉사로 심신을 갈고 닦는데 이상 없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나날이 되기를 빌겠다. 주님의 가호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간상 이만 줄인다. 그곳 동료 수녀님들의 건강도 아울러 빈다.

1999. 07. 26.

시드니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슬픈 모성애

이민 온 후 석 달째 되던 날 아침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 어떤 회사에 인터뷰하러 갔다 온 사이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딸과 아들에게 물어도 학교 갔다와서 인지 오히려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나한테 묻고 있다. 아프니까 바람쐬러 쇼핑이나 갔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저녁 해가 저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호주에 온지 얼마 되지 않기에 길을 못 찾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밤 9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밤 10시가 되어도, 11시, 12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Cooge에 있는 형님 집에 연락을 했다. 이리저리 아는 데는 모두 연락을 해보았으나 허탕이었다. 할 수 없이 시드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캔버라에 있는 매형 집에 전화했더니 호주 전국 및 공항에까지 신고하였다. 혹시나 한국에 되돌아 갔지나 않나 해서 처가 집에 전화 할 수는 없고 누나 집에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누나는 어리둥절해 한다. 잠도 오지 않고 기다림에 초조하다. 괜히 이민 왔나? 이민 와서 며칠 안 되어 아내를 잃는 불상사가? 처가 집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노심초사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레드펀 공원 근처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이름이 박××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인이고 이름이 같다고 경찰이 답했다. Cooge에 있는 외사촌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레드펀 경찰서를 향해 차를 몰고 아내를 데리러 갔다. 경찰서에 도착해 담당 경찰관에게 어떻게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경찰서 담당이 지역을 순찰하는데 아내가 경찰서를 묻더라고 한다.

아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이틀 동안 세수도 안하고 뺨은 손에 쥐어져 있었다. 단번에 느낌이 배가 얼마나 고팠겠나? 그리고 잠도 못자고 공원에 있었다니 불량배한테 지갑이나 떨리고 상처나 입지나 았았나? 그러나 무엇보다 아내를 찾아서 말 할 수 없이 무척 기뻐다.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하고 딸더러 도우라고 하고는 나는 점심식사를 차렸다. 아내는 배가 고팠는지 식사를 잘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내에게 물어보니, 정신이 좀 돌아와서 경찰서에 가서 집 찾는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불을 깔아 우선 아내를 재웠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신과의사가 왕립하여 진단을 하고 약처방을 하였다.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의사가 왔다. 몇 달이 지나자 아내는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몇 달이 지난 후 리드콥에 이사 온 이후 나도 직장을 가졌고 아내는 국민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TAFE학교에 다녔다. 영어 공부도 하고 주말이면 한글학교 교사도 하고 나와 함께 성당도 다니며 가사일도 잘하고 평상시와 같이 아들·딸을 잘 보살폈다. 직장을 갖기 위해 자기 소개서도 만들고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행복한 나의 집에 대한 글도 썼다.

-자기 소개서-

저는 한국에서 7년 6개월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저학년 (1, 2, 3학년)을 배정 받았으며 어린이들의 실력 향상 및 인성 발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호주에 사는 한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글 지도와 국어, 산수 교육을 맡아서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저의 가족들은 1989년 7월 22일 호주에 남

편의 기술이민(Engineer)으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딸은 대학 1학년, 아들은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는 근무하다가 지금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호주에 와서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하여 교사로서 또 다시 재도전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나 잊어버린 것은 다시 배워서 의욕을 가지고 성의껏 해보려 합니다.

‘행복한 나의 집’

(죽은 아내가 영어로 쓴 것을 한글로 번역)

나의 집은 XX Platform St, Lidcombe에 사는데 좀 낡은 집이지만 아늑하고 전철역과 버스역 그리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 좋다. 친구들, 남편의 친구, 아들의 친구가 와 있어 좋고 개와 고양이가 살고 있어 좋다. 개의 이름은 똥이인데 똥똥하다고 똥이로 이름 짓고 고양이는 멍청하고 티미하다고 티미로 이름을 지었다. 고양이 티미는 차 밑에서 자다가 차가 가는 줄 모르고 꼬리를 치어 동물 병원에 가서 꼬리를 잘랐다. 그래서 꼬리가 없는 고양이다. 어떤 사람은 이 고양이를 싫어하지만 우리 집 식구라서 나는 좋아한다.

우리 집은 천장이 높은 3.2m라서 남편은 이 공간을 좋아한다. 응접실에서 TV를 보기도 하고 집 뒤에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넓은 뜰이 있어 좋다. 그러나 새집과 좋은 부엌이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언젠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새로운 집 그리고 좋은 부엌”. 마음 깊이 약속을 그려본다.

이민 온지 십년이 되던 해 1999년 2월에 딸이 수도의 길로 간 이후

서서히 아내의 병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8월 달이 되어 호주는 겨울이 되었고 아침저녁 영상 5-6°C이다. 방학이라 아들은 집에 있었고 나는 일에 바빠서 저녁 5시에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침 10시에 본다이에 갔다 온다고 나갔다고 한다. 근래에 아팠으므로 가슴이 덜컥했다. 요즈음 혼자 출입이 없었으니까. 저녁을 해놓고 하마 율까 밤 9시까지 기다렸다. 외사촌 형님 집, 친구 집, 자주 가는 외국인 친구 집을 모두 수소문 했으나 허탕이었다. 밤 10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행여나 율까 싶어 정문 앞 불을 켜놓고 아들과 함께 밤새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직장도 못가고 그 다음날 기다렸다. 아침 10시 큐라롱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오라고 신발과 핸드백을 찾았다고. 그래서 찾았다는 희망의 말에 나와 외사촌 형님과 함께 급히 경찰서로 향했더니 경찰 담당이 비보를 전했다. 바닷가 와래인 비치에서 파도에 쓸려있는 시체를 동네 사람이 신고 했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시체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한다. 형님과 나는 시체에 덮인 보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죽음을 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듯이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쳐 울었다. 형님도 같이 울었다. 경찰이 보를 덮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는 말도 잊은채... 잘 살아 보겠다고 한 이민이였는데, 이제 옛날보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아들은 대학교 졸업반이고 딸은 수녀의 삶을 택했지만 어려운 삶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죽다니, 인생의 허무한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서 3일장으로 8월 29일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레지오장으로 많은 4백 명의 조문객이 왔다. 한국에서 처갓집 식구들, 처제와 처

남도 왔다. 감사의 글을 교포신문에도 올리고 성당에서 일일이 만나는 대로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딸은 교육기간 중 임시휴가를 5일 받고 준비가 늦어 한국을 출발하여 이곳에 늦게 도착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방에서 딸과 함께 많이 울었다. 딸이 떠나감으로 병이 악화되어 이렇게 죽음이 되었다고 부모로서 말 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렸다. 이곳 동네 사람들도 호주 사람들이지만 마음 아프다고 위로의 말을 쏟았다. 49세로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워 보지도 못하고 운명한 것에 마음이 더 아팠다.

처갓집에서 큰처남과 작은 처제가 시체가 있었던 그곳 바닷가에 가 보자고 조른다. 그곳은 너무 멀어 가보지 못하고 그 바다가 접한 가까운 바닷가 분다이 비치로 갔다. 작은 처제가 쌓였던 말들을 토해냈다.

“형부는 언니를 맨날 고생만 시키고 중동으로 한국에서는 지방으로. 결국엔 이민 와서는 죽게까지 만들었으니 형부가 언니를 죽였다.”며 소리쳐 운다. 동생으로서 말인 줄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나도 더 가슴이 아파 하늘을 나르고 있는 바다 갈매기만 쳐다보았다.

“처제와 처남한테 할 말이 없다. 외주어서 고맙다. 너의 언니, 너의 누이가 없더라도 마음만은 변치말자”고 말했다.

그 이튿날 처제, 처남이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을 공항까지 마중 보내고 다음날 딸은 한국으로 떠나보냈다.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모두 가슴에 큰 상처만 안고 떠났다.

이별의 노래(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 가곡이 읊조려진다.

기러기 울어대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떠나간 후 12월에 가까워 딸한테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아빠께

비록 엄마는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며 뜻 깊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 되시기를 빌어요. 2000년
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은총으로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고
가족 간에는 많은 사랑과 기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빠 알죠?

제가 아빠 무지 무지 사랑하는 거!

매일 매일, 하루의 일과 속에서 아빠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1999. 12. 17.

수녀원에서 현지가

외로움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삶에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

허무해졌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 믿음과 신의로서 최선을 다해 살은 것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가.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 시련의 극복으로 더욱더 단련과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더욱더 힘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을 더욱 더 굳건히 하며 주일날 성당에 나갔다.

딸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나와 약속한 ‘좌절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자’고 외쳤던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윤동주 〈서시〉를 기억하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있으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세기가 바뀌는 새천년이 된다고 관광객이 많은 시드니는 벌써부터 요란하다. 내 마음은 아내가 간 후 쓸쓸하고 허전한 크리스마스와 세모가 되었다.

아직도 나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외사촌 형님이 가사와 비즈니스를 얼마동안 돌보아 주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아팠다. 이렇게 비애와 허탈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서도 부동의 몸과 마음이다. 빨리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채찍해 보기도 한다. 부부의 험난한 세파를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살아왔던 그 인연의 끈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 잊혀지지 않는 것을….

형님이 이집의 가사도 문제이지만 산사람도 죽고 비즈니스도 죽겠다며 빨리 재혼을 하라고 독촉이다. 성당에 다니는 한 친구가 아직도 한창인데 혼자 살아서 되겠느냐? 고 일요일 성당에 갈 때 마다 나의 일 같이 안달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자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끝나니 기회가 될 때 만나보라는 이야기 이다. 성실한 노처녀가 있다고. 또 어떤 다른 자매님이 나보고 좋은 사람 있다고 중신하겠다고 한다. 나이가 오십 중 반인데 나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느냐고 반신반의 하였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으로 그나마 몇십년이 더 남았고 당장 나와 아들 밥, 빨래, 청소, 가사가 더 바쁘다. 그렇다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사먹을 수도 없고.

그러던 중 딸한테 편지가 왔다. 엄마 없는 빈자리를 채우라는... 그리고 10월 달에 휴가를 온다고 했다.

아빠.

감사드립니다.

엄마 안 계신 빈자리가 허전하시겠지만 아빠의 강한 모습에 저도 힘이 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좋은 분 만나시면, 엄마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럼 10월에 뵈어요.

현지 드림

그래서 딸과 아들과 상의를 했다.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도 괜찮으냐고 그래서 12월에 직장에 다니는 노처녀를 선보였다. 인품이 있고 정직해 보였다. 혼자 살아서인지 쓸쓸하게도 보였다. 이만하면 가사와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새사람을 맞이하기 위하여 부엌 그리고 내부 집수리도 깨끗이 했다. 2000년 2월 말 성

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딸, 아들, 친지들, 회사 직원 동네 사람들,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이제는 지인들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고 칭찬이 자자하다. 매일 남편이 비즈니스 가는데 마다 운전하고 같이 다닌다고 동네 사람들이 샘을 낸다. 나도 마음에 힘이 솟구친다.

몇 달 후 어머님 및 친지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한국으로 향했다. 어머님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아버지 산소도 보고 친지들과 모두 인사하였다. 새아내한테 주님의 은총을 많이 달라고 기도 속에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차례로 새 아내의 친척집, 언니, 조카들 집도 방문하고 새 아내의 아버님, 어머님 묘소도 찾았다. 술 한 잔과 과일을 놓고 ‘살아서서 못 뵈었지만 사위된 이 사람보다 따님께 건강과 복 많이 주십시오.’라고 큰절을 했다. 하늘도 화창한 날씨였고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이었다. 딸이 있는 수녀 교육원도 들렀다. 슬픔의 1999년도는 가고 환희의 2000년도 새 천년, 그대로 소망의 해이기도 했다. 돌아간 아내한테도 살아서 못다 한 소원 새사람한테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

이제 새해의 생각도 기쁘게 살고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보다 실천하려고 노력해 본다.

아들의 출가

2005년도 7월 겨울 안정을 되찾아 평상시와 같이 다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예전 포항제철에 다녔던 친구 이군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번 한국에 갔을 때 만나고 처음 전화다.

“오래간만이다” “어쩐 일이나” 서로 인사와 안부를 물었다. 자기 딸이 컴퓨터 회사 호주 지점에 근무한다고 알려주었다. 포항에 있을 때 어린아이이었는데 벌써 그렇게 컸느냐고 이야기하고 하숙집 전화와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 그 이후 시간이 있는 주말에 점심 식사하자고 친구 딸한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토요일에 시간이 있다기에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아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아내가 친구의 딸이라고 특별히 맛있는 요리를 해서 솜씨를 발휘했고 온 식구들이 같이 먹었다. 모처럼 친구 딸도 해외 생활에서 혼자 하숙하였는데, 고국과 부모생각에 외로웠을 것이라 생각되어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재미있게 놀고 갔다.

그 이후 자주 우리 집에 왔는데 몇 달이 지난 후 하루는 아들이 밤중에 허겁지겁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왔다. 무슨 큰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흥두께 같은 소리를 하길래 어안이 병병했다. 그래서 결혼 상대가 누구냐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우리 집에 놀러오는 친구 딸과 결혼 하겠다고 한다. 나는 친구 딸을 고국에 있을 때 너무 잘 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볼 것도 없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9월 달 결혼식을 시키는데, 친구의 원대로 결혼식을 한국의 성당에서 행하고 호주에서 피로연을 하기로 정했다. 결혼식 때 나와 아내, 딸, 부산에 있는 친척들도 서울에 와서 모두 축하해 주었다. 모처럼 만의 친척들의 만남이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친척들이 와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아

들 결혼식 피로연에 기쁜 마음으로 다음 글을 썼다.

〈결혼 피로연〉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면 이래저래 많은 연회장의 장면을 본다. 특히 사회자의 능력과 언변에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오늘은 신랑 ○○○와 신부 ○○○가 시집가고 장가는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신랑의 친구인 듯한 사회자가 장난기어린 목소리로 멘트를 시작한다. 이어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 집안을 통일하려면 무엇이 잘 되어야 되지요?” 하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귀를 솔깃하게 한다. 그리고나서 사회자의 소개말과 신랑 신부 부모님들의 인사말로 1막이 시작된다.

식사는 보통 뷔페식으로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된다. 만약 자리가 지정 되어 있으면 정한대로 앉아 식사를 하며 옆 사람과의 인사와 답소로 시간을 가지며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회자가 재차 묻는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하는 질문에 토요일이라고 한 하객 손님이 답변했더니 틀렸다고 하며, 오늘은 새로 탄생하는 새로운 신랑 신부의 날이라고 한다. 또 오늘 새로 탄생하는 신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궁합이 일치하면 그 집안을 통일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유모 섞인 답변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 질문은 나로 하여금 옛날 우리 가족 형제들을 생각하게 한다. 조용했던 6남매 집안에 큰 형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가 상처 입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큰 형과 큰 형수의 불화가 결국 우리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불협화음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여자는 네 가지 덕의 아름다움 즉, 부덕 부용 부언 부궁 이

있어야 한다고 명심보감에서 말 했던가.

옛날 중국의 후 한말 삼국 시대에 위·촉·오를 통일한 유비, 관우, 장비의 궁합이 머리에 떠오른다. 사회자의 말이 과연 맞는 얘기 같다. 유비의 덕, 관우의 충성과 의리 그리고 장비의 용맹함이 한데 잘 어울려 어지러웠던 사회를 통합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삼국 통일은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힘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그래서 그 의미는 더 커진다.

궁합이 맞아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결혼식에서 서약한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따라서 개성이 틀리니 생각이 같을 수야 있겠느냐만, 매 순간 상대방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내 가정을 되돌아보는 이 순간 행복에 겨워진다. 그 이유는 며느리와 내 아내의 관계가 좋은데다, 딸은 이미 출타 했어 시누이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졌으니 집안 통일이 더 한층 쉬어진 때문이리라. 그리고 행복한 느낌만큼 시아버지인 내가, 아내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더더욱 사랑으로 아껴줘야 될 것이다. 나로 인하여 집안 통일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화합에 나부터 솔선수범하리라는 맹세 글을 써서 일기장에 꽂아 두었다.

딸은 하느님과 결혼하고, 아들도 이제 결혼 했으니 부모의 임무도 다 한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하다. 피로연을 마치고 돌아간 아내의 묘소에 며느리와 함께 참배하였다. “살아생전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했다”고 묘소에서 인사했다. 그리고 새아내한테 복 많이 주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은 아내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달라고 가족 모두가 주

님께 빌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건강과 행복의 은총이 충만하라고 기도했다.

보람된 삶

나에게는 설한풍이었던 1999년도 겨울을 앓고 이제 녹음이 우거진 2000년도 호주의 한여름이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내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아 모든 것을 원 위치로 자리매김하였다. 새 아내가 들어 온 후 집이 활기가 차고, 새 기운이 움튼다. 예전에는 아내가 아파 온가족이 활기찬 날이 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아들이 어머니라 잘 부르고 따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보다 아내와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을 보면 아들이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강물 같이 흘러 십년이 가까워 온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선인들이 말하지 않았든가. 아내한테 임자와 장돌뱅이라는 별명을 지어 다음과 같이 글을 써서 주었다.

〈임자와 장돌뱅이인 아내〉

나는 내 아내를 임자라고 부른다. 결혼을 늦게 한 탓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때 고어에서 사랑하는님을 임자라고 부르던 생각이 뇌리에 맴돌아 이쁘다는 뜻으로 높여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긋한 부름 같기도 해서이다.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 아내를 사랑 안 할리 없겠는가. 마는 때로는 아내의 웅고집 때문에 어딘가 좀 미워할 때도 있다. 이러한

때는 아예 장돌뱅이 임자라는 별명을 부른다. 같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꼭 마음이 같을 수야 있겠느냐 마는 때로는 바다의 돛단배가 작고 큰 파도를 넘어 등대가 있는 목적지까지 앞으로 나아가듯이 부부의 일생도 그러한 것이라...

요즘 이상스레 화를 내고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도리머리를 젓고, 이마에 꿀밤을 주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 그래도 아내는 여전히 예쁘고 조용한 임자의 모습으로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나는 우리 집 입구에 놓인 덤프트럭을 보면 귀신에게 홀린 듯 아내를 생각한다. 얼마 전 장돌뱅이인 아내가 도로 찾아온 것이다. 나에게 주는 충격은 큰 선물을 받은 것만큼이나 컸다. 도둑맞은 트럭을 찾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못 찾는 차를 아내가 찾아 줌으로써 그 충격은 실상 컸다. 어쩌면 수수께끼같은 여인임에도.

호주 이민생활에다 평생 건설업을 하다 보니 아내가 하는 일은 광범위 하다. 운전도 해주고 목적지 길을 잘 찾아 주고 삼시 세끼며 간식까지 잘 챙겨주고, 깨끗이 집안 청소도 잘 하고 출가한 아이들 또한 잘 챙겨주는 현모양처인 아내이다. 가끔씩 아내가 ‘임자, 임자’ 불러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서 몇 시간 있다 돌아 올 땐,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고 물으면 시장보고 왔다고 한다. 내가 오늘은 어디 간다고 일하는 스케줄을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말없이 혼자 갔다 왔다니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 이후로부터 내 맘에 흡족하지 못할 때는 장돌뱅이라는 별명으로 아내를 부르곤 했다. 혼자 시장을 볼 때 심술이 나서 내가 그 별명을 붙인 것이다.

저번에는 남편이 성당 교육으로 4일간 떠나는데 부부동반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핑계로 문지방에 얼굴만 힐끗 보여주고는 이내 자취를 감춰 버렸던 아내였다. 원래 아내와 같이 가기로 되어 있는 교육 일정이었는데 가기 싫어하던 아내의 고집으로 나 혼자 가게 된 것이다. 고집이 세어 때로는 애교가 특수바리 같은 아내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간이나 떨어져 살아야 하는 남편을 것처럼 소홀하게, 그렇게 묵묵하게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가슴 언저리에 매워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여인들처럼 외락 품에 안기며 휴대폰을 쏟아주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꼭 그렇게는 아니어도, 자기가 못 가는 죄를 대신해서라도 떠나는 남편의 속이 좀 풀리게 미안해하고 서운해 하는 어떤 눈치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내는 왕고집으로, 떠나는 남편이 인사도 하기 전에 몰인정하게 몸을 돌려 문을 닫아 버렸다. 그 뒤의 사연이란 남편이 돌아와 물으면 알겠지만 그럴 땐 묻지도 않았다.

지나간 일들을 들추어서 무엇 하리. 한마디로 때론 재미가 썩 적은 여자다. 그럴 바엔 차라리 서로 편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절고 들어도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않았다. 대개 남자들이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여의치 못하면 흔히 마누라의 위안과 부드러운 잠기고 싶어 한다. 하루 일에 지쳐 힘겹게 돌아오는 남편한테 살랑살랑 달려와서 옷을 받아주고 “오늘 하루 수고 하셨는지요?” 라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런 것들에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거듭 거듭 그려보던 나였다. 그런데 어찌면 아내는 내가 그리던 것과는 거리가 멀

었다.

그런데 것처럼 때로는 웅고집만 피우는 장돌뱅이로만 취급했던 아내가 숨 가쁘게 겁에 질린 듯 전화를 했다. ‘얼마 전에 집 앞에 세워두었던 잊어버린 트럭이 여기 있다’ 며 빨리 오라고 하는 전갈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한지가 2주가 넘도록 못 찾은 차를 그것도 먼 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단 마음을 진정하라고 전해주고 경찰서에 알리고 부리나케 그 곳으로 달려갔다. 도둑이 다시 다른 데로 끌고 갈 지 모르니 기다리지는 말도 오고 가고, 또 차 안을 보니 키도 꽂혀 있었다. 도둑을 잡고 싶은 마음에 올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드디어 신고 받았던 경찰이 나타나 확인 후 바로 끌고 가라는 지시를 했다. 트럭은 찾았으나 트럭에 싣고 있었던 굴착차는 찾지 못했다. 트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굴착 차는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시 샀다. 좌우간 말끔히 2주 만에 원상 복귀이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뻔 했는데 찾았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이때부터 나는 쓸 만한 장돌뱅이라고 별명을 아예 다시 붙여 버렸다.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물으면 아내는 “쇼핑하러 간다.” 라고 한다. 장돌뱅이짓 하러 가느냐고 되물으면, 아내는 빙긋이 웃는다. 싫지 않은 모양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수 십 명의 직원들을 쓰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우는 직원의 비자에 관련된 경우이다. 비자가 완료된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는 정부에 페널티를 물고 일하는 사람은 불법체류자 수용소로 압송되어 자기 본국으로 추방되기까지 한다. 호주에서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그 중 어떤 직원한테는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주었는데 비자 기간이 다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미리부터 일러두었는데, 본인의 자격미달과 영어점수를 따지 못해 조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도 안 나오고 마음을 잡지 못해 매일 같이 술만 먹고 돌아다니다 비자 만기 이틀 전에 찾아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되든 안 되는 해보자는 생각과 딱한 마음에 부랴부랴 서류를 만들어 이민성에 제출하고, 가슴조이며 소식을 기다렸는데 답이 오기를 서류 접수가 늦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통지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 직원과 그들의 가족 및 어린아이를 보아서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사유를 만리장성같이 쓰고, 구구절절 나열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편지를 급송으로 이민성으로 보냈다. 이 사람이 이민을 꼭 해야 할 이유로는 호주에서 7년 이상 일한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환경과 새 직업을 찾기가 어렵고, 그이가 없으면 공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고,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등, 그 직원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으로 이민 장관한테 선처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민성으로부터 기다려 보라는 답은 왔지만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그리고 잠시 머물 수 있는 비자도 나왔지만,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에 큰 지장이 있으니 회사로서는 일을 시키지 않고 직원만을 위해 생활비를 줄 수는 없고, 무엇보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기한도 없었으므로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 이후 법원에 소송하여 이민 수속을 다시 추진하여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민이

확정되던 날 이민이 이루어진 본인도 기쁘지만, 나와 내 아내도 기뻐 눈물을 쏟았다. 지금은 우리 회사를 떠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지만, 그래도 이웃에서 마음잡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

이곳 시드니는 주위가 모두 바닷가라서 하루의 일과를 일찍 마칠 때나 주말에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낭만을 즐기기도 하고 가끔 블루 마운틴에 기암절벽을 등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쓴 마루부라 마혼풀은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 천해의 풀장이라 글로 나타내어 보았다.

〈마루부라 마혼풀(Mahon Pool)〉

시드니 남단 마루부라 해변 북동쪽으로 500m 거슬러 올라가면 잭 베니 공원 아래쪽에 자연적인 천해의 해수욕장, 마혼풀(Mahon pool)이 마루부라 만(Maroubra Bay)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에는 더울 때 수영을 하기 위해 간 곳이었는데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함께, 친구 친척들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는다.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해수욕도 하고, 유년 시절을 연상케 하는 정겨움이 있어서 이기도 하다.

나의 유년을 여물게 한 고국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그곳은 어릴 적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 시절 꿈과 희망을 키웠던 곳,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그리운 곳이다. 넓은 해변의 모래 백사장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스럽게 좋아라 하고 한없이 뽀박질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지치면 친구들과 펄쳐 앉아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모래 우물을 파기도 하고, 모래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 중 재미나는 일은 타이어 튜브에 바람을 불어넣어 물에 뜨는 것

으로 사용하여 파도를 타는 것이었다. 파도에 따라 울렁거리기도 하고 출렁거리면서 양팔을 노 저어 깊숙한 곳 까지 신나게 간다. 굵은 실에 사과를 꿰어서 염주 묶듯이 메어 목에 걸고 배가 고플 때마다 베어 먹 으면서 겁 없이 가다 보면 큰 파도에 곤두박질쳐 물먹고 허우적거렸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어머니는 내게 큰 파도가 칠 때 바다에 가면 바다 귀신에 홀려간다고 으름장을 놓곤 하셨다. 그 후 어느 태풍 때 큰 파도를 타던 해수욕객 몇 명이 죽고 난 후 바다가 두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때 방학이나 공휴일에는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는 것이 일과였다.

이곳 시드니 마혼풀(Mahon Pool)은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삼면이 용암바위로 이루어진 자연풀장이다. 동쪽에는 바닷가의 화강암 바위 절벽과 층층으로 된 신이 빔어놓은 바위가 해변을 따라 앞쪽으로 넓게 나열돼있고 서쪽으로는 태곳적 빔어놓은 촛대바위가 풍화작용에 시달려 겹겹이 쌓아놓은 조개 모습 같다. 앞쪽으로는 용암이 흘린 바위에 거북 바윗돌을 얹고 부처님 좌상같이 파도에 버티고 앉아 있다. 부닥친 파도는 분수처럼 폼으며 쏟아 버리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면 바다에 어울려진 교향 합창 연주곡을 감상하는 기분이다. 이 넓고 오묘한 대자연의 소리를 듣노라면 바다가 어머니요 고향이었으면 소망한다. 파도와 갈매기가 어울려 너울너울 춤추며 모든 이를 손짓하는 아름다운 풀장, 앞쪽 가까운 곳에 밀려오는 도레미파술 파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피곤하고 일상에 찌든 온몸을 씻기도 하고 떠나온 고향의 향수도 언제나 낭만으로 씻어주며 풀장은 우

리를 포근히 안아준다. 한 폭의 그림으로, 파도소리, 바람 소리, 소금 냄새로 바다는 잔잔한 자장가를 불러준다. 넓고 넓은 광활한 바다, 그 중에도 출렁거리는 파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번쩍이며 비늘을 세우고 달려왔다가 되돌아오기도 한 싱싱한 푸른 비늘들의 경주. 언제나 보아도 같은 모양으로 왔다가 사라지고, 때로는 태풍이 칠 때는 노도와 같은 모양으로 왔다가 잠시 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조용한 푸른 파도. 하루 중 어떤 때는 푸른색, 검푸른 색, 남색이었다가,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올 때면 검은 회칠한 색깔로 변하고, 저녁노을에는 붉게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의 색깔로 변장 한다. 소금냄새인가 하면, 해초 냄새, 상쾌한 특유의 바다 냄새와 변화무쌍한 색깔의 파도로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해준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의 삶이 파도와 같이 마치 크고 작은 변화무쌍한 파도와 같다. 즐거웠던 유년시절, 학창시절의 어려운 아르바이트, 군대 생활과 직장 생활, 중동사막을 해매며 해외에서 살아온 10년의 삶, 호주 이민 20년의 생활...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 것인자... 결혼한 아들의 떠남, 딸이 수도자로서의 구도의 길을 떠났던 이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수평선 너머 파도를 보며 인생의 삶을 반추한다.

‘인생은 자아실현을 위한 분투·노력 과정이요, 가치창조를 위한 각고면려의 도정이자 목표달성을 위한 악전고투의 도장이다.’ 라고 누가 말하였던가.

나는 언제나 청운의 푸른 바다이기를 꿈꾼다. 지금 나이가 이순의 나이인데도 하루의 삶이 시달리고 힘이 들 때, 유달리 고국의 어머니이 그림고 아들딸들이 보고 싶고, 옛 친구가 그리울 때, 나는 오늘도 변화

무쌍한 파도를 만나러 그리고 포말되어 부서지는 천해의 아름다운 마
흔 풀장으로 향한다. 님의 떠나보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며 망망대
해를 향하여 ‘돌아오라 소렌토로’ 노래를 읊으며 다정하고 즐거웠던 그
곳을 회상하며 이곳 부서지는 파도를 부여안고 기억 속의 노래를 오늘
도 힘차게 부른다. 비가 오나 강풍이 불어 닥치더라도 변함없이 시드
니 마흔풀을 사랑하고 싶다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포레타나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그 빛난 햇빛 내 맘속에 잠시라도 떠날
때가 없도다. 향기로운 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그 귀한
언약 어이 하여 잊을까?

멀리 떠나간 벗이여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
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마루부라 마흔풀로!
(이 귀절은 이역)”

마흔풀에 갔다 왔더니 딸의 편지가 왔다. 얼마 전 파푸아 뉴기아 수
녀님이 호주를 들러 한국의 딸 있는 곳으로 간다기에 바닷가를 잠깐
구경 시켜 드리고, 딸에게 마흔풀 글을 써서 보낸 편지와 답장이다.

〈××× 수녀에게〉

이곳 수녀님의 인편이 있어 몇 자 적는다. 무르익은 봄 날씨에 아무
별고 없는지? 그곳 종애반 수녀님 모두 건강하신지? 이곳 아버지 어머
니는 건강하고, 그곳 대열이, 며느리 정주도 건강하단다. 제주도에서
광주로 기후와 날씨의 변화로 건강에는 지장이 없겠지? 몸 건강과 정

신의 건강도 튼튼하기를 바란다.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딸 ○○에게 있지만, 이곳 하루하루의 일과와 사업에 여념이 없다보니 제대로 편지, 그리고 이메일도 못 보내고 있단다. 이곳 직원들도 많이 늘다보니, 아버지는 바쁜 나날을 보낸다. 엇그제 한국나이로 65세 생일을 직원들 그리고 이곳 너의 어머니 친척들과 함께 뷔페식당에서 “축 Happy Birthday”가 있었단다. 가족 아들, 딸들은 호주를 떠나 있어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허전했음을… 식사할 때 꿈쩍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나는 산다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나 보다. 몇 일 전 성소 가족, 파푸아에서 휴가 오신 수녀님을 뵙고, 그리고 이곳 세분 수녀님들 (○○○ 원장, ○○○ 수녀님, ○○○ 수녀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루부라, 라파로스, 센트럴 파크 바닷가를 돌면서 생활의 이야기도 하고, 반나절동안 수녀님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냈단다. 김×× 수녀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식사만 하시고 바쁜 일이 있어 가고….

내가 너무 세상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여 종신 선언하는데 번뇌를 주지 않았는지? 딸 수녀님한테 못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해 바란다. 수녀님 편에 이곳 사진과 내가 쓴 수필 한편을 보내니 시간이 있을 때 보기를 바란다. 오늘 즐겁고 하루하루가 보람된 삶이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거듭 바란다. 그곳 종애반에 계신 모든 수녀님들께 영육간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빈다.

그럼 안녕, 만날 때까지.

From Mother & Father

2008. 04. 13.

To. 아버지, 어머니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아○○○ 수녀님을 통해) 사진과 비타민, 그리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글은 이곳 지도 수녀님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아버지의 삶 안의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무수한 역사가 녹아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다며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고요. 모든 수녀님들이 호주에 다녀가면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나서, 너무나 좋으시고 꿈꿈하게 챙겨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자랑스럽고 좋은 면을 많이 담고 싶은데 아직 젊어서인지 삶의 깊이가 부족해서인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자매들과 수녀님들 안에서 배워 나가며 또 기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어린이 날이라 쉽의 시간을 가졌고 전에 있던 본당 신자들이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으면서 6월에 있을 국내 도보, 성지 순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건강도 더 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수영하러 오늘도 바닷가를 찾으셨겠지요? 아버지의 고향이 바다라 그런지 저도 바다와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2학년 친구와 함께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 바닷가를 걷던 시절이고 수녀원에 가게 된 동기도 바닷가에 친구랑(옛날 칼 Carl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수영 갔다가 빠져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살려주시면 수녀원에 가겠다고 약속 후

결심하게 되었지요. 또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죽음도 바닷가 에서였고
제가 이곳 한국에 와서도 목포, 제주 바다 옆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면
바다는 저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파 아버지, 어머니와
제가 함께 바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바다의 평화에 도취
되기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
음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하루하루가 보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갈수 있는 좋은 준비기간이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곳 직원들과 식구들, 친척들, 특히 이모님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2008. 5. 5.

딸○○○ 수녀 올림

답장을 읽고 딸이 왜 수도자로 갔는지 아버지인 나도 처음 알았다.
바닷가에 친구와 수영 갔다가 빠져서 하느님께 살려 달라고, 살려주면
수도자의 길로 가겠다. 약속한 그 인연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마음, 그
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인연을 중하게 여기는 딸의
가련한 생각에 가슴이 시리어 온다. 자기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잘 가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길이 사랑하는 딸의 보람된 일이기 때
문에…. “나의 길(My way)”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가 떠오른다.

끝없는 도전

오늘도 끝없이 목표를 향하여 삶을 추구한다. 사업과 협회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이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인 동시에 나아가 교민의 발전이다. 언어 소통을 기준으로 한 신의, 성실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술의 노력이 최고의 비법이다. 비영어권에 속하는 이민자는 특히 언어 소통이 문제다. 부단한 노력 없이는 못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낙오되기가 십상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민의 땅 이곳, 다문화, 관습, 언어를 이해하며 질서를 따라야 한다. 고국 한국의 70년대 80년대 때에 독일에 파견 된 광부, 간호사, 월남의 파병으로 인한 건설인력 수출, 동남아, 중동의 건설 공사 수출, 각국 해외로 뺏어가는 한인 배달민족의 기상이 호주에도 접목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우수한 기질, 뛰어난 손재주, 이것이 나를 현재 건설인으로, 건설협회를 있게 한 1세대의 바탕이다. 이민의 땅, 기회의 땅 호주에서 앞으로 1.5세대, 2세대, 그 다음 후세 세대들에게 옛 모델에 신형 모델인 지식 (기술)을 합치면 얼마나 좋은 최신형 세계 모델이 이곳 교포 건설인에게 나올까 기대해본다.

내가 현재 경영하는 SY 회사가 20년 동안 커지면서 직원들도 이제 많이 늘고 매출액도 수백 만 불로 늘었다. 큰 프로젝트도 소화할 능력이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 회사로 발전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그나마 인정받는 회사가 된 것이다. 호주한인건설협회 단체도 처음 몇 명의 인원이 모여 시작했지만 지금은 시드니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큰 단체가 되었다. 아울러 교포 우수 건설인상도 제정했고, 건설공제 조합도

설립되어 청약금도 늘어가고 있다.

인생은 자아실현, 가치창조, 목표 달성을 위한 도장이 아니겠느냐?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인생은 연극이다.” 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하지 않았나. 누가 주연이 되
며 누가 조연이 되느냐 이다. 한편 조연도 노력에 따라 주연이 될 수
있다 라고 본다.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인생의 월계관을 쓴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의미라고 본다. 용기를 잃지 않고 목표를 세워 간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나. 이왕 이민 왔으면 이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 목표의 성공
에 최선을 다하여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함은 이민자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타국에서 보람 있게 살기 위한 끝없는 도전으로
이민생활을 장식하고자 한다.

제1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수상 소감

수상 소감

대상_김해영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신 재외동포문학공모사업 관계자 여러분께, 재외동포재단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한국 유학생생활에 등대가 되어주신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지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모님께,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님께, 그리고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준 남편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200만이 중국에서 100년을 넘게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민족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국타향에서 우리 한민족으로 곳곳이 버터내기까지는 교육이라는 비장의 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너 척박한 땅에 뿌리내리고 교육을 통하여 외래침략을 몰아내고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정통을 보유했었습니다.

저의 글은 5일간의 대학입시 채점을 계기로 새롭게 느낀 민족의 교육과 삶을 그렸습니다. 짧디 짧은 5일간이었지만 날마다 터지는 새로

운 일들 그 속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 그 충격과 감동이 주는 계시와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조선족 대학입시답안지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한자를 보고 받은 충격, 또한 아낌없는 사랑과 열기로 조선족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타민족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님들의 그 정성에서 받은 감동,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교육의 현실문제와 민족사회의 위기, 내가 받아온 지난날의 민족교육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감동은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아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희비가 엇갈린 5일간의 감회를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 여운이 저의 눈과 귀와 마음에 못 건디게 계속 뇌리 치는 바람에 속에 두고 있느니 차라리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외동포재단의 문학공모를 보고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이고 영광스러운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만큼 민족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저를 관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재외동포재단의 이 상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우수상_김인덕

모국의 가을은 그토록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가을만큼이나 풍성하고 가을만큼이나 아름다운 모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해외동포문학상을 수상하고 오매불망 바라마지 않던 모국방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민족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비록 모국의 발전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모국과 가까운 곳에서 모국의 발전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국소식에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것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국의 정세가 어지러워 밀양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손에 땀을 쥐었고 태극마크를 단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을 일굴 때 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줄곧 중국 연변에서 문화관, 방송국, 예충, 출판사 “연변음악”잡지사 등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해왔

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민족문화의 파수꾼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발전에 한몫을 했다는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150년 전, 살길을 찾아 피나리봇짐에 남부여대하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이주할 적부터 이방인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적 흐름에 동조하면서 자기의 피와 땀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백여년의 분투과정을 거쳐 대학을 비롯한 구전한 민족교육체제와 자신의 언어와 문자로 된 방송, 신문, 잡지를 끌고루 갖춘 문화민족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글, 열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왔던 찬란한 민족문화의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는 중국의 조선족이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고 앞으로 질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며 하늘높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시대에 중국의 조선족은 변방의 작은 소수민족이 아니라 바야흐로 열리는 동북아시아의 주역으로 중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은 물론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동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게도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학창작에 더욱 정진할 것이며 중국조선족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졸작을 우수상으로 뽑아주시고 영예의 전당에 내세워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해외동포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우수상_주경노

수상소감을 쓰는 이 시간 바람 한 점 없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비를 맞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태어난 곳에 뿌리를 내려 사는 모습이 부럽다는 생똥맞은 생각이 스친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사는데, 좀 더 멀리 떠나와 산다고 더 외로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칠년 전 이 시골로 이사와 목회와 닭 농장 경영을 병행하며 살았다. 어느 날부터 글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그동안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미주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문예공모전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는 행운과 체험수기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기쁘다. 이제 한 가지 더 할 일이 생긴 것이다. 기회가 되는대로 더욱 열심히 글을 쓰고 싶다.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준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리며, 아직은 배우는 미완의 글을 뽑아주어 구순이 넘은 어머니와 장모님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삼십 년을 넘게 변함없이

학부모가 되어준 아내가 항상 고맙다.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겨 좋다. 해야 할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의지와 뚝심을 주신 하나님께 수상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제 내 어깨에 글쓰기라는 짐이 하나 더 얹혀졌다. 소외계층의 삶을 쓰고 싶다. 미주교포들의 삶과 애환을 소설로 쓰고 싶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좋은 글을 쓰는 것으로 견디며 후원하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다.